

PAJU CULTURE 2010

파주문화 研究

24



파주문화원
파주향토문화연구소

文藝中興宣言

우리는 民族中興의 歴史的 轉換期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 使命을 切感한다.

한겨레의 運命을 決定 짓는 根源的 힘은 그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意力이다. 藝術이 創造力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文化가 自主性を 찾았을 때 나라는 흥한다. 新羅統一의 偉大한 業績과 世宗時代의 文化創造는 이를 證明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遺産을 開發하고 民族的 正統性を 이어 받아 오늘의 새 文化를 創造한다. 盲目的인 復古傾向을 警戒하고 分別없는 模倣行爲를 배척하며 천박한 頹廢風潮를 一掃하여 우리 藝術을 확고한 傳統 위에 꽃 피우고 우리 文化를 튼튼한 主體性에 뿌리 박게 한다.

우리는 祖國의 現實을 直視하고 榮光된 겨레의 來日을 위하여 價値意識과 史觀을 바로 잡고 表現의 自由와 文化의 自主性を 함께 누리며, 곳곳 마다 文化의 殿堂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藝術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自身の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世界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文化의 활발한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 文化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藝術家 모든 文化人들은 온 國民과 同參하는 隊列에 서서 藝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造成하고 正성을 다해 文藝中興을 이룩할 것을 宣言한다.

2010년 제24호

파주문화 研究



파주문화원
파주향토문화연구소

발 간 사



문향 파주의 얼을 자랑스럽게 이어가며 파주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대중적 연구와 향토애의 확산을 모색하고, 더불어 우리 지역의 문화적 성장과 변화의 발자취를 담은 「坡州文化 研究」 제 24호를 발간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기존에 발간하던 「坡州文化」와 「坡州研究」를 합본해 하나의 책으로 묶음으로서 더욱 내실 있는 향토사 자료를 세상에 내보인다는데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변화를 통해 보다 새롭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호에는 2010 울곡문화제 학술강연회를 통해 울곡선생의 가르침을 쉽게 풀어주셨던 오석원 성균관대학교 유교대학원 교수의 강연을 정리한 「울곡사상의 특성과 현대적 의미」와 제주도 답사를 통해 느낀 인상을 분석하고 파주에서의 적용과 문화원의 역할에 대한 고견을 제시한 김희병 파주문화원 이사의 「제주도 장소 및 명소 답사」를 통해 파주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민일 선생의 삶과 시문 돌아보기」, 「6.25 중군기자비와 열여덟그루 잣나무 이야기」, 「숙빈최씨 자료집 소개」, 「장수황씨 황희선생 후손의 移居현황과 사목리 입향 연구」, 「신사임당의 인간관과 예술연구」, 「파주지역 연안이씨 묘역」, 「세계문화유산 조선 왕릉의 이해」, 「파주의 능과 원 - 장릉, 공릉」, 「남계서당 하규 일람」등 파주지역과 관련된 향토사 연구 결과를 담은 옥고들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딱딱하게만 느껴질 수 있는 역사와 문화를 세련된 문학작품으로 또는 친근한 이야기 방식으로 풀어낸 「향교와 고유례」, 「주거생활 속의 풍수」, 「詩 - 임진강 황포돛배」, 「詩 - 파주문화유적지 스케치」, 「노랫말에 담은 고향이야기」, 「건강을 지키는 생활요법」 등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관한 소중한 글들을 문화사랑방에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坡州文化 研究」가 우리 문화가족들에게 유용하게 읽혀지기를 기원하며, 책의 발간을 위해 노력 해주신 본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우관제 전임 소장님과 신임 박재홍 소장님, 그리고 옥고를 보내주신 연구위원님들과 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Contents

발간사

24호를 펴내며 민태승 2

화보와 단신

사진으로 만나는 2010 파주문화 편집실 4

특별기고

울곡사상의 특성과 현대적 의미 오석원 ... 13

제주도 명소답사와 파주문화 발전방향 김희병 ... 22

향토 문화 연구

신민일선생의 삶과 시문 돌아보기 이동훈 ... 33

6.25 증군기자비와 열여덟그루 잣나무이야기 성희모 ... 50

황희선생 후손의 이거와 사목리 입향 연구 권효숙 ... 62

숙빈최씨 자료집 소개 이덕형 ... 79

신사임당의 인간관과 예술연구 이진숙 ... 84

파주지역 연안이씨 묘역 오순희 ... 99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의 이해 이윤희 ... 116

파주의 능과 원 - 공릉, 장릉 강근숙 ... 123

남계서당 학규일람 서교송 ... 130

파주문화, 독창성과 다양성의 추구 박재홍 ... 146

문화사랑방

주거생활 속의 풍수 우관제 ... 153

주왕산 청송기행 심성구 ... 165

향교와 고유례 이기현 ... 168

詩-임진강 황포돛배 도창희 ... 171

詩-파주문화유적지 스케치 전미애 ... 173

노랫말에 담은 고향이야기 이은섭 ... 176

건강을 지키는 생활요법 우중기 ... 179

제23회 울곡문화제 수상작품

울곡백일장 · 신사임당 미술제 184

전국 한시 백일장 196

전국울곡서예대전 197



표지 사진
신사임당 추모제

파주문화 24호 ▶

발행일: 2010년 12월 / 발행처: 파주문화원 / 발행인: 민태승 / 인쇄: 승림디앤씨

※ 이 책은 비매품이며 시비보조금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사진으로 만나는 2010 파주문화원



삼일절 추념식 (3.1)



파주짚풀공예품공모전 (3.3)



제42차 정기총회 (3.6)



향토유적답사 (4.10)



선진문화유적답사 (5.6)



월롱 작은도서관 도서 기증 (5.14)

사진으로 만나는 2010 파주문화원



주말버스학교 박물관 답사 (6.26)



청소년 문화재 섬김 (7.28)



군장병 투어 (9.6)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9.10)



문화학교 작품발표회 (9.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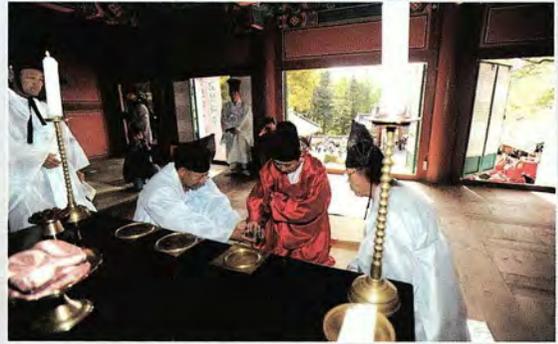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9.28)

사진으로 만나는 2010 파주문화원



울곡문화제 (10.9)



울곡문화제 (10.9)



울곡이이함 자매결연식 (10.26)



전통문화 기로연 (11.1)



제주문화유산답사 (11.23)



개목동 애국열사 추모비 제막식 (11.29)

파주문화원 문화학교 「향토유적답사」



박물관 체험 (8월)



파주3현의 얼을 찾아서 (5월)



능원 순례 (6월)



선사유적지 순례 (4월)



향교서원 답사 (9월)



민통선을 찾아서 (7월)



불교유적 순례 (10월)

2010 유교유적 전통문화 행사



적성향교 석전대제 (3.18)



방촌영당 춘향제 (3.25)



여중사 춘향제 (4.23)



파주향교 석전대제 (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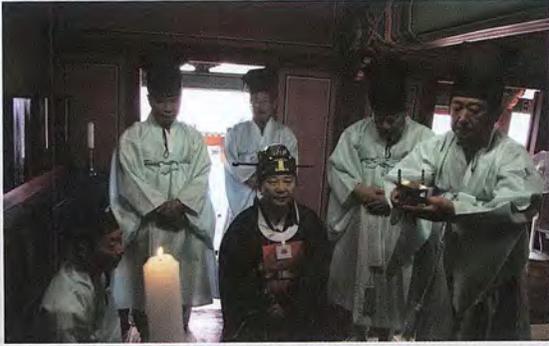


월계단 춘향제 (5.14)



신사임당 추모제 (6.28)

2010 유교유적 전통문화 행사



교하향교 고유제 및 작헌례 (8.11)



방촌영묘 추향제 (9.15)



성사영묘 추향제 (10.4)



동현단 추향제 (10.4)



자운서원 추향제 (10.9)



용주서원 추향제 (10.16)

제23회 율곡문화제



율곡사상학술강연회



율곡서예대전



전야제-시립합창단 공연



축하공연



개막식



유가행렬 및 시민길놀이

제23회 율곡문화제



자운서원 추향제



태평12지놀이



민속놀이 마당



사임당미술제



서각체험



율곡백일장

제23회 율곡문화제



마당놀이



전통혼례



한글자모로 엮서 꾸미기



파주유적지 순례



파주이야기전



서원음악회

율곡사상의 특성과 현대적 의미

오 석 원*

1. 서론

경기도 파주는 문묘에 배향된 율곡(栗谷) 이이(李珣, 1536-1584), 우계(牛溪) 성혼(成渾, 1535-1598)과 남계(南溪) 박세채(朴世采, 1631-1695) 등의 3인 뿐만 아니라 을사사화(乙巳士禍 : 1545)때 절의(節義)를 보였던 휴암(休庵) 백인걸(白仁傑, 1497-1579), 우계의 부친인 청송(淸松) 성수침(成守琛, 1493~1564) 등 많은 훌륭한 도학자(道學者)들이 기거하여 16세기 유교문화의 중심지를 이루었던 곳이다. 그러므로 미촌(美村) 윤선거(尹宣舉, 1610-1669)는 이를 “파산학(坡山學)”이라 칭하였으며,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 1629-1689)은 당시 파주의 수많은 인재들이 일으킨 ‘파산학의 문흥’을 칭송하였던 것이다.

이들 가운데 특히 율곡(栗谷) 이이(李珣)는 한국을 대표하는 위대한 철학자의 한 사람이요, 실천적인 경세가(經世家)이며 교육사상가이다. 그는 송대의 주자학을 스스로 연구 검토하여 비판하고 수용하였으며, 새로운 한국유학의 경지를 개척하여 기호학파의 연원을 열었다. 단순히 주자학만을 고수한 것이 아니라 양명학은 물론 불교와 노장을 비롯한 제자백가의 사상까지 두루 섭렵하여 집대성하였다. 율곡의 사상은 진리에 대한 자유로운 탐구정신과 이론과 실재를 매개하려는 실학정신에 그 특징이 있다.

율곡이 생존하였던 16세기는 무오사화(1498)를 시작으로 하여 갑자사화(1504), 기묘사화(1519), 을사사화(1545) 등 계속된 사회들로 인하여 많은 신진 사림들이 몰락되어 정치가 문란하고 인륜의 도덕이 무너지던 시기이다. 개국 이래 수성기(守成期)를 지난 이 때의 조선사회는 교화가

* 성균관대학교 유학·동양학부 교수

밝지 못하여 사회 기강이 해이하여지고, 강직한 선비정신이 와해되어 양심이 마비되고 명예만 숭상하는 풍조가 만연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일대 개혁이 시대적 과제로 요청되는 상황이였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율곡은 이론적으로 확고한 철학사상과 투철한 역사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국정 전반에 걸쳐 일대 개혁론을 제시하였다.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율곡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의 혁신을 강조하였으며, 민생의 고통을 덜기 위한 폐법의 개혁, 미풍양속을 이루기 위한 향약과 사창(社倉)의 장려, 정치 안정을 위한 동서분당의 조정 노력, 국란을 대비하기 위한 10만 양병론 등을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억울한 계층을 풀어주는 노예의 속량(贖良)과 서얼들의 통허(通許), 현대의 의회제도와 여론 정치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경제사(經濟司)의 설치 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율곡의 주장은 모두 국가의 부강과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제시된 것이며, 그의 탁월한 식견과 고매한 인격, 깊은 학문은 후대의 사표가 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여 비록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학문과 국사(國事)에 커다란 업적을 남겼던 것이다.

2. 율곡의 생애

율곡 이이(李珥)의 아명(兒名)은 현룡(見龍)이며, 자는 숙헌(叔獻)이며, 호는 율곡(栗谷), 석담(石澗), 우재(愚齋)이며, 본관은 덕수(德水)이며, 시호(諡號)는 문성(文成)이다. 1536년(중종, 31년) 12월 26일 강릉 외가의 별채인 오죽헌에서 부친 이원수(李元秀 : 1501-1561)와 모친 사임당(師任堂) 평산 신씨(平山 申氏, 본명은 신인선(申仁善 : 1504-1551)으로 신명화(申命和)와 용인이씨(龍仁李氏)의 5녀 중 차녀)와의 사이에서 7남매의 다섯째(맏형인 선(璿)은 호가 竹谷이며 남부참봉을 역임하였으며, 큰누이인 매창(梅窓)은 여류화가로서 이름이 높고 조대남(趙大男)에게 출가하였으며, 둘째 형인 번(璿)은 호가 정재(定齋)이고 학식이 매우 높았으며, 둘째 누이와 여동생은 윤섭(尹涉)과 홍천우(洪天祐)에게 출가하였으며, 막내 동생인 우(瑀)는 호가 옥산(玉山)으로 괴산고부비안 등의 군수를 역임하였음)로 태어났다.

6세(1541)까지 강릉 외가에서 어머니와 외조모의 사랑을 받고 성장하다가 서울에 올라왔으며, 8세(1543)때 부모를 따라 선영이 있는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율곡리로 옮겨 살았다. 어려서부터 신동으로 소문이 난 그는 이때에 임진강가에 있는 화석정(花石亭)에서 “숲속 정자에 가을이 이미 저물었는데(林亭秋已晚), 나그네의 회포 다할 길이 없어라(騷客意無窮), 멀리 보이는 강물은 하늘에 닿아 푸르고(遠水連天碧), 서리맞은 단풍은 햇별을 향하여 붉구나(霜楓向日紅), 산은 외로운 둥근 달을 토해 내고(山吐孤輪月), 강은 만리로 부는 바람을 머금었구나(江含萬里風), 변방의 저 기러기는 어디로 가는가(塞鴻何處去), 저녁 구름 속으로 울음소리 끊어져 버리

네(聲斷暮雲中)”라는 시(詩)를 지어 세상 사람들을 감탄하게 하였다. 또한 13세(1548, 명종3)에 진사(進士) 초시(初試)에 합격하였고, 29세(1564) 8월 명경과(明經科)에 장원으로 급제하기까지 9차례의 시험에 모두 수석을 차지하여 ‘구도장원공(九度壯元公)’이라는 명칭을 받기도 하였다.

율곡은 16세(1551)에 모친상을 당하자 파주 두문리 자운산에 모시고 3년간 시묘(侍墓)를 하였으며, 19세(1554)에 금강산에 들어가 약 1년 동안 불교공부에 몰두하였고, 20세(1555)에 다시 강릉 외가로 돌아와 유교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는 자경문(自警文)을 지었다. 입산하기 직전에 율곡은 우계(牛溪) 성혼(成渾 : 1535-1598)과 도의(道義)의 친분을 맺었으며, 이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절차탁마하였다. 23세(1558) 봄에는 강릉으로 가는 도중 안동의 도산에 은거(隱居)하고 있던 퇴계(퇴계) 이황(李滉 : 1501-1570)을 방문하여 2일간 머무르며 학문을 논하였다. 율곡이 떠난 뒤 퇴계는 율곡의 인격과 학문에 대하여 ‘후생가외(後生可畏)’라는 말로 극찬하였다. 그해 서울로 올라온 율곡은 겨울 별시(別試)인 과거에 응시하여 ‘천도책(天道策)’이라는 명문으로 장원하였다. 당시 고관(考官)들은 율곡의 답안지를 보고 ‘우리들은 몇 일 동안 생각해서 겨우 이렇게 만들었는데 짧은 시간에 이렇게 쓸 수 있다니 참으로 천재다’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율곡은 22세(1557)에 성주목사 노경린(盧慶麟)의 딸인 노씨(盧氏)와 혼인하였으나 자손을 두지 못하였으며, 뒤에 측실에서 2남 1녀를 두었다.(39세 때 맏아들 경림(景臨)을, 44세 때 둘째아들인 경정(景鼎)을 낳았으며, 그의 딸은 뒤에 신독재(愼獨齋) 김집(金集 : 1574-1656)의 소실로 출가하였음) 26세(1561)에 부친상을 당하여 파주의 선영에 모시었다.

율곡의 벼슬은 29세(1564) 명경과에 합격하여 호조좌랑(戶曹佐郎)을 맡은 이후, 30세(1565)에 예조좌랑(禮曹佐郎)·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33세(1568)에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이조좌랑을 역임하고 서장관으로 明京을 다녀왔다. 이후 34세(1569)에 교리(校理), 35(1570)세에 청주목사, 38세(1573)에 직제학(直提學), 39세(1574)에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황해도 관찰사, 40세(1575)에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46세(1581)에 사헌부 대사헌·호조판서, 47세(1582)에 이조판서(吏曹判書)·형조판서·의정부우찬성(議政府右贊成)등을 역임하였다.

율곡은 35세(1570) 청주목사 재임 시에 손수 서원향약(西原鄉約)을 지어 일찍부터 주민들의 교화에 진력하였다. 이미 1560년에 파주향약(坡州鄉約)의 서문을 지어 20대 초부터 사회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율곡은 서원향약의 경험을 살려 42세(1577)에는 해주향약(海州鄉約)을 지어 실행하였으며, 사창(私倉)을 설치하여 어려운 백성들을 구제하는데 힘썼다. 이러한 노력으로 해주 지방은 투박하였던 풍속이 아름다운 예속으로 바뀌었으며 상부상조하는 공동체의식이 생활화되었다.

율곡은 32세(1567)에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 : 1527-1572)에게 편지를 보내어 대학(大學)의 내용을 논하였으며, 33세(1568)에 성혼과 지선(至善) 등에 대하여 논하였다. 37세(1572)에는 파주 율곡리에서 성혼과 이기(理氣), 사단칠정(四端七情), 인심도심(人心道心) 등에 대하여 논하였으며, 40세(1575)에 사암(思庵) 박순(朴淳 : 1523-1589)과 기론(氣論)에 대하여 논변하였다.

율곡은 34세(1569)에 『동호문답(東湖問答)』을 지어 왕과 신하들의 책임의식, 도학의 실천, 백성들의 교육과 생활안정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글을 선조에게 올렸으며, 39세(1574)에 당시 선

조가 천재(天災)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묻자, 율곡은 『만언봉사(萬言封事)』를 올려 먼저 국가 지도자들이 선정(善政)을 대한 강한 의지와 실천,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40세(1575)에 『사서언해(四書諺解)』를 저술하고, 임금의 학문과 치도(治道)를 위한 『성학집요(聖學輯要)』를 지어 올렸다.

41세(1576) 이후에는 모든 관직에서 은퇴할 것을 결심하고 율곡은 파주 율곡리로 돌아가 약 5년간 저술과 후진양성에만 전념하였다. 42세(1577)에 초학자들을 위한 도덕실천의 지침서인 『격몽요결(擊蒙要訣)』을 저술하고, 44세(1579)에 『소학집주(小學集註)』를 저술하였다. 45세(1580)에 『기자실기(箕子實記)』를 편찬하고, 46세(1581)에 1565년부터 이 때까지의 약 16년간의 『경연일기(經筵日記)』를 완성하였다. 47세(1582)에 선조의 명을 받고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을 제진(製進)하였으며, 『학교모범(學敎模範)』에 관한 저술을 통하여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 46세에는 조광조(趙光祖)와 이황(李滉)의 문묘 배향을 요청하였으며, 48세(1583)에 「시무육조(時務六條)」 제진(啓陳)하고, 선조에게 10년 내에 국란이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비한 10만 양병설을 진언하였다.

율곡은 49세(1584) 1월 14일에 병중임에도 불구하고 서익(徐益)이 북로(北路) 순무(巡撫)의 명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그 임무수행에 관한 내용으로 6개 조항을 불러 주어 아우 우(偶)로 하여금 기록하여 전달하게 하고는 2일 뒤인 16일에 서울의 대사동(大寺洞)에서 별세하여 파주 자운산 선영에 안장되었다. 국가에 대한 충성이 마지막까지 지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성혼은 상소문에서 율곡에 대하여 ‘오직 나라가 있는 것만 알고 자신이 있는 것은 알지 못하며, 시국을 구제하려는 데 급급하여 자신의 이익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온 인물이다’라고 평하였다.

율곡은 선조(宣祖)의 묘정(廟庭)에 배향되고 1624년(인조2)에 문성(文成)이란 시호가 내려졌으며, 1681년(숙종7)에 문묘에 종사되었다. 경기도 파주의 자운서원(紫雲書院), 강원도 동해의 한천서원(寒泉書院), 강원도 명주의 송담서원(松潭書院), 경북 청송의 병암서원(屏巖書院), 충남 논산의 죽림서원(竹林書院), 충북 청주의 신행서원(莘巷書院)을 비롯하여 강릉의 문성사(文成祠), 강원도 정선의 노추사(魯鄒祠), 전북 익산의 담월사(潭月祠), 전북 진안의 주천사(朱川祠) 등 전국 20여개 서원과 사우(祠宇)에 제향되었다. 그의 문집인 『율곡전서(栗谷全書)』는 1682년에 이루어지고, 1971년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영인 출간하였으며, 번역본은 1988년 한국정신문화 연구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3. 율곡의 사상

1) 이기론(理氣論)

율곡사상의 이기론은 이통기국설(理通氣局說), 기발이승설(氣發理乘說), 이기지묘설(理氣之妙說)로 그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송대의 유학에서 본질과 현상,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계를 철학적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 이기론(理氣論)이다. ‘이’는 무형(無形)이므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보편성을 가져서 언제 어디서나 두루 통하지만, ‘기’는 유형(有形)이므로 언제 어디서든지 한계 되어지며 국정(局定)된다는 것이 이통기국설이다. 그러므로 율곡은 이와 기의 기본 성격에 대하여 이는 기의 주재자이고 기는 이의 기재(器材)라고 하는 기본 입장을 갖는다.

이기의 동정(動靜) 문제에 있어서는 율곡은 ‘이’의 무위(無爲)와 ‘기’의 유위(有爲)에 중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발동하는 것은 기요, 발동하는 까닭은 이이므로 기발(氣發)은 인정하지만 이발(理發)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율곡의 기본 입장이다. 그러므로 자연세계나 인간세계를 막론하고 모든 존재의 작용은 기에 있을 뿐이며 이는 이러한 기 위에 타고 있다는 기발이승설로 일관하여 설명한다.

이기의 관계에 대하여 율곡은 이와 기를 나누어 보기보다는 합쳐서 보는 일원론적인 입장을 갖는다. 이기의 근본 성질은 형이상(形而上)과 형이하(形而下)의 차이가 있지만 사실적 입장에서 볼때는 이기가 서로 떨어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이기의 관계를 율곡은 하나인 동시에 둘이요(一而二), 둘인 동시에 하나(二而一)라는 이기의 묘합(妙合) 관계로 설명하였다. 여기서의 묘합은 단순한 통합의 의미가 아니라, 존재의 원리로서의 이와 구체적 실체로서의 기가 각각 자신의 고유성을 잃지 않으면서 서로 포용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율곡은 실체로서의 기와 소이연(所以然)으로서의 이의 상이성(相異性)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양자는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종합적으로 올바르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2) 인성론(人性論)

율곡의 학문은 우주에 대한 형이상학적 원리보다는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인성론에 최대의 중점을 두고 있다. 율곡은 인성론은 기질지성(氣質之性) 속에서 본연지성(本然之性)을, 칠정(七情) 속에서 사단(四端)을, 인심(人心)속에서 도심(道心)을 이해하려는 일원론적인 입장을 갖는다.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은 본래의 하나의 성이지만 이(理)적 측면만을 가리킬 때에는 본연지성이라고 하고, 이와 기를 서로 관련시켜서 파악할 때는 기질지성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나누어 보면 별개의 것으로 오해되기 쉬우므로 기질지성 속에서 본연지성을 파악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칠정과 사단의 관계에 있어서도 인간의 모든 감정을 총괄해서 말하면 칠정이요, 그 중에서 특히 선(善)한 측면만을 지칭하면 사단이다. 그러므로 율곡은 칠정과 사단을 별개로 보기보다는 칠정 속에 사단을 파악하는 일원적 입장의 인간이해를 갖는다.

인심과 도심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있어서 인심과 도심은 근원적으로 두 개의 것이 아니며, 다만 천리(天理)인 도의(道義)를 위해서 발한 것이 도심이요, 육체적 인욕(人慾)을 위해서 발한 것이 인심인 것이다. 비록 도의를 위하여 발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사

욕이 개입하면 그 순간 인욕으로 떨어지게 되며, 육체적 욕망을 위하여 발했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이치에 중절(中節)하면 이것은 천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록 인심과 도심의 명칭은 둘이지만 그 근원은 오직 한 마음에 있음을 강조한 율곡 인심을 곧 인욕으로 규정하여 악으로 보기보다는 인심에 자리하고 있는 선악 가운데 선한 면을 강조하여 인심을 긍정적 시각에서 보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욕으로 빠질 위험성을 지닌 인심을 어떤 방법으로 도심화(道心化)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다.

3) 수양론(修養論)

유학에서는 인간의 성선(性善)을 신뢰하는 기반 위에서 누구나 선한 본성을 확충시켜 나간다면 성인(聖人)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율곡은 학문의 목표를 이러한 최고의 이상적인 인간상인 성인에 두고 지속적인 수양을 통하여 인격을 도야함에 중점을 두었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한 것인데 악으로 흐르게 되는 원인은 기품(氣稟)의 구애(拘碍) 때문이다. 즉 선악은 기의 청탁에 달린 것이며, 맑은 기가 발하면 선하고, 흐린 기가 발하면 악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선한 본성을 가려 악으로 흐르게 하는 것은 기이지만, 그 선한 본성을 발현시켜주는 것도 기이다. 그러므로 율곡은 기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맑은 기가 순선(純善)한 본연지성을 잘 발현시켜 주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탁기(濁氣)를 청기(淸氣)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기질의 변화(矯氣質)를 강조하였다.

율곡은 기질을 변화시키는 구체적 수양 방법으로 성(誠)을 강조하였다. 성이 아니면 뜻을 세울 수 없고, 성이 아니면 이치를 깨달을 수 없으며, 성이 아니면 기질을 바꿀 수 없다고 하였다. 율곡은 성을 실리(實理)의 성과 실심(實心)의 성으로 나누어, 천도(天道)는 실리이고 인도(人道)는 실심이라고 하였다. 즉 율곡이 강조한 성이란 천과 인간을 일관하는 원리로서 모든 사물의 존재근거이며, 아래로는 인간에게 있어서의 기품의 제약을 극복하고 선을 구현하고자 하는 요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율곡은 ‘성은 경(敬)의 근본이고, 경은 성을 회복하는 공부이다’라고 하여 경으로써 성을 보존하여야 함도 강조하였다.

율곡은 『성학집요』에서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이 바로 성현(聖賢)의 학문이라고 말하였다. 지식을 넓히는 일은 착한 것을 밝히기 위해서이고, 그 지식을 몸소 실천하는 일은 자신의 몸을 성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기에는 지식을 넓히는 일과 그 지식을 몸소 실천하는 일이 포함된 것이다. 이러한 수양론의 본질은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율곡 성학의 특징은 성실한 자세로 끊임없이 자신을 수양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고,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보편성과 구체적 현실의 특수성을 조화시키려는 실학정신에 있는 것이다.

4) 교육론

율곡은 교육의 이론 뿐 아니라 스스로 교육을 실천한 교육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41세(1576)이후에는 관직을 떠나 해주의 석담(石澗)으로 퇴거하여 5년간 후진 교육에 힘썼던 것이다. 율곡은 교육을 통한 점진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교육은 가정교육으로부터 비롯하여 유아기, 청소년기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므로 『동거계사(同居戒辭)』를 지어 종족이 함께 살면서 지켜야 구체적인 규범을 정하였으며, 『소아수지(小兒須知)』를 지어 가정생활에서 어린이들이 실천해야 할 기본예절과 생활습관에 관한 내용을 밝혔으며, 『학교모범』을 지어 구체적인 학교교육의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격몽요결』을 지어 청소년들이 습득해야 할 도덕내용들을 뽑아 쉽게 해설하였으며, 『소학』을 통한 국민교육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율곡의 교육의 동기로서 입지(立志)를 강조하였다. 입지는 자기 의식에서 출발한 참된 주체로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힘이 되는 동시에 학문을 나아가게끔 하는 동력이 되므로 뜻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교육에 있어서 우선되어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또한 『학교모범』에서 교육자의 진실되고 올바른 자질을 중요시하였다. 교사의 우수한 자질에 의해서만 최선을 다하는 교육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율곡은 구체적인 교육방법으로서 거경(居敬), 궁리(窮理), 역행(力行)을 강조하였다. 즉 거경은 학문에 들어가기 위한 마음자세를 가다듬는 것이요, 궁리는 당위성의 법칙과 선을 밝히는 것이요, 역행은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앎과 실천을 연결하여 지행병진(知行並進)을 강조하는 그의 교육방법은 현실을 떠난 이상적 교육사상가가 아니라 수기와 치인 양면에 있어서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율곡의 교육사상은 이상적인 인간상인 성인을 목표로 하여 입지를 굳건하게 하고 성실을 기반으로 하여 지식과 덕성과 체력을 겸비한 균형 있는 전인(全人) 교육을 하는데 있다. 율곡은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통치자인 군왕부터 성학(聖學)을 목표로 하여 자신을 닦고 올바른 철학과 교육관을 가지고 교육정책을 실행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율곡은 사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향약을 통한 사회교육실천에 힘쓰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1560년에 파주향약의 서문을 짓고, 1571년 청주목사 재임 시에는 서원(西原)향약을 짓고, 1577년에는 해주에 머물면서 해주향약과 사회계약속(社會契約束) 등을 제정하여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상부상조의 정신과 예속을 통한 민풍(民風)의 진작에 힘썼던 것이다.

4. 율곡사상의 현대적 의미

오늘날 현대사회는 급변하고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국경과 지역을 넘어 인류가 하나가

되고 있으며, 지식의 대중화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나날이 향상되고 있으며, 세계의 다양한 문화가 한 자리에 모이고 있다. 그러나 세계가 하나로 되면서 독단적인 획일주의와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자세로 인하여 새로운 갈등이 고조되면서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갈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또한 지나친 개인주의는 극단적 이기주의로 내닫고 있으며, 물질만을 추구하는 가치의식은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성을 송두리째 내 버리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사고로 인하여 사회는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부서지고 있다.

경제적 발전으로 인하여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으나 인간의 심성은 더욱 거칠어지고 있으며, 무한경쟁의 시대 속에 매몰되어 정신적 여유를 잃어버리고 있으며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사회는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부서지고 있는 가운데 가족마저도 해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더 여유 있으면서 안정된 삶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으며, 새로운 도덕성과 성숙된 인격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인간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요즈음에 이르러 우리가 처해 있는 현대사회에는 정치윤리, 경제윤리, 사회윤리, 문화윤리 등의 기존의 문제들뿐만 아니라 유전공학의 발전과 함께 제기된 생명윤리의 문제, 컴퓨터의 발전과 함께 제기된 정보통신의 윤리문제, 급속도로 가족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가정윤리문제,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청소년 교육의 등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그 외에도 호주제도의 문제에서부터 관혼상제 및 장묘제도의 현안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유교가 대안을 제시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아무리 과학과 경제가 발달되어도 이것을 운용하는 주체는 결국 인간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올바른 정신을 함양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고도 근본적인 중요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진정한 인간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하며,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공존의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율곡의 사상 속에는 물질 이상의 세계를 추구하는 순수한 도덕성이 있으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높은 차원의 인격성이 담겨 있으며, 부정과 불의를 배척하고 진리와 정의를 실천하는 강한 선비정신이 있다. 율곡은 “진정한 학문이란 내적으로는 덕성을 함양하여 인륜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고, 외적으로는 사리(事理)에 밝아서 국가를 경륜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하였다. 즉 개혁의 주체인 인간의 성실을 지극히 중요시한 것이며, 동시에 개혁원리로서의 변화와 무실(務實)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율곡은 “정치는 시세(時勢)를 아는 것이 귀하고, 일은 실질(實質)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므로, 정치에 있어 시의(時宜)를 알지 못하고 일을 당하여 실공(實功)에 힘쓰지 않으면 아무 효과도 거둘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훌륭한 명의는 환자를 치료할 때, 살피고 마른 것을 보지 않고 맥에 병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며, 훌륭한 정치인은 나라가 부유하고 가난한지를 보지 않고 먼저 기강의 퇴폐여부를 살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성리학에 바탕을 둔 율곡의 철학사상은 실학정신과 연계되어 나타났으며, 개혁을 통한 국방력의 강화와 경제의 부강 그리고 사회의

정의 실현 등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몸소 실천하였던 것이다.

서대문구 홍파동(현 사직터널 위)의 암석에 울곡(栗谷)의 친필로 알려진 “성동인우(性同麟友), 애지산학(愛止山壑)”이라는 8자가 새겨져 있었다. (울곡의 유적이었던 이 땅은 1990년대 구세군의 소유로 이전되고 새 건축물이 조성되면서 울곡 선생의 글씨가 새겨졌던 이 바위가 깨어져 버리고 현재 주차장에 이 글씨가 새겨진 조그만 비석만이 남아있음) 이 글귀는 본래 『시경』에 나오는 글로서 『중용』에서 인용하고 있는 바, 그 뜻은 “본성은 수중에 노니는 물고기나 하늘을 나는 새가 같으며, 사랑은 산과 구덩이에 까지 그친다”는 내용이다. 즉 우주의 모든 존재는 천연한 본성에 있어서는 서로 같은 것이며, 이러한 본성이 발하면 진정한 인간의 사랑이 우주에 가득 차 충만하다는 의미이다. 이 글에는 이상과 현실의 조화, 물질과 도덕의 조화를 추구하는 울곡 선생의 묘합의 철학이 온축되어 있으며, 인류가 지향해야 할 높은 수준의 세계화의 철학이 담겨져 있다.

미래의 삶은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성숙된 인간, 이러한 인격을 기반으로 하여 인류가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울곡선생이 강조한 ‘대동사회(大同社會)’의 이념이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예기(禮記)』 「예운편(禮運篇)」에 담겨 있는 공자의 대동사회의 이념은 개인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사회적으로 인간관계의 신의와 화목을 중요시하며, 가정의 공동체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인류애를 실천하고 자연과의 친화적(親和的) 관계를 이루며, 경제적 균분(均分)과 장애자 우선의 사회 복지를 실현하여 대동의 이상사회를 지향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대사회의 시대적 요청에 임하여 울곡사상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정신과 업적을 오늘에 되살려 새로운 문화창달의 길잡이로 삼고, 유교의 사랑과 정의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지구촌의 인류가 진정으로 인간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제주도 명소답사와 파주문화 발전방향

김 희 병*

1. 머리말

21세기를 맞을 무렵부터 지금까지도 사회 각계에서는 문화의 중요성에 착안하여 “문화가 중요하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다”, “문화 수준이 높아지지 않고는 경제성장은 더 이상 없다”는 등 문화를 강조하고 문화를 찬양하는 목소리가 높게 울려 퍼지고 있다.

한편 문화의 개념¹⁾은 계속 변화했다. 예술적 문화관에서 삶의 방식을 아우르는 지역 정체성, 제도, 정치, 산업 분위기, 장소 의식,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넓은 요소들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문화관으로 문화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어 왔다.

이런 가운데 대부분의 지자체장들이 문화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문화도시란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것은 삶의 질의 쾌적함을 강조하는 한편 장소판촉²⁾을 위한 ‘문화 상품화’³⁾를 만들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장소⁴⁾는 문화의 얼굴이기도 한 개성 내지 고유성⁵⁾이 특징이다. 그곳엔 장소에 고유한 자연, 풍물, 민속, 특산물 그리고 역사의 시련을 이겨낸 삶의 향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매우 드문 일로서 제주도는 2002년 ‘생물권 보전지역’⁶⁾ 지정, 2007년 ‘세계자연유산’⁷⁾ 등재에 이어 2010년 ‘세계 지질 공원’⁸⁾ 인증을 획득해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자연환경분야 3관왕을 거머쥐면서 새로운 문화적 장소와 명소를 확고히 한 곳이다.

* 파주문화원 이사

2. 제주도 장소 및 명소

생각하는 정원

일찍이 국내에서 보다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정원으로서 아름다운 분재와 정원수, 연못과 폭포 등이 조화롭게 미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1968년부터 성범영 원장이 돌과 가지덤불만 가득한 버려진 땅을 반세기에 걸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어 세계 최고의 명품관광 명소로 탄생시켰으며 1992년 개원 이래 세계 전문가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라는 극찬을 받아오는 곳이다.



유리성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꿈을 그리고 성인에게는 환상을 심어주는 유리를 소재로 한 각종 아트를 만들어 전시한 테마공원이다. 유리 소재로만 독특하게 표현될 수 있는 각종 작품은 색다른 감동과 특별한 추억을 담는 곳이다.



오, 설록 녹차 박물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중산간 한라산 중턱에 자리한 박물관과 주변지 21만여 평에 이르는 드넓은 녹차 밭은 위대한 자연의 힘과 살아있는 것들의 생명력을 느끼게 하는 자연명소이다.

오설록 박물관은 대부분 돌밭으로 농사가 잘되지 않는 척박한 땅을 녹차 밭으로 바꾸어 경제적 가치를 높였다. 박물관에 마련된 전시실에서는 기원전에서부터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찻잔 120여점과 세계 각국의 찻잔 100여점, 동양의 찻잔 60여

점등 선조들의 차문화와 생활상을 체험하는 새로운 관광 명소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새연교와 새섬

새연교는 서귀포항 바로 눈앞에 있는 조그만 섬인 새섬과 천지연 폭포의 첫 글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다. 새연교는 길이 169m에 너비 4~7m이고 주탑의 높이가 45m로서 서귀포의 전통적 고깃배인 테우를 형상화 한 것으로 그물을 펼치는 모습을 하고 있으며 고기를 가득 실은 테우가 돛을 달고 서귀포항으로 귀항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새연교는 서귀포시가 세계적인 관광 미항으로 발전하여 풍요가 이 곳으로 몰려오기를 희망하는 서귀포 시민들의 소망이 담겨있기도 하다.

새연교를 통해 새섬에 들어서 한바퀴 돌면 서쪽으로 월드컵경기장 지붕과 중문관광단지, 범섬, 산방산이 보인다. 새연교라는 새로운 교량이 설치됨으로서 새로운 관광명소로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우도

성산포항에서 북동쪽으로 약 3.8km 지점에 위치한 우도는 소가 누워있는 모습과 비슷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우도의 대표적인 경관인 우도8경으로 낮과 밤(주간 명월, 야항 어범), 하늘과 땅(천진관산, 지두청사), 앞과 뒤(천포망대, 후해석벽), 동과 서(동안경굴, 서빈백사)를 손꼽고 있다.

섬의 남동쪽 끝의 쇠머리 오름(132m)에는 높이 16m 원형 콘크리트조의 새로운 등탑과 더불어 순수 국내 IT기술로 개발한 대형회전식 등명기를 설치한 우도 등대가 있으며 그 주변에 우리나라 최초로 등대를 테마로 한 등대공원(세계7대사의 중 하나인 파로스등대 등 우리나라 및 세계의 유명한 등대모형 14점 전시)을 조성하여 해양관광명소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남쪽해안과 북동쪽 학진포를 제외한 모든 해안에는 해식애가 발달 하였고 한라산의 기생 화산인 쇠머리 오름이 있을 뿐 섬전체가 하나의 용암지대이며 넓고 비옥한 평지가 펼쳐져 있다. 또한 산호가 부서져 형성된 하얀 모래사장으로 산호해수욕장도 명소이다.



성산 일출봉

해발 182m인 성산 일출봉은 10만년전 수많은 분화구 중에서도 드물게 바다 속에서 수중 폭발한 화산체로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이다. 원래는 화산섬이었지만 신양해수욕장 쪽 땅과 섬 사이에 모래와 자갈이 쌓여 육지와 연결이 된 것이며 일출봉 정상에는 바닥면의 높이 해발 90m에 면적이 6만여평이나 되는 분화구가 자리한다.

현재 성산 일출봉 관람로 정비, 새로 확장되는 주차장 등의 정비 사업으로 탐방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세계 자연유산지구에 걸 맞는 시설물로 새 단장하고 있다.

한편 현재 성산 일출봉 응퇴구에 대한 형성과정을 밝히기 위한 학술조사 용역이 진행중인 곳이다.



선녀와 나무꾼 테마공원

제주시 조천읍 선릉리 일대에 위치한 테마공원은 1950~1980년 그 시대를 테마로 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실내 상설로 이루어진 「마음에 고향」이라는 주제를 담은 테마공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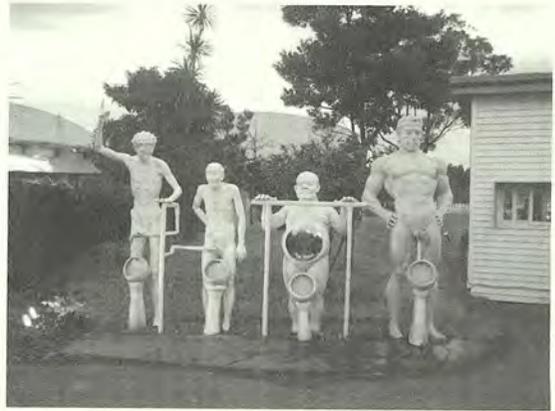
대지 약 2만여 평에 단층 건물로 약 4천여평 규모로 이루어져 옛 달동네 마을, 어부 생활관, 농업 박물관, 민속 박물관, 자수 박물관, 선사시대 체험관, 학교 재현관들과 예전에 즐겨 놀았던 각종 놀이나 추억의 나무반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리브랜드

10,000평 대지위에 성(性)을 주제로 한 다양한 현대 조각의 테마공원으로 야간에는 경관조명 아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기존의 조각공원과는 달리 현대 문화의 화두인 성문화를 주제로 하였으며 예술적으로 승화된 성을 현대적 감각의 에로틱 아트로 이해하게 하는 새로운 열린 예술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음지의 성을 양지로 드러내는 성 박물관으로 외부 공간에 전시된 각종 성관련 조각품은 이성 과 함께 건전한 성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공감케 하며 감추어진 성 문화에서 나타나는 성 문화의 공간으로 드러낸 대표적인 곳이다.



3. 맺음말

제주도의 여러 문화자원과 자연자원을 통해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의 역할을 볼 수 있었다. 아울러 비교적 짧은 시간과 한정된 장소의 분석을 통하여 장소의 특징과 명소 요인들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불과 하였지만 다음 몇가지 측면의 관점을 정리해 볼 수 있었다.

첫째,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파주 문화이미지를 향상시켜야 함

장소판측은 지역이미지 향상으로부터 지역 스스로 강력한 자생력을 배양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각 지자체는 독자적인 방안 마련에 부심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러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중의 하나는 자기 지역에 대한 문화와 더불어 삶의 터전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사람이나 어떤 장소에 대한 이미지는 대부분 그 지역의 문화에 의해 형성된다. 그동안 관념적이고 이론적으

로 설명돼 왔던 파주 지역의 이미지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한 실천적 사업은 바로 장소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성취할 수 있다.

따라서 파주문화원은 장소관촉을 위해 여러 핵심적 장소를 육성하고 그를 통해 체험적 이미지를 재현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많은 사람들을 파주지역으로 오게 하여 올바르게 느끼게 해야 함.

장소를 관촉하는데 있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다. 그 지역에 와서 보고 느껴보지 않고서 진정한 장점을 이야기할 수 없듯이 외지인들이 파주를 찾게 하고 그들의 행태를 관리하는 것이 바로 문화가 말아야 할 기능이다.

농촌이나 도시를 막론하고 곳곳에 산재해 있는 우리들의 삶의 흔적이 모두 파주지역을 이해하는 중요한 문화관광자원이며 곳곳에 흩어져있는 역사문화유적은 이 고장 인물들의 활동 근거로서 고대부터 현대사를 체험할 수 있는 주요 이미지 자원이다. 관광을 아름다운 곳이나 화려한 곳으로만 한정해 유도한다면 문화관광자원이나 관광 사업의 한계를 스스로 축소하는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이며 관광 자체의 의미를 잘못 인식한 결과이다.

따라서 파주문화원은 많은 외지인들이 편한 마음으로 파주를 찾도록 하는 문화관광정책을 이끌어 가야한다.

셋째, 문화관광산업의 주도적 역할을 재인식해야 함.

문화관광사업은 ‘관광지를 건설한다’는 논리적인 건설위주의 단순 논리보다는 ‘우리 주변에 흩어져있는 의미 있는 장소로 가꾼다’라는 뜻이 강조되어야 한다.

관광은 이제 단순히 먹고 마시는 ‘한풀이식 소비성 놀이문화’에서 사회문화적인 의미가 강조된 사회교육과 자연과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의미가 강조되어야 한다. 새로운 문화관광의 기능은 먼저 파주시민이 파주문화에 의미를 부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관광지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자원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기존의 문화 자원을 잘 가꾸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파주문화원은 파주시민의 사랑을 받는 장소조성이 외지인에게도 의미 있는 공간으로 창출됨을 인지하고 이에 힘써야 한다.

넷째, 주민 교육과 문화 관광홍보용 자료를 개발해야 함.

최근 정보와 환경의 폭이 넓어지면서 여러 기술에 의한 관광홍보에 관심이 높으나 자기 고장의 문화이미지를 정립하는 기본 틀이 우선적으로 정립되지 못하고 개발된 각종 시각물들은 우리가 의도하는 자기 고장의 이미지를 제대로 부각시킬 수 없다. 즉 ‘어떠한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라는 지역 이미지의 내용에 관한 연구와 자료정리가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각종 홍보 시설물을 도입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된다.

따라서 파주문화원은 고장의 이미지에 관한 내용 연구와 자료정리에 힘써야 한다.

다섯째, 파주고장 이미지 관리와 새로운 이미지의 장소를 창조하는 길을 열어야 함.

지역 주민의 파주 지역사랑과 외지인의 지역이미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기능이 강화돼

야 한다. 외지인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지역 주민이 자기마을의 문화 환경을 알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파주 고장의 잠재력을 인식하게 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고장 이미지 관리와 같이 미묘하고, 절실한 문제는 전문가들과 함께 구성된 전문팀을 만들어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문화에 의한 새로운 이미지의 장소를 창조하는 것은 일반화 되어있다.

따라서 파주문화원은 파주고장 이미지 관리와 새로운 이미지의 장소를 발굴하고 창조하는데 힘써야 한다.

인간이 살고 있는 질적 환경을 높이는데 문화의 요소 도입은 매우 중요하다. 시설물 하나하나와 장소의 하나하나로도 중요하지만 연속적인 연계성과 장소적 의미전달의 시너지효과 측면에서 장소의 문화 상품화를 바라보는 시각도 중요하다.

이번 제주도 장소와 명소 답사는 이러한 점을 추구하고자 하는데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 1) 문화배타적 관점은 광의의 문화관점과 협의의 문화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광의의 문화관점은 '삶의 방식 및 물질적 소산물이 모두 문화'라는 포괄적 입장을 근거로 사회제도, 관습, 신뢰체계, 네트워크, 기업문화 등이 경제발달에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입장이다.(Amin and Thrift, 1997) 협의의 문화관점은 문화를 예술문화로 한정하는 시각으로 예술문화가 경제발달을 견인한다는 입장이다.
- 2) 지방화 또는 장소화를 위한 전략의 하나로 작금에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장소판촉(또는 고장판촉, place-marketing)'이다. 장소판촉은 우리의 삶이 직접적으로 근거하는 터전의 의미를 대내적으로 확인하고, 대외적으로 감동과 가치를 확산해서 마침내 내 고장의 번영을 가져오자는 노력이다.(김형국, 2002)
- 3) 문화가 상품의 생산과 소비에 반영되는 이른바 '문화상품화' 혹은 '문화산업화'가 현대경제의 대체다. 문화자본화의 동기는 문화소비의 증가라는 수요요인과 함께, 정보기술의 발달이라는 공급요인이 촉발시키고 있다. (김형국, 2002)
- 4) 장소란 사회적으로 형성된 다중적이고 다의적인 개념이다.(Massey 1984 ; Harvey, 1982)
공간(空間)(Space)는 활동을 담는 평범한 그릇 또는 그 활동의 배경의 역할을 수행 할 뿐이나 이러한 공간이 장소(場所)(Place)로 전환되자면 의미(意味)(meaning)가 주입되어야 하며 그 의미는 체험(體驗)(experience)으로부터 연유된다.
- 5) 문화는 '장소 종속성'을 띤다.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오랜 시간에 걸쳐 생활방식이 장소에 침전된 시간의 켜와 같은, 장소 특수성과 고유성을 지닌다. 바로 이 점이 장소간의 차별화를 가능케 하는 요인이다.(Scott, 1997)
- 6) 생물권보전지역 = 유네스코의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에 따라 생태계적 가치가 큰 곳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 보전지역은 국내 관련법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 행위 등이 제한된다. 세계 생물권보전지역과 연계, 체계적인 보호·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며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현재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탄자니아 세렝게티 국립공원, 북동 그린란드 국립공원 등 553개소이다. 우리나라에 생물권보전지역은 설악산(1982년), 제주도 (2002년), 신안 다도해(2009년), 광릉숲(2010년) 등 4개소가 있다.
- 7) 세계자연유산 = 유네스코는 인류의 소중한 문화와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세계유산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문화유산과 지구의 역사를 잘 나타내는 자연유산, 그리고 이들의 성격을 합한 복합유산으로 나뉜다. 자연유산은 경관이 우수하거나 지질학적 또는 생태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 또는 생물다양성이 뛰어나 그 가치를 인정받은 곳이다.
현재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곳은 미국 그랜드 캐니언, 러시아 바이칼호 등 151개국, 180개소이다. 우리나라는 제주도에 세계자연유산은 한라산, 성산일출봉, 만장굴 등 3개소가 있다.
- 8) 세계지질공원 = 유네스코가 지질학적으로 뛰어나고 학술이나 자연유산적으로 가치를 가진 지역을 보전하면서 이를 토대로 한 관광을 활성화 해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이다. 특별히 보전이 필요한 핵심지역을 제외하고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개발이 허용된다.
현재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중국 광산(房山), 일본 운젠(雲仙) 등 21개국 66개소이다. 우리나라는 제주도에 세계지질공원으로 한라산, 성산일출봉, 만장굴, 서귀포초, 천지연폭포, 대포 해안 주상절리, 산방산, 용머리, 수월봉 등 9개소가 있다.

신민일(申敏一) 선생의 삶과 시문(詩文) 돌아보기

이 동 료*

1. 들어가며
2. 돌아보기
 - 가) 가계(家系)
 - 나) 삶과 시문(詩文)
 - 다) 화당설(化堂說)에 대하여
3. 나오며

1. 들어가며

신민일(申敏一)의 자는 공보(功甫) 호는 화당(化堂)이라 하였고, 평산(平山)이 본관이다.

1576년(선조 9) 파주 천현(현 법원읍) 금곡리에서 출생하여 1650년(효종1) 75세 천수를 마칠 때까지 일생을 나라에 봉사하고 학문과 시문에 정진한 근기서인(近畿西人)의 거유(巨儒)이다.

신민일의 본격적인 학문연마는 1593년 18세 때 우계(牛溪) 성혼 선생과의 인연으로부터 시작된다. 즉 우계선생의 아들 성문준의 딸이 그의 부인이다.

신민일은 1615년 과거에 급제하여 성균관 학유(學諭)와 여러 벼슬을 지내고, 1650년 효종 초에 대사성(大司成)에 이르렀다. ‘대사성(大司成)’이란 조선시대 정3품의 관직으로 성균관(成均館)의 최고관직으로 당산관급이며 유학(儒學)과 문묘(文廟)의 관리를 맡아보는 자리이다. 유생을 가르치

* 파주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고 지도하는 직책인만큼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나, 홍문관 대제학(弘文館 大堤學)이 겸직하는 경우도 있었다. 오늘날의 문교부 장관이나 국립 서울대 총장에 해당하는 자리이다.

따라서 파주에서 태어나 파주에서 학문을 익히고 파주에 유택과 사당이 있는 선현으로 국립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의 수장인 대사성에 단망(單望)으로 이른 사람은 오직 신민일 한 사람 뿐이다.

이에 본인은 대사성 화당 신민일 선생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사료조사와 문헌, 문집 연구, 현장답사를 통해 이분의 삶과 시문(詩文)을 고찰하고자 한다.

2. 돌아보기

가) 가계(家系)

지수재(知守齋) 유척기가 쓴 <成均館大司成申公神道碑銘>에 의하면, 신민일의 원조(遠祖)는 고려대사장절공(高麗太師壯節公) 승겸(崇謙)이며, 고조는 사헌부 감찰 영석(永錫), 증조부는 사직서령(社稷署令) 원(援), 조부는 사마양시(司馬兩試)에 증판서(贈判書)를 한 정미(廷美), 부(父)는 사재감첨정(司宰監僉正) 암(黯)으로 장수하여 통정대부에 오르고 좌찬성(左贊成) 증직을 받았다. 모(母)는 순천 김씨로 절도사(節都司) 지의 딸이다.

신민일의 형제는 다섯인데 위로 공일(恭一), 관일(寬一) 등 형이 있고, 아래로 누이 두 명이 있다.

1593년(선조 26) 18세 때 우계(牛溪) 성혼(成渾)의 손녀이며 성문준(成文濬)의 딸 창녕 성씨와 결혼하였으나, 장남 통정대부(通政大夫) 부사(府使) 상(尙)과 딸 네 명을 두고 사별하였다. 상(尙)은 찬성(贊成)으로 추증되고, 사위는 조익(曹翼), 이면(李冕), 목사 이징(李澄), 조일호(趙一豪) 등이다.

파평 윤씨 사직(社稷) 윤면년(尹旼年)의 딸과 재혼하여 딸 하나를 두고 상처하였고, 사위는 김선(金塏)이다.

세번째 해주 윤씨 윤종노(尹宗魯)의 딸을 삼취로 맞아 장령(掌令) 경(憬), 참봉 성(楮), 상(尙), 유수(留守) 양(攄), 강(樞), 정(性), 항(恆)을 두고 사위는 이제황(李齊黃)이다. 모두 8남 6녀를 두었다.

신민일은 후에 두 아들의 공훈으로 승록대부 의정부 좌찬성에 증직되었다.

문집으로 《화당집(化堂集)》이 있으며, 묘소는 파주 법원을 금곡리에 있다. 위패는 파주 파산 서원 경현당에 배위되었다.

나) 삶과 시문(詩文)

이처럼 조선중기의 대유학자이며 유교 교육의 수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주에서조차 이분에 대한 조명이 소극적이었던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제 본론에서는 특히 신민일의 삶의 여정 속에 우러나온 시문(詩文)을 소개하면서, 그의 공적인 행적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이 글을 주제로 삼는 바이다.

그의 시문은 《화당집(化堂集)》에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5권 3책으로 목판본이다. 1720년 증손 신임(申鎰)이 편찬하고 현손 신사철이 간행하였으며, 서문은 없고 권말에 신임의 발문이 있다.

신민일 사후 여러 자손집에 보관되었던 시문을 모아 아들 신양과 손자 신명규가 상·중·하 정고본(定稿本)을 편찬하였으나, 당시 파주 광탄에 살며 서문과 묘지문을 써주기로 했던 현석 박세채가 1695년 타계하고, 이어 1706년 아들 신앙도 죽어 간행은 중단되었다가, 그 후 현손 신사철이 전라도 관찰사로 있을 때 초간본 《누판고(鏤板考)》를 간행하였다. 이 초간본은 전주 위봉사에 보관되어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문집의 구성은,

권1은 사부(辭賦) 4편, 시-145수.

권2는 시-125수, 명(銘), 잠(箴), 상량문 각-1편, 제문-11편.

권3은 서(序)-1편, 기(記)-1편, 논(論), 설(說), 발(跋) 각-2편, 잡저-3편 서(書)-1편, 돈유초(敦諭草)-2편 소차(疏筵)-10편.

권4는 소차-11편, 계사(啓辭)-12편, 행장-1편, 묘지명-1편, 잡저-1편.

권5는 별도로 중화도설(中和圖說), 포저태형서(浦渚台兄書), 춘추쇄설(春秋瑣說), 포저대학설(浦渚大學說) 등으로 순수 문학성 짙은 시는 250여 편이다.

끝으로 신임(申鎰)의 발문이 있다.

화당 신민일의 어린시절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그의 가계를 살펴보면 엄한 가정교육속에서 성장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그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우계문하에 들어가 ‘우계서실(牛溪書室)’(파산서원 자리)에서 학업을 연마했으며, 우계선생은 신민일의 수업태도에 대해서 “입지견고 강독심근(入志堅固 講讀甚勤)”하다 칭찬 하였고, 사람이 큰 뜻을 품고 학문에 매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였다.

1615년(광해 7) 40세 때 비로소 사마시를 거쳐 식년문과 병(丙)과에 합격하였다. 당시는 광해군의 폭정이 극히 심했던 시절이어서 척신 이이첨 등의 횡포와 매관매직이 성행하던 때라 신민일은 이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 스스로 성균관 학유(學諭)가 되었다. 학유는 현재의 대학교수에 해당하는 직책이었다.

1620년(광해12) 가주서(假注書)로 경운궁에 입직하였는데, ‘가주서’란 승정원에 두었던 정7품의 임시직으로 승정원의 일기를 기록·정리하는 직책이었다.

다음 시는 이때의 작품이다.

· 慶會池祈雨

龍池春水遠含空	봄날 연못속에 먼 하늘이 잠기고
燕子差池淡淡風	제비들은 물 위에 떴다가 잠겼다
坐久忽成江海夢	오래 앉았더니 홀연 강물따라 갔는데
不知身在禁垣東	깜박, 잊었구나, 담장에 갇힌 몸인 걸

1621년(광해13) 경기도 연서도찰방(延署道察訪)으로 나가 마정(馬政)을 논하는 <논마정소(論馬政疏)>를 올렸다.

‘찰방’이란 외관직으로 종6품의 역참 관리로서 역참의 운영과 역리(驛吏), 노비 차정(車停)관리와 관사(館舍) 보수 등을 관장하는 직책이었다. 특히 ‘연서역’은(현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 서로(西路)의 첫번째 역참으로, 이어지는 파주지역의 벽제역, 마산역, 동파역 등은 의주대로를 통해 중국으로 가는 중요한 도로이니 마필(馬匹)을 늘리고 역참을 보수하여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1622년(광해14) 강원도 은계도(銀溪道) 찰방으로 임명되어 부임하면서 강원지역의 금강산 절경을 시(詩)로 썼다.

· 金剛道上作

衫檜蒼蒼石路傾	울창한 나무잎은 돌길에 우거지고
凍雲埋壑細泉鳴	찬 구름 바위틈엔 졸졸졸 샘물 소리
清溪自是神仙景	깊은 계곡 맑은 물 그 아니 신선인가
何必金剛頂上行	하필 금강산 정상을 향해 가는 중이네

· 次金剛僧法堅韻

坡平寺裏懸燈夜	파평사 처마 끝에 매단 밤 등불을
忪怛山中下榻時	여기 산중에서 다시 보니 참 반갑다
二十三年如一夢	지난 23년이 한날 꿈길 같은데
重逢贏得鬢成絲	뉘수룩한 수염끝로 다시 만나네

이 때에 친한 친구 청음(淸陰) 김상헌이 송별시를 지어 주었다.

· 察訪 申功甫

金尙憲

膠膠復擾擾	어지럽고 소란스런 세월 속에서
五十二回春	선두번째 봄은 다시 돌아왔구나
早慕希賢士	일찍부터 현사되길 흠모했으나
今漸避色人	이젠 여색 피한 이에 남부끄럽네
鄉愁幾心折	향수병에 마음 몇 번 꺾이었던가

世事獨眉顰	세상의 일 유독 미간 찌푸려지네
世多謝申公子	신 공자에게 감사하는 맘 많거니와
柴門枉駕頻	사림문에 자주 찾아와 주었다네

1624년(인조 1) 인조반정으로 인조가 왕이 된 후 이듬해 예조정랑(禮朝正郎)이 되었다. ‘예조정랑’이란 예조에 둔 정5품의 관직으로 정원은 예조판서 1명, 예조참판 1명, 예조참의 1명 등 3인이며, 그 아래 정6품의 예조좌랑 3인이 있다. 예조정랑을 제수받은 사람은 예조좌랑을 제수받지 못하며 정랑의 사무관장하에 계제사(稽制司), 전향사(典享司), 전객사(典客司), 등의 업무 분장이 있다.

‘계제사’란 의식(儀式), 제도(制度), 조회(朝會), 경연(經筵), 사관(史官), 학교, 과거시험, 인신(印信), 표전(表箋), 책명(冊名), 천문(天文), 누각(漏刻), 국장(國葬), 선왕의 묘회(廟諱), 상장(喪葬) 등의 일을 관장하는 직책이다.

‘전향사’란 연회, 제사 제물(祭物), 음선(飲膳), 의약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 보는 자리이다. ‘전객사’란 외국에 사신 파견하는 일, 사신의 영접, 하사품 관리 등을 맡아 보는 기관이다. 이때에 신민일이 선릉(宣陵)의 단오제에 전사관(典祀官)이 되어 제례를 진행할 때 환관 나업(羅業)의 방자함을 상소한 글이 <인조실록>에 이렇게 기록 되어 있다. ‘선릉’은 성종과 그의 비 정현왕후 윤씨의 능이다.

· 인조실록 인조 2년(1624) 5월 6일

환관 나업의 방자함을 탄핵하는 예조정랑 신민일의 상소

예조정랑 신민일이 상소하여 宦侍의 교만 방자한 폐단을 극언하자, 상이 유사로 하역금 推治하게 하라고 답하였다. 이때 신민일이 선릉의 단오제에 전시관으로 차출되었는데 출발할 즈음에 환관 나업이 바로 앞에서 피하지 않았으므로, 민일이 상소하기를, “능침의 奠物을 만나면 반드시 공경해야 하므로, 대신 이하가 반드시 말을 달려 숨거나, 말에서 내려 공읍(拱揖)하고 서는데, 나업은 태연히 말을 멈추고 끝내 말을 내려 숨지 않았으며 말하는 태도가 도리에 어그러졌습니다. 환사의 교만 방자한 버릇을 조장시킬 수 없으니, 유사를 시켜 그 불경의 죄를 다스려 주옵소서.

1627년(인조 5) 면천군수로 나가 시(詩)를 쓰며 민정을 살피다.

· 登沔川故城

銅馬遺墟草樹荒	신을 보내신 곳 초목들 황폐한 고을
登臨海色接蒼茫	아득한 바다를 보며 언덕에 오르니

廢郊猶有雲埋壘 무너진 성터 구름 속 켜켜이 묻힌 돌
古堞空餘月過牆 옛성 빈 터전에 달빛은 담장을 넘는다

千里來遊傷客恨 천리 밖 찾아와 거니는 상한 이 마음
一杯相屬緩愁腸 한잔 술 나누며 서로 마음 달래는데
明朝歸去水南路 내일 다시 조정으로 돌아간다면
莫遣音書滯一方 다시는 이런 곳에 보내지 마시라

이때에 면천수령으로 가는 신민일에게 계곡 장유가 송별시를 지어 주었다.

· 送申功甫之任旴川

	장유
御史霜臺峻	사헌부에선 준엄한 어사이셨고
紛署妍郎官	조정엔 있을 때는 깔끔한 낭관
却緣勞侍從	수고한 시종관 위로하려고
聊此領山川	산골마을 수령으로 보내셨다오
五馬行湖外	다섯말 수레 타고 강호로 나가는 몸
雙魚問日邊	이제는 편지로 소식을 물어보리
知君有能事	알다마다 그대는 일처리 능란한 사람
臥閣輟蒲鞭	방에 누워 스스로 채찍치지 마시라

이 해에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강화도로 가는 인조를 호종하였으며, 조정에서는 청과의 전투에 임하려고 했으나 이의 부당함을 요청하는 <강도행재상봉사(江都行在上封辭)>를 올리다. 다시 지평(持平)으로 등용되었는데, ‘지평’이란 사헌부 정5품 벼슬로서 정원이 2명이다. 이때 신민일이 차자를 올려 인재(人材)의 올바른 등용을 건의하고, <논궁가면세계사(論宮家免稅啓辭)>를 올려 왕족들의 면세제도에 대해 그 부당함을 지적, 면세 대상은 내수사전(內需司田) 뿐이며, 사가(私家)에 지급되면 세금을 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내수사’란 궁중에서 쓰는 미곡, 포목, 잡화, 노비 등을 맡아보는 관청이었다. 1628년(인조 6) 인조의 장남 소현세자와 강빈의 가례(嘉禮)에 공을 세워 승진하고, 진휼종사관(賑恤從事官)이 되어 호서지방으로 갔다. ‘진휼종사관’이란 천재지변이나 기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지방에 파견되어 백성을 구제하는 일을 맡았던 직책이었다. 이때에 쓴 시가 아래 작품이다.

· 公州道上

清溪一曲繞魚磯	맑은 계곡물에는 물고기들 뛰어놀고
岸上人家水浸扉	언덕 위 초가집 사립문 물에 잠겼는데
却憶瀨川山下路	억겁을 산돌아 길 아래 흐르는 강물은
澄江如練照征衣	한폭 비단을 풀어 놓은 듯 옷깃을 비춘다

1630년(인조 8) 목릉의 면례(緡禮 묘를 옮김)와 관련하여 봉사를 올렸는데, 목릉은 선조와 정비 의인왕후 박씨, 계비 인목왕후 김씨의 능을 말한다. 원래 선조의 목릉은 경기 구리 인창동 동구릉 경내의 건원릉의 서편, 현재의 경릉 자리에 있었는데, 병풍석이 기울어지고 능안에 물이 찬다는 말에 능을 옮기기로 했다. 그러나 막상 무덤을 열어보니 물이 차기는커녕 흙이 보슬보슬했으나, 기왕에 옮기기로 한 것이니, 왕후 두 명의 능과 함께 한 자리에 동원 3강릉을 만들었다. 이때 신민일이 노제(廬祭)가 끝날때까지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청하였다.

1631년(인조9) 보덕(輔德)으로 기우제를 지낼 때 잘 살피지 못한 죄로 추고되다. ‘보덕’은 세자시강원에서 경사, 도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리로 종3품의 벼슬로 정원 1명이었으나, 인조때는 정3품으로 승격시켰다. 이때에 학문강의가 뛰어나 칭찬을 받았다.

다시 장령(掌令)이되다. ‘장령’이란 사헌부 정4품 벼슬이다.

1632년(인조10) 인조가 자신의 생부(生父) 정원군을 ‘원종(元宗)’으로 추승하려하자, 이에 반대하고 봉사를 올리다. 이때 추승논의에 반대한 사람들은 김장생, 송시열 등 서인 노론계를 중심으로한 김집, 송준길, 이유태, 강석기, 장유, 이후원 등이었다.

이 해에 전라도 경차관(敬差官)이 되어 호서지방으로 내려갔다. ‘경차관’은 지방에 특수한 일이 발생했을 때 임시로 내려보내는 관직이며, 이때에 쓴 시가 아래 시이다.

· 次成歡館壁上韻 全羅敬差時

漠漠征途塵滿衣	막막히 가는길에 옷은 온통 먼지투성이
悠悠關外故人稀	유유히 떠나는 길 닳익은 이 하나 없네
南去北來頭盡白	남북으로 갔다 왔다 머리칼 하얗게 세는데
驛梅官柳夢依依	매화꽃 버들가지는 휘늘어져 있구나

· 金溝壁上韻

旅館寒燈耿耿	여관방에 찬 등불은 가물거리고
孤村砧杵家家	외진 마을 집집마다 다듬이 소리
遠客無眠夜永	나그네 잠 못드는 기나 긴 밤에

鄉書不到天涯 집 소식은 아득히 오지 않는다

· 道中

麥田青青稻田白 보리밭은 푸르르고 벼밭은 하얗고
各各水中啼亂蛙 이곳저곳 물속에선 개구리 울음소리
壟上野堂開無數 밭고랑엔 수도 없이 피어나는 들꽃이
風飄香雪落來花 지는 꽃 바람결에 눈꽃처럼 날린다

1633년(인조11) 다시 사간(司諫)이 되었다. ‘사간’은 사간원에서 임금의 잘못을 간하고 논박하는 일을 맡아보는 벼슬이다. 종3품의 문관 1명이 정원이다.

1634년(인조12) 신민일은 ‘원종(元宗)’ 추승의 일로 삭탈관직 되어 강계로 유배되었다. 이때에 장유와 김상헌이 강계로 유배가는 신민일에게 시를 지어 전송하였다.

· 送申司諫功甫謫江界

장유

天涯遷謫奈君何 멀리 귀양가는 그대 어찌 할거나
病裡無言涕淚多 병든 이 몸 할 말 잊고 눈물 흘리네
西北一時荊棘盡 서북지방 한때 가시울타리 친곳
却愁他日鬢銅駝 두려워라, 이런 일이 또 있을까 봐

· 강계유배지의 신공보에게

김상헌

太空無端倪 끝없이 펼쳐진 질푸른 하늘가에
浮雲無定止 정처 없이 떠도는 구름 한 송이
隨風恣飛揚 바람 불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가
一息千萬里 숨한번 쉴 사이에 천만리나 날아가네
不自任去留 의도 없이 떠나고 머무는 구름
何能分遠邇 멀고 가까움 따질 수 있으리요
出岵本無心 뫼봉우리 나올 때도 본래 무심이요
歸山亦偶爾 산으로 다시 돌아옴도 우연일 뿐이려니

人生寄宇內	우주 안에 붙어사는 우리네 인생
無以異於此	이와 다를 것이 뭐가 있으랴
東西與南北	동서남북 어디서 몸 붙이고 살든 간에
莫非天所使	모두 하늘의 부림받는 것이로다
奈何世上人	그런데 어찌하여 세상 사람들
營營擇便利	즉자살자 이로움만 좇아서 다니는고
相將智力求	괴부리고 안달하는 그들 모습들이
可笑不達理	우습다, 이치에 어긋나 그토록 우습다니
坡翁示妙訣	파주의 노인 묘한 비결 보여주었으니

화당 신민일은 유배지 강계에서 <갑술강계적소>를 써서 임금께 올리고, 이때의 생활과 느낌을 시로 쓰며 학문연구에 전념하였다.

· 大同江感懷

曾路關西路	또 다시 관서로를 가는구나
如今四十年	지난 40 여년이 어제 같은데
白頭重過此	그동안 머리는 하얗게 됐는데
城廓亦依然	성곽은 변함없이 의연하구나

1636년(인조14) 호란(胡亂)을 예견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봉사(封事)를 올린다. 그 중요 내용은 “장수를 선발하고 병기(兵器)를 갖추며 인재를 구해 반드시 싸워 이긴다는 의지를 굳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주청하였다. 이 해 12월 청나라가 침입하였으니 이른바 ‘병자호란’이다. 이 때 신민일은 왕을 호종하여 남한산성에 들어갔다. 조정에서는 청과 화친해야 한다는 화친파(和親派)와 오랑캐 청과 죽음을 싸워야 한다는 척화파(斥和派)로 국론이 분분했으나 결국 인조는 송파나루에서 청태종에게 항복하고 척화신을 잡아들이라는 청나라의 요구에 아들인 신상(申尙)이 척화신으로 지목되어 면직되어 원주로 귀양가는 자리에서 신민일은 의연히 말했다. “의로써 죽는다면 죽어도 무슨 한이 있으리오.” 이를 지켜 본 동계(桐溪) 정운(鄭筠)이 “지금과 같은 세상에 공보와 같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하고 말했다. 신민일은 이때의 심정을 이렇게 시(詩)로 썼다.

· 憶 恂行

嶺頭風雪正肅肅	고개위에 눈바람은 쌀쌀한데
---------	----------------

行色遲遲去路遙	행색은 초라하고 갈길은 멀구나
駐馬望雲非一度	말을 멈추고 구름밖 바라보니
明朝應過石溪橋	내일 아침에야 석계교 건너겠지

· 送 恂 夜 坐

父送兒歸弟別兄	아버가 보낸 자식 형 아우 작별할 때
相思兩地月同明	그리는 정이야 어찌 서로 다르리오
燈前難作還家夢	등불앞에 불빛같은 신세 어찌 돌아올 꿈을 꾸리
愁鬢應添白萬莖	구렛나루에 하얗게 센 수염이 쓸쓸하여라

1637년(인조 15) 병자호란 후 영남으로 내려가 상주. 금산에서 우거하였다. 난중에 왕을 호종한 공로로 통정계(通政階)에 오르다. '통정계'란 정3품 당상관인 문관. 종친 및 의빈의 관계(官階)를 일컫는다. 1638년(인조16) 소백산 아래 풍기(豊基) 구천촌(九泉村)에 살며 단양8경(丹陽八景)을 구경하고 풍기, 영주 소백산 경치를 시(詩)로 썼다

· 寓居卽事

粟花初發麥風清	밤꽃 필 무렵이면 보리밭엔 바람이 일고
隱几獨眠遺世情	책상을 물리치고 홀로 깊은 잠에 들었는데
籬落無人白日情	외로운 마을 인적 없는 한낮의 꿈속에서
隔溪時聽賣茶聲	내 건너서 들려오는 차(茶) 파는 소리

· 浮石寺

浮石秋光霜葉然	뜬 들은 낙엽처럼 가을빛에 물들고
上方樓閣近西天	윗뜰의 누각은 석양빛에 닿았는데
我來欲問千年事	내 여기 와 천년전 일 물어보나니
落日孤雲意不傳	지는 해 외론 구름 그 뜻 전치 못하네

· 島潭

何幸神仙景	어느 신선이 놀던 경치인가
眞成漫浪遊	진실로 낭만이 흐르는구나
清江三島影	맑은 물에 비치는 섬 그림자

落日一歸舟	노을빛에 배 한척이 돌아오는데
鷗鷺如相近	갈매기와 해오라기 가까이 나네
人煙可傍洲	마을에선 저녁연기 피어오르고
餘生無慾事	남은여생 욕심 없이 살고 싶어라
擬卜此林丘	우거진 나무 숲에 오두막을 짓고서

· 溪上卽事(豊基九臯村)

門前一條溪	집앞엔 한줄기 시냇물 흐르고
落葉漫溪水	낙엽은 물속에 떠 흐르는데
人渡石陽橋	사람이 건너가는 노을빛 다리
依佈畫圖裏	한폭의 아름다운 그림속 같네

이때 자신의 호를 ‘화당(化堂)’이라 했다. 그리고 <化堂設>(화당설 1)을 쓰다. 장유가 <化堂說>(화당설 2)을, 김상헌이 <化堂贊>(화당설 3)을 쓰다. 1640(인조18) 동부승지(同副承旨)에 이어 우승지(右承旨)가 되었다. ‘승지’란 승정원(承政院) 정3품 관직으로 정원이 6명이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간 백성과 김상헌 등 삼학사의 무사귀환을 도모하고, 전후 기아와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백성을 구휼하며 세금을 징수하지 말 것과 대군(大君)들의 집을 수리하지 말 것을 건의하였다.

1644년(인조22) 병조참의(兵曹參議)로 있을때 포도(捕盜)의 일과 군안(軍案)에 대해서 논하는 상소를 올렸다. 또 우승지로서 흥무적의 차자 내용이 온당치 못함을 말하다 파직 되었다. 1646(인조 24) 민형남 등과 구로회(九老會)를 만들었다. 구로회는 신민일을 중심으로 민형남 등 광해군을 반대하고 인조반정에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모인 일종의 ‘시동인회(詩同人會)’이다. 1648년(인조26) 외직을 희망하여 영흥부사로 나가며 시(詩)를 지었다.

· 元山感舊

臨津贈上望鄉臺	임진에서 떠나올 때 고향이 지척인데
屈指如今歲幾回	꼭아보니 오고간 세월이 몇 번이던고
終古海山青未了	영원해라 바다와 산은 푸른빛 끝없는데
此生頭白再歸來	다음 생에 이 몸은 흰머리로 다시 오겠지

1649년(인조 27) 인조가 승하하자 진향관(進香官)이 되고 분곡하고 체차되었다. 좌의정 포저(浦渚) 조익(趙翼:1579-1655)이 신민일을 대사성에 추천하며 이렇게 말했다. “새롭게 다스리는 초기

에는 교화(敎化)가 시급하니 사유(師儒)의 수장은 더욱 선택을 신중해야 합니다. 신공보는 어려서 부터 경학(經學)으로 업을 삼아 이에 힘쓰는지 오래되어 이에 이를만한 자가 없습니다. 청컨대, 이 자를 임명하여 오래 교체하지 말고 가르침에 힘쓰도록 하십시오”

조익은 오랫동안 성리학(性理學) 및 춘추쇄설(春秋瑣說), 중화도설(中和圖說) 등에 관해서 신민일과 문답하며 토론하였는데, 이 과정에 조익이 신민일의 높은 도학과 고매한 인품에 매료되어 대사성에 추천했다. 신민일은 장유, 최명길, 김상헌, 홍서봉 등과 친교(親交)를 맺었는데, 특히 장유는 효종의 왕비인 인선왕후의 부친이다. 1650(효종1) 단망(單望)으로 대사성이 되었다. 1월에 대사성에 임명 되어 8월 2일에 별세했으니, 재임기간은 불과 7개월이었다. 이 기간에 75세라는 나이와 부덕함을 들어 두번이나 <대사성(大司成)사면소>를 올렸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택은 향리인 파주 금곡 영평산에 있다.

신민일이 별세하자 정두경이 만사를 써 애도하였는데 전국의 유생들이 조문하였다.



법원을 금곡리 화당 신민일의 신도비와 묘소



화당 신민일 묘비

· 申大司成敏一挽

直詞元不世 經術復知名
 賦命爲中壽 君恩贈列卿
 才子高陽里 門徒太學生
 儒林相與弔 誰代大司成

정두경

하늘이 주신 수명까지 임금님 베풀 주시었네
 문장은 세상에 으뜸이요 학문 또한 이름 떨치니
 재능 있는 제자들과 문도는 온나라 태학생들이라
 유림들 서로 조문하거늘 누가 대사성 이을 것인가

특히 신민일은 향리인 파주를 사랑하여 여러편의 시편을 남기니 다음과 같다.

坡州關聯 詩

• 拜坡山書院

策馬獨尋坡院路	말 몰아 파산서원 찾아 가는 길
寒禽野水更依然	나는 새 흐르는 물 예대로인데
自憐舊學成何事	가련타, 그 가르치심 언제 이룰까
再拜師門愧昔賢	재배하며 심현님께 부끄러워라

• 花石亭

花石有基無草堂	화석정 빈터에는 풀만 무성하고
一江風月屬魚郎	저 강물 저 달빛은 어부들 것인데
自從先生損館後	선생을 따르던 이 정자 무너진 후
世上無復臥滄浪	세상에 다시 오잖고 강물만 누워 있네

• 石將軍韻

削成蒼石號將軍	파랗게 삭발한 바위장군 부처님이여
千古興亡問此君	천고흥망을 당신에게 물어보나니
閱世老仙那得比	이 세상 살아오며 뭘 얻고 뭘 잃었는지
眼看翻覆似浮雲	눈 씻고 바라보니 뜬 구름만 흐를 뿐

• 坡州道中聞歌

行歌啁啾亦有思	지지배배 노래하는 새들과 함께 가는 길
怨入秋雲結不流	서글퍼라 구름따라 쓸쓸하게 흘러가는데
此曲偏能催客恨	도리어 이 노래가 나의 한을 솟구치게 하니
何人不起望鄉愁	누군들 고향생각이 사무치지 않으리요

• 坡州道上

溪風作起雨初晴	골짜기에 부는 바람은 비 몰고 오는 바람
野菜青青蘆筍生	채소는 푸르르고 갈대, 죽순 돋아나고
簪紱半生空老去	반생을 억매어 빈손으로 늙어가니
不如歸去赴春耕	이제는 돌아가 봄 밭갈이나 하고 싶다

山雨霏霏 風萬林 산에 오는 안개비는 숲속에 자욱한데
 驛程歸客最關心 길 떠나는 나그네의 최대 관심사는
 孤村寂寂無人問 외로운 마을에 말나눌 사람 없음인데
 挑盡殘燈到夜深 깊은 밤 다다르니 지친 등불 나를 맞네

· 恭陵齋室次韻

齋院荒涼四壁頹 재실 사방 벽은 무너져 황량하고
 雨餘庭砌長莓苔 비온 뒤 섬돌에는 이끼가 끼었는데
 可憐太常龍鐘客 가련타, 벼슬 잃은 나그네 여기 찾아 와
 借問從今幾度來 묻노니, 몇사람이나 여기 찾아 왔던가

다) 화당설(化堂說)에 대하여

<化堂說>(화당설 1)

신민일

大抵物皆有所化也。根荑花實搖落而變衰者。草木之化也。鷗爲鵬雉爲蜃。雉掇爲鳥者。禽鳥之化也。若夫四時之遷改。天運之化也。至於爲人。稟天地之氣。同乎流運之中。則雖最靈於物。而亦不得不與物俱化也。故其所云爲。善或化於惡。惡或化於善。善而又化於善。化之善者也。聖人之化。美大之化也。伯玉之化。寡過之化也。余嘗西遷。適丁伯玉之行年知非。而化非所敢擬也。其所化者。特黑者蒼然而丹者枯槁。愁居懾處。一變化其心腸而觀化之期至也。是則其所以化者非所謂古人之化。而反有愧於草木禽鳥之化以自悲也。余於是化名其居。蓋亦取素位而行也。而人或有嘲之者。推其所以化之者以解之。爲化堂說也。

장유가 신민일의 호 '化堂'에 대해 <化堂說>을 썼다(화당설 2)

장유

- 생략 -

余友平山申功甫。有醇深朴茂之資。早從牛溪先生有聞焉。經閱世變。雅志彌確。往歲坐言事謫居西塞。年已耆矣。困心衡慮之中。有感於蘧伯玉六十化之語。遂以化堂自號。夫伯玉。古之良大夫也。五十而知四十九年之非。六十而六十化。則其遷改進修日新不已之實。可以想見。宜其見取於吾

夫子。而雖以莊生之闢誕。亦知其賢而亟稱之也。功甫以是自勉。其見卓矣。功甫既還朝。嘗一來訪余。顏貌髭髮無少損。而其中充然若有異於前也。豈亦有得於化者歟。噫。功甫六十而 有志於化矣。余今五十而尚未知非。有媿於功甫多矣。故爲化堂說以贈功甫。因自志其媿云。

내 친구인 평산(平山) 신공보(申功甫) 신민일(申敏一)은 순수하고 소박한 자질의 소유자로서 일찍이 우계 선생(牛溪先生) 성혼(成渾)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는데 세상 번고를 두루 거치면서도 평소에 지닌 뜻을 더욱 확고하게 견지하였다. 그러다가 지난해에는 임금에게 아뢴 일 때문에 벌을 받고 서쪽 변방에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나이가 벌써 60이었다. 그런데 괴로운 상념이 마음속에 교차하는 가운데에서도 거백옥(藺伯玉)이 60세에 자신을 변화시켰다는 말에 느낀 바가 있어 마침내는 화당(化堂)으로 자신의 호(號)를 삼았다고 한다.

대저 거백옥으로 말하면 옛날의 훌륭한 대부(大夫)로서 50세에도 49세 때까지의 잘못을 깨달았던 인물이었다. 그런데 60세가 될 때까지 계속 자신을 변화시켜 나갔고 보면, 그가 실제로 얼마나 개과천선하여 발전하면서 끊임없이 새롭게 되었을지를 상상해 볼 수가 있으니, 우리 부자(夫子 공자)로부터 인정받았던 것이 또한 당연하다 하겠다. 나아가 장생(莊生) 장자(莊子)처럼 세속의 일을 우습게 보는 사람마저도 그의 훌륭함을 인정하고서 극구 칭찬을 하였고 보면, 공보가 이를 자신의 목표로 삼고 노력하려 한 그 뜻이 탁월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공보가 조정에 돌아오고 나서 언젠가 한 번 나를 찾아왔는데 얼굴 모습은 물론 수염이나 머리칼 하나 손상된 것이 조금도 없었을 뿐더러 몸속에서 우리나라오는 분위기가 충만하여 마치 예전과는 다른 점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이 역시 변화되는 경지를 실제로 체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다.

아, 공보는 60이 되어서도 변화되는 데에 뜻을 두고 있는데, 나는 지금 나이 50을 먹도록 잘못된 것을 아직껏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공보에게 너무도 부끄럽기만 하다. 그래서 화당설(化堂說)을 지어 공보에게 주는 동시에 나의 부끄러운 심정을 스스로 토로하는 바이다.

또 김상헌은 신민일의 호 '화당(化堂)'에 대해 <화당찬(化堂贊)>을 썼다.

化堂贊 申功甫堂號(화당설 3)

김상헌

一氣中分。萬物法法。凡居兩間。孰久不遷。火傳於薪。水歸於壑。聖人從道。隨時變易。昔在蘧氏。亦云善化。知非即改。所以寡過。彼何人哉。希之則是。揭化名堂。微哉厥旨。世路滔滔。合汚同流。表和中剛。吾與申侯。

한 기운이 가운데가 나뉘지니 만물이 잘 자란다. 그 양쪽 사이에 끼어 있는 것 들은 어느 것이 오래되어도 변하지 않는다. 불은 쇠를 통하여 전해지고 물은 골자기로 돌아 흐른다. 성인께서는 도를 따르거니와 때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를 한다. 그 옛날 ‘거’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착한 쪽으로 잘 변했다 전해지는데, 그르다 싶으면 바로 고쳐 허물을 줄이며 살았다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선이나 악이나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면 그렇게 되네. ‘당(堂)’의 이름 ‘화당(化堂)’이라 그 뜻이 참으로 깊구나. 세상길은 도도하여 때로는 흙탕물 함께 흐르는데, 겉으로는 화평하고 속은 강하길 이제부터 신공과 함께 하리라.

3. 나오며

첫째 화당(化堂) 신민일 선생은 뛰어난 대학자이며 성실한 교육자였다. 비교적 늦은 나이인 40세에 급제하여 성균관 학유에서부터 시작하여 거주서, 찰방, 호조좌랑, 예조좌랑, 정랑을 거쳐 사헌부 지평과 장령, 사간원 정언 과 사간, 시강원 문학과 보덕에 제수된 것이 전후 10여 차례였고 동부승지, 우승지, 병조참의 등 벼슬의 높고 낮음이나 중앙관이나 지방관을 마다하지 않고 나라의 부름에 성심을 다해 봉직한 참 일꾼이었다. 불의(不義)와 부당(不當)한 일에는 단호하였고 나라일에 공명정대(公明正大)하여, 동춘당 송준길은 “대인(大人)은 백성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 했는데 공보(功甫)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하고 칭찬하였다. 특히 왕을 보좌하는데 지극하였고 경서(經書)를 강의 하는데 가장 뛰어났으므로 보덕(補德)으로 동궁전에 오래 있었다.

항상 방안에는 책이 가득하고 경전으로부터 유가(儒家)에 이르기까지 연구하지 않음이 없고, 70세에 이르러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독서(讀書)와 양심의 수양은 정신을 전일(專一)하게 하여 끊임없이 반성하고 변화하여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성의와 노력을 강조한 신민일의 인생 철학은 마침내 학문의 최고봉인 대사성에 이르게 한 대기만성형(大器晩成型) 대학자이며 교육자였다.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자매에게 자상하고 따뜻하여 가정이 늘 화목하였다. 대인관계에서는 온화하고 너그러운 많은 사람으로 부터 신망을 얻었으며, 특히 김상헌, 장유, 정온, 송준길, 홍서봉 등 당대의 거유들과의 친분관계 등 그의 폭넓은 교우(交友)관계는 그의 일생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일생에 단 한번 강계로 귀양갔으나 짧은 기간이었고 다시 임금의 부름을 받아 중책을 맡았으니, 비교적 일생이 평탄하고 순조로웠다 할 수 있겠다.

특히 ‘춘추(春秋)’에 더 심오하여 <춘추설(春秋說)> 30편을 지어 당대의 최고 학자요 문장가인 좌의정 장유와 서신으로 토론하였고, 또 선유(先儒)의 뜻을 취하여 <중화도(中和圖)>를 그려 교육하였다.

둘째 화당(化堂) 신민일선생은 파주를 사랑한 진정한 서정시인(敘情詩人)이었다. 본론에 수록된 파주관련 시는 6편에 불과하지만, 그 시속에 담겨진 내용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고 묻힌 파

주에 대한 한없는 애정을 담은 시편들임은 물론, 그 밖의 삶의 여정마다 읊은 시문들에도 나라사랑. 백성사랑. 자연사랑, 파주사랑이 스며 있는 시적(詩的) 서정성이 매우 짙은 작품들이 많다. 성품이 강직하고 위엄있는 대학자로 딱딱한 권위와 위엄만 있을 것 같은 화당 신민일이 이런 문학성 높은 시들을 지어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순박하고 따뜻한 인간성과 높은 도학적 경지에서 순화된 시심이 아니었나 싶다. 신임(申鎰)의 《화당집》발문에 “넘담근고 탈시속과구(恬澹近古 脫時俗科臼)”라하여 세속의 욕심을 버리고 담백하고 편안함이 담겨있는 문장은 그의 인간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이상과 같이 주마간산격(走馬看山格)으로 화당 신민일선생의 삶과 시문에 대해 살펴보았으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그의 학문영역은 필자의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구로회(九老會)에 대한 부분은 구성원 신원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다음 연구과제로 남겨 두면서 이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 참고자료

- 한국고전번역원 문집 총람 한시 원문과 번역문 일부
- 『한국의 한시』 허경진 1997년 평민사
- 『국어국문화학자료사전』 2000년 한국사전연구사
- 『坡州金石文大觀』 2000년 파주문화원
- 『파주시지』

6.25 종군기자비와 열여덟 그루 잣나무 이야기

성희모*

- I. 서론
- II. 본론
 - 1. 종군기자비
 - 1) 우리나라의 종군기자
 - 2) 6.25와 관련된 외국의 종군기자들
 - 2. 18그루 나무 이야기
 - 3. 현재의 관리상태
- III. 결론

I. 서론

1번 국도가 지나는 통일로, 6.25전쟁 때 프레스센터가 있었던 문산역 가까이에 있는 통일로 변의 통일공원 내에는 6.25와 관련된 여러가지 조형물들이 자리하고 있다. 통일공원은 1950년 한국전쟁이 끝나고 전쟁당시 산화한 국군장병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1973년 6월에 조성된(12,558평) 공원이다. 그 공원에는 송악산 전투에서 몸바쳐 싸운 육탄10용사비, 개마고원비 등이 하나씩 자꾸 세워지게 되는데, 그중 6.25 전쟁 중에 죽어간 종군기자들을 기념하기위해 1977년에 한국기자협회에서 세운(한국전 순직종군기자 추념비)도 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펜은 총보다 강하다”고 했고, “힘으로 죽이는 것보다 글로 죽이는 것이 더

* 파주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무섭다”고도 했다. 그래서 기자를 “무관(無冠)의 제왕”이라고도 부른다.

그렇게 종군기자비가 세워지고 그로부터 5년 후인 1982년, 그들의 뜻을 받들고자 봉사1리 주민들이 땅을 기증하고 순직한 기자들의 숫자만큼 나무를 심었다. 그리하여 그 곳에서는 그들의 얼처럼 늘 푸른 잣나무 18그루가 자라고 있는데, 이번 논고에서는 그 경위와 그후의 이야기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6.25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이다. 여기서 한국전이 일어난 배경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기로 하면 -

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영국·소련 세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 제 2차 세계 대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1943년 11월 27일 카이로에서 회담을 열었다. 이 회담에서 세 나라는 일본에게 항복을 권하고 그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던 국가들을 독립시킬 것을 결정하였고, 1945년 카이로 선언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여 발표한 것이 포츠담 선언이다.

연합국들은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에 따라 일본에게 항복을 받아내려고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된다. 이에 일본 천황은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고, 이 선언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는 독립을 하여,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해방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을 거라는 기쁨에 들뜬 것도 잠시,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미·영·소의 연합국 대표들은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에 모여 한반도를 둘로 나누어 각각 5년간 신탁통치를 하기로 한다.

이때는 전 세계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뉘어 이념이 대립하던 시대였고, 이 과정에서 1948년 5월에 북한을 제외하고 우리정부는 5.10 총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그 결과 남한에서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져 남북의 분단이 시작 되었다.

그렇게 남·북한에 각각 다른 정부가 들어선지 2년 후인,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이 예고도 없이 공격해왔으니 그것이 바로 6.25전쟁이다. 북한은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점령했고, 무기와 병력이 턱없이 부족했던 우리국군은 북한군이 한강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다리를 폭파시키며 대항했지만 몇 달후엔 부산, 마산 지역만 남기고 거의 모든 지역을 점령당하게 된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세계 21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오게 된다. 이에 맥아더 장군을 사령관으로 1950년 9월 15일 새벽, 인천 월미도에서 상륙작전을 펼쳐 서울을 되찾게 된다. 이때 임진강을 건너 38선을 밀고 올라가게 되는데, 1950년 10월 1일 육군이 38선을 넘어 진격한 날이어서 우리는 그날을 [국군의 날]로 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때 중공군의 개입으로 압록강변의 초산까지 올라간 국군은 눈물을 머금고 1.4후퇴를 하게 된다. 그때 대동강 철교를 건너오는 피란민들의 참상을 찍은 사진이 그해 플리처상을 수상한다. 그러다가 소련이 휴전을 제의해왔고, 38선을 경계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하며 전쟁을 일시적으로 종결짓는 정전국이 되었다. 이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시작해서 1953년 7월에 휴전을 하였으니 37개월 2일 17시간 동안 전쟁을 한 것이다.

이 전쟁으로 15만 명의 군인들이 전사했고, 45만 명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실종된 사람만도

약 2만명, 8천 6백여 명이 포로로 북한으로 끌려갔고, 피란민만 2백 40만명 가량이 된다. 또한 전쟁으로 인한 고아가 10만 명이나 생겨나는 그 민족상잔의 비극은 이루다 말할 수 없었으며 우리는 아직도 정전국, 휴전국이란 이름을 달고 사는 나라이다. 이에 파주의 통일공원에 세워진 종군기자추념비와 그 뜻을 기려 심어져 자라고 있는 나무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런 이야기가 널리 퍼져나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정리해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종군기자란 전쟁이 일어났거나 내란이 일어났을 때, 그 군대를 따라 전쟁터에 나가 전투 상황을 보도하는 기자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싸우는 군인들 못지않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전쟁이 나면서 종군기자라는 필요성과 고유명사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그런 단어가 생겨나게 되었을까? 우리에게 그런 종군기자의 필요성과 그들의 활약을 한 것은 1948년 여수. 순천 반란사건때와 지리산 토벌작전 그리고 제주도 출동 때였다. 그러다가 1949년 종군기자의 군사효력이 나타났고 본격적으로 중요하게 활약한 것이 1950·6·25일 한국전쟁 때이다. 1958년에는 중공과 대만의 금란도 사건 등을 취재하려갔던 최병우 종군기자가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최대의 민족상잔 비극인 6.25때도 많은 종군기자들이 활약을 하였고 또 전사도 하였다. 그때 희생된 종군기자는 한국인 1명, 외국기자 17명으로 조사되었다.

1. 종군기자비

그렇게 치열했던 한국전쟁이 정전이되고 그로부터 20여년이 흐른 1972년 3월, 일제강점기에 놓여졌던 1번 국도는 통일로로 불리게 된다. 바로 7·4 남북공동성명을 대비하여 북으로 가는 관문의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부터이다. 서울역에서부터 홍은동까지를 의주대로라 하고 거기서부터 임진각까지의 35.2Km를 통일로로 하기로 2010년 5월 19일 정하게 된다.

그런 통일로의 6.25 전쟁때 프레스센타가 있었던 문산역 근처 가까이에 1973년 통일공원을 조성하였다. 개성 전투에서 몸바쳐 싸운 육탄 10용사탑, 개마고원비, 김만술소위의 흉상비등 6.25전쟁때 희생된 용사들과 통일이나 안보와 관계된 조형물들이 들어서고 있다. 그리고 1977년 4월 27일 “한국기자협회”에서는 6.25때 산화한 종군기자들의 비를 세우게 되었다.

종군기자비 조형물의 모형은 타자기 모양의 화강암으로 저널리스트의 J자를 탄 모양이 위로 솟아있다. 비에는 전쟁이 난 상황을 나타내듯 둥그렇게 뚫린 지구속에 한국의 지구의가 조각 되어있고, 그 밑으로 기자정신을 상징하는 펜을 쥐 손과 그 아래로 승리의 월계수 잎이 가로 질러져 있다. 비의 기단석에는 그때 희생된 종군기자들 명단 18명의 이름들이 새겨져있으며 아래로 펼쳐진 계단의 층들이 기자비의 우뚝함을 더해준다.



통일공원에 1977년 세워진 종군기자비



측면에서 바라본 종군기자비



종군추념비에서는 6.25전쟁당시 프레스센터가 있었던 문산역으로 오가는 전철이 잘 보인다.



6. 25때 전사한 종군기자 18명의 명단

1) 우리나라 종군기자 이야기

위에서 살펴본대로 우리나라에서 종군기자라는 말이 생겨나고 처음 활약한 것은 여순반란 사건 때이다. 그러나 종군기자의 본격적인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그 1년 후이다. 전 대한언론인회회장이던 6.25때의 종군기자인 이혜복²⁾이 쓴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아픔 없어야 한다』는 책을 참고로 들어보기로 하면 -

우리나라에서 종군기자라는 특별한 명칭의 기자가 처음 탄생한 것은 1949년 9월의 일이었다.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신성모씨가 “기자들도 전쟁이 일어나면 최 일선에 투입돼야 하는 만큼, 미리 군사훈련을 받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조선, 동아, 경향, 서울, 국제, 연합, 태양, 자유, 대동신문, 합동통신, 중앙통신, KBS 등의 취재기자와 사진기자 20여명이 태릉의 육군사관학교(교장 이한림 대령)에서 군사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1950년 6.25인 한국전쟁에 전원 투입되면서 인천상륙작전, 원산탈환작전, 평양입성,

2) 경기 양평에서 태어났으며, 종군기자 중 한 명이다. 1948년 10월 여순반란사건이 일어난 지 1주일 만에 민주일보 사회부 기자로 여수주 직접 들어가 생생한 취재 보도를 했다. 50년 6·25전쟁이 터지자 경향신문 기자로 국방부 출입과 여순반란사건 취재경력이 많다는 이유로 개전 첫날부터 김수중 사진기자와 함께 벵타이를 맨 채 곧바로 동두천 첫 전투 현장으로 '특파'됐다. 그 당시는 바이리인을 '동두천발 이혜복 특파원'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53년 7월 정전협정 그 순간까지 그의 종군 취재는 대서특필과 특종으로 경향신문 1면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수많은 취재와 보도 중 동두천 첫 개전 승보와 국군 평양 탈환 특종은 우리 군과 국민들의 사기를 드높였다.

백마고지 전투 등을 생생하게 보도하였다. 3년 동안 계속된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한 종군기자도 많았다.

기록에 의하면 한국전쟁에서 최초로 순직한 종군기자는 이곳 추념비의 제일 상단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서울신문의 한규호 기자다. 한 기자는 1948년 10월에 있었던 여수, 순천 반란사건과 지리산 토벌작전, 제주도 폭동사건에 직접 뛰어들었던 많은 경험을 지니고 있었던 기자였다. 한국전쟁이 벌어졌던 6월25일 아침, 한 기자는 편집국장 지시에 따라 개성과 임진강을 연결하는 서부전선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전선에서 한규호 특파원 발’이라는 바이라인을 첫머리로 한 기사는 최일선에서 한국전쟁 발발 당시의 모습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개성 전방 80km에 접한 지역에 소위 인민군 2개 사단과 경비대 2개 여단의 병력을 투입시킨 괴뢰집단은 불법남침을 시도하고 있으나, ○○부대 김영호 대령은 우리 국군부대 장병들과 함께 괴뢰집단의 남침을 저지하고 있다” 이것이 한규호 기자가 서부전선에서 보낸 처음이자 마지막 기사였다고 한다. 그 뒤 한 기자를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2) 6. 25와 관련된 외국의 종군기자들

종군기자라고 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1935년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군이 장개석軍에게 밀리게 될 때, 1만2천5백km의 대장정의 과정을 상세하게 보도했던 미국 헤럴드의 ‘에드거팍스 스노보니’가 유명하다. 공산주의자도 아니면서 그토록 험난한 전투와 도피의 대열을 취재한 스노 기자는 오직 ‘기자의 사명’ 하나 때문에 자신의 목숨마저 포기할 각오를 했다는 사람, 그는 나중에 ‘중국의 붉은 별’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6.25때 활동한 종군기자로는 사진부문으로 플리처상³⁾을 수상하여 유명해진 ‘막스 데스퍼’와 트리분지의 여 종군기자 “히긴스”가 있다. 데스퍼는 부서진 대동강철교 사진을 찍어 그해의 플리처상을 수상하였으며, 히긴스는 국제부문으로 플리처상을 수상한다.

6.25전쟁의 비극을 가장 잘 보여주었다는 평을 받고있는 ‘대동강 철교’를 찍은 전 AP통신 종군기자 막스 데스퍼⁴⁾는 51년 1월 혹독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평양에서 중공군 인해전술에 밀려 퇴각하고 있을 무렵, 부교를 띄워 강을 건너는 군인들 틈에 끼어서 건너게 된다.

얼은 대동강을 건너던 그때, 그는 부서진 대동강 철교 위를 보고 너무나 놀라 눈을 땔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곳에서 난생 처음 보는 처참한 광경을 보게 되는데, 중공군을 피해 부서진 철교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피란민들이었다. 황급히 강의 남쪽 둑에 올라 철교 난간에 ‘개미떼같이 붙어 있는’ 피란민 행렬을 향해 셔터를 눌러댔다. 머리카락에 짐을 이고 진 사람들, 그들 중 상당수는 다리 난간 위에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강 아래로 떨어져 죽어 갔다. 강 북쪽에는 다리에 오르지 못한 수천 명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셔터를 누르는 데스퍼는 장갑을 끼었는데도 셔터를 누르지 못 할 정도로 추운 날씨였다고 한다.

3) Pulitzer : 미국의 권위있는 보도·문학·음악상·저명한 저널리스트·플리처의 유언에 따라 1917년 창설, 뉴스·보도사진 등 신문의 8개 부문, 문학 6개, 음악 1개 부문의 대중을 위한 공로가 인정되는 미국인이 1만 달러의 상금과 함께 받는다.

4) 미국 종군기자(현 96세) 대동강 철교로 그해 플리처 상을 수상했다.

그는 “45년간 사진기자를 했고 그중 10여년은 제2차 세계대전 등 끔찍한 전쟁터를 돌았는데, 그날 같은 장면은 정말 처음이었다”고 회상한다. 그리고 “나는 이 사진으로 풀리처상을 받아 영예를 누렸지만, 사진 속의 많은 한국인은 아직도 큰 상처를 갖고 있을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1977년 통일공원에서 행해진 “중군기자추념비제막식”에도 다녀갔으며, 6.25 한국전쟁 60주년이던 작년 예술의 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행해진 “풀리처상 사진전”에도 다녀갔다.

그리고 한국군 해병에게 ‘귀신 잡는 해병(Ghost catching Marines)’이란 애칭을 붙여 준 최초의 여중군기자 ‘히긴스’도 유명하다. 한국전쟁에서 낚은 수많은 특종과 현장기사로 여성으로선 처음으로 풀리처상 국제부문상(1951년)을 탔다. 뉴욕 헤럴드 트리뷴지의 여기자였던 그녀는 50년 6월 수원 비행장 활주로에 앉아 한강 다리 폭파 기사를 쓰던 중, 더글러스 맥아더 사령관의 눈에 띄었다. 맥아더는 “여기선 기사를 송고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도쿄로 가려면 태워주겠다고 해 그 비행기를 타게 되었다. 그 비행기 안에서 맥아더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왔고, 히긴스는 그때 “미국이 곧 지상군을 파견할 것”이라는 특종을 낚았다.

이튿날 다시 한국 전장으로 복귀한 히긴스는 미군과 한국군을 따라다니며 전쟁의 참상, 한국인의 고난을 상세히 보도하는데 열정을 쏟았다. 9월 15일 한·미 연합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을 때, 생생한 르포 기사를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고 펜으로 자유를 위해 실상을 알렸다.

미국 정부는 군인도 아닌 그녀를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해 예우하고 있다. 그의 후손들도 6.25전쟁 60주년이 되던 작년 우리나라를 방문했었다.



대동강철교를 찍어 1951년 풀리처상을 수상한
막스 데스퍼. 1977년 통일공원에서 치러진
중군기자 추념비 제막식에 다녀갔다.



세계최초의 여 중군기자인 마게리트 히긴스,
[한국전쟁]이란 책을 써 1951년 국제부문
풀리처상을 수상했다.

5) 미국 최초의 여자 중군기자, 군인이 아니었음에도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있다. 24년의 기자생활동안 한국전 외에 베트남과 콩고전 등의 전장을 뛰어다녔다. 베트남에서 얻은 풍토병으로 1944년 46세의 나이로 사망.



1953년 중동부전선에서 진중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한국군 중군기자들 모습. 사진 - 이해복(맨왼쪽),



- 파주시청 제공

통일공원의 종군추념비에서는 해마다 4월 27일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식이 치러지고 있다.

이제 통일공원의 종군기자비에 새겨진 기자들 명단을 살펴보기로 하자.

- 우리나라(1명): 서울신문기자 한규호
- 미국(10명): 어니필러/ 레이리처드슨/ 윌슨필더/ 제임스 서플/앨버트 힐튼/ 윌리엄R무어/ 프랭크 에머리/ 윌리엄 M 그레이엄/ 찰스 로스크란스 2세/ 캔 이노우에.
- 영국(4명): 스티븐 시모즈/ 이이언 모리슨/ 크리토피어 버클리/디렉 퍼시
- 프랑스(2명): 맛시빌렌 필로네펬코/ 장마리 드 프레몽빌
- 필리핀(1명): 호르헤T 태오도로.

2. 열여덟그루 잣나무 이야기

종군기자비가 세워진 통일공원의 주소지는 파주읍 봉서1리이다. 그렇게 6.25 전쟁으로 희생된 종군기자들의 넋을 기린 기자비가 세워지고 5년 후인 1982년, 그 마을에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가 탄생한다. 그 희생된 기자들의 숫자만큼의 늘 푸른 잣나무가 심어지게 되는데, 그곳은 당시 개인 소유의 땅이었다. 이수영(작고), 이종인(작고)님이 당시 같은 고성이씨 집안이면서 이장이던 이태영(작고)씨의 권유로 땅을 희사하게 된다.

이수영님의 아드님인 이호영(현75)씨를 여러번의 통화 끝에 잣나무가 심어진 곳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당시 경찰을 퇴직하고 이장일을 보던 집안네 아저씨뻘이 되는 이태영씨가 어느날 이수영씨네 집으로 찾아와 “우리 어차피 다 죽을터인데, 죽기 전에 뜻있는 일 하나 하면 어떻겠느냐”고 얘기를 꺼냈다고 한다.



토지기증자(이수영)의 장남인 이호영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그리하여 얽막한 산마루에 있던 사람들의 쉼터로 쓰여지던 그 땅을 이종인씨와 함께 내놓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6.25때 종군기자로 활약하다 죽은 그들의 넋을 기리는데 뜻을 함께 하기로 한다. 그리하여 파주시에 약 400여평의 토지를 기증하고, 기자들의 숫자만큼 잣나무 18그루가 심어지게 된다. 비석은 한국국제문화협회와 파주시가 함께 세운 “파주시 새마을비”이다. 처음에는 시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다보니 잘 되었으나, 지금은 관리가 되지 않아 형편없는 상황이다.

현재는 2그루가 죽어 16그루가 자라고 있는데, 관리가 소홀하다보니 밤나무, 목련나무등의 다른 잡목들이 섞여있어 나무들과 못 쓰는 물건들을 갖다 쌓아 놓기도 하여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다. 물론 그 나무숲의 근처에 사는 주민이 잡초를 베어주고하여 이나마의 관리가 되고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곳의 나무는 18그루가 같이 자라야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두 그루가 더 심어져 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눈 속에서도 그들의 기운인양 더 푸르게 자라고 있는 잣나무 18그루



잣나무들 속에 자리잡고 있는 열여덟 나무 새마을 비

- 찾아가는 길은 통일로변의 봉서1리 마을 표지석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배 모양의 카페와 고송식당을 지나 500미터정도 주욱 들어가면, 왼쪽마을의 산위로 고성이씨네 묘소들이 보이고 작은 잣나무 동산이 보인다. 그곳이 바로 이 나무가 심어지기 전부터도 마을사람들이 모이던 동산이었던 잣나무 열여덟 그루가 자라고 있는 곳이다.

3. 현재의 관리상태

미국워싱턴의 한국전쟁 참전기념비에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고 한다. 이 세상에 무엇이든 댓가 없는 것이 있을까. 우리가 누리는 이만큼의 자유도 우리네 조상들이 희생으로 지켜낸 결과이다.

우리 파주는 한국전쟁때 어느 곳보다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다. 전쟁이 끝나고 안보와 평화 등과 관계된 조형물이 들어설 공원이 조성된다면 파주가 제격이었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프레스센타가 있었던 근처, 통일로변에 통일공원이 조성되고 종군기자비가 세워진 것은 합당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비가 서있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땅을 내놓고, 전쟁으로 죽어간 그들의 넋을 위로하는 나무를 심을 공간을 마련했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가. 이런 것으로 미루어보건대 사람들은 국가관이나 경제 등 현실적인 문제말고도 추구하는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는 말이 맞는것 같다. 그랬음에도 이러한 공간도 현실적인 문제이다 보니 마을사람들이 바라는 문제가 있었다. 한번 정리해 보면-

첫째 - 시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둘째 - 잣나무만 살리고 잡목들은 제거를 해야 할 것 같고, 현재 2그루가 죽어 16그루만 자라고 있는데, 2그루가 더 심어져 18그루가 같이 자라야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셋째 - 현재의 개나리나무로 된 울타리는 가지가 뻗어나면 지지분하고 18그루의 나무가 자라기에도 좁은 면적이다 보니 휨스나 쥐똥나무 등 낮은 것으로 교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넷째 -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회자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쉬어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대략 이런 이야기들로 요약해 볼 수 있겠다.

III. 결론

지금까지 6.25 한국전쟁 후에 통일공원에 생겨난 종군기자비와 근처 마을에 나무가 심어진 이야기를 살펴보았다. 어쩌면 이런 표석들은 세상에 없어야 더 좋았을 것들이었을 것이다.

6.25 한국전쟁에서 중요한 교훈은 “국가는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며 또한 국가와 국민이 바라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말고도 그 이상이 있다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를 우리는 안다.

강대국의 논리 앞에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우리 한반도의 현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그중 자유와 전쟁의 참상을 알리려 총대신 펜하나로 날아다니던 그들의 녀, 그들은 누구를 무엇을 위해 목숨까지도 불사하고 전쟁의 포화속으로 뛰어 들었던 것일까.

그 종군기자들의 비석에는 “먹물은 쓰러져도 기자의 얼은 푸르다. 그 영광의 희생 길이 정의를 밝히리”라고 쓰여져 있다. 이처럼 위험을 무릅쓴 종군기자들의 기자 정신을 ‘카파이즘’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전설적인 종군기자 로버트 카파⁶⁾에서 나온 단어, 요즘은 언론이 많아지고 특종경쟁이 심화되면서 목숨을 잃는 종군기자들의 수도 늘고 있다. 전쟁의 참상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카파이즘을 실현한 기자들이야말로 의미있는 삶을 산 사람들이 아닐 수 없다. 종군기자들의 역할이 없는 사회가 되어야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일이 일어난다면 꼭 필요한 분야가 종군기자들의 역할일 것이다.

나무들이 봉서1리 아늑한 산마을의 뒷 언덕에서 푸른 잣나무동산, 주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는 열 여덟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는 이 작은 마을이 국제적으로 아름답고 스토리텔링이 있는 마을로 회자되어 많은 이야기가 퍼져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포화속에서도 그들의 얼은 푸르렀듯이 파주의 진산, 봉서산아래 아늑한 동네에서 자라고있는 열 여덟그루 잣나무들의 기운이 눈속에서 더 푸르게 빛나고 있다.

◎ 참고문헌

페렌바크 저, 안동림 역, 실록 한국전쟁- 문학사간
파주시지
이혜복 -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아픔이 없어야한다.

이 글을 쓰는데 도움을 주신분들:

봉서 1리 이호영(이수영님의 자)
봉서 1리 이장: 이길자(전), 김제철(현)
봉서 4리 이장: 이관영

이 글을 쓰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환경관리국 강석재 국장님께 전하면서 토지기증의 확인을 확인해 보았다. 파주시에 토지 기증한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그곳은 1997년 6월 9일 기부체

6) 로버트카파 (1913-1954) 헝가리 출신으로 미국에 귀화해 짧은 생애동안 사진기자로서 5차례의 전쟁을 취재하였다. 그러다가 1954년 베트남 독립전쟁 취재도중 지뢰를 밟아 4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다.

납을 한 것으로 되어있었으며, 1982년 새마을 운동의 일환인 새마을비가 세워지고 그로부터 12년 후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을사람들이 쉬는 곳에 잣나무 18그루를 심고 마을사람과 이곳을 아는 사람들이 찾아와 쉬는 자리로 쓰여지다가, 12년 후인 1997년 파주시에 아주 기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호영님의 증언에 의하면 기증자가 이수영과 이종인이 아닌 이해영으로 되어 있어 다시 확인해 보았다. 그것은 82년 기증당시에는 이종인의 임야로 되어있었으나, 97년에는 이종인님도 사망하여 아드님인 이해영의 임야로 되어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토지 기증자(1997년 6월 9일):

이수영(子, 이호영) 봉서1리 139-4, 畓 277제곱미터

이해영(父親, 이종인) 봉서1리 139-5, 林野 497 제곱미터.

그리고 관리는 환경국 공원정책과에서

- 봄에 잣나무 2그루를 더 심어 18그루를 채우기로 하였으며
- 동산 주변의 고사목 등을 제거하고 잡목을 제거 해 주기로 하였으며, 개나리 나무대신 쥐똥나무로 울타리를 할 예정 임.
- 해마다 통일로 주변을 정리할 때 이곳도 함께 해 주기로 하였다.
좋은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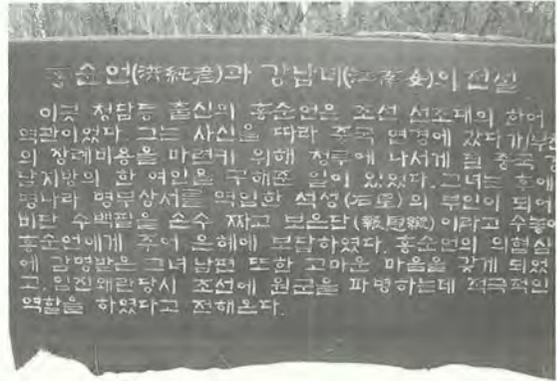
2006년 제4집에 부쳐.

종계변무를 성공시킨 정사 황정욱과 역관 홍순언에 대하여 논고에 첨부할 내용

홍순언은 현재의 강남구 청담동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군의 파병등에도 공헌한 바가 컸다고 전해지는데, 그때는 가서 확인해보지 못하였다가 이번 기회에 가서 확인해보았다. 현재는 청담동 성당뒤의 청담공원 내에 있다. 이에 사진을 싣는다.



역관 홍순언의 비는 현재는 청담공원 내에 세워져있다.



홍순언과 강남녀 전설을 기리고자 홍순언이 태어난곳인 청담동에는 비석이 있다.

황희선생 후손의 이거(移居)와 사목리 입향(入鄕) 연구

권호숙*

- I. 시작하는 말
- II. 황희선생 후손들의 이거(移居) 현황
- III. 장수황씨의 사목리 입향(入鄕) 원인
- IV. 사목리 방촌영당 영정봉안(奉安)의 내력
- V. 맺음말

I. 시작하는 말

파주에는 고려 때부터 도읍지와 가까운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관직자를 배출하였거나 왕실과 인연을 가진 집안에서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아가는 집성촌이 많다. 6.25전쟁으로 또는 최근에 추진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집성촌이 점차 사라지는 추세지만 아직도 파주지역에는 선영이나 문중답을 중심으로 집성촌이 남아있어 향맥을 이어가고 있다.

파주에서 집성촌이 형성되는 과정은 대체로 선영의 관리와 보전으로 인한 문중의 정착(파평면 전주이씨 담양군파), 사패지의 관리(교하읍 파평윤씨 정정공파, 월릉면 도내리 청송심씨)와 농토개간 및 농장운영 (탄현면 순흥안씨 안목농장 경영)등의 경제적인 원인, 처가의 고향에서 재산을 분배받는 경우(월릉면 능산리 함안조씨), 난세를 피해 은거지로 정착한 경우(교하읍 산남리 거창신씨) 등을 들 수 있다.

* 파주향토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필자는 몇 년 전 파주지역의 토성(土姓) 및 망성(亡姓), 내성(來姓) 등을 조사하고 각 지역의 성씨별 문중의 입향시기를 조사한 일이 있다.²⁾ 하지만 입향시기가 오래되고 아직도 동족마을이 잘 유지되고 있는 곳의 성씨별 문중별 입향 원인 및 문중의 갈래별 이거(移居)형태와 문중의 소장자료, 문중의 인물 등 다각적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지 못하였음을 늘 미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올해부터 문산읍 사목리의 장수황씨를 필두로 파주지역의 대표적인 집성촌을 집중 조사하여 연재하기로 한다.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장수황씨

문산읍 사목리. 이곳엔 하루 두 번 조류가 밀려오는 임진강 물줄기를 따라 날아오는 갈매기를 벗삼던 정자 반구정(伴鵞亭)이 있다. 이곳은 조선시대 명재상 방촌(龐村) 황희(黃喜)선생의 유지가 깃들어 있는 마을이다. 황희선생은 고려 공민왕 12년(1363) 개성 가조리에서 태어나 조선조 태조, 정종, 태종, 세종까지 네 분의 임금을 모시고 74년간의 관직생활, 18년간 영의정을 지낸 후 87세에 은퇴하여 이 지역에서 지내다 90세에 별세하여 탄현면 금승리에 안장된 조선초기 최고의 명재상이다.

사목리에는 황희선생유적지가 잘 조성되어 있어 황희선생의 영당, 방촌기념관, 반구정, 양지대, 황희선생의 고손인 월헌 황맹현의 부조모 월헌사와 재직사, 재실, 황희선생의 동상 등이 잘 관리되고 있다. 황희선생의 영당에는 황희선생의 영정이 모셔져 있어 매년 선생의 탄생일인 음력 2월 10일에 제향이 올려지고 있다.



반구정



방촌기념관

또한 사목리에는 황희선생의 둘째 아들 보신(保身)의 후손들이 지금도 46호가 누대를 이어 살아오고 있다. 6·25전쟁 이전에는 100여 호가 살고 있었다고 하나 전쟁이후 외지로 나간 집들이 많고,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본 집도 있어 많이 줄었다고 한다.

2) 권호숙, 「파주에 뿌리를 내린 성씨들」, 「파주시지」제 4권



문산읍 사목리 마을전경

방촌선생의 차남 보신(保身)은 일찌감치 경북 상주로 내려가 자리를 잡아 누대를 살아갔다고 하는데 상주로 내려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보신의 후손들 중 일부가 지금 황희선생유적지가 있는 문산읍 사목리로 올라와 뿌리를 내리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방촌기념관 안에 있는 황희선생의 유물은 왜 장남의 후손이 아닌 차남의 후손들이 지니고 있게 되었을까? 황희선생의 장남과 차남, 사남들의 후손은 어디에서 터를 잡았을까? 방촌영당의 영정은 언제 그려진 것일까?

황희선생 유적지를 돌아보던 필자는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집성촌 연구의 첫 시작으로 문산읍 사목리 장수 황씨 황희선생 후손들의 이거형태와 소유공파 후손의 사목리 입향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II. 황희선생 후손들의 이거(移居) 현황

장수황씨(長水黃氏)의 시조 황경(黃瓊)은 통일신라 경순왕의 부마로 시중을 지냈다. 그 후 세계(世系)가 실전(失傳)되어 후손들은 증참의 황석부(黃石富)를 1세조로 하여 계대(繼代)하고 있다.

가문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조선의 사대 명상의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황희(黃喜) 정승을 들 수 있다. 그는 1363년 개성에서 판강릉부사(判江陵府事) 황군서(黃君瑞)의 열자(孽子)³⁾로서 둘째 아들로 태어나, 27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학관이 되었다. 1392년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되자 두문동에 들어가 은거했으나 이태조의 간청으로 벼슬길에 올라 태종 때에는 6조의

3) 세종실록 10년 무신(1428, 선덕 3) 6월 25일(병오), 단종실록 즉위년 임신(1452, 경태 3) 7월 4일(을미)

판서를 두루 거쳐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으며, 세종 때 69세의 나이로 영의정에 이르렀다. 그는 영의정에만 18년 동안 재임하면서 농사의 개량과 예법의 개정 등 많은 치적을 쌓았다.



황희선생의 62세때 모습

황희선생은 17세에 판사복시사(判司僕侍事) 최안(崔安)의 딸과 혼인하였으나 선생이 스물세 살이 되던 해 최씨 부인은 슬하에 딸 하나를 남기고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 후 황희 선생은 스물여섯의 나이에 공조전서(公曹典書) 양진(楊震)의 딸과 다시 혼인하여 치신(致身), 보신(保身), 수신(守身), 직신(直身) 4형제를 두었다.

장남 치신(致身) 호안공파(胡安公派)

만이들 치신(致身)은 1397년(태조 6)년에 태어나 1484년(성종 15)에 졸했으며, 음보로 공안부부승(恭安府副丞)이 되었고, 1415년(태종 15) 통례문봉례랑(通禮門奉禮郎), 감찰(監察), 호조좌랑(戶曹佐郎)을 거쳐 1432년(세종 14) 판선공감사(判繕工監事), 판통례문사(判通禮門事) 등을 역임했다. 1434년 동부승지(同副承旨)를 거쳐 이듬해 예조참의(禮曹參議), 1437년 중추원부사(中樞院府事), 한성부윤(漢城府尹), 경기도 관찰사(京畿道觀察使), 형조참판(刑曹參判), 공조참판(工曹參判) 등을 역임하고, 1444년(세종 26) 호조판서(戶曹判書)에 올랐다. 1454년(단종 2) 중추원사(中樞院事)로 성절사(聖節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고, 1457년(세조 3) 충청도병마절도사(忠淸道兵馬節度使), 1461년 판중추원사(中樞院事)로 제수되었다. 같은 해 남의 노비를 빼앗은 혐의로 삭직되었다가 1466년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院事)로 복관되었으며 후에 판중추부사(判中樞院事)에 이르렀다. 사후 우의정(右議政)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호안(胡安)이다.

황치신의 묘소는 고양시 지축동 지하철 기지 부근 덕수촌에 있다. 고양시 향토문화재 43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신도비 이수희의 이무기 조각이 매우 아름답다. 비문은 김종직(金宗直)이 짓고 안침(安琛)이 썼다.



고양시 지축동 황치신의 묘역과 신도비



황치신 신도비 이수

황희선생과 삼남 수신의 묘가 있는 금승리에는 치신의 차남 사장(事長)의 후손들이 뿌리를 내려 누대를 살고 있으며 광탄면 용미리에도 치신의 차남 후손들이 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밖에 호안공파 후손들은 경기도 포천군 청산면 대전리, 충남 보령군 웅천읍 구룡리, 소황리, 전북 완주군 용진면 구역리, 전북 남원시 사매면 수월리, 전북 남원시 대산면 대곡리등으로 분기해 나가 동족마을을 형성했다.

파주의 금승리 황희선생 묘역 아래 치신의 후손들이 오랜 세월을 거주해오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는 문중의 사패지 관리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금승리 장수 황씨 문중의 사패지는 예전에는 장수황씨 선영을 중심으로 50만여 평이나 되었으나 군부대가 들어와 정부에 땅이 수용되고 현재는 10만여 평 남아 있어 종종 땅 관리를 위해 일제 말기 때 ‘장수 황씨 묘하 대중중회’를 조직하였다고 한다.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황희선생 묘

장남 치신의 호안공파 후손으로 파주의 조선시대 인물로는 황정옥(黃廷或 1532~1607)과 황혁(黃赫 1551~1612)이 있다. 황정옥은 치신의 6세손으로, 행호분위부호군(行虎賁衛副護軍) 황열(黃悅)의 아들이다.

1552년(명종 7) 사마시에 합격하고, 1558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사관(史官), 승문권지(承文權知), 예문관검열·봉교(奉敎)를 거쳐 시강원설서(侍講院設書)에 제수되었다. 1561년(명종 16) 호조좌랑과 예조좌랑을 역임하고 해미현감으로 나아갔으며, 성균관직강이 되었다. 1565년 헌납 겸지제교, 부수찬을 거쳐 지평, 1580년(선조 13) 진주목사를 거쳐 충청도관찰사가 되었다.

그 뒤 승지로 올라 1584년 종계변무주청사(宗系辨誣奏請使)로 명나라에 가서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와 그 공으로 동지중추부사가 되고 이어 호조판서로 승진하였다. 1589년(선조 22) 정여립의 모반에 연좌되어 파직되었다가 곧 복직되었다. 이듬해 종계변무의 공으로 광국공신(光國功臣) 1등이 되어 장계부원군(長溪府院君)에 책봉되면서 대제학이 되었다. 이어 예조판서와 병조판서를 역임하였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호소사(號召使)가 되어 왕자 순화군(順和君)을 배종(陪從)하여 관동으로 피신하였다. 그곳에서 의병을 모집하는 격문을 돌렸으나 왜군의 진격으로 회령에 들어갔다가 국경인(鞠景仁)의 모반에 의하여 왕자와 함께 포로가 되어 안변의 토굴에 감금되었다. 이때 왜장 가토 기요마사에게 선조에게 보내는 항복 권유문을 쓰도록 강요받았다.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손자와 왕자를 죽이겠다는 위협을 받자 아들 혁(赫)이 대신 썼다. 한편, 그는 항복 권유문이 거짓임을 밝히는 또 하나의 글을 썼으나 선조에게 전달되지 못하였다. 이듬해 왜군이 부산으로 철수할 때 석방되었으나 항복 권유문을 기초한 죄로 길주에 유배되었다. 1597년(선조 30) 왕의 특명으로 석방되었으나 복관되지 못한 채 사망했다. 문장, 시, 서예에 능하였고, 저서로 『지천집(芝川集)』이 있다. 후에 신원되었으며,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황혁은 정옥(廷或)의 아들로 기대승(奇大升)의 문인이다. 우승지(右承旨)를 지냈고, 1591년 정철이 건저문제(建儲問題)로 위리안치 될 때 그 일당으로 몰려 삭직되었다. 1612년 순화군의 아들 진릉군(晉陵君)을 왕으로 추대하려 한다는 무고를 받고 투옥되어 옥사하였다. 인조반정 이후 복관되어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되고 장천군(長川君)에 봉하여졌다. 저서로 『독석집(獨石集)』이 있으며 이들 부자(父子)의 묘는 탄현면 금승리에 있다.

근현대 인물에는 월릉면 위전리 출신의 제3기갑여단장과 제20기계화사단 부사단장, 6군단 부군단장, 육군기갑학교장을 역임한 황인모(黃仁模 1936~2002)와 탄현면 금승리 출신의 제6대 고양파주지역 국회의원을 역임한 황인원(黃仁元 1920~1978), 그리고 전 총무처장관을 역임한 황영하씨 등이 있다.

차남 보신(保身) 소윤공파(小尹公派)

둘째 아들 보신(保身)의 소윤공파(小尹公派) 후손들은 황희선생유적지가 있는 파주 문산읍 사목 1.2.3리와 경북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경북 경산군 안심읍 동내동, 경북 문경군 산북면 대하

리, 전북 진안군 안천면 백화리 등지에서 세계(世系)를 이어가고 있다.

보신은 종친부(宗親府)의 정사품(正四品) 관직인 전첨(典籤)을 지냈으며 경북 상주지역으로 이거해갔는데 그 이유는 부인 남양홍씨가 이모부 김자구(金自久)장군의 재산을 상속받아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였다. 이와같은 내용은 『厓村先生文集』에서 김상정(金相定)이 쓴 「중산행(中山行)」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부터 전하기를 직제학 홍여강(洪汝剛)이 명나라에 사신으로 떠나게 되어 익성공[황희]을 찾아와서 지금 다른 사신들은 다 자녀의 혼사를 마친 사람으로서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저는 외동딸을 김장군[金自久]의 집에 맡겨 부양하고 있다고 하소연하자 익성공이 ‘국사가 긴급하여 다시 변경할 수 없으니 일단 떠나도록 하라. 그대의 딸을 나의 자식으로 하여금 맞이하게 하마’고 위로하였으니 아들이란 소윤공[小尹公 保身]을 말함이다. 김장군은 수만의 재산이 있으나 아들이 없었으므로 전부 소윤공에게 물려 주었으며 황씨의 한 파(派)가 이로부터 중산(中山)에서 살게 되었다고 한다.....(下略)

이렇게 부인 남양홍씨의 이모부의 재산을 상속받은 보신은 중산, 지금의 경북 상주지역에서 뿌리를 내려 세거하게 되었으며 사후 묘역도 이곳에 있게 되었다. 황희선생의 관대와 옥서진, 산호영, 옥벼루 등의 유물도 보신의 손자 정(璉)이 보관하고 있다가 아들 사옹(士雍)에게 물려준 후 현재 상주의 종택에 보관되어 있다. 이 유물들은 원래 장남 치신의 후손들이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관 중 남의 손에 넘어가거나 분실되기도 한 것을 차남 보신의 후손 정(璉)이 모두 찾아와 장남 사옹에게 맡겼던 것이다.⁵⁾ 파주 사목리 황희선생유적지 내 방촌기념관에도 황희선생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데 물론 이 유물은 복제품이다.



방촌기념관 내 산호영



옥벼루

4) 金相定, 『厓村先生文集』, 「中山行」 pp.1532~1533.

5) 사목리 소윤공파 황의록씨 증언

이와 관련하여 방촌기념관에는 정(璘)이 아들 사옹(士嫻)에게 재산을 별도로 분배한다는 내용을 적은 분재기가 있어 내용을 밝힌다.

홍치13년 경신(서기 1500년) 9월 17일

아들 사옹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글

너는 종가의 아들로서 자못 글재주가 있어 장차 큰 뜻을 이루기를 기대하니 나의 마음이 기뻐서 별도로 지급하지 않을 수 없구나.

증천사람 정남이 짓고 있는 논 14마지기, 같은 곳 김원이 짓고 있는 논 5마지, 산양현 내에 오금이 짓고 있는 논 6마지기, 증조(방촌)께서 손수 쓰시던 옥서진 1쌍, 산호갓끈 2줄, 옥벼루 1좌, 쇠고리혁명대 1거리를 특별히 따로 주거늘 상국(相國)의 유물은 이 몇 점의 보물뿐이니 종가에 잘 보존하여 잃어버리지 말도록 하고 후일 다른 자손 중에 이를 두고 다투는 자가 있으면 이로써 변정하여라.

재주(재물의 주인) 부(父) 황 정(黃 璘)



방촌기념관내 황정의 분재기



경북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방촌유물보존각

전북의 진안군 안천면 백화리에는 보신의 장자(長子) 우형(友兄)의 증손 징(澄)이 낙향을 하여 일가를 이루었다. 진안군 화산동에는 장수황씨 문중에서 1927년 음력 9월 10일에 건립한 화산서원(華山書院)이 있다. 이곳에는 방촌선생을 비롯하여 황보신(黃保身), 황징(黃澄) 세분을 모시고 제향을 올리고 있으며 황희선생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이 영정은 현종 10년 (1844년) 상주 옥동서원에서 이봉(移奉)한 것으로 전북 유형문화재 129호로 지정되었다.

소윤공파 후손 중 파주지역의 조선시대 인물로는 소양공(昭襄公) 황맹헌(黃孟獻)의 후손으로 벼슬이 참판(參判) 이르렀던 효자 황양열(黃良烈) 생몰년 미상)이 있으며, 근현대 인물로는 항일독립운동가로 대통령 표창과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황장연(黃長淵 1923~2008)과 초대 파주군교육청 교육장을 역임하고 금촌초교 교장을 지낸 황호연(黃琥淵 1904~1974), 그리고 현재 파주시 국회의원 황진하씨가 소윤공파 후손이다.



전북 진안의 화산서원



화산서원 내 황희선생 영정



경북 상주의 월헌 황명헌 묘



월헌 황명헌 한식제사(1985)

삼남 수신(守身) 열성공파(烈成公派)

방촌의 셋째아들 수신(守身)은 1407년(태종 7)에 태어나 1467년(세조 13)까지 살았다.

1423년(세종 5) 사마시에 응시하였다가 낙방한 후 문음으로 종묘부승(宗廟副丞), 사헌부감찰, 좌승지를 거쳐 1446년 조선이 세워진 후 처음으로 문과 출신이 아니면 제수되지 못한 도승지(都承旨)에 발탁되었다. 1451년 병조참판이 되어 수양대군을 도와 진법의 상정(詳定)에 공헌하였다.

아버지상을 당하여 사직하였다가 1452년(단종 즉위년) 기복되어 동지중추부사가 되고, 1455년(세조 1) 우참찬에 제수되었다. 그해 경상도관찰사로 있을 때 작성한 경상도 웅천현(熊川縣)의 지도를 올리면서 비방책(備防策)을 건의하고, 세조 등위에 끼친 공로로 좌익공신에 책록되어 남원군(南原君)에 봉해졌다.

1457년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 다녀와 우찬성에 오르고 1462년(세조 8) 좌찬성으로서 『경

국대전』의 제2차 초안 작성에 참여하였으며, 우의정이 되어 명나라 헌종의 등극을 축하하는 진하사(進賀使)로 다녀왔다.

1467년 영의정에 올라 세조의 명으로 『법화경』, 『묘법연화경』의 언해(諺解)를 주관하였으며, 1465년(세조 11)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을 찬진하였다. 장수의 창계서원(滄溪書院)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열성(烈成)이다. 탄현면 금승리 부친 황희선생 묘역 맞은편 산 등성이에 묘가 있다.



파주 탄현면 금승리 황수신 묘역

수신의 열성공파(烈成公派) 후손들은 전남 보성에 주로 많이 거주하고 있다. 또 전남 승주읍 신전리 약 70호중 절반 정도가 장수황씨 열성공파이며, 등계리에도 황씨가 대부분이다. 전북 무주군 부남면 유평리, 전남 장흥군 대덕면 덕산리 등지에서도 터를 잡아 누대를 이어가고 있으며, 수신의 묘역 아랫마을에도 후손이 두 집 정도 있고, 문산읍 사목리에도 일부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다. 전 아나운서 황인용씨가 열성공파 후손이다.

사남(四男) 직신(直身)

직신(直身)은 오위(五衛)에 두었던 정오품(正五品) 서반 무관직인 사직(司直)을 지냈으며, 가승(家乘)에 의하면 직신은 서자로서 일찍이 전남 보성으로 옮겨가서 살았는데 인근의 대원사(大元寺)에 영당을 짓고 황희선생의 영정을 봉안하여 병화(兵火)를 피하려고 하였다.⁶⁾ 후손은 계대(繼代)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6) 『前癸卯端譜』, 『扈村先生文集』, 長水黃氏沙鷺宗中運營委員會, 2001, p.1476

Ⅲ. 장수황씨의 사목리 입향(入鄕) 원인

반구정이 있는 사목리에 보신(保身) 후손이 본거지를 둔 유래에 대해서는 장수황씨 사목종중에서 펴낸 『반구정 요람(伴鶴亭 要覽)』에 후손 호연(湖淵)이 쓴 내용을 보면 대략 알 수가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1615년~20년쯤 황맹헌의 증손 승지공 간(侃)이 선조의 왕비인 인목대비 유폐사건 당시 화를 피하여 개성 송악산 근처에서 은신생활을 하다가 방촌 황희선생의 유적지인 사목리로 옮겨와 피신은거하였는데, 그 후 1623년 3월 복권이 된 후 정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⁷⁾

장수황씨 족보에 기재된 간(侃)에 대한 내용을 보면 ‘以延興戚屬避世不仕居于兔山龍岩’이라 하여 광해군 때 인목대비 친아버지인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 김제남 부부인(金梯男 府夫人) 광주노씨(光州 盧氏)와 간(侃)의 어머니 광주노씨(光州 盧氏)가 숙질지간(叔侄之間)이다.

1613년 인목대비 아들인 영창대군은 강화에 유배되어 사사(賜死)되었고 친아버지 연흥부원군도 사사되었다. 그리고 그 죄를 추론하여 연흥부원군은 부관참시 당하고 친어머니 광주노씨는 제주에 유배되어 관비가 되었다. 그리고 1618년 인목대비는 서궁에 유폐되었고, 조정에서는 폐비론이 대두되었는데 이와 연루되어 간(侃)은 난을 피하여 방촌의 출생지인 토산용암(兔山龍岩)으로 가서 방촌의 부친 판강릉부사(判江陵府事) 황군서(黃君瑞)가 살던 옛 집터 근처에서 은거하다 방촌유적지인 반구정 마을로 옮겨 온 것으로 추정된다. ‘토산용암’이라는 곳은 고려 때는 개성에 속하였으나 이조시대는 황해도 토산현 용암이라 하였으며, 용암은 황희선생 배태(胚胎)시 물이 말랐다는 용암폭포(현 송악산 박연폭포) 소재지를 말한다.⁸⁾

그 후 1623년 인조반정으로 인목대비와 연흥부원군이 복권되자 간(侃)도 복권되어 증사복시정(贈司僕寺正) 이 되고 아들 극후(克厚)는 증통정대부승정원좌승지(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로 추증되었으며, 이곳에 정착하여 대대손손 뿌리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목리 마을에는 간(侃)과 더불어 조부 협(協)과 부친 예원(禮元)의 묘가 자리잡고 있다. 구전에 의하면 간(侃)의 부인 남양홍씨(南陽洪氏)가 경북 상주(尙州)에서 선조(先祖)의 유골을 모시고 파주 사목리에 이장하였다고 한다.⁹⁾ 묘를 이장하는 것은 풍수적으로 장소와 시점을 잡는 것이 까다로운 일이다. 그러므로 당시에 난을 피해 은신처로 오면서 선조의 유골을 모시고 사목리로 들어왔다는 것은 상황이 매우 긴급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아마 간(侃)의 부인 남양홍씨의 숙부인 김제남 부원군이 사사되고 부관참시까지 되는 것을 보고 급히 선조의 유골을 옮겨온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겠다.

7) 湖淵, 『伴鶴亭 要覽』, 長水黃氏沙鷺宗中運營委員會, p.19~20

8) 문정공(文貞公) 지천 황정목(芝川 黃廷穆)이 쓴 용암록(龍岩錄)에 의하면 ‘토산현 용암은 익성공 황희의 옛 집터이다. 일찍이 중국 사신이 지나다 보고 기이하게 여기며 ‘중월에도 이처럼 기이한 곳은 없다. 반드시 큰 현인(賢人)이 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9) 湖淵, 전계서, p.19~20



사목리 황협의 묘



사목리 황예원의 묘



사목리 입학조 황간의 묘



사목리 장수황씨 문중의 황의록씨 덕

IV. 사목리 방촌영당 영정봉안의 내력

사목리 황희선생유적지 내 방촌영당은 사목리 입학조 간(侃)의 형인 수(脩)가 살던 집터였다. 수(脩)는 맹헌의 동생 윤헌(允獻)의 증손자로 양자를 갔다. 수(脩)가 1632년에 화공을 상주 옥동서원(玉洞書院)¹⁰⁾으로 보내어 구본(舊本)에서 모사하여 영정을 집안에 보관하였다가 1635년 영정각을 창건하여 봉안하였다. 그러나 그 이듬해 1636년 병자호란의 난을 피하기 위해 상주로 다시 옮겨 봉안하였다. 그 후 1727년(영조3년)에 후손 선(璿)이 영남관찰사로 있을 때 두 본을 모사하여 전북 장수(長水) 창계서원(滄溪書院)과 파주 반구정 영당에 옮겨 봉안하였다. 1746년에는 영조가 반구정 영당에 봉안된 영정을 가져오라 하여 감상하고 나서 손수 제문을 지어 좌승지 남태온(南泰溫)을 보내어 영당에 치제(致祭)를 내리기도 하였다.

10) 현 경상북도 상주군 우동면 수봉리



방촌영당

이 영정은 1748년에 다시 분실되었고, 1850년(철종 원년)에 방촌의 7대손 수(脩)가 상주로 이 봉하였던 영정을 종인(宗人)이 다시 찾아 반구정 영당을 증수한 후 영정을 이봉(移奉)하였다. 1875년(고종 12년)에 영정을 다시 모화(摹畵)하여 봉안하였다. 이후 1918년 4월 15일과 1934년 3월에 각각 다시 유상(遺像)을 모화하여 봉안하였다.

1941년에는 쇠락하여 무너진 영당을 증건하였으나 6.25 전쟁으로 인해 영당을 비롯하여 반구정, 양지대, 재실 등이 모두 폐허가 되었다. 1962년 전란으로 소실된 영당을 사목리 후손들이 힘을 모아서 재건복구하였다. 6.25전쟁 당시에 인민군이 영당에 들어가 영정을 칼로 훼손하여 얼굴과 목부분이 칼로 찢어진 것을¹¹⁾ 종종 유사 황달연(黃達淵)씨가 피난할 때 영정을 모시고 대구로 남하하여 장남 인표(仁杓)에게 영정을 맡겨 두었다. 서울이 수복되자 인표가 서울 종로구 필운동 자택에 봉안하였다가 영당이 재건되면서 비로소 영정을 봉안하였다.

1976년 8월 31일 방촌영당이 경기도지방문화재 제29호로 지정되었고, 1989년 9월30일 운영위원회에서 훼손된 구영정(舊影幀)을 남정식(南鼎植)화백에게 모화(摹畵)하게 하여 다시 봉안하였으며,¹²⁾ 구영정은 현재 방촌기념관 안에 전시되어 있다. 보존처리를 하였으나 자세히 보면 아직도 얼굴과 목 부분에서 훼손된 흔적을 볼 수가 있다.

사목리 후손들이 그동안 보관하고 있던 황희선생의 영정 3기는 지금 세 박물관에 보내져 보존처리하여 전시하고 있다. 1990년 4월에 문중운영위원회에서 1918년 모화한 방촌선생영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여 유물 제35374-839호로 접수, 문화재로 영구히 보존관리 진열하고 있으며, 1632년에 모화한 영정은 1997년 9월 11일 서울시립박물관에, 1875년에 모화한 또 하나의 영정은 1998년 2월 14일에 경기도박물관에 기증하여 보존처리 후 전시하고 있다.

11) 사목리 황의록씨 증언

12) 『伴鶴亭 要覽』, 장수황씨사목중증운영위원회, 1991, pp.15~18

상주 옥동서원(玉洞書院)에 있는 황희선생의 영정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첩책(帖冊)속에 비장되어 있고 제2본은 1775년에 모화한 것이며, 1844년 현종 때 상주의 종인(宗人)이 또 한 본을 모화한 것이 지금 서원에 봉안되어 있는 것이다. 이 영정의 원본은 1424년(세종6)에 그려진 것으로 62세 때의 얼굴 모습이며,¹³⁾ 홍여하(洪汝河)가 그렸다.¹⁴⁾



경기도박물관에 기증한 1875년
모화본 영정



1632년에 모화된 이 영정은
서울시립박물관에 기증함



경북 상주의 옥동서원



옥동서원 정문 양보문

13) 義敦 「附記」, 『厓村先生文集』 卷之十四, 附錄下,
14) 『厓村先生文集』 卷之十四, 附錄下, 遺像, 畫像贊

V.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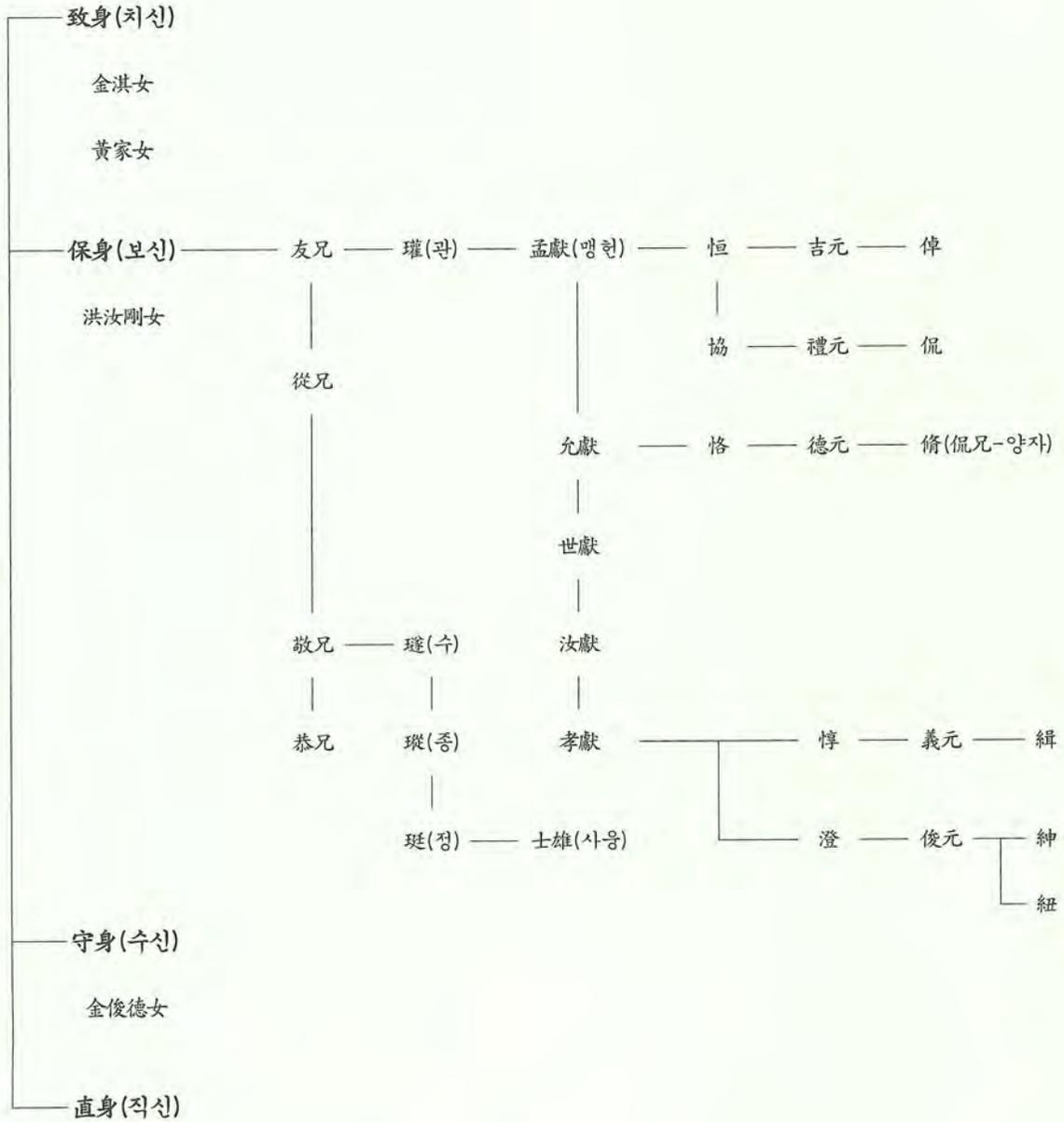
조선초기 성군 세종을 도와 예법과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던 명재상 방촌 황희선생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다. 청백리로 이름났으며 자녀교육에 엄격하였던 황희 선생은 아들 중 하나를 당대에 영의정까지 오르게 하였으며, 방촌의 후손들은 경상도와 전라도 등 여러 지역에서 터를 잡고 뿌리를 내렸다.

이 글에서는 황희선생의 네 아들의 후손들이 이거(移居)해 나간 현황과 아울러 차남 보신의 후손들이 경북 상주로 내려갔다가 다시 사목리에 입향하여 터를 잡고 살게 된 원인을 추적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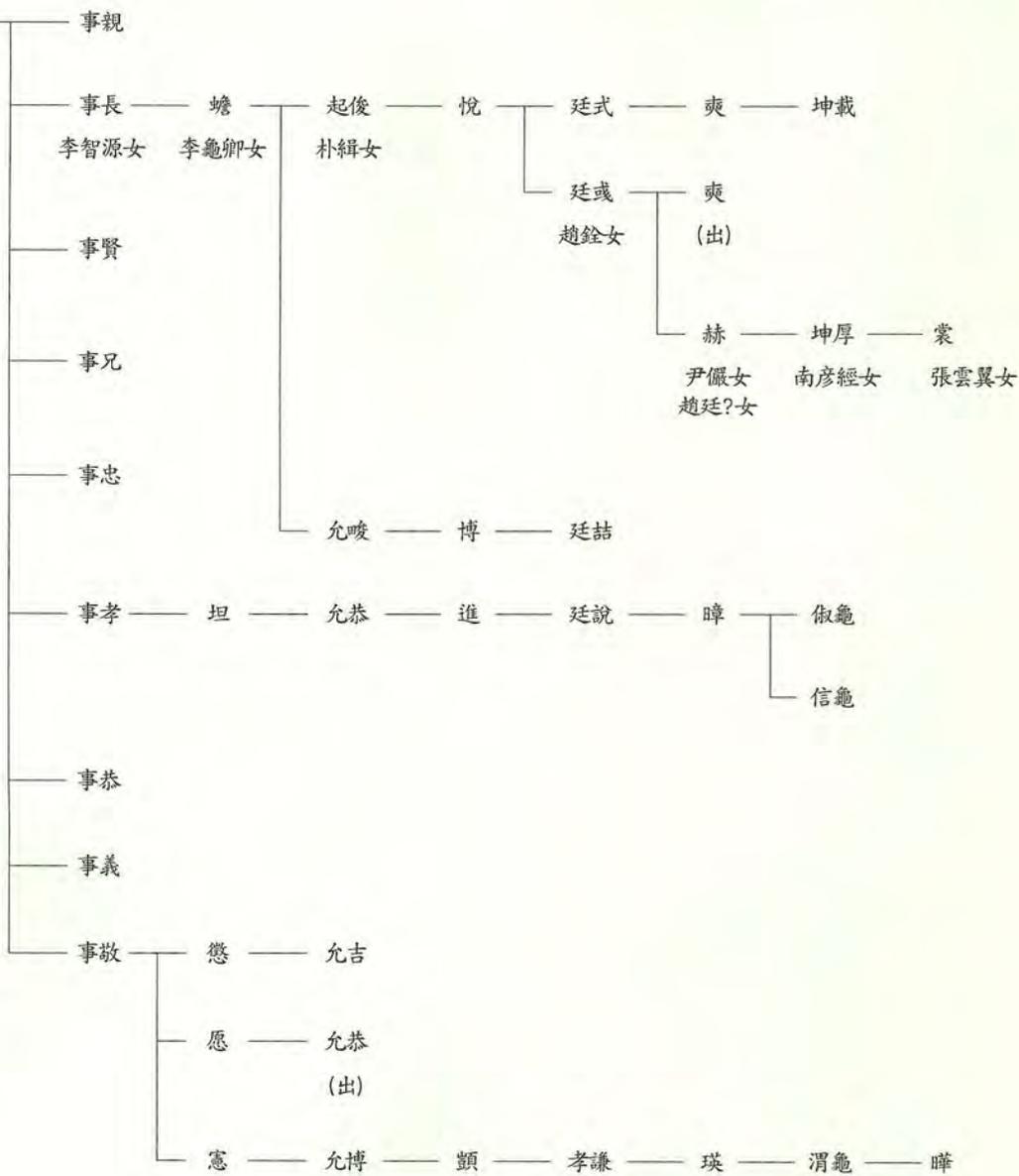
또한 방촌기념관에 있는 황희선생의 유물에 얽힌 이야기와 용암폭포와 황희선생의 탄생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방촌영당 내 황희선생 영정에 대한 내력을 새롭게 구명하여 알게 된 점은 작은 성과라 할 수 있겠다. 이와 더불어 황희선생과 그 후손에 대한 간략한 가계도를 정리해 올려보기로 한다.

시조(始祖)

黃瓊 ——— 公有 — 鑑平 — 石富 — 均庇 — 君瑞 — 黃喜(황희)



致身



『숙빈최씨 자료집』 소개

이 덕 형*

머리말

1. 『호산청일기(護産廳日記)』
2. 『무술점차일기(戊戌苫次日記)』
3. 『제청급석물조성시등록(祭廳及石物造成時臚錄)』과
『묘소제청도배시등록(墓所祭廳塗裨時臚錄)』
4. 『소령수길원보관현판등사(昭寧綏吉園保管懸板臚寫)』
5. 『소령원지(昭寧園誌)』

맺음말

머리말

숙빈최씨는 1718년 3월 9일 유시(酉時)에 창의동 자택 서별실 동익각에서 별세했다. 이후 숙빈최씨의 묘는 경기도 양주 고령동 용장리(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에 조성되었다. 숙빈최씨의 상장례는 그녀의 둘째아들이었던 연잉군에 의해서 주도 되었다. 숙빈은 왕비가 아니었으므로 상장례와 관련된 의례가 만들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연잉군에 의해서 상장례 절차가 비교적 소상히 기록되어 봉모당(奉謚堂)에 수장 되었다. 이는 다른 후궁들과는 달리 매우 파격적인 조치였다. 일반적으로 후궁들이 사망한 경우 그들의 무덤은 대개 사가에서 주도하여 장례를

* 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강사, 파주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치루기 때문에 세간의 주목을 받지도 못했을 뿐더러, 이와 관련된 기록들은 남겨질 수도 없었다. 하지만 숙빈최씨의 둘째아들이 경종의 세제가 되어 훗날 왕위에 올라 소령묘는 소령원으로, 그리고 화경이라는 시호도 받을 수 있었다. 소령원이 주목받는 이유는 왕릉의 묘제에 있어서 능과 묘로 구분 되고 있었지만 원이라는 새로운 능제가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2009년 한국학중앙연구원 규장각에서 『숙빈최씨 자료집』을 발간하기 전까지 소령원은 물론이고, 숙빈최씨와 관련된 자료들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던 실정이었다. 이 자료집에는 조선왕실의 기록 중 왕실의 출산과 관련된 기록으로 호산청일기가 소개되고 있다. 호산청 일기는 숙빈최씨가 세 아들을 출산하는 과정을 소상히 기록해 놓은 것으로 당시 출산과 관련된 소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료이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파주시 문화유산인, 소령원의 가치를 더하기 위해 한국학중앙연구원 규장각에서 발간한 『숙빈최씨 자료집』을 소개하기로 했다.

1. 『호산청일기(護産廳日記)』

『호산청일기(護産廳日記)』는 영조의 생모 숙빈최씨가 세 명의 아들을 출산할 당시의 일기이다. 이 책은 3책으로 되어있으며, 1권은 『최숙원방 호산청일기(護産廳日記)』로 1693년 9월 3일 산청이 설치되어 10월 16일 숙빈최씨가 숙종의 세 번째 아들을 낳을 때의 기록이다. 2권은 『최숙의방 호산청일기(護産廳日記)』로 1694년 8월 1일 산청이 설치되어 9월 19일 숙의최씨가 숙종의 네 번째 아들을 낳을 때의 기록이다. 3권은 『최귀인방 호산청일기(護産廳日記)』는 1698년 7월 1일 산청이 설치되어 7월 13일 귀인최씨 숙종의 다섯 번째 아들을 출산할 때의 기록이다.²⁾

2. 『무술점차일기(戊戌苦次日記)』

『무술점차일기(戊戌苦次日記)』는 1718년(숙종 44)3~5월 연잉군 이금(李今)에 의해 작성된 상중 일기이다. 이 일기는 1718년 3월 9일에 별세한 생모 숙빈최씨의 초종례부터 5월 16일 졸곡을 지낸 뒤 22일 기복출사(起復出仕)할 때까지의 상장례 기록이다.

이 일기에는 서문이나 발문, 범례와 같은 서지 부분이 없고, 내용 중에도 저자의 이름이 명시되어있지 않으나, 전후의 문맥을 유추해 보면 저자가 연잉군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표지 다음장에 춘궁(春宮) 연잉군章 등이 날인되어있어 영조의 어제(御製)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연잉군은 경종 즉위년(1721) 세제가 책봉되어 4년간 동궁에 있었다. 그리하여 『무술점차일기(戊戌苦次日記)』는 봉모당(奉謨堂)에 소장될 수 있었다.

본서는 전반부 29장은 일기로, 후반부 29장은 자료로 구성되어있다. 일기의 시작은 숙빈이 사망한 1718년 3월 초9일에 시작하여 연잉군이 기복출사한 5월 22일에 끝난다. 본문에는 연잉

2) 김 호, 조선왕실의 출산과정과 『護産廳日記』, 『숙빈최씨자료집』1, 장서각, 2009, pp 21~75.

군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표시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대부분 사무적인 행사 기록으로 채워져 있다. 따라서 본서는 공적인 행사일지 형식을 취하고 있다.³⁾

3. 『제청급석물조성시등록(祭廳及石物造成時曆錄)』과 『묘소제청도배시등록(墓所祭廳塗褙時曆錄)』

『제청급석물조성시등록(祭廳及石物造成時曆錄)』은 숙종의 후궁이며, 영조의 사친이었던 숙빈최씨(淑嬪崔氏)의 묘소를 조영할 때 함께 설치된 제청의 건립과 석물의 설치에 관한 기록이다. 그리고 『묘소제청도배시등록(墓所祭廳塗褙時曆錄)』은 제청의 도배에 들어간 물품과 비용을 기록한 것이다. 이 두 개의 등록은 1718년 49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숙빈최씨의 묘소가 조영된 해와 그 다음해인 1719년 필사된 자료이다. 원래 등록은 특정 행사와 역사(役事)를 주관한 관청이나 도감(都監)에서 생성된 문서를 낱싸순으로 정리하여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숙빈최씨와 관련된 이 두 개의 등록은 누구에 의해서 작성되었는지 분명하지 않고, 형식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작성되었다.

그리고 기록 내용은 제청⁴⁾과 석물에 한해서만 작성 되어있어 다른 왕릉의 조영에서처럼 각 분야의 조성경위를 살펴볼 수 없다. 하지만 석물의 조성과 제청의 도배 등의 작업은 묘소의 치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과정이었기에 과정 하나하나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이 두 기록은 숙빈최씨가 빈(嬪)이 아닌 비(妃)였다면 의궤로 정리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록은 숙빈최씨의 아들이었던 연잉군에 의해서 기록되어졌고, 그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다.⁵⁾

1) 『제청급석물조성시등록(祭廳及石物造成時曆錄)』

『제청급석물조성시등록』은 숙빈최씨의 장례가 있는 다음 제청을 짓고, 석물을 조성한 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표지는 가로 22.7cm, 세로 30.8cm의 크기에 붉은색 능화판(菱花板)문양을 갖추었으며, 제침 없이 먹으로 표제를 썼다. 본문은 칸을 치지 않은 종이에 10행 18자씩 맞추어 기록했다. 첫 면의 상단에는 주문(朱文)의 춘궁(春宮)이라는 도장이, 아래에는 주문방인(朱文方印)의 연잉군장(延昞君章)이 찍혀있다. 따라서 이 등록은 연잉군이 왕세제로 있을 때 소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등록의 전체 구성은 제청의 규모와 석물의 종류 및 수량, 제청과 입석의 택일, 묘소석물배열도와 각 석물의 치수, 제청도, 호조와 내수사에서 분청한 목물 등의 수량, 석물과 제청 조성시 각 항의 조건, 상격, 묘소 제청 목물의 남은 수량 등으로 되어있다.⁶⁾

3) 이영춘, 『戊戌苦次日記』이 의의, 『숙빈최씨자료집』1, 장서각, 2009, pp 79~157.

4) 제청은 일반적으로 기제사를 지내거나 문상객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지은 건물이다. 특히 왕실 능원의 제청은 왕이나 세자가 제사를 위해 방문했을 때 머무르는 곳이기에 규모와 격을 갖춘 건물로 지어졌다.

5) 윤진영, 『『祭廳及石物造成時曆錄』과 『墓所祭廳塗褙時曆錄』의 내용과 성격』, 『숙빈최씨자료집』2, 장서각, 2009, pp 1~2

2) 『묘소제청도배시등록(墓所祭廳塗禱時曆錄)』

『묘소제청도배시등록』은 숙빈최씨의 묘역에 제청을 지은 뒤, 방과 청을 도배할 때 들어간 물력과 비용을 기록한 것이다. 최초의 필사는 숙빈최씨가 사망한 다음 해인 1719년(숙종 45)에 작성 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내용은 모두 8면으로 선이 없는 백지를 사용하였다. 내용의 구성은 첫째 제청 도배를 위해 왕이 내려준 물품명, 둘째 초배(初禱)의 일정과 물품, 셋째 정배(正禱)의 일정과 사용된 물품과 수량, 넷째 비용과 내역, 다섯째 남은 물품의 내역과 수량 등이다.⁷⁾

4. 『소령수길원보관현판등사(昭寧綏吉園保管懸板贈寫)』

본 자료는 소령원과 수길원에 보관된 현판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 놓은 자료이다. 이 자료의 표제는 ‘소령수길원현판’이고, 내제는 ‘소령수길원보관현판등사’이며, 표제지에는 ‘소령수길원현판등사’라는 제목으로 적혀있고, 장서각 목록에는 ‘소령수길원현판보관등록’이라 되었다.

본 자료에는 총 15건의 현판이 전사(轉寫)되어있다. 각 현판의 제목 위에는 전사자(轉寫者)가 번호를 부여하여 세필로 적었는데, 현판 내용의 찬자와 형식, 현판의 제작 또는 계판(揭板)시기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시와 산문이 뒤섞여 있고, 앞선 시기에 제작된 현판이 뒷시대에 만들어진 것의 뒷부분에 편차되어있기도 하다. 전사 형태를 살펴보면 본래 현판에 구현된 대두(擡頭)와 격간(格間), 자수(字數), 줄 바꿈 등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제목과는 달리 본 자료에는 소령원 현판만 수록되어있고, 수길원 현판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 내용으로 현판은 모두 15건이고 내용은 영조와 정조의 어제(御製) 시문, 소령원 부속건물의 명칭 등을 세겨 넣은 편액(扁額)등으로 구분된다. 이때 영조의 어제시가 2개이고, 어제문은 4개이며, 정조의 어제시와 어제문은 1개씩이다. 그리고 소령원 부속 건물의 명칭 등을 적은 편액은 7개이다.

5. 『소령원지(昭寧園誌)』

『소령원지(昭寧園誌)』는 숙빈최씨와 소령원에 관련된 제반 정보를 기록해 놓은 책이다. 이 책은 「소령원지상」, 「소령원지하」, 「소령원지부록」,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령원지상」에는 숙빈최씨의 추승과정과 소령원의 연혁, 제향별 제의와 제문, 소령원 부속 건물과 봉분 주변의 석물, 영조의 어제어필과 전교, 각종 묘도문자와 축책문 및 부속 건물에 배치된 의물의 종류와 수량, 배속 관원의 근무 지침, 인근 산천과 고적, 각종 서식 등 다소 실무적이고, 부수적인 내용을 수록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령원지부록」에서는 소령원 인근에 위치한, 영조의 후궁 정빈이씨의 원침인 수길원과 관련된 기록을 소략하게 실었다.⁸⁾

6) 윤진영, 「『祭廳及石物造成時曆錄』과 『墓所祭廳塗禱時曆錄』의 내용과 성격」, 『숙빈최씨자료집』2, 장서각, 2009, p 2

7) 윤진영, 「『祭廳及石物造成時曆錄』과 『墓所祭廳塗禱時曆錄』의 내용과 성격」, 『숙빈최씨자료집』2, 장서각, 2009, p 8

8) 김덕수, 『昭寧綏吉園保管懸板贈寫』해제, 『숙빈최씨자료집』2, 장서각, 2009, pp 161~162

맺음말

본고는 2009년 한국학 중앙연구원에서 발간한 『숙빈최씨 자료집』의 자료를 토대로 숙빈최씨와 관련된 자료를 소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소령원은 연잉군이 왕위에 오른 후 소령묘에서 소령원으로 추송되었다. 그리고 순화방 북쪽 산기슭에는 사당이 세워졌고, 묘 입구에는 거대한 신도비를 세웠다. 1744년 영조 20년에는 묘호(廟號)를 육상으로, 묘호(墓號)는 소령으로 하였다. 이후 영조 29년에는 화경(和敬)이라는 시호를 올리면서, 육상묘를 육상궁으로, 소령묘를 소령원으로 추송되었다. 이후 영조 32년에는 휘덕(徽德), 영조 48년에는 안순(安純), 영조 52년에는 수복(綏福)이라는 시호를 올렸다.

이와같은 과정 속에서 숙빈최씨의 무덤은 왕릉은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치장을 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된 자료는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되지 못했다. 때로는 영조 자신이, 그리고 묘소를 관리하는 주변의 인물들이 그때그때 정리해 놓은 자료들을 한데 모아 놓은 정도에 불과 하는 정도였다. 그러다 보니 기입각과 같은 건물과 그에 복속된 현판 등은 모두 소실되고 말았다. 다행스럽게 영조는 세자시절 기록을 해 놓은 자료들이 봉모당에 남겨져 위에서 언급한 자료들이 전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2009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숙빈최씨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이 자료는 매우 소중한 자료로서 우리 파주시에서는 더욱 가치가 있는 자료로 사료된다.

파주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가치 있는 문화유산으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문화유적과 더불어 관련 자료를 함께 공유하고 접목시켜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필자는 『숙빈최씨 자료집』의 내용에 담겨있는 숙빈최씨 관련 도서들을 소개했다. 본고에서 그 책의 내용을 소상히 언급하지 못한 것이 미흡하기는 하지만 이미 책으로 발간한 상태이기 때문에 깊이 다루지 않았다. 모쪼록 『숙빈최씨 자료집』이 파주의 문화유산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랄 뿐이다.

◎ 참고문헌

『숙빈최씨 자료집』, 한국중앙연구원, 2009.

조선왕조실록

『경국대전』

신사임당의 인간관 (人間觀)과 예술 연구

이진숙*

- I. 序 言
- II. 조선초기의 사회와 신사임당 생애
 - 1. 조선초기의 사회
 - 2. 신사임당의 생애
- III. 신사임당의 초충화에 관한 연구
 - 1. 초충화의 형성과정
 - 2. 사임당의 예술
- IV. 신사임당과 파주올곡리
 - 1. 화석정과 파주올곡 생활
 - 2. 신사임당과 화석정
- V. 신사임당의 작품분석
- VI. 結 言

I. 序 言

신사임당(1504-1551)은 우리나라가 낳은 가장 훌륭한 어머니의 표상이며 초인적 감각이 뛰어난 예술가이다. 무엇보다도 신사임당의 참모습은 인격(人格)과 화격(畫格)을 고루 갖추어진 문인으로서 자신의 세계를 확충(擴充)해간 최고의 여성이라 아니할 수 없다.

* 파주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조선초기 당시 여성들이 글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는것을 적극적이지 않는 사회에서 학문적으로 높은 경지(境地)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천부적인 재능(才能)과 어머니 이씨(1480-1569)의 엄격한 가르침으로 이루어 졌다. 신사임당은 외조부의 교훈과 어머니의 훈도를 받으면서 7세부터 안견의 그림을 임모 했다. 산수, 포도, 풀벌레 등 그림속에 몰입하였고 유교 경전은 물론 그의 학문이 일취월장(日就月將)하여 경사(經史)에도 능하게 된 것이다. 특히 어머니 이씨 부인으로부터 글도 배우고 부덕(婦德)과 여범(女範)을 함께 익혔다.²⁾ 특히나 주목할 만한 것은 파주의 임진강변의 화석정과 울곡리와 시댁 수진방을 오가며 울곡 이이선생과 함께 지내온 여정이 있었기에 선조들의 유대감이 더욱 컸던 파주의 거점(據點)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외가에서 태어나 성장해 온 신사임당 교육환경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아들이 없이 딸만 있는 집으로, 배우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외친들의 배려가 컸던 것들을 들을 수 있다. 어머니 이씨는 무남독녀(無男獨女)로서 그러한 배경에는 고려때 중대광(重大匡) 경흥부원군(慶興府院君) 최필달(崔必達)의 후손이며 이조참판(李朝參判)을 지낸 최치운(崔致雲)의 아들인 강릉의 명문 집안으로 참판 최응현(崔應賢)공의 둘째딸인 최씨가 신사임당의 외조모인 것이다.³⁾ 신사임당의 집안은 당시 전답 46,530평 비(婢)의 총수가 119구(奴 68 婢 51)⁴⁾로 유복한 명문가로 어머니 이씨 부인은 친정어머니 최씨로부터 아들 못지않은 교육을 받은 것은 자명한 일이다. 어머니 이씨는 딸만 다섯으로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태어난 둘째 딸 신사임당의 정신적 지주로서 삶의 미래를 열어 주었던 것이다. 어머니 이씨의 노력은 신사임당에서 울곡 이이까지 영향을 주어 성인(聖人)으로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신사임당의 모계의 영향은 이 시대의 또 하나의 특수한 교육환경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예술은 적극적인 생활 속에서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킨 것이다. 궁중화원화가와 사대부가의 화원 활동과 또 다른 양식으로 유달리 생명력이 강한 신사임당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하고 세련된 조형의 세계는 자신의 교육과 정신적 가치에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의 강인한 정신력과 예술적 감성을 어떻게 끌어 올 수 있었는가를 그의 생애와 작품을 통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의 감수성과 잠재력은 많은 예술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연미의 원시적(原始的)이고 순수한 아름다움이 인간의 마음에 내재적 감각으로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本性)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신사임당의 생애(生涯)를 통하여 그의 천부적(天賦的) 재능(才能)과 인간관을 고찰(考察)해 보고 작품을 분석(分析)함으로써 그의 작품이 조선 초충화에 어떠한 회화적 의의를 갖고 있는가를 재조명 하고자 한다.

2) 『신사임당 초충화에 관한 연구』 1986,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박미영 p4

3) 『신사임당과 자녀교육』 1986, 민예사, 오시림, p115

4) 『신사임당의 인간과 연구』 1986, 강원대학교교육대학원, 박미영, p23

II. 조선초기의 사회와 신사임당 생애

1. 조선초기의 사회

조선초기(1392-1550)와 고려시대의 전통을 계승하고 중국의 화풍을 수용하여 다양한 한국적 화풍을 형성하였다. 그 중에서도 사대부의 영향은 지배적으로 컸으며 정치 사회가 무오사화(戊午士禍)(1498년)와 기묘사화(己卯士禍)로 정치적 파란이 일기도 했지만 당시 조선의 문신들은 삼강오륜(三綱五倫)을 기준으로 삼는 근엄한 생활을 하고 사회, 문화면에서 학문과 예술이 도의(道義)를 매우 중요시 하고 특히 성리학(性理學)을 숭상하고 도덕관(道德觀)은 인(仁)을 중심으로 했고 실천적인 발현(發現)으로 효(孝)를 중심으로한 유교적 도덕관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조선시대의 회화의 특징(特徵)은 다양한 회화가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회화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사대부들은 정신수양의 한 덕목으로 산수화나 사군자를 선호하였다. 이러한 사회에서 화원을 뽑는 시험의 기준은 『경국대전(經國大典)』, 취재조(取才條)에 의하면 화원시험은 대나무, 인물, 영모, 화초중에서 두가지에 대하여 시험을 치르되 대(竹)를 1등으로 하고 산수(山水)를 2등으로 하며 인물, 영모를 3등, 화초를 4등으로 하여 화초그림에서 통(通)이란 성적을 받으면 2점을 가산하고 약(約)이란 성적을 받으면 1점으로 가산하며, 인문화나 영모화는 차례로 둘을 올려서 각각의 성적을 가산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사의성을 중요시하고 문인화를 제일이라 여겨 영모나 화초는 장식적인 길상화라고 여겨서 주목받지 못한 예일 것이다.⁵⁾ 그러나 도자기와 목공품들과 같은 도구들은 생활 도구들이기에 더 솔직하게 감정이나 의식이 반영되고 더 강하게 기능성을 발휘하고 있다. 이 시기에 안견(安堅), 이상좌(李上佐), 김명국(金明國)같은 화원과, 두성령(杜成令), 이암(李巖), 학림정(鶴林正), 이경윤(李慶胤), 석양정(石陽正), 이정(李迥)같은 왕실화가, 강희안(姜希顔) 양팽손(梁彭孫), 조숙(趙洙)같은 사대부 화가, 양송당(養松堂), 김시(金禔), 허주(虛舟), 이징(李澄)등이 다양하게 배출되었다.⁶⁾

왕궁에서도 회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였는데 연산군도 성종 못지않게 회화를 비롯하여 백공기예(百工技藝)를 장려하고자 힘써서 완물상지(玩物喪志)의 위험을 신하들로부터 경고 받기도 하였고 궁궐내에 성종조에 일시 설치되었던 내화청(內畫廳)을 상례화하기도 하였다.⁷⁾

강희안과 강희맹 남급 등과 자연친화적인 소재와 수묵 담채풍으로 몰골법을 수용한 이들과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 3일 만에 몽유도원도를 그려낸 안견은 화원으로서 산수의 대가였다. 이러한 그의 그림을 7세부터 임모함으로 신사임당은 안견의 격조 높은 화법을 이어 받게 되었다.

신사임당은 인간성이 표현되는 요란하지 않은 순수한 사고(思考)와 자연의 미물(微物)들을 새

5) 『조선초기 화조화연구』 2006, 흥익대학교 대학원, 박영숙 p2

6) 『조선시대 화론연구』 2002, 유홍준 학고재, p75-76

7) 『조선초기 화조화연구』 2006, 흥익대학교 대학원, 박영숙 p45

로운 조형의 변화(變化)로 이끌어 낸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적인 순수한 개성의 세계가 탄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신사임당의 생애

사임당은 강원도 강릉의 북평마을에서 연산10년(서기1504) 10월29일 신명화(申命和)의 다섯딸 중에 둘째딸로 태어났다. 신명화는(성종7년1407년) 평산신(平山申)씨로 영월군수인 숙권의 아들로 고려 태종때의 충신이었던 장절공(莊節公) 승겸(崇謙)의 18대손이며, 어머니는 용인 이씨로서 생원 이사온(李思濼)의 딸이며 강릉인 참판 최익현(崔益鉉)의 외손녀이기도 하다.⁸⁾

사임당의 어머니는 무남독녀(無男獨女)라 신명화에게 출가하고도 친정에 계속 살게 되어 신사임당은 강릉 북평 마을에서 출생하게된 것이다.

아버지 신명화는 어머니 이씨 보다 네 살이 위인 41세에 진사시험에 오르자 당시의 재상이던 윤은보, 남효의 같은 이들이 조정에 높이 천거 하고자도 했으나 학문 연구에만 전념했다. 그 후 3년 뒤에 기묘사화(己卯士禍)가 일어났다.

신화공(申和公)은 46세 봄에 사임당의 조모 최씨가 별세 했다는 충격으로 오는 도중 자리에 눕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듣고 사임당의 어머니 이씨는 가솔들을 데리고 그에게 달려가 7일 밤낮을 기도해도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단지(斷指)하고 하늘에 정곡(情曲)을 통달하는 기도를 올려 하늘도 감동하여 결국 씻은 듯이 일어났다. 그러나 슬픈 일로는 그 같이 기적적으로 소생해 일어났던 신공이 바로 그 이듬해에 사임당 19세에 출가한 다음 결국은 그만 세상을 떠나버렸다. 아버지 신화공의 일로 마침내 조정에서 이씨 부인을 표창하는 열녀 정각까지 세웠는데 때는 중종23년(서기 1528년) 부인의 나이 49세 신화공이 세상을 떠난지 6년이 지나서이다. 신사임당의 나이 25세 되던 해다. 이러한 신사임당의 어머니 이씨의 영향은 율곡에게 까지 미치게 된다.

신사임당은 이원수의 당숙되는 이행(李衍)이 강릉(江陵)부사(副使)로 재임하게 되니 그 인연으로 19세(중종17년1522년)에 덕수(德水)이씨 원수공(元秀公)에게 출가 하였다. 이원수공은 고려 고종5년 무공을 세운 중랑장(中郎將) 돈수(敦守)의 12대손으로 이름은 난수(蘭秀)요 자는 덕형(德亨)이다. 부인보다 3살 위인 22세 였다. 사임당(師任堂)은 고대 중국의 주(周)나라의 주역을 지은 문왕(文王)의 어머니인 태임(太任)을 본받는다. 태임이야말로 고대 태교(胎敎)로 문왕(文王)과 같은 이상적인 인물인 성인(聖人)으로 길러냈으니, 현철한 여성인 신인선은 자신도 한국의 이상적인 인물로 미래 사회를 활짝 열어갈 자식을 길러내고 싶었기에 태임을 본받는다는 의미로서의 사임이란 당호(堂號)를 짓게 된다. 사임당(師任堂)은 어려서부터 경서(經書)를 배우고 서예(書藝)를 익히고 여성의 모든 예의범절(禮儀凡節)과 교훈은 물론 유향의 열녀전, 소학(小學) 안지추(安之推)의 안씨가훈, 예기(禮記)를 읽었기에 자녀들이 인간의 기본과 가족간의 화목과 예의(禮儀)를 중시하였으며 사

8) 「신사임당의 생애와 예술」 이은상 1978 성문각

회와 국가에 기여하는 인물로 성장(成長)할 수 있는 기반(基盤)으로 열어가고 있었던 것이다.⁹⁾ 그러므로 성현들의 학문과 예술을 위시하며 가정의 정신적 훈육은 성장과정의 밑받침과 생활의 규범은 남다른 학문과 예술을 겸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임당은 출가 했지만 친정 부모에게 각별한 사랑을 받았으므로 친정 부친의 3년 탈상 후에 서울시댁으로 올라와 신혼례를 드린후 그해 9월에 맏아들 선(璿)을 낳았으며, 22세에 파주 울곡리에서 서울 수진방을 오가며 강원도 북평도 여러해 기거 했으며 26세에 맏딸 대창을 낳았다. 둘째 아들 번(璵)과 둘째딸과 셋째딸이 출생하였고 33세에 아들 울곡을 낳았다. 친정에 살던 사임당은 38세에 강릉에 계신 홀어머니 이씨 부인을 아주 작별하고 서울로 올라온 때가 울곡의 나이가 6세이다. 하늘을 감동케 한 열녀의 어머니를 가졌던 신사임당은 자신은 이미 어머니의 수준 높은 교육으로 친정어머니를 닮아 있었고 시댁으로 가는 길에 대관령을 넘으며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는 애절한 마음의 노래이다.

대관령을 넘으며 친정을 바라본다	유대관령 망친정(踰大關嶺望親庭)
늙으신 어머니를 고향에 두고	자친학발재임영(慈親鶴髮在臨瀛)
외로이 서울 길로 가는 이 마음	신향자양독거정(身向長安獨去情)
돌아보니 북촌은 아득도한데	회수북촌시일망(回首北村時一望)
흰 구름만 저문산을 날아 내리네	백운비하모산청(白雲飛下暮山靑)
울곡이 지은<어머님 행장>	

이 시는 대관령 강원도 강릉군과의 사이에 있는 산인데 높이는 1077m 의 강릉 시내에서 서쪽으로 22km 쯤에 있는산 고을의 진산이라고 불리는 아흔아홉 굽이라 일컫는 험하고 높은 대관령고개이다. 신사임당은 이곳에서 태어나이 곳에서 자랐다. 떠나오려니 어머니가 그리워 굽이 굽이 되돌아 보며 여섯 살난 울곡을 데리고 강릉 친정을 떠나오면서 대관령 마루턱에 앉아 북평 친정을 바라보며 지은 것이다. 아쉽게도 이 시(詩)와 서울에서 친정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詩)사친(思親) 2편만 전해져 오고 있다.¹⁰⁾

넷째 아들 우(偶)는 신사임당이 39세에 수진방에서 지낸 다음해에 중종(中宗)37년 7월 9일에 낳았다. 넷째 아들 우(偶)옥산공은 과거에 올라 벼슬이 군수와 군사감정(軍資監正)에 이르렀고 그의 진면모가 오늘날까지 길이 빛나고 있는 금서시화(禁書詩畵)가 뛰어나서 가히 사절(四節)라고 일컬게 이르렀다. 서울로 올라와서 수진방(壽進坊, 지금의 수송동과 청진동사이)에서 살게 된 것이 10년동안이며 울곡이 화석정에 올라 시를 지은 것으로 보아 파주 울곡리에도 자주 내왕 하였던 것으로 보여 진다. 마지막 살았던 때가 장년기인 48세 되던 해의 봄이니 그때는 수진방에서 삼청동으로 이사를 했던 것이다. 그 해의 여름에 부군인 이원수공이 수운판관(水運判官)

9) 『신사임당의 생애와 예술』 이은상 1978 성문각 p100

10) 『신사임당의 생애와 예술』 이은상 1978 성문각 p85

이 되었는데 평안도 지방으로 맏아들 선(璿)과 셋째아들 이(珥)와 같이 내려갔다가 돌아오던 날 아침에 그만 운명(運命)을 달리하고 만 것이다. 이일을 당한 때의 남편인 이원수공의 나이는 51세였고 맏아들 선(璿)은 28세였고 맏딸 매창(梅窓)은 23세였고 셋째아들인 울곡(栗谷)은 겨우 16세, 막내우(耦)는 10세가 되었을 때의 일이었다.”¹¹⁾ 선조 때부터 파주 울곡리에 전통적으로 살아온 마을이었기에 신사임당은 파주 자운산에 그의 가족들과 함께 고요히 잠들어 계시다. 이상에서와 같이 짧은 생애 임에도 불구하고 신사임당은 7남매를 두었는데 모든 자녀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 내었다. 특히 그는 맏딸 매창(梅窓)을 자신과 똑같은 재예를 갖춘 자녀로 키워내었고 넷째아들 옥산(玉山) 우(耦)를 사절(四節)이라하는 높은 경지를 이룬 재(才)가로 배출하였고 또한 셋째 아들인 울곡선생과 같은 성인(聖人)이 후세인들에게 등불이 되게 하고 있다.

Ⅲ. 신사임당의 초충화에 관한 연구

1. 초충화의 형성과정

우리나라의 회화의 시발점은 짐승이 묘사되기 시작했던 것은 선사시대로부터 청동기시대나 반구대 암각화등에 선각(線刻)된 문양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고구려 시대의 고분 벽화를 통해 말이나, 호랑이 개, 그리고 각종 새 그림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라시대나 백제는 현존하는 그림이 더욱 희귀하지만 <天馬圖>나 <기마인물형토기(騎馬人物型土器)>등 각종 동물 형태의 토기 및 토우(土偶)를 통해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들은 조선시대 회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초기의 회화는 후대에 비해 작품의 전래가 희귀하고 기록이 불충분하지만 고려시대부터 축적되었던 중국회화와 우리나라 회화가 변화를 거듭하는 시기였다.

중국의 초충화는 중국의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 221~586)부터 그리기 시작 했고 오대(五代)에는 수묵을 위주로 수수한 그림을 그린 서희(徐熙 885?~975?)는 어떤 법도에도 구애됨이 없이 독창적인 정신을 발휘하여 몰골화조화의 시도가 되었다. 그는 작품을 묘사하려는 형상의 전체를 정신분위기를 중요시해야하며 담묵의 세밀한 기교가 필요하다고 하여 채색을 위주로 한 황전(黃筌 903-968)은 기교적이고 장식적(裝飾的)인 기법으로 아름다운 면을 중시했는데 가는 선으로 윤곽을 그리고 그 안에 농담으로 채색하는 기법인 구록진채법(鈎勒眞彩法)을 사용하였다. 이들의 그림이 화조화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기록에서 당태종의 이세민(李世民)이 빨간색, 자주색, 흰색의 세가지 색이 있는 모란꽃 그림에 벌이 없는 것을 보고 선덕(先德) 여왕(女王)이 말하기를 『이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향기가 없는 꽃이 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으로 보아 이때 이미 비단이나 종이에 그린 화조화가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¹²⁾

11) 『신사임당과 울곡』 1980, 성문사, 이은상, p27~28

중국에서는 수(壽) 복(福) 강(康) 녕(寧) 등의 길상적인 글자가 유행하였는데 조선에서는 효(孝) 제(梯) 충(忠) 신(信) 예(禮) 의(義) 염(廉) 치(恥) 등의 윤리적인 것으로 조선의 문자도를 효제도(孝梯圖)라고 부르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매우 상징적(象徵的)이라할 수 있고 조선시대에 성리학(性理學)이 어느 정도 생활 깊숙이 뿌리박힌 사상(思想)으로 형성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¹²⁾ 조선시대의 회화는 일찍부터 중국의 화론에 바탕을 둔 시화일률(詩畫一律)의 사상이 어느 정도 문인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필묵(筆墨)의 운용(運用)과 같은 회화기법의 발전을 가져 왔으며 시대정신이 반영된 표현주제도 다양하게 발전하여 왔다.

고려시대 화려하게 꽃피웠던 불교문화는 조선시대에 다양한 회화양식이 성립되는데 기초가 되었다. 불화나 고려청자에 나타난 흔적에 고려은입사정병(高麗銀入絲淨瓶), 청자상감운학문호(靑磁象嵌雲鶴文壺) 등에서 고려자기에 독창적인 오리들과 구름사이의 학들의 문향으로 보아 이미 초충화, 동물, 화조화가 회화적인 그림으로 발전되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생활의 도기와 세화, 길상, 벽사 등 기능적인 것에서 조선시대 초기 조충화는 회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중국의 화풍을 수용하면서 사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고 정신 수양의 회화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미의식을 바탕으로 신사임당의 화조화가 독자적인 조충화로 전개되었으며 조선시대의 한국적 화풍의 형성은 화조화가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신사임당의 조충화에 나타난 한국적 화풍은 순수하고 뚜렷한 개성으로 독특하고 명확한 한국화로 한국적인 미의식을 갖춘 한국화풍을 형성한 근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사임당의 화법을 중심으로 하여 기법과 구도를 계승한 화가는 이우(李瑀), 이신흠(李信欽), 이함(李涵) 등이다.

2. 사임당의 예술

조선초기의 화가로서는 사대부 화가로 유명한 강희안(姜希顔)과 강희맹(姜希孟), 남급(南伋) 등이 있었으며, 인물화의 일인자인 최경(崔潁)이 있었다. 안평대군(1418-1453)의 꿈 이야기를 듣고 3일 만에 몽유도원도를 그려낸 안견은 화원으로서 산수의 대가였던 태종연간에 태어나 세종 조에 가장 많이 활동하고 화법의 완성을 보았다. 그러한 안견의 격조 높은 화법을 신사임당은 7세부터 임모하여 공부 하였다.

신사임당의 작품이 지금 전해지는 초서 6폭, 해서 한 폭의 글씨에 그의 고상한 정신과 기백이 들어 있음을 볼 수 있고 그의 그림은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왔다. 그것은 그림들에 붙여진 발문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그의 작품에 매료(魅了)되었는지 알 수 있다.

울곡선생이 일찍이 그에게서 글을 배웠다고 전하는 어숙권(魚叔權)이란 이의 <패관잡기(裨官雜記)>에 사임당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가 적혀있다. “신사임당은 어려서부터 그림을 공부했는데

12) 『동양화란 어떤그림인가』 조용진, 배재명, 열화당, p80p82

13) 『미술은 아름다운 생명체다』 2001, 정보보, 다할미디어, p258

그의 포도와 산수는 절묘하며 평하는 이들이 세종 때 안건의 다음 간다고들 한다. 어찌 부녀자의 그림이라 해도 경홀히 여길 것이며 또 그 그림 그리는 것이 어찌 부녀자에게 합당한 일이 아니라 나무랄 수 있는 것이냐!”¹⁴⁾ 라고 했다. 또한 경은부원군 김주신(金柱臣)댁에 사임당이 그린<풀과 벌레>라는 그림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숙종(肅宗)은 어느날 그 그림을 한번 보기를 원했다. 전갈을 받은 김주신은 사임당의 화첩6폭 (한첩부족)을 보내니 숙종은 감탄하여 모사하여 대궐에 걸게하고 김주신에게 시로 읊어 그림과 함께 그에게 내렸다.

풀이며 벌레가 어찌 모양이 실물과 같을지고
 부인이 그려낸 것이 그다지도 오묘할고
 그림 묘사하여 병풍만들어 대궐에 쳤네
 아까울손 빠진 한쪽 묘사 한장 더하도다
 채색하여 그린 것이 한결 더욱 아름답네
 그 법 무엇일까 몰골법이 그 아닐까
 을미(乙未) 중추(中秋) 상순 어진 15)

그 시대의 여성으로서 어진 아내, 훌륭한 어머니, 효성이 지극한 자녀로서 덕행을 쌓는 것 위에 이같이 예술에까지 능숙한 일가를 이루었다는 것은 오늘날에 와서도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1655년) 『송담서원』에 간직하였던 병풍그림 발문에 “여자중의 군자라 해도 좋지 않겠는가”라고 적혀있다.¹⁶⁾

신사임당의 덕행과 예술작품이 끼친 영향은 조선시대는 물론이고 지금 이 시대의 모든 후학들에게 아름답고 고매한 정신을 지닌 위대한 예술가가 출현하였기에 조충화의 당당한 장르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IV. 신사임당과 파주 울곡리

1. 화석정과 파주 울곡리 생활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울곡리는 울곡의 5대조 되는 강평공(康平公)명신(明辰)이 화석정(化石亭)을 지은 것으로 훨씬 이전부터 덕수(德水)이씨(李氏) 조상이 살아왔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울곡의

14) 『신사임당과 예술』 1980, 이은상, 성문각, p65

15) 『신사임당과 자녀교육』 1986, 민예사, p141

16) 鄭浩, 『신사임당의 생애와 예술』 이은상.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오랜 근거지로 사임당은 이곳을 서울 수진방(壽進坊)과 내왕하며 10여년 기거하게 된 것이다. 34세때 율곡이 관직에서 물러나 쉬려 할때 율곡리로 돌아와 선조대왕을 위해 <동호문답>이란 글을 바쳤다. 이렇듯 이곳은 사임당의 근거지로서 율곡선생이 벼슬에서 물러나와 있을 때나 여가가 날 때 마다 제자들과 벗들과 독서하고 학문을 논하는 곳으로 화석정과 율곡리에서 기거 했던 것이다.

사임당의 남편 이원수공(李元壽公)이 맏아들 선(璿)에게 편지한 것이 가승(家乘)속에 기재되어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율곡리에 농장이 있었던 모양이요 지금 전해 오는 그들 형제의<분재기(分財記)>에 의하면 그들의 전답이 거의 다 이 곳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분재기>는 1566년 5월 20일에 어머니 사임당이 별세한지 15년, 아버지 원수공이 별세한지 5년에 율곡의 동북형제 7남매가 모여서 회의한 것이다. 지금은 맏아들 선(璿)죽곡(竹谷)의 후예들이 살고 있다.¹⁷⁾ 이같이 율곡리는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오랜 근거지로서 사임당이 이곳을 내왕 했을 뿐만 아니라 생활의 근거지로서 집안의 소유였던 전답과 화석정도 서울 수진방을 오가며 관리했기 때문에 율곡선생의 호를 부르게 된 것이다.

2. 신사임당과 화석정



화석정(경기도문화재 61호 1974년 9월 26일 지정)



화석정 내 율곡의 8세 시(詩) 현판

화석정(化石亭)은 선조(宣祖) 때부터 살아오던 고을의 북쪽 6km쯤되는 임진강 남쪽 언덕위에 신사임당 집안의 소유였던 화석정(化石亭)이란 정자가 있었다. 5대조인 강평공(康平公) 명신(明勳) 지은 것으로 세종(世宗 25년 1443년)에 처음으로 세워졌다. 그 후 강평공의 손자 홍산공(鴻山公)이 의석(李宜碩)이 35년(성종 9년 1478년)뒤에 지어 아우 의무(宜茂)를 문명(文名)이 높았던 몽암(夢菴) 이숙함(李叔翥)에게 보내어 정자의 이름을 짓고 기문을 적어 달라고 요청했던바 몽암(夢菴)은 당나라때 찬황(贊皇)사람 이덕유(李德裕)란 이의 <평천장기(平泉莊記)> 가운데에 있는 구절을 따서 화

17) 『신사임당의 생애와 예술』 1986, 이은상, p249

석(化石)이라고 정자 이름을 짓고 또 기문을 적어 주었던 것이요 거기 따라 그 당시 학계의 거장들이었던 점필제(沾畢濟) 김종직(金宗直) 사가(四佳) 서거정(徐居正)들이 거기에 시를 지어 붙였던 것이다. 율곡선생 당시에 그 곳으로가 독서하고 묵상하는 처소로 삼았던 곳이어서 어려서부터 율곡에게 있어서 화석정(化石亭)은 제자나 벗들과 학문을 논하고 묵상에 잠기는 곳이다. 율곡이 47세 되던 해 선조(宣祖)(15년 임오1582년) 10월 명나라로부터 신종황제의 조서(詔書)를 받들고 오는 사신들을 영접하는 원접사(遠接使)가 된 일이 있었다. 우리나라로 온 사신들은 한림원(翰林院) 편수(編修) 황홍헌(黃洪憲)이란 이와 공과급사중(工科給事中) 왕경민(王敬珉)이란 이들로서 모두 다 글을 잘하는 사람들 이었다. 그러나 그들도 율곡선생의 학문과 문장에는 자못 고개를 숙일 정도로 능했던 율곡선생과 더불어 화석정에 같이 올라 시를 지어 현판에 새겨 붙여 놓음으로써 화석정의 이름이 중국에까지 전파되었던 것이다. 그 후에 율곡을 사모하는 많은 학자들이 시를 지어 경의를 표하니 저 유명한 습제(習齊), 권남(權南), 송강(松江), 정철(鄭澈), 만취(晩翠), 오억령(吳億齡)들의 시판이 대표적이다.¹⁸⁾

그러나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때에 불타버리고 자못 80년 동안이나 빈터로 남아 있다가 현종14년(1673)에 재축 되어 율곡의 종손 후지(厚址), 후방(厚芳)이 정자를 다시 짓고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과 현석(玄石) 박세채(朴世采)등 명사의 기문을 받아 붙이는 동시에 특히 송우암(宋尤庵)의 글씨로 액자를 새겨 걸었다. 또한 선조때 태어나 숙종(肅宗)때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지낸 우계(牛溪)라는 사람이 그가 휘호한 율곡선생이 8세때 화석정에서 지은 시를 현판에 걸고 번역한 것을 보면

숲 속의 정자에 가을도 늦어	림정 추이만(林亭秋已晚)
시인의 가슴에는 끝없는 생각	소객의무궁(騷客意無窮)
물과 하늘 마주이어 푸르렀는데	원수연천벽(遠水連天碧)
단풍은 햇빛 아래 타는 듯 붉고	상풍향일홍(霜楓向日紅)
산은 외로운 달을 토해 내는데	산토고륜월(山吐孤輪月)
강은 긴 바람을 머금었나니	강함만리풍(江含萬里風)
기러긴 어디메로 날아 갔는고	새홍하처거(塞鴻何處去)
울음소리 구름속에 끊어졌구나	성단모운중(聲斷暮雲中)

이렇듯 신사임당과 율곡선생은 화석정을 오가며 학문과 문장에 능한 선비들과 함께 주도적 역할을 이어갔던 것이다.

그리고 수백년을 지나 1910년 이후 뜻있는 선비들이 이곳을 찾아와 옛 역사를 회고하며 생각을 가다듬는 곳이었는데 1950년 6.25 동란때 이 정자가 불타고 말았다. 현존하는 화석정은

18) 『신사임당 생애와 예술』 성문사, 1978, 이은상, p252, 253

신윤창(申允昌), 박찬형(朴贊滢), 황호현(黃琥淵), 이종구(李宗九)등 지방 유지와 군민들이 성금을 모아 1965년 11월에 준공낙성한 것이며 현판은 박정희(朴正熙)전대통령의 휘호이며 중건상향문과 중수기는 조석훈(曹錫勳)이 글을 지었고 김형구가 글씨를 썼다.¹⁹⁾ 1966년 파주 유림들이 성금을 모아 복원 했는데 앞면3칸 옆면2칸 규모이고 지붕 옆면이 여덟팔자 모양인 팔작지붕 형태로 조선시대의 양식을 따랐다. 1973년 정부의 정화사업 때 건물 색을 다시 칠하고 주위를 보수 하였다. 화석정 안에는 <화석정중건상량문>을 비롯해 여러개의 현판이 걸려 있고, 정자 주위에는 2001년에 시장(市長) 재임시(在任時: 宋達鏞)이 율곡선생의 8세시비를 세웠고 육백여년을 지내온 백향나무와 아름다운 전경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다.



〈율곡선생 8세 시(詩)〉



〈화석정〉

V. 신사임당의 작품분석

신사임당의 작품은 묵화와 채색화 또한 글씨와 자수가 전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초충화는 정감있게 표현된 색채와 구도를 어떠한 소재로 조형의 세계를 만들어 갔는가 분석 하고자 한다.

신사임당은 주변에 피어있는 꽃과 채소, 곤충 한 마리라도 정감을 느끼고 주로 초충화를 구름법(鈎勒法)과 물골법(沒骨法)으로 한국인의 미의식 속에 자리 잡은 서정적이고 소박한 미감(美感)을 표현하고 있어, 보다 한국적인 화풍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신사임당의 초충화는 초의 다양한 종류로 화훼와 잡충들의 모습을 친근감 있고 정감있게 표현하여 남다른 애정으로 사물을 관찰하고 인간들이 살아가는 순리(順理)와 화합(和合)하며 나누는 정을 화면을 통해 절실하게 느끼고 표현해 내려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소재로 각종 나비와 매미, 나비, 잠자리, 개구리, 방아깨비, 여치, 벌, 사마귀가 그려졌으며 채소종류에는 수박, 가지, 오이, 홍당무, 무우 열매로는 석류, 딸기, 등의 열매를 맺는 것과 개양귀비, 봉선화, 도라꽃,

19) 『신사임당과 자녀교육』 오시림, 1986, 성문사, p93 p60

물봉선화, 맨드라미, 수선화, 옥잠화, 수국, 붓꽃, 금낭화와 원추리 등이 소재가 되어 있고 부 소재들이 패랭이꽃, 양달개 배꽃, 나팔꽃 등과 여러 가지 잡초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소재들은 생활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꽃과 들풀들 그리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비며, 잠자리, 벌, 매미 등 평소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서로 쇠똥을 굴러 돌아다니는 쇠똥구리, 두더지, 도마뱀, 들쥐와 나방 등 미물까지도 진솔한 애정이 묻어나 있다.

구도를 살펴보면 <수박과 석축화>, <파리와 잠자리>, <가지와 벌 나비>, <오이와 개구리>, <개양귀비와 도마뱀>, <맨드라미와 쇠똥벌레>, <범부채와 매미>, <물봉선화와 쇠똥벌레>, <파리와 잠자리>, <맨드라미와 개구리>, <가선화와 풀거미>, <원추리와 벌>, 주제를 화면 중앙 구도로서 중앙으로 집중하는 능숙한 필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색감(色感)은 밝고 강한 색채효과 보다는 부드럽고 편안한 색채로서 청, 적, 백, 황, 흑으로 우리 전통의 색감으로 색채마다 내면적 의미가 내포(內包)되어 있는 자연 친화적인 해맑은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전통주의가 만연(漫然)되었던 시대적, 사상적 배경으로 흥미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사임당은 우리의 고유의 차별하면서도 고전적인 성격으로 고상(高尚)한 품위를 유지하면서도 깊은 맛이 들어 있는 특유의 우리 것을 창출(創出)한 것이다. 김원용이 “우리나라 산은 부드럽고 자기의 존재조차 무각무인(無覺無認)하는 천의무봉(天衣無縫), 해탈성불(解脫成佛)한 것 같은 단풍이다. 유화(柔化)와 온순이 있고 인공적인 자극을 피하는 자연 애(愛)의 복귀가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미가 서있는 한국의 세계인 것이다.”²⁰⁾라고 하였듯이 우리의 고유정서가 있는 부드러우면서도 온화한 기품이 있는 한국적(韓國的)미를 발휘한 작품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물골화법과 구름법을 사용한 먹과 채색은 부드러우면서도 밝은색으로 봄날의 서정이 섬세한 필치로 감현되어 있다. 신사임당의 미적감성(美的感性)은 정신적, 감성적인 철학적(哲學的) 바탕이 뚜렷한 삶의 표현(表現)이며 삶의 방식인 정제된 자신의 조형의 세계를 담고 있는 흔적이라 할 수 있다. 사임당은 구름법(鈎勒法)과 물골법(沒骨法)으로 가지가 서로 뒤엉키고 올망졸망 하더라도 기백은 같지 않은 형세를 얻어 성기고 뻣뻣함 뒤에도 번잡하지 않고 착색이 그 형상과 색채를 신기하고 향기가 나오듯 굳터터기가 나타나 있지 않은 자연스럽게 단숨에 이루어진 것처럼 정신이 집중되어 있다.

<하늘타리와 쥐><오이와 메뚜기><산차조기와 검은잠자리><봉선화와 잠자리><수박과 여치><가지와 범의땅개><가선화와 풀거미><맨드라미와 개구리><원추리와 벌><물봉선화와 쇠똥벌레><도라지꽃과 여치><산차조기와 검은잠자리><오이와 메뚜기>풀과 곤충의 삼각구도로 배치한 형과 화면 중앙부에 교차 형태로 시선은 끌어당기는 조화를 구성하여 자연스런 변상과 어울림을 사물 개체적 성격을 드러내고자 했다. 여백을 중시 하였으며 취함(取)과 성감(疎) 뻣뻣(密)함, 허(虛)와 실(實), 주(主)와 객(客)의 위치 모임(聚)과 흐터짐(散), 강(強)과 부드러움(柔)을 중요시하고 유기적(有機的)으로 균형감각(均衡感覺)을 선호하는 인간의 반응을 시각적 본능(本能)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 『한국미의 탐구』 열화당 김원용, 1998, 성문사 p47

특히나 <하늘타리와 쥐>는 타원을 교차하는 삼각형의 구도로 무한히 공존할 수 있는 순회(巡廻)의 연속(連續)성을 준 우리의 내면세계에 나비가 날고 어디서 벌들이 날아들듯 같은 비동(飛動)하는 형상을 볼 수 있다.

쥐들의 모습에서 긴장감을 자아내게 한다. 또한 <수박과 석죽화>는 중앙 중심구도로 나비와 벌은 역삼각형이 겹쳐진 방향으로 긴장감을 준다. 또한 사마귀의 방향과 수박의 줄기는 S자 곡선 모양으로 율동감(律動感)으로 헤엄쳐 올라가듯 강하게 피어가는 생동의 기상(氣象)을 볼 수 있다.

<오이와 메뚜기>, <수박과 여치>는 타원으로 변화 구도로 한없이 뻗어 내려가며 나비와 메뚜기는 삼각구도로 교차하는 구도로 가늘고 긴 선에서도 선의 구성적 요소가 매우 부드러우면서도 당당한 조형적(造形的) 의지(意志)가 내포(內包)되어 있다.

〈參考圖版〉노산 이은상 1978년 『신사임당의 생애와 예술』



〈하늘타리와 쥐〉



〈수박과 석죽화〉



〈개양귀비와 도마뱀〉



〈산차조기와 검은 잠자리〉



〈오이와 메뚜기〉



〈수박과 여치〉

VI. 結 言

신사임당은 우리나라의 역사상(歷史上) 가장 추앙(推仰) 받는 여성으로서 효녀(孝女)로서, 어진 아내로서, 훌륭한 어머니로서의 이 땅에 남겨놓은 업적(業績)은 너무나도 뚜렷하다. 뿐만 아니라 학문(學文)과 시(詩)와 문장(文章)에 있어서도 능(能)했었고 또한 글씨와 그림은 더욱 더 우월한 솜씨를 나타낸 훌륭한 예술가로서, 그는 일찍부터 수 많은 학자(學者)들이 극찬(極讚)을 아끼지 않았다. 신사임당의 초충화에서 조선시대의 초충화의 위치와 회화 장르로 독특한 화풍으로 전개시켜 나갔는지 고찰해 보았다.

색채와 선 구도에서 표현(表現)기법(技法)이 독자적(獨自的)이고 자신의 본질적인 정서와 정감(情感)이 깃든 화면을 구성하여 독창적인 회화를 이룩해 냈다고 볼 수 있다. 빈켈만은 “미(美)는 그 자신으로서 아름다운 것이며 그 본질적인 성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표현했듯이 사임당은 무엇보다도 온화한 그의 성품과 예술적 감각으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물까지도 아름답게 표현해 낼 수 있는 심성(心性)과 소박(素朴)하고 서정적인 미감(美感)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한 사임당의 예술세계는 구름법과 물골법을 채화기법(彩畵技法)을 채용함으로써 자신의 능숙하고 개성적인 표현으로 조선회화에 있어 의미있는 한국적 조형의 세계를 독창적인 화면으로 구성해 내었다. 신사임당은 인격과 화격이 보다 더 감화(感化)를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고찰한 사임당의 초충화의 의미를 정리해보면 조선시대의 회화사에 있어서 중국에서도 전개(展開)되지 않았던 독립된 한국적회화 양식으로 발전 시켰던 양식이 가장 큰 의미로 들 수 있다.

또한 소재의 선택과 화면구도와 고운필치는 그림의 기법(技法)과 고상한 품격으로 독보적(獨步的)인 회화를 이룩하였다고 하겠다.

조선 초기로부터 현재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었던 것은 많은 문장가(文章家)들의 발문을 통해서 전해지듯이 그의 성품에 드러난 영원한 효의 정신과 어머니로서의 따뜻한 정서는 그의 심성에 가득찬 초인적인 인생관이며 우주의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고 접목(接木)시킨 까닭이리라.

이와 같이 신사임당은 초충화는 조선초기의 주목할 만한 고상하고 품격이 넘치는 자신만의 독창적(獨創的)인 작품을 남겼다. 또한 신사임당은 소재를 자연의 순수한 미물(微物)의 대상에서 얻었고 섬세한 여성의 필치로 자신의 예술로 승화(昇華)시켰다는 점은 세계인이 주목(注目)할 만한 일이다.

본고에서는 한정된 주제에 의하여 신사임당의 글씨와 수묵화 그 외에 많은 작품들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못하였지만 사임당의 회화세계가 한국회화사에 차지하는 비중(比重)과 의미(意味)는 더욱더 많은 연구자료(研究資料)가 될 것이며 이 시대의 새로운 창조(創造)의 터전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한국미술문화의 이해	김원용	2000	도서출판애경
중국예술의 정신	서복관	1991	동문선
울곡선생의 금강산 시	정향교	1996	이화출판사
신사임당과 울곡	이은상	1980	성문각
한국미의 탐구	김원용	1998	열화당
한국미술의 이해	정병모	2001	다할미디어
신사임당의 생애와 예술	이은상	1978	성문각
신사임당과 자녀교육	오시림	1986	민예사
회화의 방법과 구도	박용숙	1993	집문당
한국미술 그 분출하는 생명력	강우방	2003	월간미술
조선시대 화론 연구	유홍준	1998	학고재
울곡의 사상과 한국문화	김익수	2004	수덕문화사
신사임당의 회화세계 연구	박일화	1991	세종대학교대학원 미술학과
조선초기 화조화 연구	박용숙	2006	홍익대학교대학원 동양학과
신사임당의 생애와 예술	박영미	1981	홍익대학교대학원 회화과
신사임당 초충화에 관한 연구	이길용	1995	효성여자대학교대학원 회화과
신사임당의 인간관 연구	박미영	1986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과

파주지역 연안 이씨 묘역

- 관직(官職)에 등과(登科)한 인물을 중심으로 -

오순희*

- I. 들어가는 말
- II. 파주의 연안이씨 인물 소개
 - 1. 양원공(楊原公) 이숙함(李淑咸)
 - 2. 청련공(靑蓮公) 이후백(李後白)
 - 3. 분봉공(盆峯公) 이주(李澍)
 - 4. 해고공(海阜公) 이광정(李光庭)
 - 5. 북백공(北伯公) 이창정(李昌庭)
 - 6. 충의공(忠毅公) 이유길(李有吉)
 - 7. 근곡공(芹谷公) 이관징(李觀徵)
 - 8. 박천공(博泉公) 이옥(李沃)
- III. 맺는 말

I. 들어가는 말

파주에는 묘지가 많다. 특히 현대에 들어와 산 전체가 공원묘지화 된 곳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데, 현대에 조성된 묘지 외에 문이나 무에 뛰어난 인물과 세도를 누렸던 선인들의 묘도 많은 편이다. 조선시대 관직에 몸담고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했던 인물들의 묘 중에, 연안

* 파주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이씨 선조의 묘가 유난히 많이 있다. 관직을 제수 받았던 연안 이씨 선조의 묘는 전국 각지에 두루 분포 되어 있는데, 특히 용인, 이천, 여주, 파주에 많이 있고 고양시와 화성, 그 외 충청도와 익산, 전주에도 다수 있다. 그 중에 용인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파주에도 상당수의 묘가 자리하고 있어, 정 2품 이상의 벼슬을 한 분만 아홉 사람이고, 청백리에 녹선 된 인물도 파주에만해도 네 사람이 있다. 파주의 연안이씨 선조 묘 분포도는 조리읍, 광탄면, 탄현면과, 적성의 감악산 자락에도 몇 십 기가 있는데, 연안이씨는 파주에 세거지를 정하고 오랫동안 살아 왔기 때문에, 조선 시대를 풍미했던 선조의 묘가 많이 자리 잡게 되었다. 지금은 흙으로 돌아가 양지 바른 산자락에 누워 있는 분들, 문관 또는 무관으로 봉직 하며 어떤 일들을 하였을까. 그분들의 역사를 더듬어 보고자한다. 묘지의 주인공들은 나라의 충신으로 대를 이어가고, 공로를 세운 부자의 묘도 있고 형제의 묘가 나란히 있는 곳도 있어 역사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연안이씨 시조는 지금으로부터 1333년 전인 서기660년 신라 태종무열왕 7년에 백제를 정벌하기 위한 나당연합군의 일원으로 대장군 소정방(蘇定方)과 함께 원정 나온 당나라 중랑장(中郎將) 이무(李茂)가 백제 평정후에 봉해지면서 부터이다. 이무는 돌아가지 않고 신라에 벼슬하면서 태종무열왕으로부터 백제 평정의 공으로 연안백(延安伯) 작위에 봉해지고, 식읍을 받아 연안에 적을 두어 연안이씨의 시조가 되었다. 그 후 문무왕 8년(서기668년) 역시 나당연합으로 고구려를 정벌하여 삼국통일을 이룩한 후 김유신장군의 흥무왕(興武王) 진작(進爵)과 신라 장수 스물여섯 사람을 포상하는 자리에서 김유신의 주청으로 이무를 나당화합(羅唐和合)과 서번진수(西蕃鎮守)의 공으로 연안후(延安侯)에 가봉(加封)하고 신하라 부르지 않고 국빈(國賓)으로 예우하였다고 한다. 연안이씨 시조와 관련된 사적을 몇 군데 찾아 볼 수 있는데, 첫째 경북 군위군 효령면에 장군동이란 마을이 있어 전하는 바에 따르면 김유신, 소정방, 이무 세 장수가 하루 저녁 묵어간 데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이 마을에는 언제 설립되었는지 자세한 기록은 없으나 제동서원(濟東書院)이 있고, 그 경내 효령사(孝靈祠)에는 북편으로 순충장렬흥무대왕(純忠壯烈興武大王) 즉 김유신(金庾信)장군이 주향(主向)되고, 서편에 대총관(大總管) 소정방(蘇定方), 동편에 연안후(延安侯) 이무(李茂)가 배향되어 있으며 매년 음력 3월 3일에 김해김씨 주관으로 제향을 올리고 있다.

* 파주에 있는 연안이씨 선조 묘 중에서 관직에 등과한 인물을 중심으로 몇 분만 선별하여 연대순으로 정리 하였다.

II. 파주의 연안이씨 인물 소개

1. 양원공(楊原公) 이숙함(李淑咸)

- 세종11년,(1429 생) ~ 졸년 미상.
- 자 차옥(次玉), 호 양원(楊源) 몽암(夢菴), 시호 문장(文莊).

- 배(配) 정경부인 강릉김씨(江陵金氏) (生卒年 未詳)
- 묘의 위치: 광탄면 발랑리



양원공 이숙함 묘

- 관직 : 단종 2년(1454)에 문과 급제 후 경창부(京倉府) 승(丞), 옥당(玉堂), 세조원년(1455) 좌익(佐翼: 세조 옹위) 원종공신(原從功臣)으로 사헌부 감찰(監察), 성종원년(1470) 사섭시(司膳侍: 楮貨, 지방 노비) 貢布 담당) 첨정(僉正), 성종11년(1480) 군기시(軍器寺: 무기 제조), 성종15년(1484) 홍문관 부제학(副提學), 성종19년(1488)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성종20년(1489) 수(守) 전라도 관찰사(觀察使), 충청도 관찰사, 함경도 관찰사, 성종21년(1490) 성균관 대사성(大司成), 증(贈) 승정대부(崇政大夫), 이조판서(吏曹判書), 홍문관 대제학(大提學), 예문관 대제학(大提學)
- 성품 및 행적 : 교화본형벌말(教化本刑罰末) : 양원공 이숙함은 충청, 전라, 함경도 관찰사 등 지방 방백을 거치면서 교화를 근본으로 삼아 선정을 베풀어 국조명신록에 올라 있다. 원주 승화정(崇化亭) 기문에 이숙함의 글이 있다. 원주 목사인 민정(閔貞)이 정자를 짓고 ‘백성을 교화로 숭상하는 정자’라는 뜻으로 기문을 부탁하여 기문을 지어 주었다. 이 기문에서 위정자야 교화본형벌말야(爲政者也教化本刑罰末也)라는 구절이 있다. 즉 정치하는 자는 교화를 그 근본으로 삼고, 형벌의 집행은 맨 마지막에 해야 한다’는 뜻이다.

* 신증동국통감(新增東國通監): 성종16년(1485) 홍문관 부제학으로 대제학 서거정(徐居正)과 함께 신증동국통감(新增東國通監) 편찬 완료. 신라초기부터 고려 말까지의 편년사서(編年史書)로 조선세조 때 유신에게 명하여 착수했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성종 15년(1484) 서거정 등이 왕명에 의하여 완성하였다. 중국 사마광의 자치통감을 본 따고 삼국사기, 삼국유사, 기타 중국 사료를 참조하여 저술하였다. 신라 시조 박혁거세로부터 고려 공양왕에 이르기까지 1400여 년 동안의 국토의 이합(離合), 성쇠(盛衰), 명교(名敎), 절의(節義), 난적(亂賊), 간유(奸諛) 등의 사적을 쓰고, 따로 단군(檀君), 기자(箕子), 위만(위만)의 고삼선(古三鮮), 한사군(漢四郡), 이부(二府), 삼한(三韓) 등을 외기로 실었다.(56권 26책)

· 화석정과 양원공 : 화석정은 울곡선생의 5대조 강평공 이명신에 의하여 세종25년(1443)에 창건된 것을 성종9년(1478) 울곡선생의 증조부 이의석이 중수하고 몽암 이숙함이 화석정이라 지었다. 성종 9년 중수할 때 정자의 이름을 ‘화석정(花石亭)’이라 짓고, 중건 기문을 쓴 몽암은 연안이씨 양원공(楊原公) 이숙함(李淑王威)이다. 이숙함의 화석정 중건 기문 서두에 따르면 ‘나의 문생(文生)이며 전 날 홍주(洪州: 현 홍성)의 원을 지낸바 있는 이후(李侯) 의석(宜碩)이 그의 아우(사촌)이며 또한 나의 동료인 의무(宜茂)씨를 보내서 말하기를 파주 관아 북쪽 10리쯤에 울곡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나의 조부 강평공(康平公: 지돈영부사를 지낸李明晨, 울곡선생의 5대조)의 옛 별장이 있고, 별장 북쪽 깎아지른 듯한 봉우리에도 정자를 지어 기화이초(奇花異草)와 진송괴석(珍松怪石)을 많이 심어 놓고 감상하였는데 그 동안 세월이 흘러 퇴폐하고 다만 옛 터만 남았다. 의석이 조업(祖業)이 황폐하게 될까 두려워하여 옛 터에 정자를 중건하였다. (중략) 그러므로 자네는 정자 이름을 짓고 기문을 써서 더욱 아름답게 하여 주게’하며 작명과 기문을 부탁하였다. 이숙함은 이의석이 조업이 황폐될까 두려워 정자를 중건한다는 것과 옛 정자에 기화이초와 진송괴석을 많이 심어놓고 감상하였다는 설명에, 중국 고서 찬황공(贊皇公) 이덕유(李德裕)의 평천장(平泉莊) 기문(記文)을 머리에 띄어 올리고 그 기문 가운데서 ‘화석(花石)’이란 글자를 따서 이름을 ‘화석정(花石亭)’이라 지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望碧波亭(망벽파정)

- 이숙함 -

碧波亭好在	벽파정이 그간 잘 있었구나
白首客重來	흰머리 나그네 다시 왔노라
古渡淡煙合	옛 나루엔 물안개 자욱하고
層岸亂石堆	층층이 어지러운 돌 낭떨어지
路分珍島郡	길은 진도군으로 나뉘었는데
朝接霸家臺	조수물은 때가까지 밀려온다
壁上曾題句	벽 위엔 일찍이 써 붙인 글귀
如今定소苔	이제 오니 벗겨지고 희미하구나

* 벽파정은 전라남도 진도에 있는 정자이다. 1489년 이숙함이 전라도 관찰사로 재직 중 이곳을 방문하여 벽파정의 아름다운 풍광을 시로 읊으며 시 현판을 걸어 두었는데, 먼 후일 이곳을 지나며 그때의 감회를 읊은 시로 추측한다.

2. 청련공(靑蓮公) 이후백(李後白)

- 중종15년(1520)~선조 11년(1578)
- 자 : 계진(季眞) 호 : 청련(靑蓮) 시호 : 문청(文淸)

- 신도비 : 양관 대제학 강한(江漢) 황원경(黃景源) 찬. 1985년 건립
- 묘의 위치 : 광탄면 발랑리



청련공 이후백 묘

- 관직 : 명종11년(1556) 세자시강원, 병조좌랑. 명종12년(1557)사간원 정언. 명종13년(1558) 홍문관 부수찬, 이조좌랑. 명종14년(1559) 홍문관 교리, 이조정랑, 수의어사로 호남지방 순찰. 명종16년(1561) 의정부 검상. 명종17년(1562) 홍문관 응교. 명종18년(1563)홍문관 전한. 명종20년(1565)사간원 사간. 명종22년(1567) 승정원 동부승지. 선조원년(1568) 사간원 대사간. 선조2년(1569) 승정원 도승지. 선조4년(1571) 예조참판, 대사헌, 홍문관 제학, 이조참판 선조5년(1572)동지경연사, 예문관 제학. 선조6년(1573) 종계변무 정사. 선조7년(1574) 형조판서. 선조8년(1575) 함경도 관찰사. 선조9년(1576)이조판서. 선조11년(1578) 호조판서.

* 선조23년(1590) 훈록(勳錄) 광국공신(光國功臣)2등. 봉(封) 연양부원군.

* 증(贈) 보국숭록대부. 의정부좌찬성, 홍문관 예문관 대제학, 판의금부사, 록(錄) 청백리

- 저서 : <청련집>

함안 문회서원(文會書院), 강진 서봉서원(瑞峯書院)에 제향.

- 성품 및 행적 : 호남 유학자들과 교류 : 명종 6년 (1551) 31세 때 옥봉 백광훈, 고죽 최경창, 동은 이의건, 고담 이순인, 남계 김윤, 임회, 윤기 등 여러 유학자들과 친하게 지냈는데, 백광훈과 최경창은 이후백을 스승으로 삼았다. 청계 유몽정, 경재 김천일(임란 때 의병장) 등 많은 선비들이 예문이나 경서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찾아와 물어보곤 하였다. 명종7년(1552) 32세 때 하서 김인후선생이 벼슬에서 물러난 후, 찾아가 더불어 강론을 하였다. 명종10년(1555) 35세 때는 광주에 있는 고봉 기대승을 찾아가 시를 짓고 경서를 논하며 교류 하였다.

· 청련공에 대한 평가 :

(1) 율곡(栗谷)이이(李珣)

李某居官盡織律 身清苦 位至六卿 寒素如儒生 客至杯 盤冷 淡人服基潔

“이모는 관직에 있을 때 그 직분을 다하였고, 몸가짐이 청렴하였다. 벼슬이 육정에 이르렀는데도 청빈하기가 벼슬 없는 선비와 같았다. 손님이 오면 술상이 한산하고 담박하였기에, 손님이 공의 결백함에 탄복하였다.”

(2) 사암(思菴) 박순(朴淳)(경연에서)

李某可以託六尺之孤 寄百里之命云

“이모는 가히 육척의 어린아이를 맡길 수 있고, 백리의 명을 기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3)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청련공의 행장에서)

乙巳之禍圭菴宋文忠 公余叔曾祖也 以一世領袖 而受禍最酷 含冤九原殆三十餘年矣 至曆丁丑 公文一出 神人冤憤一時清雪 余每景仰於心如一日也

“을사사화때 문충공 규암 송안수는 나의 종증조가 되는 분인데 일세의 영수로서 가장 혹독하게 화를 입어, 원한을 머금고 구천에 계신지 거의 30년이 되었는데, 선조 10년(1577) 공의 글(상소문)이 한 번 나오자 일시에 눈처럼 깨끗이 씻어졌으니 나는 항상 공을 마음으로 경앙하기를 변함이 없이 하였다. -”

(4) 현석(玄石) 박세채(林世采)

世采自少每服公名德 以爲明宣間第一人物 常欲得見基論著文字而不能得心竊憫然-

“나 세채는 젊을 때부터 공의 이름과 덕을 추모해서 명종-선조 연간의 제1의 인물로 생각해 왔고, 항상 공이 지으신 글을 보고자 하였으나, 기회를 얻지 못하여 마음속으로 은근히 애달프게 생각하였다.-”

- 훈록(勳錄) 광국공신(光國功臣)과 종계변무 : 선조 24년(1596 ‘수충공성익모수기광국공신’(輸忠貞誠翼謀修紀光國功臣)이라는 공신 책록이 있었는데, 광국공신은, 1등 3인, 2등 7인, 3등 9인으로 계19인이 공신으로 책록 되었다. 그 중에 2등에 청련공 이후백이 포함되었다. 광국공신이란 중국 명나라의 여러 공식 문서에 태조 이성계의 조상에 관한 종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186년의 긴 세월을 걸쳐 바로 잡는데 공이 큰 사람에게 내린 공신책록이다.

탑반송(塔畔松)

一尺青松塔畔栽(일척청송탑반재)
 塔高松短不相齊(탑고송단불상계)
 傍人莫怪青松短(방인막괴청송단)
 他日松高塔反低(타일송고탑반저)

- 이후백 -

작은 소나무 탑 들레에 심으니
 탑은 높고 솔은 낮아 서로 가지런하지 않네.
 사람들이 소나무 낮다고 탓하지 말라
 후일 소나무 높고 탑이 도리어 낮을 것이니

* 이후백이 12세에 절에 가서 글공부를 하고 있는 데 근처를 지나던 경상도 관찰사가 이후백이 총명하다는 말을 들어, 시험 해 볼 생각으로 부근에 있는 소나무로 시제를 내자 이후백이 곧 답하여 시를 지었다. 지금은 탑이 높고 소나무는 작지만 소나무는 무럭무럭 자라 언젠가는 탑 높이를 능가하여 그 때는 소나무가 높고 탑이 낮게 될 것이라는 이후백의 패기와 야망에 찬 시라고 할 수 있어, 후세 사람들이 탑은 관찰사를 의미하고, 작은 소나무는 이후백 자신을 표현한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

3. 분봉공(盆峯公) 이주(李澍)

- 중종29년(1534)~선조17년(1584)
- 자 언림(彦霖) 호 분봉(盆峯) 시호 정목(靖穆)
- 배(配) 증(贈) 정경부인(貞敬夫人) 진주유씨(晉州柳氏)
- 신도비 : 우복(憂伏) 정경세(鄭經世) 撰. 탄옹(灘翁) 이현(李玄) 書
- 묘지 위치 : 조리읍 뇌조리



분봉공 이주 묘

· 관직 : 명종13년(1558) 진사시 급제, 성균관 입학, 선조6년(1573) 의금부 금오랑(金吾郎) 선조 6년(1573)문과 알성시 급제, 선조7년(1574) 승문원(承文原)에 선발, 선조 9년(1576) 문과 증시(重試) 급제, 선조10년(1577) 승정원 주서(注書), 선조13년(1580) 종부시 주부(主簿), 선조 16년(1583) 사간원 정언(正言), 가산군수

* 증직(贈職) 대광보국승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領議政), 영(領) 경연(經筵) 홍문관(弘文館) 예문관(藝文館) 춘추관(春秋館) 관상감(觀象監) 사(事) 세자사(世子師)

· 성품 및 행적 : 분봉공은 뜻을 지킴이 독실하고, 예법에 따라 처신하여 일상생활에서도 반드시 갓을 쓰고 띠를 띠고서 정좌하였는데, 아무리 더운 날씨에도 이를 느슨하게 하는

일이 없었다. 성품이 강직하여 악(惡)을 미워하고, 남의 과실을 보면 반드시 바른말을 하여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은 그를 몹시 두려워하였다.

· 분봉가훈(盆峯家訓) : 분봉이 그의 자손에게 내린 가훈(家訓). 가훈 뒤에 증손 이관징(李觀徵), 5대손 이만부(李萬敷)의 발문과 정경세가 찬한 신도비명이 수록되어 있다.

· 분봉가훈(盆峯家訓) 총론(總論) 9덕목

- (1) 量欲其大(양욕기대) 도량(헤아림)은 크게 하라
- (2) 威欲其重(위욕기중) 위엄은 무겁게 하라
- (3) 德欲其厚(덕욕기후) 덕은 두텁게 베풀어라
- (4) 心欲其定(심욕기정) 마음은 확고히 정하라
- (5) 志欲其堅(지욕기견) 뜻은 굳게 거져라
- (6) 言欲其忠(언욕기충) 말은 충직하게 하라
- (7) 貌欲其恭(모욕기공) 용모는 공손하게 하라
- (8) 慮欲其深(여욕기심) 생각은 깊이 하라
- (9) 事欲其慎(사욕기신) 일은 신중을 기해서 하라



분봉가훈

4. 해고공(海阜公) 이광정(李光庭)

- 명종7년(1552)-인조5년(1627) 수76
- 자 덕휘(德輝). 호 해고(海阜) 봉호 연원부원군(延原府院君. 선조 때 청백리(清白吏)
- 배(配) 청송심씨. 명종5년(1550)-선조19년(1586) 수37, 양천허씨. 선조2년(1569)-인조3년(1625) 수57

- 신도비 : 동지성군관사 이민구(李敏求) 撰, 병조참지 이현(李玄) 書
- 묘소 위치 : 조리읍 뇌조리



해고공 묘

- 관직 : 선조24년(1591) 승문원정자, 선조25년(1592) 광해군세자시강원 설서(說書), 홍문관 정자(正字)겸 지제교(知製校), 예조. 병조 좌랑, 선조26년(1593) 명군접반사 이덕형의 종사관, 병조 정랑(正郎), 승정원 동부승지(同副承旨, 이조. 예조. 병조참의(參議), 선조29년(1596) 승정원좌승지, 가선대부, 성균관 대사성(大司成), 선조30년(1597) 호조 참판(參判), 선조31년(1598) 자헌대부, 선조32년(1599) 호조. 공조 판서(判書, 한성 판윤(判尹), 선조35년(1602) 호조. 예조. 이조 판서, 정헌대부, 승정대부, 대사헌, 가을에 인목왕후 주청사 정사로 연경에 다녀 옴, 연경에 있는 동안에 정헌대부(正憲大夫), 승정대부(崇政大夫), 대사헌, <이때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지도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 지도를 가져 왔다.> 판돈영부사(判敦寧府事),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예조, 이조 판서(判書). 선조37년(1604)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 책록봉(封) 연원군(延原君), 보국승록대부(輔國崇祿大夫), 연원부원군(延原府院君)에 가봉(加封), 록(錄) 청백리(靑白吏), 광해 13년(1621) 호조 판서(判書) 병을 핑계로 봉조청(奉朝請)만 받음. 인조원년(1623) 공조, 형조 판서(判書), 인조4년(1626) 개성 유수(留守)
- 성품 및 행적 : 선조35년(1602) 이조 판서로 있으면서 인목왕후 주청사 정사로 연경에 갔을 때 청엄(淸嚴) 방직(方面)한 처신으로 아랫사람의 모범이 되었다. 해고공은 공정한 인사업무와 공정한 업무처리로 관리들의 존경을 받았다.
- 임진왜란 중 군량미 조달책임
 - (1) 선조30년(1597) 정유재란으로 호남지방에 왜군에게 유린당할 때 공은 군량조달을 담당하였다.

- (2) 명부사 심유경의 빈접을 맡아 영외(嶺外)로 나갔다가 돌아와서 호조 참판(參判)을 맡았다가 다시 영외(호남)로 나가 군량조달을 하였다. 이 때 명군 양원이 남원을 버리고 후퇴하는 바람에 공은 왜군의 포위망을 뚫고 조정으로 돌아왔으나 군량조달 담당은 그대로 맡았다.
- (3) 선조32년(1599) 한성 판윤(判尹: 정2품)을 하다가 다시 호남의 군항(軍餉: 군량미 조달)을 담당 하였다.

- 공정한 업무처리 : 인조4년(1626) 개성유수로 부임하였는데 당시 개성은 옛 고려의 서울로서 관리들에게 이굴(利窟: 이권이 많은 곳)로 여겨져 왔으나 공은 그런 오점을 깨끗이 씻고 새로운 기풍을 조성하였다. 사직하고 돌아 올 때는 일용품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문서에 기록하여 관부에 돌려주니 부로(父老)들이 공을 사모하는 뜻을 글로 읊었다고 한다.
-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 : 해고공이 사신으로 연경(燕京)에 갔다가 들여온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지도로 한국사 대사전에 기록된 것에 의하면 중국 광둥성(廣東省) 조경부(肇慶府)에서 이탈리아 선교사 리마두(利瑪竇: Matteo Ricci)가 고국에서 가져 온 세계지도에서 중국을 지도의 중심에 두고 지명을 한자로 번역하여 개각한 지도이다. 이보다 20년 후인 선조37년(서기 1604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越中懷古(월중회고)

- 이광정 -

錦江江上蒼壁古	금강 강기슭의 저 푸른 벽
百丈臨江凜欲折	높이 솟아 사람들 기를 꺾으려하네
行人怕說景泰年	지나는 나그네는 할 말을 잊고
欲語未語心先絕	서로가 말 못하니 마음도 끊어지네
當時漂轉機朶花	그때에 떨어진 꽃 몇 송이던가
杜宇啼盡春山血	봄날 두견새는 피 토하며 울어 대는데
十月天風吹雷雨	가을바람 비와 우레 몰아쳐오네
巖上片片墜如雪	한잎 두잎 눈꽃처럼 떨어지는데
貞魂化作箜篌怨	정절의 혼이 공후의 한이 되어
江流到此聲愈咽	흐르는 강물처럼 흐느껴 운다

* 이 시는 충청도 부여의 백마강에 있는 낙화암에서 읊은 시이다. 그 옛날 백제가 나당 연합군에 의해 망할 때 꽃잎처럼 떨어져 죽은 삼천궁녀의 혼이 강물처럼 흐느껴 운다고 노래하였다.



신도비각

이광정묘 아래 신도비 4기가 있다. 흩어져 있던 비석을 보존을 위하여 한 곳에 모아 비각을 지은 것이었다.

왼쪽으로부터 분봉공(휘 澍), 해고공(휘 光庭), 북백공(휘 昌庭), 연창군(휘 沔: 해고공의 長曾孫)

5. 북백공(北伯公) 이창정(李昌庭)

- 선조6년(1573)-인조3년(1625) 壽53
- 자 중번(仲蕃), 호 화음(華陰) 무구옹(無求翁)
- 배(配) 성주이씨(星州李氏) 생년미상-인조12년(1634) 졸
- 신도비: 양관대제학 조경(趙綱) 撰, 근곡(芹谷) 관징(觀徵) 書
- 묘지 위치 : 조리읍 뇌조리



북백공 이창정 묘

· 관직 : 광해원년(1609) 은율(殷栗) 현감(縣監), 광해3년(1611) 순천(順天) 부사(府使=都護府使, 광해5년(1613) 동래 부사, 광해8년(1616) 양주 목사(牧使), 인조원년(1623) 충청도수군절도사(水軍節道使=水使), 안악(安岳) 군수(郡守), 인조2년(1624) 함경도 관찰사(觀察使), 인조3년(1625) 선위사(宣慰使)로 평안도 안변에 가서 명나라 사신을 기다리던 중, 병이 나서 그 곳에서 졸하였다.

· 성품 및 행적 : 광해3년(1611) 순천 부사로 있을 때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평안도관찰사 최동립이 순찰을 오면서 십 수 개의 의심스러운 소장을 가지고 와서 주었다. 북백공은 공청(公廳)을 물리치고 순식간에 깔끔하게 처리하여, 이를 지켜보던 관찰사가 감탄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 광해5년(1613) 동래 부사로 있을 때 공과 성명과 관함(官衙)이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친구 중 가난한 선비 한사람이 딸을 시집보낼 자금을 얻고자 찾아왔다. 만나보고 자기 친구가 아닌 것을 알고, 실망하여 돌아가려는 것을 불러 사실을 듣고는 그를 후하게 대접하고 필요한 일체의 물품을 부족함이 없이 준비하여 주었다. 그 사람은 감사해 하면서 “비록 제 친구에게 부탁했더라도 결코 이처럼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였다고 한다.

이 일은 사대부들 사이에서 칭송하는 이야기로 번져나갔다고 한다.

昇平衙軒 (승평아헌)

- 이창정 -

小池分得野泉冷	작은 연못 시원한 물 나누어 얻고
軒砧切新栽橘柚香	난간 섬돌아래 갈나무 향기롭다
太守春來常閉門	한봄이 왔는데 태수는 문을 닫고서
不知城外落花忙	창밖의 바베 지는 꽃 몰라라 하네

6. 충의공(忠毅公) 이유길(李有吉)

- 선조 9년(1576)~광해군11년(1619)
- 자 유지(유지) 호 연사(蓮史) 시호 충의(忠毅)
- 배 : 증(贈) 정경부인(貞敬夫人) 광산이씨(光山李氏)
- 묘소 위치 : 광탄면 발랑리

· 관직 : 임진왜란 때의 공으로 세자익위사 좌세마(左洗馬). 광해군10년(1618) 영유(永柔 평안도) 현령(縣令), 숙종21년(1695) 특증(特贈) 이조참판, 충신에 정려. 순조조(1801~1820) 가증(加贈)의정부 영의정. 시(諡)충의(忠毅 臨亂不忘國-忠剛而能斷-毅).

- 성품 및 행적 : 충의공은 임진왜란 초기(선조 25년, 1592)에 왜적에게 살해된 부친(휘 善慶)의 원수를 갚겠다는 일념으로 말 타고 활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선조26년(1593) 17세의 나이로 이순신 장군 휘하에 들어 가 명량해전(노랑해전이라는 설도 있음)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충무전서에 기록되었다. 그 공으로 광해 10년(1618) 영유현령(永柔縣令)을 제수 받았다.
- 심하전투(深河戰鬪) : 광해 11년(1619) 후금의 침략을 받은 명나라가 원군을 청해, 강원립을 도원수로 하는 1만명의 군사와 영유현령으로 있던 충의공이 우영장으로 출전하여, 동년 3월 4일 조. 명 연합군과 후금군이 심하전투에서 싸워다가 명군이 참패하고, 원군도 도원수 강홍립과 부원수 김경서가 투항하였으나, 충의공은 좌영장 김응하와 함께 최후까지 저항하다 순절하였다. 말갈기에 달아 온 혈삼(血衫)에 혼을 불려 파주 평지능(平地陵)의 양원공(楊原公 휘 淑 王威) 영하에 장례를 지냈다. 그 후 나라에서는 인조1년(1623) 교지를 내려서 ‘심하순절(深河殉節)은 300년 역사의 우리나라가 금수(禽獸)의 나라를 면하게 하였다’고 평가하였고, 숙종21년(1695)에도 교지를 내려서 찬양하고 충신(忠臣)에 정려(旌闈)하고 이조참판(吏曹參判: 종2품)에 증직(贈職) 하였다. 영조9년(1733)과 정조11년(1787)에도 교지를 내려서 심하순절을 찬양하였다. 헌종8년(1842) 이조판서 조두순의 1700여자에 달하는 영유현령(永柔縣令) 증영의정 시장(諡狀)에 따라 영의정에 추증되고, 시호 충의(忠毅)가 내려졌다.
- 혈삼(血衫)무덤과 의마총(義馬塚) : 조선 광해 조 때 명나라에서 후금이 명나라를 침공한다고 조선에 원병을 청해 왔는데,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원병을 보내서 도와 준 일이 있어서 조선 조정은 강홍립을 도원수 김경서를 부원수 선천 군수 김응하를 좌영장으로, 충의공이 우영장으로 1만 군사와 출병 하였다. 원군이 압록강을 건너 심하에 이르러 명. 조군이 후금군과 전투 중, 명나라 군사는 장졸이 다 죽고 조선군사도 위급한 상황에 처하여 도원수 강홍립과 부원수 김경서는 후금군에 항복하고, 좌영장 김응하와 우영장 충의공은 끝까지 싸우다 전사하였다. 숨을 거두기 전 충의공은 옷소매를 찢어서 피로 三月四日死(3월4일사)라고 써서 말갈기에 달아매고 말을 채찍질하여 보내고 숨을 거두었다. 먼 길을 달려 온 말은 고향집에 와서 비명을 지르며 죽었다. 가족들이 말갈기에 매여 있던 혈삼을 묻으니, 시신 없는 ‘혈삼무덤’이 되었다. 충성을 다한 말도 혈삼무덤 아래에 묻어 주어 ‘말무덤’이라 불러 오다가 근래에 의마총(義馬塚)이라는 조그만 묘지석을 세워 아름다운 얘기를 후세에 전하고 있다.



이유길 혈삼무덤



〈의마총〉사진 충의공의 혈삼을 전하고 죽은 말 무덤

* 임진왜란이 끝난 후 선조34년(1601) 공이 지중추부사로 있을 때 그 청백함이 인정되어 청백리(清白吏)에 녹선되었다.

7. 근곡공(芹谷公) 이관징(李觀徵)

- 광해10년(1618)-숙종21년(1695)
- 자 국빈(國賓), 호 근곡(芹谷), 근옹(芹翁), 시호 정희(靖僖)
- 배 삭녕최씨(朔寧崔氏)
- 행장(行狀) : 자(子) 옥(沃) 찬
- 신도비명(神道碑銘) : 종제 대사헌 봉징(鳳徵) 撰(未建立)
- 묘지 위치 : 탄현면 축현리



이관징 묘

- 관직 : 인조17년(1639) 사마시 급제, 효종3년(1652) 정릉(靖陵 : 중종왕릉) 재랑(齎郎), 효종4년(1653) 문과 별시 등과, 효종10년(1659) 함평 현감, 현종4년(1663) 전라도 도사, 현종5년

(1664) 사헌부 장령(掌令: 정4품), 현종10년(1669)함경도 종성 도호부사, 현종13년(1672)경상도관찰사, 숙종원년(1675) 호조, 이조 참판, 대사헌, 숙종2년(1676) 도승지, 병조, 형조, 공조 참판, 숙종3년(1677) 강화도 유수, 숙종4년(1678) 형조 판서, 숙종5년(1679) 예조 판서, 동지사(冬至使) 정사(正使)로 연경(燕京: 북경)에 다녀 옴. 숙종6년(1680) 한성 판윤, 숙종13년(1687) 기로소(耆老所), 숙종15년(1689) 기사환국(己巳換局) 후 예조 판서(判書), 지경연사(知經筵事), 지춘추관사, 의정부 우·좌참찬, 숙종16년(1690) 판의금부사, 세자좌·우빈객(世子左·右賓客), 숙종17년(1691) 이조판서,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숙종19년(1693)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광해10년(1618)-숙종21년(1695)

- 성품과 행적 : 현종원년(1660)년 효종이 죽고 장례 때 송시열(서인) 등이 대왕대비(莊烈王后)의 복제(服制)를 1년으로 정하자 허목 등 남인들이 이를 반대하고 3년으로 주장하였는데 집권측은 1년을 반대하는 자는 모두 처벌하기에 이르렀다. 공은 사헌부 장령(掌令)으로 소(疏)를 올려 허목 등을 구론(救論)하다가 전라도도사(都事)로 좌천되었다.
-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 : 숙종6년(1680) 남인 일파가 정치적으로 대거 실각한 사건. 현종15년(1674) 때 예론(禮論)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잡은 남인들은 숙종으로부터는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영의정 허적의 유악남용(油幄濫用)사건으로 왕은 더욱 남인들을 꺼리게 되었다. 이 때 서인의 김석주, 김익훈 등이 허적의 서자 허견이 종성(宗姓: 왕실) 복창군, 복선군, 북평군 3형제와 결탁하여 역모한다고 고발하여 옥사가 일어 북창군 3형제와 허견, 허적, 윤후 등이 사사되고, 나머지 남인 일파도 옥사, 사사, 파직, 유배됨으로서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정권을 잡아 김수항은 영상이 되고, 김석주는 우상이 되었다. 이 때 공도 관직에서 물러나 파주 조리동 선영에 머물렀다.
- 기사환국(己巳換局) ; 숙종15년(1689) 숙종이 장소의(장희빈) 소생의 아들 균을 세자로 삼으려 하자 이를 반대한 송시열 등 서인이 이를 지지한 남인에 의해 패배 당하고 정권이 서인에서 남인으로 넘어간 사건. 이로써 정원은 남인에게로 넘어갔다. 공은 경신대출척으로 관직에서 물러났다가 기사환국 후 다시 예조판서에 기용되었다.

8. 박천공(博泉公) 이옥(李沃)

- 인조19년(1641)-숙종24년(1698)
- 자 문약(文若), 호 박천(博泉)
- 배(配) 전주이씨(全州李氏): 지봉(芝峰) 이수광(李粹光)의 손녀)
- 묘지 위치 : 조리읍 뇌조리

- 관직 : 현종 1년(1660) 문과 증광시(增廣試) 급제, 사관(史官: 춘추관직), 현종 9년(1668) 예조 좌랑, 현종11년(1670) 사간원정언(正言), 사헌부지평(持平), 숙종원년(1675) 홍문관 옥당(玉堂: 부제학 이하 통칭)에 선발, 등용, 사간원 헌납, 이조좌랑(佐郎), 홍문관 응교, 사간원 사간, 승정원 우부승지, 숙종 3년(1677) 홍문관 부제학(副提學), 숙종15년(1689) 기사환국으로 풀려나 승정원 승지(承旨: 정3품), 경기도 관찰사(觀察使), 숙종18년(1692) 예조 참판(參判)
- 성품 및 행적 : 박천공은 문장과 글씨에도 능하였고, 불의를 용납하지 못하는 강직한 성품으로 감관(諫官)으로서 직간을 하다가 여러 번 귀양살이를 하였다. 숙종 3년(1677) 홍문관 부제학 때 실각한 서인의 영수 송시열의 처벌 문제를 놓고 집권한 남인 측은 강온(強溫) 양론이 있었는데, 박천공은 청남(淸南)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송시열을 종묘에 고하고 극형에 처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탁남(濁南)의 영수 허적 등의 반대로 공은 부제학 직을 사직하고 복청으로 유배되었다.

청회별곡(淸淮別曲)

- 이옥 -

淸時는 의미가 있는데 이 몸이 무능하여
 南湖 낚은 집에서 돌로 만든 사립문을 닫았더니
 仙區에 연분이 있고, 성은이 지증하여
 銅章 竹符를 松裡林에 맡겼으니-
 烟送溪에 배를 띄워 靈境을 바라보니 백두산 ○○을 ○○○池를 둘러두고
 그 앞에 서려 있는 기운으로 仙府를 업었으니
 산의 모습도 秀出하고 地勢도 요염하다
 神仙의 屈宅인가. 隱者의 道區런가.
 玉陋方寸地를 우연히 이별하고
 연하 깊은 곳에 여러 신선이 모였구나.
 저 관령 맨 윗 봉우리에서 淸淮水가 흘러내려
 취병대 남쪽 둔덕으로 백리까지 들렀으니
 깊은 못을 이루어 흐름에 발을 씻고 갓 끈을 씻으리로다.

* 청회별곡 일부 현대어로 옮김

- 청회별곡(淸淮別曲) 원명 회양별곡(淮陽別曲) : 금강산(金剛山) 승경을 읊은 기행가사(紀行歌辭), 박천공 이옥이 회양부사로 있을 때 지음. 松江 鄭澈의 關東別曲, 朴淳愚의 金剛別曲과 함께 금강산 기행가사 중 하나. 모두 74행으로 이루어 졌다.

Ⅲ. 맺는 말

이상 파주에 소재한 연안이씨 선조 묘 중에서 관직(官職)에 등과(登科)한 인물을 중심으로 조사 하였다. 그러나 관직에 등과한 인물이 너무 많아 그 중에서도 중요한 인물을 선별하였으나 그도 다 조사하지는 못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의 중심에서 세도를 누렸던 가계(家系) 중에 유명한 성씨가 몇 있으나, 그 중에 연안이씨 또한 대단한 집안이었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알 수 있었다. 학자와 정치가로 대를 이어 뜻을 이루었으며, 강직하고 청렴하여 청백리에 녹선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임금에게 직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 나라와 백성을 위해 그들이 봉사 했던 일은 역사에 길이 기록될 것이다.

연안이씨 선조라고 하지만 어찌 연안 이씨 선조이기만 하겠는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후세인(後世人)들의 선조로서 귀감이 되어 마땅하지 않겠는가. 본론에서는 파주라는 지역에 국한하여 연안이씨를 조사하였으나, 앞으로 전국 각지에 연고한 연안이씨 유적을 조사하여 우리 역사에 그들이 얼마나 공헌하였는가를 밝히는 과제를 남겨두고 이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 자료 출처 : 연안이씨 후손 沙月 李盛永 선생이 쓴 <파주의 선조유적 탐방>에서 참고.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의 이해

이윤희*

조선왕릉

조선시대의 27대 왕과 왕비, 그리고 사후에 추존된 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모두 42기(墓)에 이른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왕릉 가운데 가장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유적으로서 모두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518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한 왕조가 지속된 사례도 드문데다가 역대 왕과 왕비의 무덤이 모두 남아 있는 경우도 유례가 드물다. 유교와 풍수 등 한국인의 세계관이 압축된 장묘문화의 공간으로서 왕실의 장례 및 제례 등을 조명할 수 있어 문화재로서 가치가 풍부하다.

왕릉의 입지는 왕실의 권위를 드러내면서 자연의 지세를 존중하는 자연조화적 조영술을 따랐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능역은 한양성 서대문 밖 100리 안에 두어야 한다”라고 명시하였는데, 도성에서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도성을 중심으로 반경 10리(약 4km) 밖에서 100리(약 40km) 이내가 입지의 첫 번째 기준이었다. 실제로 북한 지역에 있는 후릉(厚陵)과 경기도 여주의 영릉(英陵·寧陵), 강원도 영월의 장릉(莊陵)을 제외하면 나머지 왕릉은 모두 서울 사대문으로부터 100리 안에 조성되었다.

능역은 신성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변시설로부터 격리하고, 그 범위도 차츰 확대되었다. 처음에는 봉분을 중심으로 사방 100보(步)를 능역으로 하였다가 태종 때 161보로, 현종 때 200보로 늘어났다. 능역의 구조는 각종 제례 절차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도록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진입공간-제례공간-전이공간-능침공간’을 기본 구조로 한다.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배

* 파주문화원 이사, 파주지역문화연구소장

산임수(背山臨水)와 좌청룡 우백호의 풍수를 따르고, 뒤의 주산(主山)과 앞의 조산(朝山) 등 두 겹으로 둘러싼 산을 경계로 삼아 그 안의 모든 마을과 건축물 그리고 개인 묘역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넓은 녹지를 조성하였다.

이렇게 조성된 조선왕릉은 제1대 왕 태조의 건원릉(健元陵)과 신의왕후의 제릉(齊陵), 신덕왕후의 정릉(貞陵), 제2대 정종과 정안왕후의 후릉(厚陵), 제3대 태종과 원경왕후의 헌릉(獻陵), 제4대 세종과 소헌왕후의 영릉(英陵), 제5대 문종과 현덕왕후의 현릉(顯陵), 제6대 단종의 장릉(莊陵)과 정순왕후의 사릉(思陵), 제7대 세조와 정희왕후의 광릉(光陵), 제8대 예종과 안순왕후의 창릉(昌陵), 장순왕후의 공릉(恭陵), 제9대 성종과 정현왕후의 선릉(宣陵), 공혜왕후의 순릉(順陵), 제10대 연산군과 거창군부인의 연산군묘(燕山君墓), 제11대 중종의 정릉(靖陵)과 단경왕후의 온릉(溫陵), 장경왕후의 희릉(禧陵), 문정왕후의 태릉(泰陵), 제12대 인종과 인성왕후의 효릉(孝陵), 제13대 명종과 인순왕후의 강릉(康陵), 제14대 선조와 의인왕후·인목왕후의 목릉(穆陵), 제15대 광해군과 문성군부인의 광해군묘(光海君墓), 제16대 인조와 인렬왕후의 장릉(長陵)과 장렬왕후의 휘릉(徽陵), 제17대 효종과 인선왕후의 영릉(寧陵), 제18대 현종과 명성왕후의 승릉(崇陵), 제19대 숙종과 인현왕후·인원왕후의 명릉(明陵), 인경왕후의 익릉(翼陵), 제20대 경종과 선의왕후의 의릉(懿陵), 단의왕후의 혜릉(惠陵), 제21대 영조와 정순왕후의 원릉(元陵), 정성왕후의 홍릉(弘陵), 제22대 정조와 효의왕후의 건릉(健陵), 제23대 순조와 순원왕후의 인릉(仁陵), 제24대 헌종과 효현왕후·효정왕후의 경릉(景陵), 제25대 철종과 철인왕후의 예릉(睿陵), 제26대 고종와 명성황후의 홍릉(洪陵), 제27대 순종과 순명효황후·순정효황후의 유릉(裕陵) 그리고 추존왕인 덕종과 소혜왕후의 경릉(敬陵), 원종과 인현왕후의 장릉(章陵), 진종과 효순왕후의 영릉(永陵), 장조와 헌경왕후의 융릉(隆陵), 익종(문조)과 신정왕후의 수릉(綏陵)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북한 지역에 있는 태조의 왕비 신의왕후의 제릉, 정종과 정안왕후의 후릉, 폐위된 연산군묘와 광해군묘 등 4기를 제외한 40기가 2009년 6월 스페인의 세비아에서 열린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파주에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40기중 인조의 장릉(長陵)을 비롯해 파주삼릉의 공릉(恭陵), 순릉(順陵), 영릉(永陵) 등 모두 4기의 왕릉이 자리잡고 있다.

긴 역사를 가진 조선왕조

1392년 고려 왕조가 막을 내리고 탄생한 조선 왕조는 이후 1910년까지 무려 518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이어갔다. 이처럼 하나의 왕조가 5백 년 이상 지속된 것은 매우 보기 드문 유례이다. 이러한 유구한 역사를 가진 조선 왕조에는 27대 왕과 왕비 및 추존왕과 왕비가 있는데, 이 왕족의 무덤을 조선 왕릉이라 한다.

능원묘의 구분

왕족의 무덤은 왕실의 위계에 따라 능, 원, 묘로 분류된다. 능(陵)은 추존왕, 추존왕비를 포함한 왕과 왕비의 무덤이고, 원(園)은 왕세자와 왕세자비, 그리고 왕의 사친(私親 : 종실로서 임금의 자리에 오른 임금의 생가 아버지)의 무덤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묘(墓)는 나머지 왕족, 즉 왕의 정궁의 아들, 딸인 대군과 공주, 왕의 서자, 서녀인 군과 옹주, 왕의 첩인 후궁, 귀인 등의 분을 일컫는다. 현재 온전하게 남아있는 왕릉은 40기, 원은 13기이다.

조선왕릉의 문화적 가치

조선 왕릉은 유적지로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수반한다. 왕실의 장례와 제례는 엄숙하고도 완벽한 예법에 따라 행해졌으며, 이 예법의 절차와 의미, 이에 포함되는 다양한 의물들은 각기 당시의 사상과 문화를 고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야기를 걸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왕릉 조영 절차를 포함한 모든 의례 절차는 상세하게 기록되어 후대에 전해지고 있는데 이 기록물들은 자체만으로도 큰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우리는 왕의 삶과 죽음, 장례 절차, 왕릉의 조영을 살펴보면서 조선시대 왕실 문화와 그들의 정신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왕릉과 풍수

조선시대의 왕릉은 중국 『주례(周禮)』의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면서, 한양으로부터의 거리, 그리고 주변 능과의 거리, 방위, 도로와의 관계, 주변 산세 등과의 관계를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조선 왕릉의 입지는 왕릉으로서의 권위를 드러내면서 자연의 지세를 존중하는 자연 조화적인 조영술을 따랐다.

도성 10리 밖 100리 이내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능역은 한양성 서대문 밖 100리 안에 두어야 한다”는 입지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조선의 왕릉은 북한에 위치한 후릉과 여주의 영녕릉, 영월의 장릉을 제외하면 모두 서울 사대문으로부터 100리, 즉 약 40km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궁에서 떠난 참배의 행렬이 어렵지 않게 닿을 수 있는 곳이면서 도성과 너무 가깝지도 않은, 도성을 중심

으로 반경 10리(약 4km) 밖, 100리(약 40km) 이내가 조선 왕릉 입지의 첫 번째 기준이었다.

자연환경에 순응한 입지

조선의 왕릉은 풍수지리적 요소를 고려하여 능의 위치를 결정하였다. 바람, 물, 불, 나무 및 흙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다섯 가지의 화가 생길 염려가 없어야 함은 물론이고, 산을 등지고, 앞에 물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지형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뒤로 주산이 펼쳐지는 가운데 산허리에 봉분이 위치해야 했다. 그리고 청룡과 백호라고 일컬어지는 산맥이 좌우를 감싸며, 봉분 맞은편에 마주하는 산맥이 있어야 훌륭한 자리라고 여겼다. 정해진 입지의 어느 방향에 봉분이 위치할 것인가, 또 어느 방향을 바라보도록 조성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도 풍수적인 형국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정치적 변수로 활용된 풍수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능의 입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수개월 내지 수년의 세월이 걸리기도 하였다. 또한 이미 조영한 왕릉을 풍수상의 길지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옮기는 절차를 행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정치적 변수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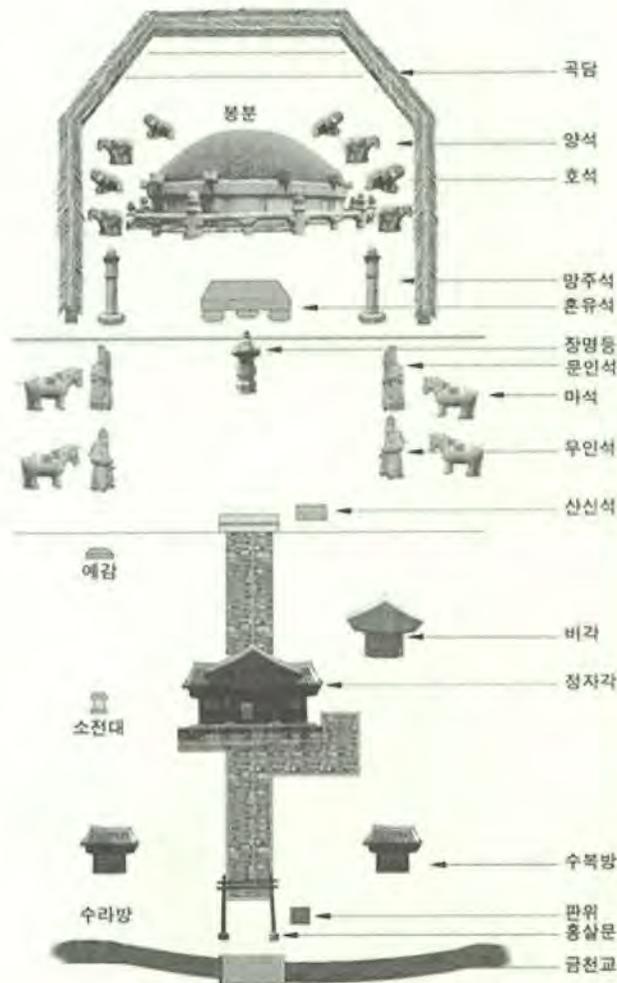
1515년(중종 10) 중종의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가 승하하여 희릉을 조성하였는데, 22년이 지난 1537년(중종 32) 이조판서 김안로가 희릉의 자리가 풍수적 흉지임을 들어 천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당시 김안로는 왕실의 사돈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다니다가 유배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자신을 유배시킨 자들이 마침 과거 희릉 조영 때의 책임자인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한 것이다. 결국 끈질긴 풍수 논쟁이 계속되다가 희릉을 천장하기로 결정이 났고, 김안로의 계략대로 그를 유배보낸 무리이자 희릉 조영 당시의 책임자들은 대역 죄인이 되어 자손들까지 옥에 갇히는 변고를 당했다. 이러한 풍수와 정치의 결합은 당시 풍수 논리가 얼마나 중요시되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지세에 따른 봉분형식의 다양성

조선시대의 능은 자연의 지세와 규모에 따라 봉분의 형태를 달리하고 있다. 이는 왕릉 또한 자연 환경의 일부로 여기는 풍수사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조선 왕릉은 단릉, 쌍릉, 합장릉, 동원이강릉, 동원상하릉, 삼연릉 등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왕과 왕비의 무덤을 단독으로 조성한 것을 단릉이라 하고, 평평하게 조성한 언덕에 하나의 곡장을 둘러 왕과 왕비의 봉분을 좌상우하의 원칙에 의해 쌍분으로 만든 것을 쌍릉이라 한다. 왕과 왕비를 하나의 봉분에 합장한 것은 합장릉이라 하며, 하나의 정자각 뒤로 다른 줄기의 언덕에 별도의 봉분과 상설을 배치한 형태는 동원이강릉이라 한다. 왕과 왕비의 능이 같은 언덕에 위아래로, 즉 왕상하비(王上下妃)의 형태로 조영된 것을 동원상하릉이라 한다. 한 언덕에 왕과 왕비 그리고 계비의 봉분을 나란히 배치하고 곡장을 두른 형태를 삼연릉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왕과 왕비 그리고 계비를 하나의 봉분에 합장한 것은 동봉삼실이라 한다.

조선왕릉의 공간구성



조선시대 능역의 공간 구성은 죽은 자와 산 자가 만나는 공간인 정자각을 중심으로 3단계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재실 등이 있는 진입 공간은 산 자의 공간이고, 홍살문을 지나 정자각과 수복방, 수라간이 배치된 곳은 왕의 혼백과 참배자가 만나는 성과 속의 공간이다. 그리고 언덕 위 봉분을 중심으로 곡장과 석물이 조성된 공간은 곧 성역의 공간이다.

진입공간

진입 공간은 재실, 지당, 금천교, 홍살문으로 이어지는 공간이다. 제사를 준비하는 공간인 재실을 지나 명당수가 흐르는 개천을 따라 등글게 진입하면 작은 언뚝이 나오는데, 이는 당시 능참봉 및 능관리인들이 그들의 농토에 물을 대고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었다. 조금 더 진입하면 금천교라는 돌로 만든 다리가 나타나는데, 이는 금천교 건너 왕의 혼령이 머무는 신성한 영역을 속세의 영역과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금천교를 지나면 능원이 신성한 구역임을 표시하는 커다란 문이 있는데, 이 문을 홍살문이라고 한다.

제향·전이공간

홍살문 앞에 서면, 얇은 돌을 깔아 만든 긴 돌길이 정면의 정자각까지 이어진다. 이 길을 참도라고 한다. 참도는 왕의 혼령이 이용하는 중앙의 큰 길과 살아있는 왕과 참배자가 사용하는 그보다 낮고 좁은 길, 즉 신도와 어도 2단으로 만들어진다. 참도가 끝나는 길에는 제사를 모시는 공간인 정(正)자각이 있다.

정자각의 양 옆으로는 재실에서 준비한 제례음식을 데우는 등의 제례 준비 공간인 수라방과 능침을 지키는 사람의 공간인 수복방이 설치되어 있다. 제례 의식을 마치는 정자각의 서북쪽으로는 지방을 불태우는 소전대와 제물을 태워 묻는 예감이 배치되어 있다.

한편 정자각의 열린 후문으로 나오면, 왕의 혼령이 제향 후 봉분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앞쪽에서 이어진 신도가 짧게나마 계속 된다. 이밖에 원래의 산신에게 제사지내는 산신석, 수장된 왕의 업적을 나타내는 비각이 자리 잡고 있다.

능침공간

능침 공간은 왕릉의 핵심으로 봉분의 좌우, 뒷면 3면에 곡담이 둘러져 있으며, 그 주변에는

소나무가 둘러싸여 있어 위엄성을 강조하고 있다. 둥근 봉분은 보통 방위를 나타내는 12면의 병풍석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병풍석에는 십이지의 그림과 글자 등이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석양, 석호, 장명등, 망주석 등의 석물이 배치되어 있다.

왕릉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중계(中階)라 불리는 한 단 낮은 공간에는 문석인과 석마가 한 쌍 배치되어 있으며, 그 다음 공간인 하계(下階)에는 무석인이 석마와 함께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파주의 능과 원

강근숙*

공릉(恭陵)

장릉(長陵)

공릉(恭陵)

우리고장 파주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능(陵) 4기(基)와 2기(基)의 원(園)이 있다. 능과 원은 왕가의 무덤으로 능은 왕과 왕비의 무덤, 왕세자와 왕세자빈 그리고 왕의 어머니 무덤을 원이라 칭한다.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에 자리한 사적 제205호 파주삼릉(坡州三陵)은 세기(基)의 능이 있다. 조선조 8대 예종의 원비(元妃) 장순왕후의 공릉(恭陵)과 9대 성종의 원비(元妃) 공혜왕후의 순릉(順陵)이 있고, 영조의 맏아들 효장세자가 죽은 후에 진종으로 추존되어 그의 비 효순왕후와 함께 묻힌 영릉(永陵)이다.

왕과 왕비의 삶의 공간은 궁궐이며 죽음의 공간은 능과 종묘이다. 긴 세월이 흘렀어도 한 왕조가 남긴 능 40기(基)(북한지역 2기 제외)가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어 2009년 6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되었다. 지금도 옛 방식 그대로 매년 각 능에서 제례의식을 거행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삶 못지않게 죽음의 의례와 공간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 수필가. 경기도문화관광해설사



공릉전경

공릉의 장순왕후는 한명회의 셋째 딸로 세조의 둘째 며느리이다. 16살에 세자빈이 되어 그 다음해에 인성대군을 낳고 17살에 세상을 떠났다. 왕세자의 아들인 원손을 낳으니 왕가는 물론 백관이 기뻐하며 죄를 사면하고 축하행사를 열었다. 그러나 하늘이 돕지 않아 산후병으로 닷새 만에 세상을 떠나니 세조는 애통해하며 며느리 묘 자리를 잡았다 한다. 세손은 오래 살라고 천한 이름인 분(粪)이라 지었건만 단명하여 3살에 죽고 말았다. 공릉은 왕후 능이 아닌 세자빈 묘로 조성되었고 성종 3년에 추존되었다.

재실에서 똑바로 가면 공릉 홍전문(紅箭門)이 보인다. 홍문, 신문, 홍살문이라 부르는 이 문은 영혼이 출입하는 문으로 붉은 색은 악귀를 쫓는 의미이며 신의 영역임을 암시한다. 오른쪽 널찍한 판위(版位)는 왕이 행차 때 4배(拜)를 하고 들어가는 곳이다. 공릉의 참도는 홍전문에서 북향하다가 중간에서 서향으로 꺾여 기단에 오른다. 이는 지형조건에 따른 것이며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굴석(屈石) 참도를 따라가면 정자각이다. 정자각은 일 년에 한 번 산릉제를 올리는 곳으로 두 개의 계단이 있다. 소매 돌에 아름다운 구름무늬가 새겨진 왼쪽계단은 신이 올라가는 신계(神階)이며 오른쪽 계단은 제향 때 제관들이 오르내리는 왕계이다.

정자각 오른쪽에는 비각이 있다. 비석에는 전서(篆書)로 ‘朝鮮國 章順王后恭陵’이라고 쓰여 있고 뒷면에는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있는 일대기가 해서(楷書)로 쓰여 있다. 성빈기간은 2달 20일이 걸렸고 비석은 356년이 지난 정축년(1817)순조 17년 9월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파주삼릉에서 6년간 해설활동을 하면서 비문을 읽어야 할 일이 잦았다. 모르는 글자도 많고 확실한 내용을 알 수가 답답했는데 마침 파주삼릉관리소에서 비문을 해석하자는 제의를 하여 서예학원을 하는 동생과 함께 파주삼릉과 장릉 그리고 소령원과 수길원 비석을 해석하게 되었다. 그해 여름 힘들었고 땀은 흘렸지만 덕분에 공부도 많이 했고 보람 있었다.



정자각 계단



공릉 비각

공릉 능지인 공릉전록(陵紙典錄)을 보면 임금이 직접 제향에 참석하여 모든 일을 조목조목 지시한 것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갑술년(1694) 8월 왕이 친히 본 능에 오시어 친히 제사를 올렸다.’고 적혀있다. 사극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궁중여인의 암투, 장희빈을 폐위하고 민비를 복위 시킨 갑술환국 4개월 후 숙종은 공릉에 와서 친히 제사를 올렸다.

‘기유년(1729) 2월 13일 어가가 도착하여 재실을 봉심하시고 능과 정자각 길을 옮겨 닦았다. 순릉에도 봉심 하셨고 또한 길을 다시 옮겨 만들었다.’ 영조 5년의 기록으로 제사 지내는 법까지 자세히 적혀있다.

‘제물 배진 지규, 제사일 삼경이 못되어서 수복이 기침하라고 두루 알리고 사경 초부터 진 사청이 제물을 싣고 온 것을 받들어 모시고 시령에 전사관 및 양관이 모두 배양하여 나가서 정자각에 먼저 진설한다. 행랑채 탁자 위에는 제물을 진설하고 제주(祭酒)를 뜬고 벗길 때 모두에게 알린다. 그리고 나서 양관은 수복을 따라 숙수 등과 친히 진설한다. 전내 제상 위에 진설을 마친 후 수복을 청하여 양관이 자세히 살펴보고 점검한다. 양관은 서문으로 들어와 살펴보고 동문으로 나간다. 지금은 서문으로, 왜냐하면 제물이 모두 정문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예외의 (의례에 능통하고 밝은 사람)가 전사관으로 가서 수라문을 감독하고 불을 때어 밥하고 전 부치고 탕을 끓이는 일을 마친다. 역시 밖으로 나간다. 제사를 파한 후 양관은 각내를 감시하여 제물을 거두어 물러난다.’ 이는 한자로 적혀있는 능의 일지를 해석한 것이다.

제향이 끝나면 제관은 서쪽 계단으로 내려가 축문을 예감(僉坎)에 묻는다. 예감은 축문(祝文)을 묻기 위한 돌 구덩이로 정자각 북서방향에 설치하였는데 송판(松板)으로 뚜껑을 만들고 잠그도록 하였다. 그런데 시대가 흐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 영조 33년(1757)에 교(敎)를 내려 태우도록 한 망료위(望燎位)가 현대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보이는 예감에도 뚜껑을 덮었던 자리가 뚜렷하다.



무석인



예감

공릉은 세자빈 묘로 구성되어 석양(石羊) 석호(石虎)는 한 쌍 씩이나 봉분과 상석(床石), 8각 장명등(長明燈)은 어느 능 못지않게 크다. 밖을 보고 능을 지키는 석수(石獸)인 석양, 석호, 석마는 십이지신(十二支神)의 한 무리로 양은 악귀를 제거하는 성격이 있고 석호는 산천의 맹수로부터 능을 수호하는 역할을 띠고 있다. 양옆에 우람한 문석인(文石人)과 석마(石馬)는 550년 동안 머리를 조아리며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고 서 있다.

사람이 태어나서 저승으로 돌아가는 인생길은 수많은 사연과 이야기가 담겨있다. 평범하게 살다간 생도 그러한데 왕조역사의 한 사람인 왕릉에 얽힌 이야기야 오죽 하겠는가. 왕릉은 언제나 파란만장한 역사와 연관되어 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장순왕후와 공혜왕후는 자매간이며 계유정란의 일등공신인 한명회의 딸이다. 한명회는 모사에 능하고 책략에 뛰어나 자신과 함께 정란에 가담했던 인물들과 친인척을 맺음으로서 권력을 튼튼히 다졌다. 그러나 단명한 딸에게 아버지의 권력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공릉 숲을 걸으며 그 옛날 명정(銘旌)이 나부끼며 만가(挽歌)가 온 산에 울려 목이 메었을 환상에 젖는다. 하늘에 뜬구름 한 덩이 무심히 흘러간다.

장릉(長陵)

조선시대 518년에 이르는 왕조 역사와 함께 27대에 걸친 왕과 왕비의 능은 42기(북한지역 2기 포함)가 된다. 능은 한양에서 100 리 안팎으로 예로부터 최고의 명당을 썼다. 긴 세월동안 한 왕조가 남긴 흔적이 이처럼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 소중함이 인정되어 조선시대의 능(陵) 40기(북한지역 2기 제외)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조선시대 능 중에 장릉은 3기(基)가 된다. 김포 장릉(章陵)은 조선 16대 인조의 부모인 원종(元

宗)과 인현왕후(仁獻王后) 구씨를 모신 능이고, 영월 장릉(莊陵)은 조선 6대 단종(端宗 1441~1457)의 능이며, 우리 고장 파주에 있는 사적 203호 장릉(長陵)은 조선시대 16대 왕인 인조(仁祖) 1595~1649)와 인열왕후(仁烈王后 1594~1635)의 합장릉이다.

선조의 손자이며 광해군의 조카인 인조는 서인 세력을 등에 업고 반정(反正)을 일으켜 왕위에 올랐고, 27년 재위 기간 중 세 차례나 몽진을 한 치욕적이고 한 많은 세월을 살다간 비운의 왕이다. 즉위 다음해 이괄의 난을 겪었고 3년 뒤 정묘호란, 그리고 9년 뒤 병자호란을 겪었다.

인열왕후는 4명의 아들을 두었고 넷째 아들인 용성대군을 낳은 후 산후병으로 승하였다. 발인 날 청룡기, 백호기, 현무기, 기마병과 군사 6770명의 장례행렬에 백성들은 출정군으로 오해하고 불안해했다. 인조가 그 많은 묘를 이장시키고 그곳에 능을 쓴 것은 능을 지키는 수호군이 유사시 국방경비대 역할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니었을까.

이듬해 12월 국호를 청이라 고친 홍타이치는 12만 대군을 끌고 압록강을 건넜다. 청군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왔고 보름이 안 돼 개성을 점령하였다. 인조는 비빈종실들을 강화도에 피신시키고 세자백관과 더불어 남한산성으로 물러가 항거하였다. 병력 1만 3천여 명과 양곡 1만 4천 여석이 있었으나 45일이 경과하자 양식이 떨어지고 혹한에 군사들은 전의(戰意)를 상실하여 한 나라의 왕이 무릎을 꿇었다. 항복을 받기위해 쌓은 수항단위에 앉은 청태종에게 인조는 신하임을 나타내는 쪽빛 군복을 입고 삼배고두레를 올렸다. 한 번 절할 때마다 세 번 머리를 땅에다 쳐야했고 그럴 때마다 소리가 크게 나야했다. 청태종은 소리가 크게 나지 않는다고 다시 할 것을 요구해 인조의 머리는 피투성이가 되었다. 청태종은 인조로부터 군신의 예를 받은 후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두 왕자와 충신, 그리고 척화론(斥和論)자인 삼학사(오달재, 홍익환, 윤집)를 데리고 심양으로 돌아갔다. 그때 철군하면서 50만에 달하는 조선여자를 끌고 갔는데 그 후 많은 돈을 받고 돌려보냈다. 천신만고 끝에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들, 나라가 힘이 없어 오랑캐들에게 짓밟힌 환향녀(還鄕女)를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 하여 지금도 절개 없는 여자를 빗대어 ‘화냥년’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고 있다.

장릉(長陵)은 비공개능이라 가기 전에 파주삼릉 관리사무소에 허락을 얻어야 한다. 굳게 닫힌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뭇가지 사이로 고풍스런 재실(齋室)이 보인다. 재실은 산릉제례를 위하여 3일 전에 목욕재계하고 준비하는 곳으로 좌우에 각각 향을 보관하는 향대청과 제기를 보관하는 전사청이 있다. 쪽마루에는 제물을 나르는 나무 들것도 있고 아궁이 앞에는 제관이 몸을 씻는 쇠로 만든 목욕통이 있다. 물을 빨 수 있도록 밀이 뚫린 것이 조선시대 물건 같지는 않는데 거무죽죽 녹슨 모양에서 세월의 흔적이 보인다.



장릉 재실



장릉 수복방

재위 기간 내내 고통과 굴욕의 세월을 보내다 세상을 떠난 인조대왕을 만나러 가는 길, 금천교(禁川橋)를 건너 홍전문(紅箭門) 앞에 서면 쪽 뺀 참도(參道)의 박석이 보인다. 여기서 부터는 신의 영역이다. 위패를 모시고 제향을 드리는 정자각(丁字閣) 오른쪽에는 능지기가 기거하는 수복방(守僕房)과 비각(碑閣)이 나란히 세워져 있다. 정자각 뒤쪽에서 능상까지의 오르는 잔디 구역인 사초지는 생기 저장 탱크이며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가파른 사초지 중간쯤 올라가야 능상이 보인다. 이는 은밀하고 깊숙한 왕과 왕비의 침전은 함부로 들여다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장릉 정자각에 이르는 참도



후면에서 바라본 장릉

장릉은 원래 임진각 가는 길목 운천리 대덕골에 있었다. 1635년 인열왕후가 42세를 일기로 돌아가자 756기(基)의 묘를 이장하고 장사를 지냈으며 인조도 그 오른쪽에 묻혔는데, 뱀과 전갈이 석물 틈으로 집을 지어 1731년(영조7)에 지금의 위치인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로 옮기면서 합장하였다. 장릉은 왕과 왕비의 합장 능으로 봉분은 하나이나 그 앞에 상석을 나란히 배치해

2위(位)임을 나타냈다. 봉분 아래로 12면의 병풍석을 세우고 그 아래쪽은 치마 주름처럼 돌난간을 둘렀다. 2기의 상석 아래 중앙에 장명등(長明燈)을 배치하였으며 양쪽으로 망주석(望柱石) 2기를 세웠다. 옛 능에서 옮겨올 때 척수가 맞지 않은 병풍석, 난간석, 혼유석은 새로 만들었고 다른 석물은 그대로이다. 따라서 처음 조성한 17세기 석물과 새로 조성한 18세기 석물이 함께 어우러진다. 병풍석은 구름무늬와 십이지신상 대신에 모란과 연꽃무늬를 새겼으며 무석인(武石人)은 부리부리한 눈에 표정이 뚜렷해 생동감이 느껴진다.

역사는 그렇게 몇 백 년이 흐른 지금, 그 시대 사연들은 시간 속에 묻혀버리고 조선 왕릉은 자랑스러운 세계문화유산이 되었다. 장릉 앞에 서면 굴욕 당한 인조의 모습이 떠오르고 오랑캐에게 짓밟히는 조선 여인들이 떠오른다. ‘다시는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말자’는 교훈이 새겨져 있는 인조(仁祖) 장릉(長陵), 조선 왕릉은 그냥 무덤이 아니라 선조의 일이 살아 숨 쉬는 역사책이다.



남계서당 학규(學規) 일람

서교송*

들어가는 글

남계 박세채

南溪書堂 學規

신분을 가리지 않는 열린 학당

성적 순 보다는 나이 순

서당에 과거를 위한 책을 들이지 마라!

집에 돌아가도 공부를 게을리 마라!

나가는 글

들어가는 글

학규(學規)는 말 그대로 학교의 규칙이다.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 규칙은 그 공동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현대에 불거지고 있는 학생인권선언 등 학교의 운영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편차는 그동안 학교의 운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부족과 명확한 교육방침을 확립하지 못해온 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같은 현실속에서 파주지역에서 전해져오는 학규의 내용을 살펴보고 현대적인 적용을 모색해봄은 매우 가치있는 일이 될 것이다. 특히 파주 지역에서 직접 서당 또는 서실을 운영하

* 파주문화원 사무국장

며 후학들을 길러낸 우계(牛溪) 성혼(成渾) 선생의 ‘서실의(書室儀)’와 남계(南溪) 박세채(朴世采) 선생의 ‘남계서당 학규(南溪書堂 學規)’는 그 자체로도 가치있는 전통이요, 파주의 정신적 자산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파주인들의 자긍심을 일깨우는 근거로 자리하고 있는 울곡(栗谷) 이이(李珥) 선생이 지은 ‘은병정사 학규(隱屏精舍 學規)’ 역시 학문하는 이들의 몸가짐에 대해 세세하면서도 엄격한 규율을 제시하고 있어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전통 가치의 실천방안에 대한 훌륭한 지침이 될 수 있다.

위에 언급한 세 가지의 학규를 살피면서 놀라운 점은 이미 수백여 년 전에 선현들이 주신 가르침들이 현대의 학생들, 공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교육에도 매우 유용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린이 함께 지내며 가르침을 주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학규에 대한 이해와 현대적 적용을 통해 전통사상의 유익함을 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남계 박세채

남계서당은 울곡선생의 제자인 남계 박세채 선생이 후학을 가르치던 강학공간이었다.

박세채(1631~1695) 선생은 조선 중기의 학자·문신으로 본관은 반남(潘南)이며, 호는 현석(玄石)·남계(南溪)이다. 남계는 파주의 광탄(廣灘) 즉, 넓은 여울을 말하는 것으로 선생이 말년에 광탄 만성정(晩醒亭)으로 이거했으며, 남계라는 호가 이에 유래했다²⁾고 한다.

울곡 이이(李珥)의 「격몽요결(擊蒙要訣)」로써 학문을 출발하였으며, 울곡선생을 매우 존경하였다. 울곡과 우계의 문묘배향에 앞장섰으며, 예송논쟁과 회니논쟁(懷尼論爭)을 거치면서 소론의 영수가 되었고, 숙종 후반에 산림학자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게 되면서 봉당간의 조정에 힘을 기울여 탕평론을 적극 개진하였다. 그가 주장한 황극탕평설(皇極蕩平說)은 영조·정조대에 이르러 탕평책을 시행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고 한다.

성리학 이론에 밝았으며, 예학에도 해박하였다. 시호는 문순(文純)이고 문묘(文廟)에 배향되었으며, 문집에 《남계집》이 있다. 자운서원에 울곡선생,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선생과 함께 배향되었다.

선생이 우거하던 만성정(晩醒亭)과 남계서당(南溪書堂)은 현재 파주읍 부곡리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당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산자락에는 큰 고목과 빈 터만 남아있으며, 정자터와 연못지도 흔적을 남기고 있다. 현재는 마을과 논밭이 들어선 산 아래까지 예전에는 넓은 여울이 휘돌았으며, 때문에 마을 이름도 ‘넓은 여울’로 불리우고 있다.³⁾

2) 후재집(厚齋集), 文純公南溪先生行狀, 金幹

3) 前 坡州文化院長 李琪鉉 翁 證言 및 現場 確認, 2010, 11, 11

南溪書堂 學規

‘남계서당 학규’는 파주 남계에 자리를 잡은 박세채 선생이 기사환국(己巳換局) 이후 향리에 한거(閑居)하면서 저서(著書)와 강도(講道)에 몰두하던 당시 지은 것으로 모두 22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계선생박문순공문정집」에 수록되어 있다.

신분을 가리지 않는 열린 학당

학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입학자격에 신분의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신분의 차별이 엄격한 것으로만 인식되는 시기이지만, 학규에서는 현달한 집안 자제이거나 미천한 집안 자제를 따지지 않고 학문의 뜻이 독실한 사람을 택해서 입학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의 마음가짐을 강조하고 있다.

一。書堂之士。必擇篤志向學。常常來讀者。許入而置籍焉。且勿以顯族微品爲拘。但其自處之道。不可不各自裁量。4)

이처럼 학생들에 대해 신분적 구별을 배제하고 학문하는 자세를 강조하는 자세는 남계선생의 학문적 연원이 되기도 하는 율곡선생에게서 비롯되고 있음을 ‘은병정사 학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一。入齋之規。勿論士族庶類。但有志於學問者。皆可許入。齋中先入者。僉議以爲可入。然後乃許入。5)

은병정사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족(士族)과 서류(庶類: 서민)를 막론하고 다만 학문에 뜻이 있는 사람은 모두 재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다.’고 밝혀 학문에 대한 열의가 신분적 차이보다 우선함을 학규의 제일 처음에 언급하고 있다.

성적 순 보다는 나이 순

여러 연령층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 공부하는 당시의 서당에서는 장유(長幼)의 차례를 중시해 이와 관련한 규정들을 쉽게 볼 수 있다.

一。味爽而興。親自整疊寢具。命少者淨掃室中。以次盥櫛正衣冠。

4) 南溪朴文純公文正集 雜著, 南溪書堂學規, 朴世采

5) 栗谷先生全書 15 雜著, 隱屏精舍學規, 李珥

一。食時就食以齒。而坐從容整齊。常以食無求飽爲心。

一。居處必以便好處推讓長者。年十歲以上者出入時。少者必起立。6)

나이 어린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는 스스로 침구를 정돈하고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서실을 청소하도록 하며.. 식사를 할 때는 나이 순서대로 하며... 거처하는 곳에서는 연장자에게 좋은 자리를 양보하고 열 살 이상 연장자가 출입할 때 연소자는 반드시 일어서야’ 했다.

우계 선생의 ‘서실의’와 율곡선생의 ‘은병정사 학규’에도 나이에 따른 예절을 강조하는 조항이 유독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少者操箒。淨掃室中。

出入時以齒而行。或比肩。不得疾行先長。7)

凡居處。必以便好之地。推讓長者。毋或自擇其便。年十歲以長者。出入時。少者必起。8)

공동체 생활에서의 청소는 나이 어린 사람의 몫이며, 출입이나 식사에 있어서도 나이를 따라(以齒) 순서를 세웠다. 또한 편안한 자리를 어른에게 사양하고, 열 살 이상의 연장자이면 드나들 적에 연소자가 반드시 일어서도록 하였다.

이같은 연령에 따른 차례와 예절의 강조는 단체생활을 함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것이었으며, 종적인 질서를 강조하는 유교적 이상과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서당의 운영에 있어서 성적순(榜次) 위주가 아닌 나이순(序齒) 위주의 생활을 중시하였다는 것이다.

우계서실의 경우 학생들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었지만 크게는 관례를 올린 자(冠者)와 미성년자(少者)로 구분되었고 이들 사이에는 엄격한 예법이 적용되었다. 우계는 한 살이라도 더 나이 많은 사람을 높이는 도덕적 이상을 표방함으로써, 우계서실이 경쟁 선발체제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였다.

관학(官學)의 경우, 나이순과 성적순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다가 1658년(효종 9)에 이르러서야 성균관 유생들에게 나이순으로 자리를 정해 장유(長幼)의 차례를 밝히도록 했다. 이에 비하면 우계서실은 나이순에 따른 기준을 일찍이 제시함으로써 학력 경쟁이 아닌 도덕적 이상에 입각한 교육을 추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9)

성적에 따른 순위보다는 나이를 존중하는 예법이 보다 중요하다는 판정은 이미 400년 전에

6) 南溪書堂學規

7) 牛溪先生集 6 雜著 書室儀 成渾

8) 3)과 같은 책

9) 「牛溪 成渾의 學問과 思想」 「우계서실의 문도교육에 대한 교육사적 고찰」 박군섭

내려진 오래된 것이다.

서당에 과거를 위한 책을 들이지 마라!

서당이나 서실에서 성적보다는 학문의 연마와 인격함양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점은 다음에서 명확히 알 수 있다.

一。非聖賢性理之書。不得披覽。惟史書許看。如異端科學文字。切不許入堂。¹⁰⁾

一。非聖賢之書。性理之說。則不得披讀于齋中。史學則許讀若欲做科業者。必習于他處。¹¹⁾

율곡 선생과 남계 선생 모두 서당에 정사(政事)나 과거(科擧)에 관련된 책은 가져오지 말라고 엄격히 말하고 있다. 만약 과거 공부를 하려면 반드시 다른 곳에 가서 익히라는 것이다. 다만 역사서는 괜찮다고 하였다. 이같은 규정은 학문의 연마가 修己를 통한 도덕적 이상의 구현에 있는 것이지, 과거를 통한 입신양명과 출세를 위한 도구일 수 없다는 당시의 학문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집에 돌아가도 공부를 게을리 마라!

수백년의 시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학문 연마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一。授書後分就讀所。凡然終日讀之。少有疑處。輒來質問。再三反覆。不可放過。一言一句。必求踐履之方。

一。其間少隙。或講論義理。或看書寫字。不得怠惰放肆。任便自逸。

책을 받은 후에는 각자의 자리로 가서 하루 종일 책을 읽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은 스승께 질문을 하되 재차 삼차 질문하여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다. 또, 잠시라도 틈이 나면 의리를 강론하고 책을 보거나 글씨를 쓰면서 항시라도 게으르거나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더해서 휴가 때 집에 돌아가면 이곳 학당에서 익힌 바를 절대 잊지 말고 날마다 하는 공부에 조금도 게으르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장부를 만들어 1년 동안 공부하러 온 사람이 몇 월에 왔는지 공부한 책이 어떤 책이었는지 기록해서 훗날 부지런히 공부했는지 태만했는지 알 수 있게 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다.

10) 書室儀

11) 隱屏精舍 學規

- 一。歸家切勿忘齋中所習。日用工夫不容少懈。苟或相背。是不得爲爲己之學矣。
- 一。更置一籍。記其一年之內。來會者幾月。所讀者何書。以備日後攷其勤慢。

이 외에도 식사 후에는 산보를 하도록 권하거나, 여가에 글씨를 쓰되 어지러운 초서를 쓰지 말고 단정한 해서를 쓰도록 한 점 등도 세 선생의 학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며, 식사를 과하게 하지 말 것과 선현들의 가르침을 써서 벽에 걸어놓고 항상 경계할 것 등을 권하고 있다.

나가는 글

이상 살펴본 것처럼 학규는 아주 구체적이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지켜야 할 학문하는 방법과 몸가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남계선생의 ‘남계서당 학규’는 물론 성혼 선생의 ‘서실의’, 율곡선생의 ‘은병정사 학규’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연구는 현대의 교육 - 학교교육과 가정교육, 사회교육 모두를 포괄하는 - 에 있어 훌륭한 실천적 지침의 원형(原型)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일독(一讀)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일이라 할 것이다.

혹 당시와 현대의 사회상이 천차만별임을 주지시키며 대부분의 내용을 부조리하다고 혹평할 수도 있지만 어느 시선에서 보느냐가 중요하다. 나쁜 한쪽만을 바라본다면 어느 것도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좋게만 봐도 결과는 같다. 중요한 것은 우리 것을 지키고 이어가기 위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파주를 근거로 우리 역사에 큰 빛을 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율곡선생의 명망에 가려서 또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무관심속에 묻혀지고 있는 선현들에 대한 연구와 선양을 위한 노력들이 지금이라도 시작되어야 한다.

문묘에 배향된 18현중 율곡선생과 우계선생과 남계선생이 파주에서 우거하며, 학문을 연마하고 후학들을 가르치며 파주를 추로지향(鄒魯之鄉)에 버금가는 한국 철학사상의 중심지로, 인재교육의 성지로 일궈냈던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그 분들의 학맥을 이은 수많은 이들이 파주와 연관을 맺으며 한 시대를 움직여나간 시간이 있었다.

과거의 명망에 대한 헛된 집착이 아니라 우리 것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통해 오늘의 사회를 보다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저 이어져오는 문향 파주(文鄉 坡州)라는 미명만(美名) 내세우며 유적지의 잔디만 깔고 있는 현실은 재고되어야만 한다.

남계서당 학규전문(南溪書堂 學規全文)*

一。書堂之士。必擇篤志向學。常常來讀者。許入而置籍焉。且勿以顯族微品爲拘。但其自處之道。不可不各自裁量。

서당에 들어온 선비는 오로지 학문의 뜻이 독실한 사람을 택해서 입학을 허가하고 학적에 이름을 올린다. 또한 현달한 집안 자제이거나 미천한 집안 자제를 따지지 않고 다만 학생의 마음가짐에 따라 입학을 허가한다.

一。昧爽而興。親自整疊寢具。命少者淨掃室中。以次盥櫛正衣冠。

새벽에 일어나서는 스스로 침구를 정돈하고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서실을 청소하도록 하며 세수를 하고 의관을 정제한다.

一。師在講堂則服上服。就師前行拜禮。師於座上俯手以答。朔望則行再拜禮。師立而扶之。仍又分立兩序。東西相向行揖禮。

스승이 강단에 계시거든 복장을 갖추고 스승이 앉아계실 때에는 손을 마주잡고 공손히 대답하고 초하루 보름에는 재배례를 한다. 스승이 일어설 때는 부축하고 곧바로 양쪽으로 줄서서 동쪽 서쪽 나누어 서로 바라보며 읊례한다.

一。各就讀書處。對案端拱危坐。熟讀精研。不得胡思亂想。不得顧眄嬉笑。不得出入紛紜。

각기 글을 읽는 곳으로 나아가 바르게 앉아서 깊이 읽고 정밀하게 연구한다. 쓸데없는 생각과 어지러운 잡생각을 하지 말며 뒤돌아보고 희희덕거리지 말고 아무 때나 돌아다니지 않는다.

一。食時就食以齒。而坐從容整齊。常以食無求飽爲心。

식사를 할 때는 나이 순서대로 하며 조용히 떠들지 않고 앉아서 항상 과하지 않게 먹는다.

一。食畢消搖于外。亦必秩然有儀。少時復入書室。整頓冊子。以俟師招入授書。

식사를 마친 후에는 밖에 나가 산책을 하되 떠들지 않고 질서있게 한다. 잠시 후에 서실로 돌아와서는 책을 정돈하고 스승이 불러 책을 주기를 기다린다.

一。授書後分就讀所。凡然終日讀之。少有疑處。輒來質問。再三反覆。不可放過。一言一句。必求踐履之方。

* 출처 : 南溪先生朴文純公文正集 雜著, 원문해석 : 파주문화원 경서강독반

책을 받은 후에는 각자 책 읽는 자리로 가서 하루 종일 책을 읽는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스승께 질문을 하되 재차 삼차 질문하여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한마디 말과 구절이라도 반드시 실천방법이 무엇인가 질문하고 생각하라.

一。其間少隙。或講論義理。或看書寫字。不得怠惰放肆。任便自逸。

잠시라도 틈이 나면 의리를 강론하고 혹은 책도 보고 글씨도 쓰면서 게으르거나 함부로 하지 않는다.

一。居處必以便好處推讓長者。年十歲以上者出入時。少者必起立。

거처하는 곳에서는 연장자에게 좋은 자리를 양보하고 열 살 이상 연장자가 출입할 때 연소자는 반드시 일어서야 한다.

一。言語慎重。非文字禮法則不言。毋談淫褻悖亂神怪之事及他人過惡朝廷州縣得失。

말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며 음담패설과 어지럽고 괴이한 이야기와 다른 사람의 악한 일과 조정이나 고을의 정치득실을 따지는 일은 말하지 않는다.

一。客至。若堂中士皆相識。或彼求見則出見。不然只相識者出見。但敘寒暄情素畢。不發閒談。就案靜坐則客當辭退。

손님이 올 때 만약 서당의 선비가 다 아는 사이면 다 나가서 맞이하고 그렇지 않거든 손님과 아는 사람만 나가서 맞이한다. 간단히 안부를 묻고 용건이 끝나면 한담을 금하고 자기 자리로 조용히 돌아가 공부를 하고 손님은 인사하고 돌아가도록 한다.

一。非聖賢性理之書。不得披覽。惟史書許看。如異端科舉文字。切不許入堂。

성리의 책이 아니면 읽지 않는다. 단 역사서는 괜찮다. 이단서나 과거를 보기위한 시험서는 일체 서당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

一。白鹿洞規，敬齋箴兩圖及要訣爲學圖。皆淨寫揭諸壁上以資警省蓋爲學大體要道皆具於此也。

백록동(도산서원)규약이나 주자의 잠언, 격몽요결, 성학십도 등을 정갈하게 베껴 써서 벽에 걸어놓고 스스로 삼가하고 경계하는 자리로 삼는다. 학문을 하는 대체와 요점이 거기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一。夕食時就食如朝儀。既昏張燈讀書。夜久之後各自布席就寢。齊手斂足。不作思惟。

저녁식사 때도 아침과 마찬가지로 한다. 날이 저물면 등을 밝히고 책을 읽는다. 밤이 늦으

면 각자 잠자리에 들어 손과 발을 가지런히 하고 생각을 지어내지 않고 편안히 잠든다.

一。歸家切勿忘齋中所習。日用工夫不容少懈。苟或相背。是不得爲爲己之學矣。至如學業荒怠。行誼不修。處事乖戾者。隨其輕重。各有責罰。切宜戒之。

휴가 때 집에 돌아가면 이곳 학당에서 익힌 바를 절대 잊지 말고 날마다 하는 공부에 조금도 게으르지 말아라. 서로 어긋남이 있으면 이것은 자신을 위한 학문을 터득하지 못한 때문이다. 학문을 게을리 하고 행동이 닳아지지 않아서 일을 처리할 때 어긋나고 배운대로 행하지 않으면 경중에 따라서 책임과 벌을 주어 간절히 경계로 삼는다.

一。更置一籍。記其一年之內。來會者幾月。所讀者何書。以備日後攷其勤慢。

또한 하나의 장부를 만들어 1년 동안 공부하러 온사람이 몇 월에 왔는지 공부한 책이 어떤 책이였는지 기록해서 훗날 부지런히 공부했는지 태만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書室儀*

一。入書室者。昧爽而興。親自整疊寢具。

서실에 들어온 자는 먼동이 틀 적에 일어나서 직접 스스로 침구(寢具)를 개어 정돈하여야 한다.

一。少者操箒。淨掃室中。

젊은 자는 빗자루를 들고 방 안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一。以次盥櫛正衣冠。

차례로 세수하고 머리 빗고 의관을 바르게 해야 한다.

一。各就讀書處整冊對案。端肅危坐。從容讀誦。不得胡思亂想。不得顧眄他事。不得與人雜設。不得出入起動。

각자 독서하는 곳에 나아가서 서책을 정돈하고 책상 앞에 단정하게 무릎 꿇고 앉아서 조용히 읽고 외우며, 어지러운 생각을 하지 말고 딴 일을 돌아보지 말며, 남들과 잡담을 나누지 말고 제멋대로 출입하거나 일어나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 牛溪先生集卷之六 雜著,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一。食時就食。以齒而坐。從容整齊。不得戲嬉爭食。

아침밥을 먹을 때에는 나이대로 앉아서 조용히 정돈할 것이요, 희롱하고 장난하며 음식을 다투지 말아야 한다.

一。食畢。以齒而出。逍遙于外。少時復入書室。整頓冊子。以俟招入授書。

식사가 끝나면 나이대로 나가 밖에서 산보하다가 잠시 후에 다시 서실로 들어와 책자를 정돈하고 선생이 불러 책을 가르쳐 주기를 기다려야 한다.

一。其間少隙。或間書寫字。不得亂草。必作端楷。或講論義理。不得怠惰放肆。任便自逸。

이 사이의 여가에는 글씨를 쓰든지 -어지러운 초서(草書)는 쓰지 말고 반드시 단정한 해서(楷書)로 써야 한다.- 의리를 강론하든지 해야지 게으르고 방자하여 제멋대로 안일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一。授書之後。分就讀所。兀然端坐。終日讀之。少有疑處。輒來質問。再三反覆。不得少有放過。不得少時閑懶。

글을 배운 뒤에는 독서하는 곳에 각자 나아가 오뚝하게 단정히 앉아서 종일토록 책을 읽으며 조금이라도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곧 와서 질문하되 재삼 반복할 것이요, 조금이라도 그대로 지나치지 말며 조금이라도 한가롭거나 나태하게 하지도 말아야 한다.

一。夕食時就食如上儀訖。或出溪上閑步。或入書室中看書論文習字。

저녁밥을 먹을 때에 식사하기를 위의 의식과 같이 하며 식사가 끝나면 시냇가에 나가서 한가로이 산보하거나 서실 안에 들어와서 책을 보고 문장을 논하고 습자(習字)를 한다.

一。旣昏。張燈讀書。夜久而寢。

날이 어두워지면 등불을 밝히고 책을 읽으며 밤이 깊어지면 취침한다.

一。寢時招婢布寢席就宿。齊手斂足。不作思惟。

잠을 잘 때에는 계집종을 불러 잠자리를 마련하게 하고 취침하되 손을 가지런히 하고 발을 거두며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一。日間居處。須要恭敬。不得倨肆惰慢。

날마다 거처할 적에 모름지기 공경할 것이요, 거만하고 방자하며 태만하지 말아야 한다.

一。言語須要諦當。不得戲笑諠譁。

말하는 것은 모름지기 꼭 해야 할 때에만 하고 희롱하거나 웃고 떠들지 말아야 한다.

一。起居坐立。務要端莊整肅。不得傾倚昏怠。

기거(起居)하고 앉고 서는 것을 되도록 단정하고 엄숙하게 할 것이요, 기대거나 태만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一。出入步趨。務要安詳凝重。不得跳走票輕。

출입할 때에는 걸음걸이를 되도록 편안하고 진중하게 할 것이요, 뛰고 달려 가볍게 하지 말아야 한다.

一。出入時以齒而行。或比肩。不得疾行先長。

출입할 때에는 나이순으로 걸어가되 혹은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요, 빨리 걸어서 어른보다 먼저 가지 말아야 한다.

一。溫謙自牧。和敬待人。

온화함과 겸손함으로 자처(自處)하고, 화목함과 공경함으로 남을 대하여야 한다.

一。無故不得出入。

연고가 없으면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

一。凡事切須謙恭謹勅。不得尚氣凌人。

모든 일은 반드시 겸손하고 공손하고 신중하게 할 것이요, 기세를 올려 남을 능멸하지 말아야 한다.

一。早晚頻自點檢所習之業。思索義理。體認服行。不令心少有放逸。

아침저녁으로 자주 자신이 익히는 학업을 스스로 점검하고 의리(義理)를 사색하며 체인(體認)하고 실천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방만하고 안일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一。切須服膺勤謹二字。造次不違。

모름지기 근(勤)과 근(謹) 두 글자를 가슴에 새겨 잠시라도 어기지 말아야 한다.

一。冠者出入。少者皆起立。

관을 쓴 어른이 출입하면 어린 자들은 모두 일어난다.

이상 22조항은 서실에 들어온 자가 서로 준수하여 각자 명심해야 할 것이니, 혹시라도 이 약조를 어기고 게으르고 방자하여 독서를 부지런히 하지 않거나, 떠들썩하게 남을 조롱하고 업신여겨 함부로 대하면서 자기를 잃고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어른과 봉우들을 공경하지 않고 남의 타이름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노여워하고 스스로 방자해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고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제생들이 즉시 의논하여 와서 고하도록 한다.

隱屏精舍學規*

一。入齋之規。勿論士族庶類。但有志於學問者。皆可許入。齋中先入者。僉議以爲可入。然後乃許入。若前日悖戾之人願入。則使之先自改過修飭。熟觀所爲。決知其改行。然後許入。素昧平生者願入。則使之姑接近村。或養正齋或山寺往來問學。觀其志趣操履。知其可取。然後許入。

재(齋)에 들어오는 규칙은 사족(士族)과 서류(庶類: 서민)를 막론하고 다만 학문에 뜻이 있는 사람은 모두 재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되, 먼저 들어온 사람들의 의논이 들어와도 된다고 한 뒤라야 들어오도록 허락한다. 만일 전일에 패악(悖惡)했던 사람이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그로 하여금 먼저 스스로 개과(改過)하고 조심하게 한 다음, 그 행동하는 것을 자세히 보아서 그 행위가 개선되었음을 확실히 안 뒤에야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며, 만일 평소에 내력을 모르는 자가 들어오기를 원하면 그로 하여금 우선 가까운 마을(혹은 양정재(養正齋))이나 산사(山寺)에 왕래하면서 배우고 문계 한 다음, 그 지취(志趣)와 조행(操行)을 보아서 취할 만함을 안 뒤에야 들어오기를 허락한다.

一。推齋中年長有識者一人爲堂長。又推儕輩中學優者一人爲掌議。又擇二人爲有司。又輪選二人爲直月。堂長掌議有司。非有故則不遞。直月則一月相遞。凡齋中論議。掌議主之。稟于堂長而定之。堂長有故。在他處。其時參會最長者攝之。凡齋中之物出納及齋直使喚什物有無。有司掌之。非有司。則不得擅自使喚齋直檢罰之事。凡物皆有籍。遞時。案籍交付于代者。凡師弟朋友所講論之說。皆直月掌其記錄。以爲後考之資。

재 안에서 나이가 많고 지식이 있는 이 한사람을 추대하여 당장(堂長)으로 삼고, 또 같은 또래 가운데서 학식이 우수한 한 사람을 추대하여 장의로 삼으며, 또 두 사람을 가려 유사(有司)로 삼고, 또 차례로 두 사람을 가려 직월(直月)로 삼는다. 당장과 장의와 유사는 연고가 없으면 갈지 말고 직월은 다달이 서로 교체한다. 무릇 재 안의 의논은 장의가 주도하여 당장에게 물

* 粟谷先生全書 雜著, 「울곡전서」, 한국학중앙연구원

어 본 뒤에 정하고(당장이 연고가 있어서 다른 곳에 있을 때는 모임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섭행(攝行: 대리로 행함) 한다) 무릇 재 안의 물건 출납과 재직(齋直)이. 사환과 집기의 유무에 관한 일은 유사가 주관하고(유사가 아니면 마음대로 재직(齋直)을 불러서 단속하고 별주는 일을 할 수 없다.) 모든 물건은 모두 장부에 기재하여 교체할 때는 새로 맡는 이에게 장부를 넘겨주고, 무릇 사제(師弟)와 벗들의 강론한 말은 모두 직월이 맡아 기록하여 뒤에 참고할 자료로 삼는다.

一。每月朔望。師弟子皆以官服。有官則紗帽團領品帶。儒生頭巾團領條帶。詣廟開中門。出廟貌。再拜。焚香。師若不在。則齋中年長者焚香。又再拜。敍立位次。則師居前行。弟子爲後行西上。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는 스승과 제자가 모두 관복(官服)으로써 (벼슬이 있으면 사모(紗帽), 단령(團領), 품대(品帶)를 갖추고, 유생은 두건(頭巾), 단령(團領), 조대(條帶)이다.) 문묘(文廟)에 나아가 중문을 열고 묘묘(廟貌: 사당)를 드러내어 재배 분향(焚香)하고 (스승이 만일 없으면 학재안에서 연장자가 분향한다.)또 재배한다. (서는 차례는 스승의 앞 줄에 서고 제자가 뒷줄에 서되, 서쪽을 상위로 한다)

一。每日五更起寢。整疊寢具。少者持箒埽室中。使齋直埽庭。皆盥櫛正衣冠讀書。

매일 5경(更)에 일어나 침구를 정돈하고 나이 적은 사람은 비를 들고 방안을 쓸며, 재직을 시켜 뜰을 쓸게 한 다음 모두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의관을 바로 잡고 나서 글을 읽는다.

一。平明時。皆以常服笠子直領或冠巾直領之類。但不用襦挾直領。詣廟庭。不開中門。只再拜。師若在齋。則亦以常服謁廟。師在講堂。則就師前行拜禮。師不起立。只於座上俯答其禮。分立東西相向。行揖禮。師不在。則拜廟後出廟門。分立庭東西。相向而揖。○凡讀書時。必端拱危坐。專心致志。務窮義趣。毋得相顧談話。

아침이 되면 모두 평상복 (입자(笠子)에 직령(直領)이나 또는 관건(冠巾)에 직령(直領)같은 따위인데, 다만 짧은 겹것·직령은 안 입는다.)으로써 묘정(廟廷: 문묘의 뜰)에 가서 중문을 열지 않고 재배만 한다. (스승이 만일 재에 있으면 또한 평상복으로 문묘에 배알한다.) <그리고> 스승이 강당에 있으면 스승 앞에 나아가 배례를 하고, (스승은 일어서지 아니하고 자리에서 구부려 답례만 한다.) 동서로 갈라서서 서로 바라보며 읊례(揖禮)를 한다. (스승이 없으면 문묘에 배례한 뒤 사당 문을 나와 뜰에서 동서로 갈라서서 서로 바라보며 읊을 한다.) ○ 무릇 독서를 할 때는 반드시 팔짱을 끼고 단정히 꿇어앉아 전심치지(專心致志)를 하며 의취(義趣)를 궁구하는 데 힘쓰고, 서로 돌아보며 잡담을 하지 말아야 한다.

一。凡凡案書冊筆硯之具。皆整置其所。毋或亂置不整。

무릇 책상·책·붓·벼루 같은 물건은 모두 제 자리에 정돈해 두고 행어나 어지럽게 여기 지기 흠어 두지 말아야 한다.

一。凡食時。長幼齒坐。於飲食。不得揀擇。常以食毋求飽爲心。

무릇 식사시에는 어른과 젊은이가 나이 차례로 앉고, 음식을 먹는다는 가려먹지 말며 늘 배 부르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一。凡居處。必以便好之地。推讓長者。毋或自擇其便。年十歲以長者。出入時。少者必起。

무릇 거처(居處)는 반드시 편안한 자리를 어른에게 사양하고 행어나 편안한 곳을 사리지 말며, 열 살 이상의 연장자이면 드나들 적에 연소자가 반드시 일어선다.

一。凡步履必安詳。徐行後長。秩然有序。毋或亂步不整。

무릇 걸음걸이는 반드시 점잖고 안전하게 하고 천천히 어른 뒤에 가서 질서를 지키며 행어나 난보(亂步)로 질서를 흐트리지 말아야 한다.

一。凡言語必信重。非文字禮法則不言。以夫子不語怪力亂神爲法。且以范氏七戒。存心寓目。七戒書于壁一。非聖賢之書。性理之說。則不得披讀于齋中。史學則許讀若欲做科業者。必習于他處。

무릇 언어는 반드시 믿음직스럽고 무게 있게 하고 문자와 예법이 아니면 말하지 말며, 공자가 괴력란신(怪力亂神)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법을 삼고, 범씨(范氏, 宋의 학자)의 칠계(七戒)를 마음에 간직하고 눈여겨본다.(칠계는 벽에 써 붙여 둔다.)

성현의 글이나 성리의 설(說)이 아니면 재 안에서 읽을 수 없으며, (史學은 읽어도 좋다.) 만약 과거 공부를 하려고 하는 자라면 반드시 다른 곳에 가서 익힌다.

一。常時。恒整衣服冠帶。拱手危坐。如對尊長。毋得以褻服自便。且得著華美近奢之服。

평상시에도 항상 의복과 의관을 정제(정제)하고 팔짱을 끼고 꿇어 앉아 마치 어른을 대하듯이 하고, 편안하다고 속옷 바람으로 있어서는 안 되며 너무 화려하여 사치한 듯한 옷을 입어서도 안 된다.

一。食後。或游泳于潭上。亦皆觀物窮理。相咨講義理。毋得遊戲雜談。

식후에 혹은 냇가에 가서 거닐더라도 또한 사물을 관찰하여 이치를 탐구하고 서로 의리를 강론할 것이다. 장난이나 잡담을 해서는 안 된다.

一。朋友務相和敬。相規以失。相責以善。毋得挾貴挾賢挾富挾父兄挾多聞見。以驕于儕輩。且不得譏侮儕輩。以相戲謔。

벗 사이에는 서로 화목하고 공경하기를 힘쓰고, 과실을 서로 바로 잡아주고, 착한 일을 하도록 서로 권하며, 귀함이나 현명함이나, 부유함이나 부형의 권세나 많은 지식을 자부하고서 같은 또래에게 교만을 부려서는 아니 된다. 또 같은 또래들을 기롱하고 능멸하며 서로 희학(戲謔)하여서도 아니 된다.

一。作字必楷正。毋得亂書。且不得書于壁上及窓戶。

글씨를 쓸 때는 반드시 또박또박 반듯하게 쓸 것이며 휘갈겨 쓰지 말며 또 벽이나 창문에다 낙서를 해서도 안 된다.

一。常以九容持身。毋得跛倚失儀。喧笑失言。終始不懈。

몸가짐은 항상 구용(九容)으로써 하고, 한쪽 발로 기우듬히 서거나 기대어 자세를 흐트러거나 킬킬대고 웃거나 말을 함부로 함이 없이, 시종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一。昏後。明燈讀書。夜久乃寢。

날이 어두운 뒤에는 등불을 밝혀 글을 읽고 밤이 깊은 뒤에야 잔다.

一。自晨起至夜寢。一日之閒。必有所事。心不暫息。或讀書。或靜坐存心。或講論義理。或請業請益。無非學問之事。有違於此。卽非學者。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동안에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서 마음을 잠시도 게을리 말아야 한다. 혹 독서하며, 정좌(靜坐)하여 본 마음을 간직하며, 의리를 강론하기도 하고, 혹 익힌 바에 대해 질문도 하고, 좀더 자세히 가르쳐 달라고 여쭙기도 하는 등 학문에 관한 일이 아닌 것이 없으니, 여기에 어긋남이 있으면 곧 배우는 자가 아니다.

一。有時歸家。切宜勿忘齋中之習。事親接人。持身處事存心。務循天理。務去人欲。如或入齋修飭。出齋放倒。則是懷二心也。不可容接。

이따금 집에 돌아가더라도 절대로 재중에서 하던 습관을 잊지 말고, 아버이를 섬길 때나 사람을 접대할 때나 몸단속을 한 때나, 일을 처리할 때나 본마음을 간직하기에 천리(天理)를 따르고 인욕(人欲)을 제거하기에 힘써야 하며, 행여 학재에 들어와서는 신칙(申飭)하고 재를 나가서는 방탕한다면, 이는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니 용납할 수 없다.

一。直月。掌記善惡之籍。審察諸生居齋處家所爲之事。如有言行合理者及違學規者。皆記之。

月朔呈于師長。凡違學規者。直月通告于堂長掌議。共加規責。若不悛則乃告于師。若悛改則爻其籍。勿告于師。善者獎勸之。惡者鑄誨之。終不受教則黜齋。

직월(直月)은 선악을 기록하는 장부를 맡아 기록하되, 제생(諸生)들이 학재에 있을 적과 집에 있을 적의 한 소행을 자세히 살펴서, 만일 언행이 도리에 맞은 자와 학규(學規)를 위반한 자가 있으면 모두 기록하여 매월 초하루에 사장(師長)에게 올려 (무릇 학규를 위반한 자는 직월이 당장(堂長)과 장의(掌議)에게 알려서 함께 고치도록 꾸짖고 만일 고치지 않으면 곧 스승에게 고하고, 고치면 그 기록을 지워버리고 스승에게 고하지 않는다.) 선한 자는 권장을 하고 악한 자는 벌을 주어 가르치는데, 끝내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학재에서 축출한다.

一諸生雖非聚會之時每月須一會于精舍月朔必會。朔日有故則退定。不出一二四日。有司先期出回文周告。講論義理。且改定直月。

제생은 비록 모여서 강회(講會)할 때가 아니더라도 매월 모름지기 한 번씩 정사(精舍)에 모여서 (매달 초하루에 반드시 모여야 하고 초하루에 연고가 있으면 늦추되 3·4일이 지나지 아니 하여야 하며, 유사는 기일에 앞서 회문(回文)을 내어 두루 알린다.) 의리를 강론하고, 또 직월을 개선한다.

一。鄉中願學者。皆姑接養正齋。

향중(鄉中)에서 배우기를 원하는 자는 모두 우선 양정재(養正齋)에 있게 한다.

파주문화, 독창성과 다양성의 추구

- 향토문화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

박재홍*

언제부턴가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전통문화는 고리타분한 ‘노인문화’고 현대문화는 화려한 멀티미디어로 무장한 ‘젊은이들의 문화’라는 그릇된 인식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전통’이라는 의미가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사회에서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하다. 지역에는 조상대대로 면면히 내려오는 고유한 습속(習俗)이 있고 문화적 뿌리가 있지만, 최근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향토문화유산이 사라져 가는 일이 빈번해지고 문화적 성장기반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다보니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대로 방치하면 지역정체성마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으로 내 몰리고 있다. 반면에 역설적이지만 새로운 계층, 새로운 사람들이 어울리면서 다양한 문화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오히려 더 커졌다.

문화란 옛것을 통해 새로움을 창조하는 과정이다. 전통문화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유 문화를 말한다면 지금 이 시대의 문화는 전통을 기반으로 더 발전시키고, 더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하는 창조된 문화다. 이런 의미에서 ‘파주문화’는 파주사람들 손에 의해 가꾸어지고 다듬어진 파주만의 문화를 말한다. 파주사람들이란, 조상대대로 파주 땅에 뿌리를 둔 사람은 물론 앞으로 이 땅에 뿌리를 내릴 사람까지 포함한다. 전통은 이 땅을 지켜온 선조들로부터 왔고, 창조는 이 땅을 지킬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다. 전통이 독창성에서 왔다면 창조는 다양성에서 온다. 독창성과 다양성이야말로 ‘파주문화’의 원동력이고 지역 정체성을 지켜내는 에너지다.

플라스틱 바구니의 원형은 짚 풀로 엮은 종명이(종다래끼)다. 짚, 풀을 소재로 생활용품이나

* 파주향토문화연구소장, 행정학 박사

농기구를 직접 만들어 썼던 옛 농경문화의 유산이다.

파주에는 일종의 공, 사립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향교’와 ‘서원’이 여섯 군데나 있다. 울곡 이이선생이나 우계 성혼선생 같이 학문이 높은 경지에 이른 선현을 많이 배출했고 지금도 유림 활동이나 문인협회 활동이 활발한 것도 문향(文香)파주의 전통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파주만의 문화적 전통을 살리고 지역적 정서와 특성을 가미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일은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의 몫이다.

문화의 독창성과 다양성을 토대로 ‘파주문화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곳이 파주 문화원이다. 다행히 8년 전 파주문화원에 ‘향토문화 연구소’가 문을 열었다. 이 연구소는 명칭 그대로 파주 향토문화 연구와 지역사회 계발을 목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한다. 연구위원들은 파주의 문화유산을 답사하고 옛 문헌을 찾아내어 규명하는 일 외에도 전승되어 온 전설이나 민담 등을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주로 전통문화의 복원과 조명이라는 측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7차례나 발행한 ‘파주연구’지(誌)는 올 해부터 ‘파주문화연구’라는 이름으로 제호(題號)를 바꾸어 연구과제 발표와 함께 문화, 예술계 동향과 문화행사 등을 수록했다.

연구소는 앞으로 파주만의 고유한 전통을 찾아내서 그 바탕 위에 새롭고 신선한 문화적 기반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적·물적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이 분야에 도전적이고 창조적 사고를 갖춘 분들과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많이 참여 시켜야 한다. 조사 연구에 필요한 현장답사와 인터뷰, 연구과제 발표, 전문교육 등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 후원 그룹 또는 정부지원을 통해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한다. 누구보다도 파주문화에 관심을 갖는 시민들이 가장 확실한 후원자일 수 있다.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문화 사랑방’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시민들이 파주문화에 대해 흥미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世紀)’라는 말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파주는 훌륭한 문화유산을 자원화 하는 일에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한다.

파주문화는 곧 ‘파주브랜드’고 ‘브랜드’는 확실한 도시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파주문화원 부설 파주향토문화연구소 소개

◎ 연혁

- 2002년 2월 12일 1차, 3월 1일 2차 파주향토문화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예비모임
이윤희, 이동륜, 성희모, 오순희 4명
- 2003년 3월 26일 연구소 창립
파주문화원 정기총회에서 파주문화원 부설 파주향토문화연구소 설립인준
- 2003년 파주연구 창간호 출간
- 2003년 혜음원사지 발굴현장 첫 답사
- 2003년 5월 7일 [파주향토문화연구소] 다음카페 개설
- 2004년 9월 25일 율곡문화제---율곡사상 학술 심포지움
주제 : 율곡사상의 재조명을 통한 현실활용방안 모색
- 2004년 9월 24일~26일 율곡문화제 --파주의 옛모습 사진전
주제 : 그때를 아십니까? -파주인의 생활사. 파주변천사. 개인소장 사진
- 2004년 9월 24일 율곡문화제--- 파주3현 유적답사
황희모-반구정-화석정-율곡리마을-윤관묘-자운서원
- 2005년 박지연, 박제가 서거 200주년, 광복 60주년 여행루트 다녀옴(성희모)
과천문화원 추사세미나 참석
- 2006년 2월 최부의 [표해록답사] 황산, 항주 다녀옴(이동륜, 오순희, 성희모)
6월 청계천 물길을 연 기념으로 창덕궁앞에서 월례모임
율곡문화제에서 국제학술회의(성균관대 오석원교수님 외)개최
- 2007년 2월 임진강 적벽따라 답사
7월 문수산성 및 이목 사당, 김포지역 답사
12월 개성 답사
- 2008년 2월 강화도 답사
6월 25일 이윤희 소장 이임, 우관제 소장 취임
- 2009년 8월 경기도 박물관 [임진강전] 및 정몽주. 조광조 묘 및 심곡서원 답사
11월 한탄강 영평팔경 유적지 답사
- 2010년 3월 도라산 영수암 및 도라봉수대 답사
8월 삼척 죽서루, 준경 묘 답사
10월 율곡사상 학술강연회

◎ 《坡州研究》목차

2003년 창간호

- 이윤희, 울곡의 향약관과 파주향약의 성격연구
- 이동륜, 파주지역 시비조사
- 성희모, 파평윤씨 정정공파 윤한용 생활사
- 오순희, 개목이 주민학살 진상조사
- 정현식, 파주의 시장연구- 문산장을 중심으로
- 문성수, 대성동 마을 연구

2004년 2집

<울곡학술 심포지움 발표논문>

- 윤사순, 울곡유학의 실학적 성격
- 황의동, 울곡의 경세사상
- 김무진, 울곡향약에 대하여

박경안, 고려시기 월령의 보급과 풍속

이윤희, 파주지역 출토 묘지석지문에 대한 고찰

이동륜, 고시조와 파주문학의 정체성

성희모, 일상의례에 관한 연구

우관제, 파주 금산리 농요와 두레놀이에 대한 고찰

2005년 3집

이윤희, 고려벽화 묘 출토 권준 지식 고찰

이동륜, 파주지역 관련 한시 조사 연구

성희모, 옛의주로 연행노정에 관하여

오순희, 최경창과 홍랑 문학연구

이기형, 감악산 설인귀 설화 고찰

우관제, 풍수로 본 명당- 황희 묘와 윤관 묘

문성수, 파주 임진강 유역 철새연구

이기형 파주시 학교 민속교육의 실태와 과제

2006년 4집

19회 울곡문화제 울곡사상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오석원, 울곡의 생애와 사상

山内弘一, 울곡사상에 대한 평가와 그 역사성에 대하여

리기용, 울곡 이이의 실리와 실심

張 敏, 울곡사상의 실학적 특징

이행훈, 울곡과 禮教

이윤희, 고대국가시기 임진강유역 관방유적 체계
 이동륜, 송익필의 삶과 시에 대한 고찰
 최봉희, 파주지역 고전시가에 나타난 풍류성 고찰
 성희모, 종계변무를 성공시킨 정사 황정욱과 역관 홍순언에 대하여
 정현식, 근대 파주지역 궁술대회 신문기사 자료조사
 권효숙, 파산학파에 대한 소고
 신춘호, 오래된 기억의 옛길, 연행노정
 특별기고, 강근숙, 파주지역 능, 원 금석문 자료조사
 해외답사기, 오순희, 최부의 표해록을 따라서

2007년 5집

박경안, 여말선초 순흥안씨의 파주농장에 관하여
 이윤희, 분수원 산송에 대하여
 이동륜, 김덕함의 삶과 성옹유고 소고
 기진오, 파주의 독립운동과 기독교 정신의 영향관계 고찰
 최봉희, 파주지역 구전설화 연구
 성희모, 차의 역사와 파주의 다인들
 해외답사기, 오순희, 개성관람기

2008년 6집

우관제, 고려 통일대전 건립현황과 그 의의
 이윤희, 공릉천 명칭에 대한 소고
 이동륜, 화석정 현판문 및 한시조사
 성희모, 매죽헌 성삼문 일가에 대한 파주지역 연관성 고찰
 오순희, 파주지역의 극장 변천사
 김성수, 파주의 봉수대
 최봉희, 파주의 누정고찰
 권효숙, 파주세거성씨의 입향과 정착과정
 권혁임, 파주시 상수도의 역사와 현황

2009년 7집

우관제, 사라져가는 것들, 잊혀져가는 것들- 전통장례와 상여
 이동륜, 가림세고와 파주의 연관성 조사
 성희모, 화폐와 파주의 연관성
 오순희, 파주에 소재한 작고문인 유택조사
 권효숙, 파주지역 墳庵연구
 이진숙, 조영석이 조선후기 풍속화에 미친 영향
 김선희, 파주시 조선시대 왕족관련 유적조사
 이덕형, 경기도 파주의 인물 헤빈정씨를 세상밖으로

◎ 파주향토문화연구소의 활동 모습



2007. 2. 문산읍 대원군묘 있던 자리 답사



2003. 울곡사상 학술 심포지움



2007. 2. 재인폭포<임진강 적벽따라 답사>



2007. 7. 김포와 강화 답사



2007. 7. 김포 통진향교 답사



2007. 7. 문수산성 답사



2008. 2. 강화도 고려왕릉 답사



2007. 12. 개성지역 답사



2009. 8. 용인지역 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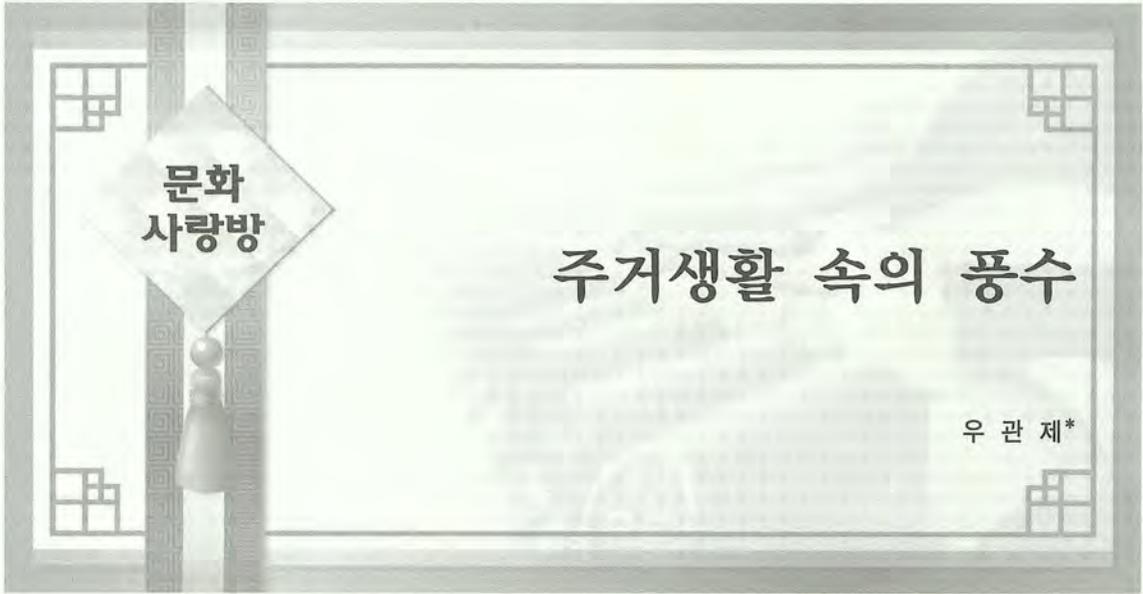
2010. 8. 삼척 준경묘 답사



2008. 8. 삼척 죽서루 답사



2010. 10. 올곡사상학술강연회



옛날에 상고시대의 사람들은 집을 잘 꾸며 조영(造營)하는 것이 아니라 토혈(土穴)이나 동굴 속이나 들판에서 살았다.

주로 열매나 조수(鳥獸)의 고기를 먹고 살았고 겨울에는 동굴에서 살고 여름에는 증소(楡巢)에서 살았다.

세월이 흘러 땅을 파고 사는 것을 영굴(營窟)이라 하고 잡목(雜木)이나 섶으로 만든 보금자리를 증(楡)이라 하고 수목(樹木)으로 만든 보금자리를 소(巢)라 부른다.

역(易)에 의하면 왕(王)은 궁실(宮室)에서 살고 주민들은 우(宇)에서 사는데 우(宇)가 집이다. 양택을 구체적으로 따져 해석 해본다.

- | | | | |
|--------------------------|-------------------|------------------------|------------------|
| ○혈(穴)→굴 | ○가(家)→집 | ○택(宅)→가택 | ○호(戶)→방이 2개 있는 집 |
| ○옥(屋)→지붕이 있는 집 | | ○실(室)→여러 방이 있을 때 실이라 함 | |
| ○사(舍)→관사 | ○관(館)→사저, 저택, 관사 | | ○당(堂)→마당을 갖춘 곳 |
| ○전(殿)→높고 큰당, 전각 | ○궁(宮)→궁전 | | ○각(閣)→뜰에 있는 누(樓) |
| ○헌(軒)→난관 판을 이룬 집 | ○정(亭)→나그네가 쉬는 곳 | | |
| ○제(齋)→자연과 어울리는 집 | ○누(樓)→다락 형태의 2층 집 | | |
| ○대(臺)→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곳(청와대) | | | |

위와 같이 고위층과 하위층의 생활 하는 집의 형태를 나열해 보았다. 지금은 당사(堂舍), 가택(家宅), 서실(書室), 대문(大門)을 따지고 길흉(吉凶)을 따지고 풍수지리(風水地理)를 검증하고 방위를

* 파주문화원 부원장, 한국현문풍수지리학회 운영위원장

보고 양택(陽宅)의 생활(生活)에 접하는 길이와 기(氣), 침각충사(尖角衝射), 저축(貯蓄)의 방법, 주방(廚房)의 풍수(風水), 변소(便所)의 풍수(風水)로 통하여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일반상식으로 참고하고 경험하여 보탬이 될까 몇자 적어봅니다.

길이가 길흉(吉凶)으로 기(氣)를 부른다.

많은 사람들은 방위(方位)에 길흉(吉凶)이 있다는 것은 알면서도 길이에 길(吉)과 흉(凶)이 있다는 것은 별로 알고 있지 않다. 실제로 모든 물건의 그 길이에도 길흉이 존재한다.

문(門)과 현관(玄關), 창(窓), 가구(家具)등의 길이에도 길흉이 존재한다.

재액(災厄)을 초래(招來)하게 된다고 한다. 길이의 길(吉)과 흉(凶)은 약(約) 43cm를 8분할(分割)해서 4개(個)의 길촌법(吉寸法)과 4개의 흉촌법(凶寸法)으로 나누워진다.

일반(一般)m 척(尺)은 정확(正確)하게 측정(測定)하는데는 어렵다. 노반척(魯班尺)은 풍수(風水)의 척(尺)이기 때문에 풍수의 물건을 측정시에는 노반척(魯班尺)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다.

노반척(魯班尺)은 2종류로 되어있다. 이것이 주택용(住宅用)과 분묘용(墳墓用)의 두 종류로, 길이의 길흉(吉凶)을 판단(判斷)하기 위한 것으로써 적자(赤字)는 양택용(陽宅用)이고, 흑자(黑字)는 음택용(陰宅用)이 된다.

길의 길이	
本	(財運, 登科, 進寶, 興旺) 문(門), 현관(玄關), 창(窓)등 장소(場所)를 불문하고 행운(幸運)을 주는 길이. 재운(財運), 학업운(學業運), 출세운(出世運)에 효과(效果)가 크다.
官	(橫財, 順科, 進益, 富貴) 옥내(屋內)의 문이나 그 길이를 이용하면 학업운과 출세운이 상승한다. 대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옥외)
義	(添丁, 貴子, 大吉, 富貴) 침실(寢室)에 사용하면 자보(子寶)에 혜택(惠澤)을 받으며 싱크대, 부엌의 가구와 도구, 음식점의 주방(廚房)에 권장하는 치수

길의 길이	
財	(財德, 寶庫, 六合, 迎福) 옥외(屋外)의 문(門)을 이 길이로 한다면 재운(財運)을 부를 수 있는 캠블이나 복권에도 효과적이다.

凶의 길이	
病	(孤寡, 牢執, 退財, 公事) 옥외(屋外)의 문(門)이나 현관(玄關)에는 흉(凶)한 길이. 그 외(外)의 타입구(他入口)는 문제(問題)가 없다. 변소의 출입문(出入門)에는 길(吉)하게 전화(轉化)됨.
離	(失脫, 官鬼, 獄庫, 劫財) 옥외(屋外)의 문(門)에는 가장 금기. 남녀간(男女間)과 사업상(事業上)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금전적 손실(金錢的 損失)을 암시(暗示)한다.
劫	(失財, 離鄉, 退口, 死別) 모든 것이 빼앗겨 없어지는 길이. 어떠한 장소에도 상용하지 않도록 “해(害)”와 겸용되는 것은 절대금물

凶의 길이	
害	(口舌, 病臨, 死絕, 災至) 여러가지의 재앙(災殃)을 가져오는 흉(凶)한 길이 현관(玄關)에는 사용(使用)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必要)한 길이.

길에서 판단(判斷)하는 가옥(家屋)의 길(吉)과 흉(凶)

풍수(風水)에 있어서 길(吉)과 흉(凶)은 많은 사람들이 방위(方位)에만 극한(極限)되어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사용하는 도구(道具)에서부터 각 방위의 문(門)과 창문(窓門), 침대(寢臺)의 길이와 높이 까지도 전부 길(吉)과 흉(凶)이 방위(方位)처럼 중요한 요소(要素)임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물건의 길이가 길흉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은 모른다. 특히 현관이나 책상 그리고 창문은 가옥의 일부가 되어 있는 부분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풍수자(風水尺)를 이용(利用)한 길(吉) 흉(凶)을 가릴 줄 알아야 한다. 길이의 길흉(吉凶)은 43cm을 하나의 단위(單位)로 「재(財), 의(義), 관(官), 본(本)」이라고 하는 4개의 길촌법(吉寸法)과 「병(病), 리(離), 겁(劫), 해(害)」라는 4개의 흉촌법(凶寸法)으로 나누어 진다.

음택은 풍수자(風水尺)에서 위 부분을 사용하고 양택(陽宅)은 아랫 부분인 길(吉) 흉(凶)을 선별하여 사용한다.

첨각충사(尖角衝射)의 살

각(角)이 있는 것과 첨(尖)이 있는 것은 기(氣)의 흐름을 혼란케 하는 원인(原因)이다.

유형(有形)의 흉작용(凶作用)과 무형(無形)의 흉작용(凶作用)이 있다.

풍수(風水)의 실전(實戰)에 중요시(重要視)하는 것은 방위(方位)이다. 방위(方位)의 길흉(吉凶)만을 가지고 풍수(風水)의 환경(環境)에 알맞은 집을 지을 수 없다.

풍수(風水)에는 [형(形)과 리(理)] 2종류(種類)의 길흉판단(吉凶判斷)의 방법(方法)이 있다.

[형(形)]은 주위(周圍)의 건물(建物)과 도로(道路)등 눈(目)에 보이는 것에서 길흉(吉凶)을 판단(判斷)하고, [리(理)]는 방위(方位)와 본명괘(本命卦)등 눈(目)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길흉(吉凶)을 판단(判斷)하는 것이다.

[리(理)]로 방위(方位)만을 가지고 기(氣)를 배합(配合)하는 것만 아니라 [형(形)]에도 주의(注意)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첨각충사(尖角衝射)]는 가(家)와 인(人)에게 흉(凶)을 가져온다.

[형(形)]은 [형상(形狀)]을 가지고 있는 살기(殺氣)라는 뜻으로 [첨각충사(尖角衝射)]라는 말로 표현(表現)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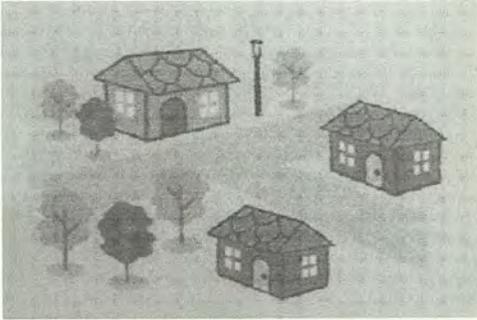
풍수(風水)는 기본적인(基本的)으로 尖物(뿔죽함), 각(角)이 있는것 刺(찌름, 찌를 자) 충(衝)하는 것을 흉(凶)으로 본다. 우리들의 생활(生活)속에서 옥외(屋外)와 옥내(屋內)에 관계없이 [첨각충사(尖角衝射)]는 다양한 종류(種類)가 있다.

주위(周圍)의 건물(建物)과 도로(道路)에서 발생(發生)하는 살기(殺氣)에 관해 나열한다. 풍수(風水)의 효과(效果)가 좋지 않을 때에는 한번 확인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도로와 건물의 첨각충사(尖角衝射)

1. 丁字路의 沖殺

道路에서 집을 向해 들어오는 殺氣, 小路에 세워진 家屋도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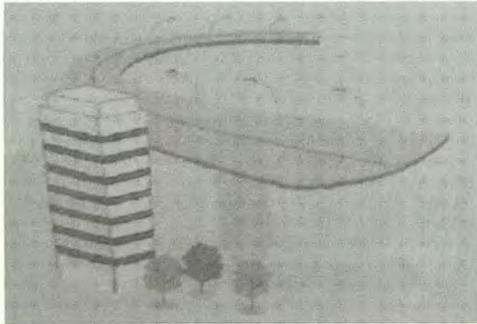
2. 道路의 커브의 外側

道路가 弓射 처럼 되어 外側面에 있는 家屋은 殺氣를 받는다. 內側은 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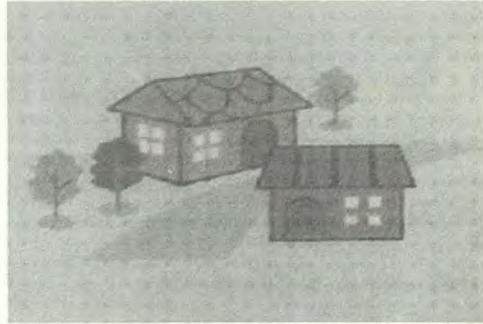
3. 高速道路의 커브 外側

칼(刀)로 자르는 것과 같은 殺氣, 특히 같은 높이의 層은 凶作用이 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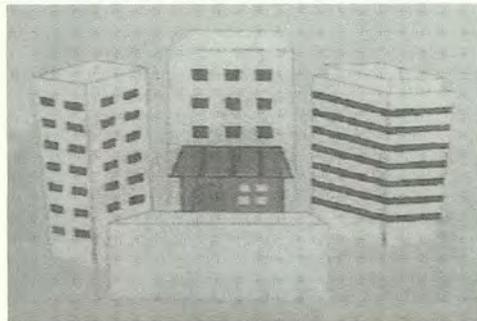
4. 建物の 角이 자기 집을 向하고 있을때

[尖角衝射]의 典型, 精神的으로 不安하다. 角이 入口를 向하지 않는다면 凶作用은 輕減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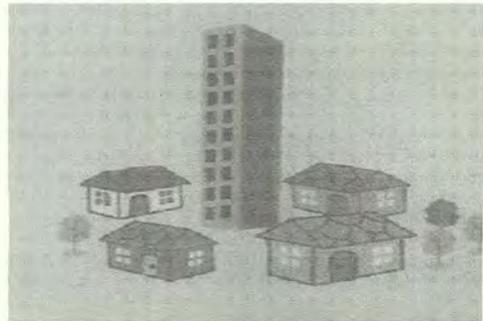
5. 四方이 高層建物로 들어서 있을때

四面楚歌의 土地가 된다. 採光, 通風, 惡化로 心身이 惡影響을 받으며, 周圍로부터 孤立되기 쉽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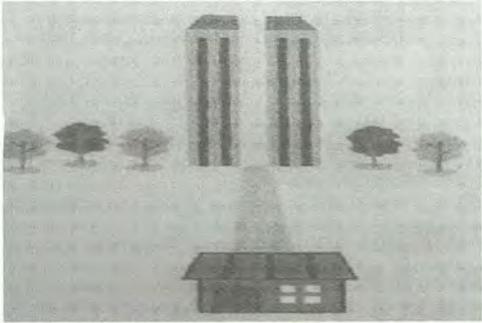


6. 住宅地의 中央에 하나만 있는 高層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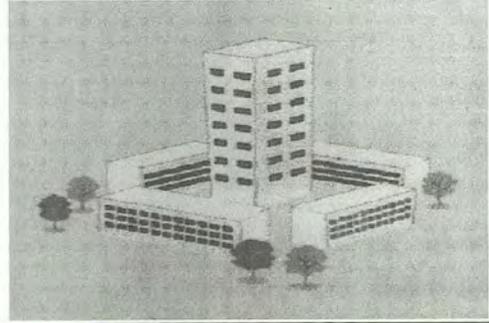
낮은 家屋들의 中心部에 高層빌딩은 運氣를 받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貧乏暇象(가난함을 다룬다)는 상황(狀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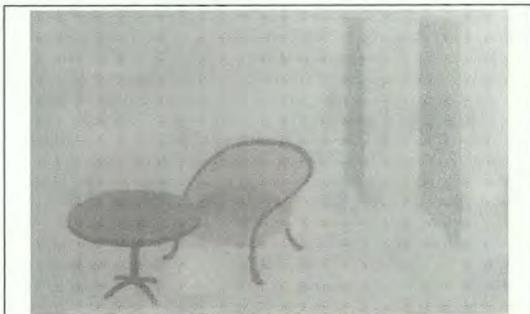
7. 高層建物の隙間(틈)の正面에 있는 家屋
칼로 자르는 것과 같은 殺氣가 있다. 強風の 影響을 받기
쉽다. 두 建物の 틈이 좁을수록 凶은 강한 殺氣를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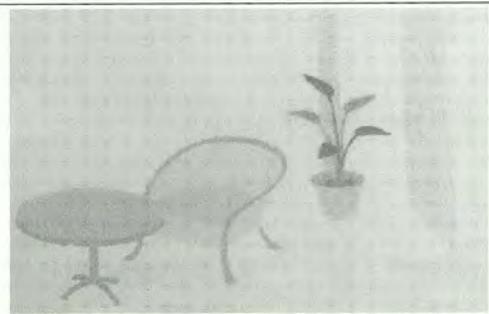
8. 周圍에 낮은 建物が隣接되어 있는 高層建物
낮은 建物が 四方에 감싸 있는 형상은 타 건물보다
눈에 띄기 쉽다. 협조성이 결핍되고 浪費가 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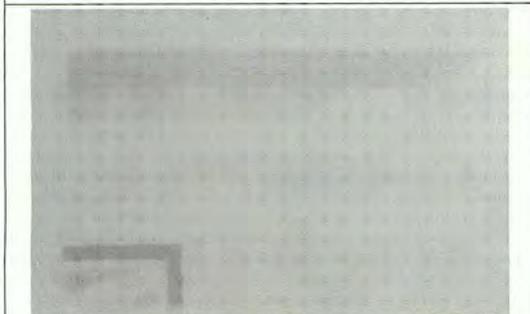
첨각충사(尖角衝射)의 개선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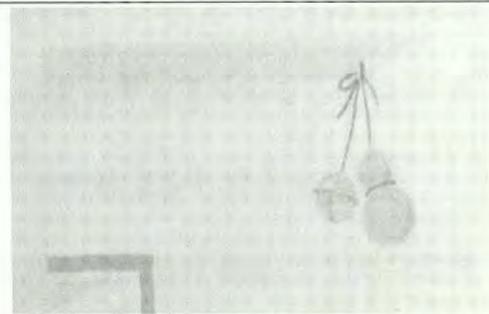
柱(기둥) 角이 사람을 향하고 있으면
실내의 기둥과 가구의 모서리가 사람이 항상 앉아있는 곳
을 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心氣가 흔들리는 원인이 되어
惡作用을 받게된다.(노이로제)



觀葉植物 장식으로 防止
柱角의 부분에 観葉植物을 넣어서 直射하는 亂氣를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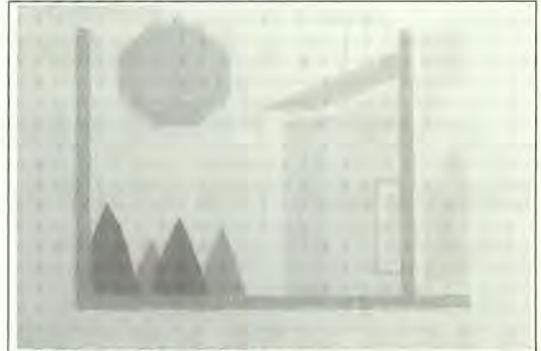
天井에 커다란 樑이 있으면 天井의 대들보가 家内에서는
제일 주의하여야 하는 尖角衝射. 가족안에 있는 것이 특히
영향력이 크다.



鈴이 달린 호로병 장식으로 防止.
邪氣(사기)를 防止하는데 效果있는 鈴과 호로병 박으로 장
식된 제품을 기둥과 대들보의 접하는 부분에 장식하여 壓
殺(壓殺)을 방지하거나 대금을 八字로 장식하여도 좋다.



근접한 건물의 角이 창을 통해 直射
窓門에서 밖을 볼때 근접한 건물의 角面이 창문을 통하여 자기집으로 향하고 있으면 尖角衝射(침각총사)의 殺氣의 영향을 받게 된다.



八卦鏡을 장식하여 防止한다.
風水의 물품중에서 八卦鏡이라는 거울을 隣家를 향해 장식하면 악영향을 방지할 수가 있다.

저축(貯蓄)의 방법(方法)

금전(金錢)이 저축(貯蓄)되지 않는 원인은 누재택(漏財宅)에 있다.

1. 커다란 가구(家具)는 금고(金庫)와 같은 존재(存在)

특별히 소비성(消費性)이 심한 것도 아닌데 좀처럼 돈이 모아 지지 않는다면 한번쯤 집안의 풍수를 확인 해보는 것이 좋겠다. 돈이 모아 지지 않는 곳은 가옥의 내부에 누재택(漏財宅)의 원인을 생각외로 모르고 있을 때가 많다. 누재택(漏財宅)이란 글자 그대로 財(돈)이 漏(셀루)한다는 말이다. 즉 돈이 어딘가에서 새고 있다는 뜻이다.

“나는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저축(貯蓄)은 늘어나지 않는다”하는 집은 먼저 옷장과 가구(家具)의 배치(配置)를 확인하면 문(門)과 창문(窓門)에 가구(家具)인 옷장과 이불장이 대면(對面)하게 배치(配置)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두고 누재택(漏財宅)이라고 한다. 풍수(風水)에서는 커다란 가구(家具)는 재(財)를 의미(意味)한다.

이것을 창문(窓門)과 도어를 마주보고 있게 배열(配列)하면 이것은 돈(財)이 도주(逃走)한다고 한다.

2. 현관(玄關)을 열면 바로 보이는 창(窓)은 금물(禁物)

가옥의 현관을 열면 정면에 창문이 있게 되면 이것이 누재택(漏財宅)이 된다.

이는 현관을 통(通)해 들어온 기운(氣運)이 창문(窓門)을 통(通)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이는 금운(金運)의 혜택(惠澤)을 받을 수 없다.

똑 같이 현관을 열면 이층(二層)으로 오르는 계단(階段)이 있으면 풍수학(風水學)에서 좋지 않게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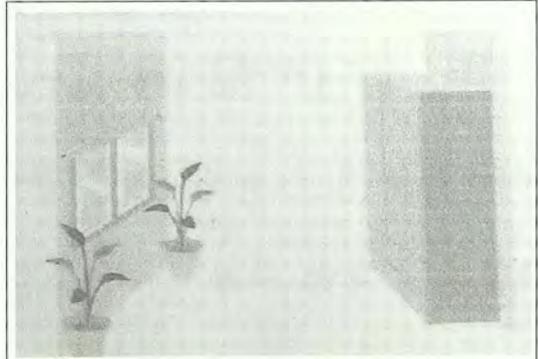
좋은 운기(運氣)가 이층계단(二層階段)으로 빠져 일층(一層)의 기운(氣運)은 부족(不足)하게 되므로 가중(家中)의 기(氣)바란스가 붕괴(崩壞)되어 금운(金運)의 변동(變動)에 커다란 지장을 가져 온다.

누재택(漏財宅)을 개선(改善)하는데는 가구(家具)와 창문(窓門)사이에 또는 현관(玄關)과 창문(窓門)사이 관엽식물(觀葉植物)을 놓는 것과 수정(水晶) 옥호(屋號)와 같은 천으로 된 “발”을 설치(設置)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처럼 하면 가중(家中)의 기운(氣運)이 변하여 財(금전)의 누재(漏財)되는 것을 방지(防止) 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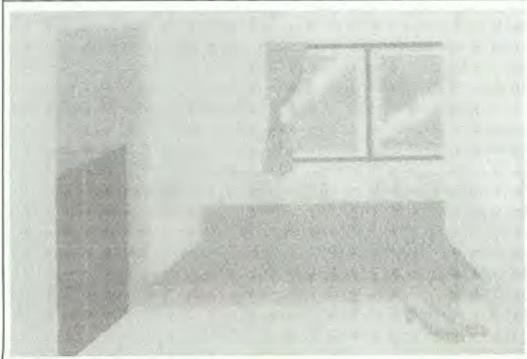
누재택(漏財宅)은 이렇게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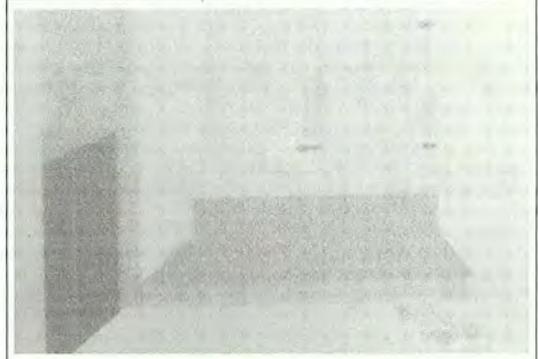
窓을 향해 옷장이 놓여 있을때 옷장과 캐비닛은 풍수에서 是 財를 의미하는 물건이다. 이것이 창문을 향해 있으면 재물이 도망간다.



관엽식물을 창 양쪽에 놓고 氣의 흐름을 變化시킨다. 창문의 양측에 관엽식물을 두면 창문으로 빠지는 氣의 흐름을 막을 수 있다.



현관을 열면 정면에 窓이 보이면 창문과 현관이 일직선에 있다면 현관에서 들어온 氣가 家屋의 내부를 회전하지 않고 그대로 창문으로 빠져나간다.



屋號(형질의 발 : 옥호)를 설치. 현관 바로 앞에 屋號와 같은 형격으로 된 발을 설치하거나 대나무로 만든 두둑 병풍을 설치하여 현관에서 창문이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창문의 양쪽 측면에 양란(蘭)을 놓는다.



현관을 들어서면 바로 이층계단이 정면에 보이면 현관에 들어온 기(氣)가 그대로 이층계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일층의 기는 부족하므로 발란스가 변화되어 기가 나쁘다.



계단 상부층에 거울(鏡)을 걸어둔다. 계단을 다 오른 장소에 거울(평면거울)과 같은 반사경을 설치하여 기가 확산되어 가옥의 내부에 회전(回轉)이 되도록 해준다.

주방(廚房)의 풍수(風水)

주방(廚房)의 변화(變化)로 운기(運氣)를 활발(活發)하게 하자

주방(廚房)은 금운(金運)과 건강운(健康運)에 커다란 영향(影響)을 준다. 수(水)와 화(火)를 함께 다루는 곳이라서 무척 난기(亂氣)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이다. 수(水)의 요소(要素)를 적당하게 사용하면 기(氣)의 바란스가 호전(好轉)되어 운(運)의 문이 열린다.

가스레인지와 전자레인지는 화(火), 싱크대와 냉장고는 수(水)를 말한다.

수(水)와 화(火)를 동시에 취급함으로써 기(氣)의 바란스가 파기(破氣)되기 쉬운 장소이다.

기본적(基本的)으로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전기오븐과 냉장고, 싱크대는 인접(隣接)하면 좋지 않다. 가능한 가까이에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칼이나 조리기구(調理器具)는 보이지 않는 장소에 수납(收納)하도록 하고, 사용한 식기류는 방치하는 것은 절대 엄금(嚴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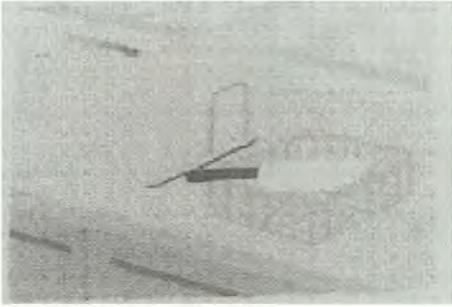
개운(開運)의 포인트

더러워진 주방은 운기(運氣)를 저하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매일 매일 정리정돈(整理整頓)은 마음을 쓰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 주부의 행복과 매우 밀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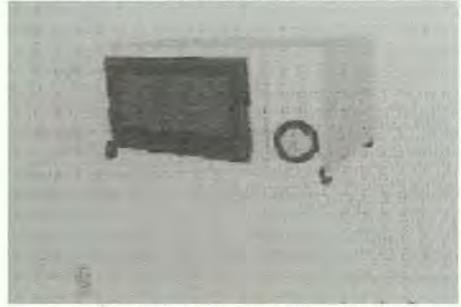
쓰레기통은 냄새가 없도록 뚜껑을 사용해야한다. 화기(火氣)와 수기(水氣)가 상극(相剋)이 되지 않도록 목기(木氣)를 활용, 관엽식물(觀葉植物)과 생화(生花)로 장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조리기구가 더러워지면 금운이 저하된다. 밥통, 프라이팬, 냄비 등은 더욱 청결하게, 부엌에 플라스틱 제품은 절대금물(화기를 강하게 하는 물건).

주방(廚房)의 흉기(凶器)를 알자



- 사용하고 난후 방치된 칼
尖殺이 있는 물건은 殺氣를 放出하는 원인이 된다.
사용하지 않을 시는 보이지 않도록 칼집에 넣어 두도록 함이 좋다.



- 냉장고 위에 전자레인지 氣의 바란스가 어지럽게 한다.
냉장고 위에 토스트기와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등을 올려놓는 것은 水化相兇의 원인으로 亂氣를 발생한다.
사이에 나무 널판을 사용하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서로 마주 보도록 하는 것도 나쁘다.



- 뚜껑이 없는 쓰레기통
더러운 쓰레기가 냄새를 발생하면 풍수에 가장 큰 敵이다.
쓰레기통은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많은 쓰레기가 모여 있으면 또한 運氣는 저하된다.
가능한 통이 가득 차기 전에 청결하게 버리는 것이 운기를 상승시킨다.



- 더럽고 정리 안된 싱크대
모여 있는 水는 陰의 氣가 된다.
사용한 식기를 그대로 방치하는것 만큼 흉한 것은 없다.
식기는 바로 바로 청결하게 정리정돈에 마음 쓰도록 함이 좋다.

변소(便所)의 풍수(風水)

더러운 물이 모인 장소에 있는 변소는 건강운(健康運)과 가정운(家庭運)에 커다란 영향력(影響力)이 있다. 기본적으로 청결(清潔), 따스한 온도, 밝은 조명 그리고 환기(換氣)로 변소 풍수를 만들면 가족의 건강(健康)을 높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 환기(換氣), 조명(照明)으로 변소의 풍수를 호전되도록 풍수환경(風水環境)을 정리(整理)하므로써 건강운(健康運)과 가정운(家庭運), 그리고 금운(金運)등 여러 가지 작용(作用)되는 기(氣)흐름이 호전(好轉)될 수 있다.

추위, 어두움, 악취등과 같은 변소의 터-브 작용의 요소를 감안하지 않으면 後回(다시작업)하

는 일이 생기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방시설의 조명, 악취제거, 다른 방(房)보다도 더욱 신경을 쓰게 된다.

처음부터 변소의 인테리어는 밝고 따스한 색으로 선택함이 좋다.

핑크색의 계통과 그린색이 이상적이지만 5가지 색이 함께하는 변소는 주인의 무릎관절에 이상을 가져오는 실례를 많이 보아왔다.(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색(原色系)은 기(氣)의 흐름을 어지럽게 한다.

차가운 색은 피하는 것이 좋다. 청색이나 검정색은 색이 차가운 색이기 때문이다. 소취제(消臭劑)도 필수(必須)제품이다. 그린 계(系)의 프로-랄향(香)은 행운(幸運)을 부른다. 벽(壁)에 달력을 거는 것도 좋지만 가능한 관엽상의 식물을 놓아두면 침체된 변소의 기(氣)를 좋게 하는데 도움 된다.

무엇보다도 가족의 본명성과 십이지지상(十二地支上)에 변소는 금물이다. 더불어 자오묘유(子午卯酉)의 정중선상(正中線上), 건곤간손(乾坤艮巽)의 선상(線上), 곤궁(坤宮)과 간궁내(艮宮內)에 변소는 엄금(嚴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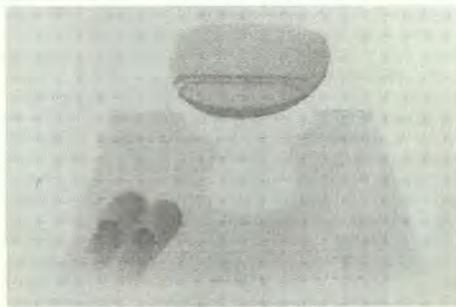
변소의 凶氣를 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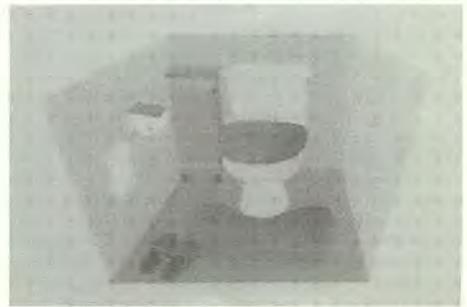
■ 변기 뚜껑이 항상 열려 있는 것
변기 속에 水는 風水學에서는 死水가 된다. 사용하지 않을시는 반드시 便器의 뚜껑을 덮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 변소에 창문이 없는것
窓이 없는 변소는 風水에서 가장 凶하다고 한다. 항상 환기창을 回轉시키는 것이 좋다. 창문이 없는 변소는 水晶을 놓아두면 運氣가 好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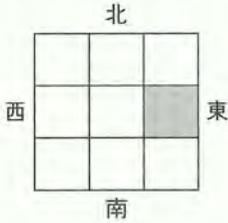
■ 밑바닥에 카페트가 없는것
매트에는 陰氣를 吸收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변소내 전용 슬리퍼는 室内 슬리퍼와 共用 하지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어둡고 차거운 변소
運氣란 밝고, 청결하며 따스한 場所에 集合된다. 더러운 변소는 運기가 올 수가 없다. 매일매일 청소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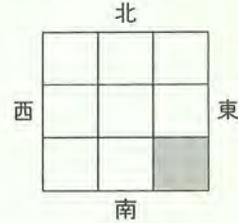
方位로 變하는 어린이의 性格

東의 어린이의 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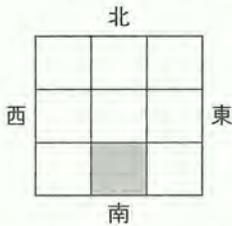
長男의 方位로서, 男子 어린이에게 적당하다. 성장과 희망을 의미하는 方位로 명량, 활발하고 솔직한 성격으로 성장한다. 다만 缺陷이 있는 房은 凶作用 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東南의 어린이의 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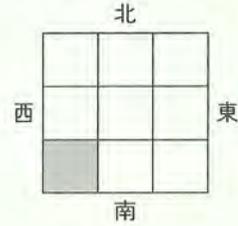
長女의 方位로서 女子 어린이에게 적당하다. 애정과 행운을 의미하는 方位로 밝고 아름다운 성격으로 양육된다. 공부면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 공부 책상을 北쪽에 놓으면 집중력이 높다.

南의 어린이의 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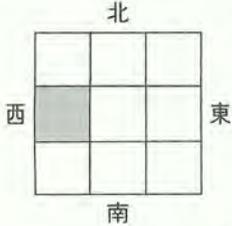
次女의 方位로서 큰 부작용은 없다. 놀기를 좋아하고 침착한 성격으로 육성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공부는 의욕이 부족하다. 창문을 작게하고 차광(遮光)에 만전을 기하면 運氣가 好轉된다.

西南의 어린이의 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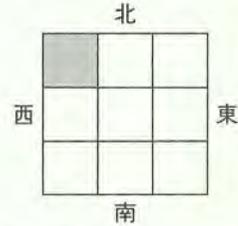
母親의 方位로 어린이의 房으로는 적당 하지 못하다. 지속력이 결여 되고 심신이 허약한 어린이로 자라게 될 가능성이 높다. 소녀가 사용하면 凶意가 적다. 男子아이가 사용하면 적합하지 못한 방위이다

西의 어린이의 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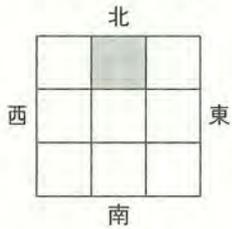
少女(三女)의 方位. 길흉이 분산되기 쉬워 명량하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성장하지만 공부에는 집중력이 결여 된다. 西光의 遮光對策과 정리정돈에 주의하면 行운도가 높아진다.

西北의 어린이의 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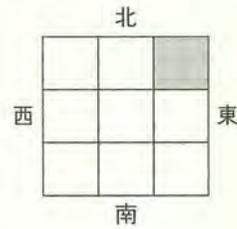
父親의 方位. 어린이의 房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물 親子의 力關係가 逆轉된다. 또한 지립심을 養育할 수 없어 언제나 父親에 의존하게 되는 성격으로 성장되기 쉽다.

北의 어린이의 房



次男의 方位로서 어린이의 房으로 적당하다. 더욱 공부하는 집중력이 우수하고 높다. 반면 성격이 온순하여 활동성이 부족한 것이 결점이다. 방한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東北의 어린이의 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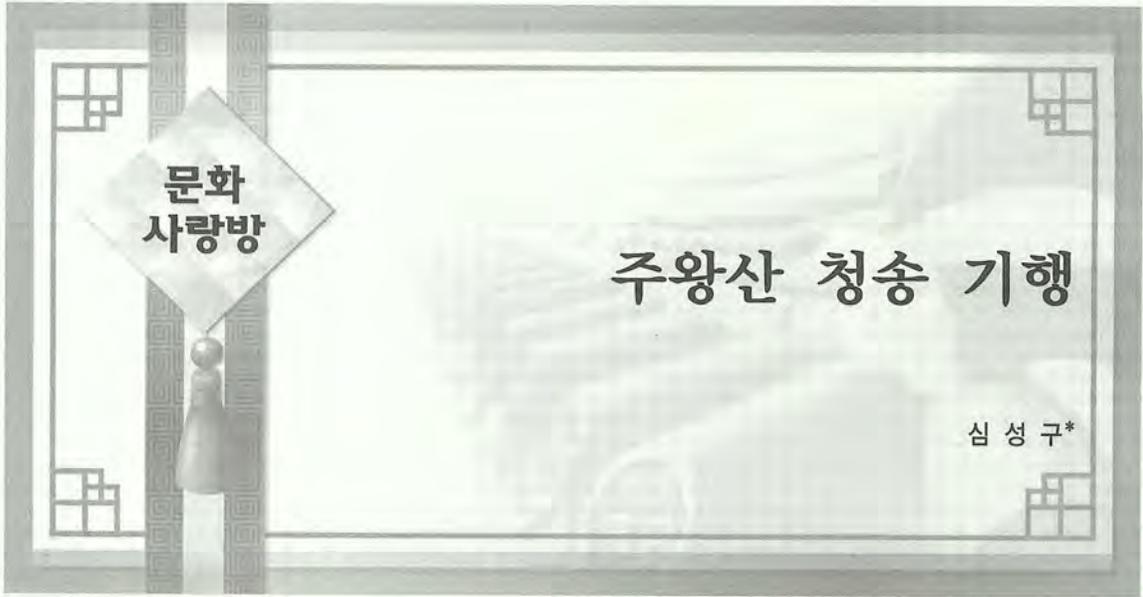
三男의 方位 家相으로 鬼門이라고 해도 어린이의 房으로 문제가 없다. 건강하게 독립심이 강한 성격으로 성장한다. 더욱 西四宅인 本命星의 어린이는 吉作用이 강하게 된다.

요즘은 생활양식이 아파트 생활구조로 많이 바뀌고 있으며 옛날에는 안방, 사랑채, 뒷채 여러 행태로 생활터전을 빈부의 정도에 맞춰 집을 지어 생활했다.

날로 바뀌는 생활 패턴에 맞추어 길이와 층각, 저축방법, 주방, 변소의 풍수를 참고하여 유익한 생활을 했으면 하며 다음 기회에는 조경풍수를 수록하기로 하겠다.

◎ 참고문헌

- 한국현문풍수지리학회
- 소암풍수지리연구소



필자는 청송 심문의 25대손으로 세종대왕시절의 좌의정이신 심덕부 조상님의 후손이다. 경상도 국립공원 청송의 주왕산 심문의 시조인 유적묘소를 45년전 아버지를 따라 처음으로 가보고 그 뒤로는 아주 많이 다녀온 적이 있었다. 청송의 주왕산 매력에 자주 찾아보게 된 것이다.

청송의 주왕산(가메봉:882m)의 풍치의 아름다움을 안내하고자 한다.

여름철 주왕산에 흠뻑 젖어 있는 폭포의 형용 할 수 없는 시원한 물줄기, 그 계류를 향하는 주왕산의 절골계곡과 주산지, 달기약수터, 달기폭포, 주왕산 온천, 청송자연휴양림, 백석탄, 청송 얼음골, 약수터, 인공폭포 등 여러 곳 중에서도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주왕산 국립공원이다. 골짜기에는 둥글게 모두 돌로 되어있어 마음과 눈을 휘둥그러지게 하며 샘과 폭포가 절경이다. 참으로 극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경이로운 멋진 산, 조선팔경에도 꼽힌다고 한다.

특이한 기암과 맑은 계류에 반하고, 평평한 곳에는 매표소가 있어, 주왕암과 주왕굴을 거쳐 내운동 마을까지 걸어도 좋으리라 생각된다. 국립공원에는 차량이동은 불가능하였다. 청송의 산행시작은 주차장에서부터다. 매표소를 지나면 대전사 절집을 지나게 된다. 절집 뒤편에는 기암이 보인다. 옛날 주왕이 세웠다는 전설과 주왕이 신라 마장군과 일전을 하였을 때 이 바위에다 지붕에 짚을 올려 두르듯이 하고 쌀뜨물을 흘려서 적을 현혹시켰다는 전설이 있다. 주왕산의 수문장다운 바위모양이다.

여기에서 대전사는 672년(문무왕 12년)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설과 919년(고려 태조2년) 눌웅이 창건했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다. 이 사찰에는 「주왕내기(周王內記)」를 보면 중국 당나라의 주도라는 사람이 후주천왕(後周天王)이라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당나라에 공격을 갔다가 크게

* 성균관전례연구원, 파주문화원 부원장

패하여 신라로 와서 주왕산에 숨었다고 한다. 이에 당나라가 신라의 주왕을 없애 달라고 부탁하자 마일성 장군 오형제가 주왕의 무리를 죽였다고 한다. 그 뒤부터 주왕이 숨었던 곳이라고 해서 주왕산이라 부른다.

‘대전사’의 절이름은 주왕의 아들 대전도군(大典道君)의 이름을 따서 나옹화상이 붙었다고 한다. 「신중동국여지승람」에서는 주방사(周房寺)라고 기록되어 있다. 임진왜란 때는 사명대사 유정(惟政)이 승군을 훈련한 곳이라고도 한다. 이를 증명해주는 곳은 보광전(보물 제 1570호). 임진왜란 당시 이여송이 사명대사에게 보냈다는 친필서신을 새긴 목판이 보관되어 있다. 이 사찰은 무(武)와 연관되어 있어 위용스러운 듯이 보였다. 건축물은 조선 중기에 불로 소실되었으며 후일에 다시 증창하여 오늘에 이른다고 한다. 멋진 주왕암이 이름나게 해주고 있는 것 같다.

절집을 지나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을 정도로 탄탄한 길이 나온다.

주방천의 맑은 계곡의 물 흐름은 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시원하다. 그렇게 대충 1300m 정도 걸으면 제1 팔각정 앞에 서게 된다. 여기에서 갈림길이 나오는데 어느 쪽으로 인지 결정해야 한다. 곧바로 직진하면 제1폭포로 이어진다. 오른쪽 길은 주왕암과 주왕굴 코스가 된다. 노약자가 아니라면 주왕암 코스를 선택할 것이다. 우측방향으로 가면 자하교를 건너게 된다. 경사도이지만 염려는 되지 않는다. 거리가 아주 짧다. 거리가 300m 정도로 짧다. 약간 다소 경사진 거리지만 견딜만하다. 하늘을 향해 있는 것처럼 가파르기도 하다. 여기서 주왕암 일주문이 보인다. 대전사 보다 먼저 의상대사가 세웠다는 암자가 있고 가파른 바위틈 사이에는 세 개의 건축물이 있다. 인기척은 없었다. 주왕굴이라는 팻말 따라 절 뒤켠으로 가보면 깎아지른 듯한 바위 위로 철 사다리가 있다. 아찔하기도 하다. 주왕이 신라군대를 피해 숨었다가 화살에 맞아 숨을 거두었다는 주왕굴. 숨을 헐떡거리게 할 정도로 경사가 있는 곳이다. 예전에는 아무 것도 없이 어떻게 올랐을까 궁금하기도 하다. 주왕이 갑옷과 무기를 숨겼다는 무장굴이 있다.

주왕암 가학루 앞에서 산길을 조금만 돌아가면 거리는 짧지만 가파르다. 제법 많이 돌기도 하는 길이다. 암자를 벗어나는 입구에는 ‘자연산책로’ 팻말이 있다. 이 산책로 길은 어린이가 걷기에도 좋았으며 평탄한 길이다. 사람이 적어서 걷기 좋은 길이었다. 도중에 전망대를 만나게 되는데, 하늘을 향한 급수대와 연화봉이 보이며 장군봉의 신록의 자태를 볼 수도 있다.

능선길을 지나면 제2팔각정 앞이 나오며, 오르던 길과 합류하던 곳에는 나무로 만든 계단으로 걸어서 200여 미터쯤 가면 웅장한 바위가 넓게 펼쳐져 있다. 바위 사이 협곡의 폭포수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려온다. 사방이 바위로 둘러져 있는 절벽 아래에는 흰 물줄기를 쏟아내면서 흐르는 천연적인 선녀탕이라는 구룡소가 큰 못처럼 되어 있다. 주왕산 제1폭포는 선녀폭포라고도 부른다. 낙차는 크지 않으나 거대한 암벽에서 폭포수 쏟아지는 소리는 제법 크게 들린다. 이렇게 멋진 풍경을 어디서 볼 수 있겠는가? 감탄사가 절로 나오게 하는 곳이다.

1킬로미터 정도 더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제2폭포(용폭포) 팻말이 서 있다. 200여 미터쯤 걸으면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이 있는 2단폭포를 볼 수 있다. 생각보다 웅장해 보이지는 않는다.

여기서는 물놀이를 할 수도 없는 곳. 그저 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하는 곳이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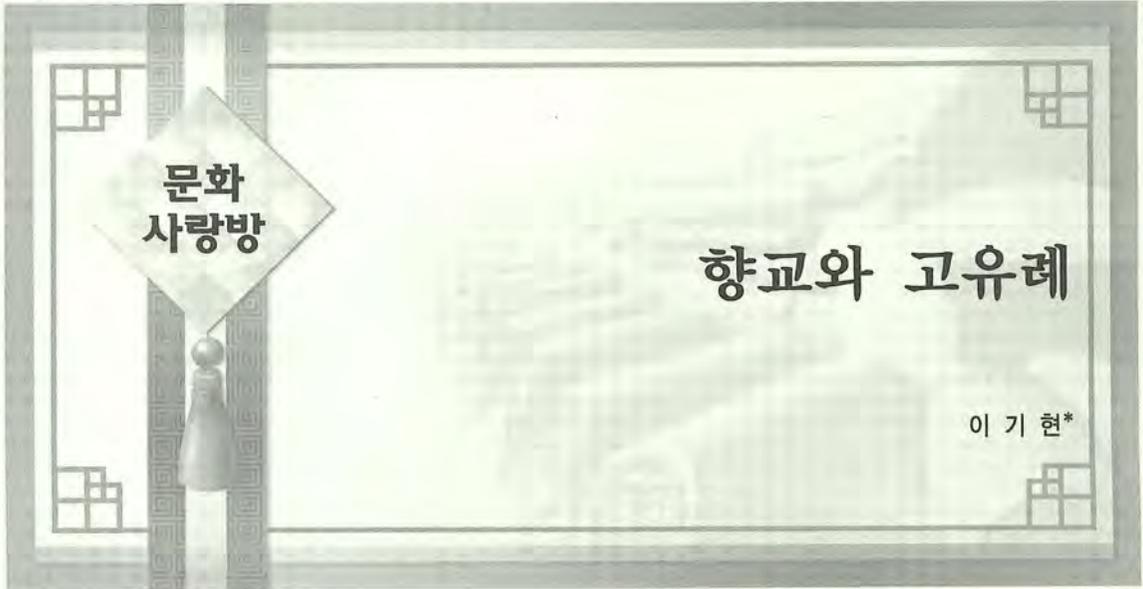
등산로를 따라 200여 미터 오르면 제3폭포는 도로 옆이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드물다. 제3폭포는 제2폭포보다 웅장하다. 일명 쌍폭포라고 한다. 전체 높이가 약25m 정도로 주왕산에서는 가장 크다. 두 개의 웅덩이 사이로 큰 폭포 작은 폭포가 어우러지며 한 폭의 수채화 같기도 하다. 물놀이는 금지구역이다. 상단과 하단에 각각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다. 보기만 해도 검푸른 웅덩이는 주왕산의 정기가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이 곳 등산은 좋지만 아직도 아쉬움으로 폭포를 지나면서 금은광이와 내온동 가는 길로 나누어진다. 금은광이 쪽으로는 달기폭포를 만나게 된다. 12미터 이상으로 보이며 낙폭으로 떨어지는 폭포는 웅장하게 멋지게 보인다. 찾아가는 길은 다르지만 달기폭포까지는 차량이동도 가능하다. 그래서 가벼운 여행을 하는 분은 대부분 내온동 마을을 선택하기도 한다.

청송의 마지막 오지 마을인 내온동은 제법 평평하게 주방천 최상류에 넓게 자리하고 있다.

폐교가 있는지 오래된 곳이기도 하다. 내온동 마을은 ‘전기없는 마을’이기도 하였다.

7가구 18명이 살았다고 한다. 대부분 등산객들에게 민박도 하며 살았다고 한다. 2007년 12월 마을은 철거되고 지금은 빈터만 남아 있는 곳이다. 하산길은 오던 길을 다시 되돌아 와야만 한다. 왕복거리는 10km 넘게 많이 걸어온 것 같다. 2010년 행복한 분위기의 주왕산 하루여행이었다.



파주시장 시·도의회 의원 취임 고유례 봉행

우리나라는 고려 말엽 중국 송나라에서 주자학이 도입되자 조선조 개국 이후 중앙에 성균관을 위시하여 각 고을 향교에 대성전과 명륜당을 설치하여 효를 바탕으로 하는 공자의 교리인 덕을 교화시켰다. 한편 중국 성현 7위(공자. 안자. 증자. 자자. 맹자. 정자. 주자)와 우리나라 성현 최치원을 위시하여 18현 위패를 모시고 성균관에서는 국왕이, 지방고을에서는 지방 수령이 초헌관이 되어 거국적으로 매년 춘추 석전추모제를 거행하여 내려왔다. 그러한 가운데 지방 수령이 부임하게 되면 우선 향교에서 고유례 봉사를 하여 오던 중 조선조 폐망과 아울러 일제 시기를 거쳐 8.15 해방, 6.25동란으로 인해 향교에서 거행하던 유림교화사업이 마비되어 전통을 이어오지 못하게 된 것이다.

문향의 고장 파주의 교하향교는 대성전과 동무. 서무. 명륜당. 동재. 서재가 두루 갖추어져 있어 1983년 9월 19일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 11호로 지정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역대 군수와 시장이 매년 석전추모제의 초헌관으로 봉행하여 왔으나 취임고유례는 거행하지 못하던 차에 지난 8월 11일 이인재 파주시장은 교하향교에서 시초로 취임고유례를 봉행하였다.

교하향교 전교 신낙범은 이날 “지방자치 이후 파주시장을 위시하여 도,시의회의원 취임고유례 봉행을 거행하게 됨에 있어 참으로 감사하다.”는 환영인사를 하면서 향교는 예로부터 공맹자 도의선양제도를 하고 있어 예절교육 및 한문, 서예 등 명륜회관에서 유림선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파주시민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유도진흥발전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요청을 하였다.

* 파주문화원 고문

파주시장 이인재와 파주문화원장 민태승, 파주유림총연합회장 이하용씨는 ‘우리 고장의 유림지도자들이 공맹자 도의선양교육을 철저히 인식하고 유림사업에 기여하는 유림지도자들을 보고 감명깊게 생각하며 유림행사가 많은 우리 고장을 더욱 도의선양으로 승화시키는데 전념하고 청렴결백한 시정과 유교 진흥발전에 매진하겠다’는 간곡한 고유축사를 각각 천명하였다.

교하향교 대성전 앞에서 유림지도자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한 고유례를 봉행하게 된 것은 유교정신이 선양되는 자리이면서 아울러 우리 지역의 번영을 기원하는 행사의 자리였다. 아무쪼록 우리 시를 대표하는 파주시장 및 시·도의회가 타의 거울이 되기를 바라며 훈훈한 인덕과 시정을 펼쳐 더욱더 발전하는 파주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

다음은 고유례 축문이다.

파주시장^금 및 도시의원^원 취임^{취임} 고유^{고유} 문^문
坡州市長及道市議員 就任告由文

유^유 維

공자가 탄생^{탄생} 이 천오백 육십 일 년 세 차 경인 칠월 임진 삼초 이 일 계사^{계사}
孔夫子誕降二千五百六十一年歲次庚寅七月壬辰朔初二日癸巳

파주시장^{파주시장} 이인재^{이인재} 감소고우^{감소고우}
坡州市長 李麟載 敢昭告于

대성지성^{대성지성} 문선왕^{문선왕} 복이^{복이}
大成至聖 文宣王 伏以

대성지성문성왕 이시여 앞드려 생각하온대

지방자치^{지방자치} 시민투표^{시민투표} 선거결과^{선거결과} 파주시장^{파주시장} 금^금
地方自治 市民投票 選舉結果 坡州市長 及

지방자치로 시민이 투표하여 뽑은 결과 파주시장과 도시의원님들께서는

도시의원^{도시의원} 이보성^{이보성}은 과이^{과이} 당선^{당선} 성전^{성전} 감전^{감전}
道市議員 以報聖恩 被以當選 聖殿感傳

성현의 은혜를 힘입어 이에 당선이 되었기에 영전에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금^금 자 취임^{취임} 금일^{금일} 파주시장^{파주시장} 금^금 도시의원^{도시의원} 이^이 명^명
今茲就任 今日 坡州市長 及 道議員二名

이제 취임을 하고 금일 파주시장과 도의원 2명

市議 員 十 一 名 參 席 敢 見 虔 告 謹 告

시의원 11명 참석하여 감히 성현 앞에 정성껏 고하고 삼가 고하나이다.



이인재 파주시장이 고유례를 행하는 모습



교하향교에서 고유례를 행한 후 대성전 앞에서 전체 기념촬영

문화
사랑방

임진강 황포돛배

도창회*

임진강 두지나루
황포돛배에 몸을 실으니
삼삼한 만추의 냉기가
빈속을 얼리지만
강변 산언덕 고운 단풍에
눈길 빼앗겨 추운 줄 모르겠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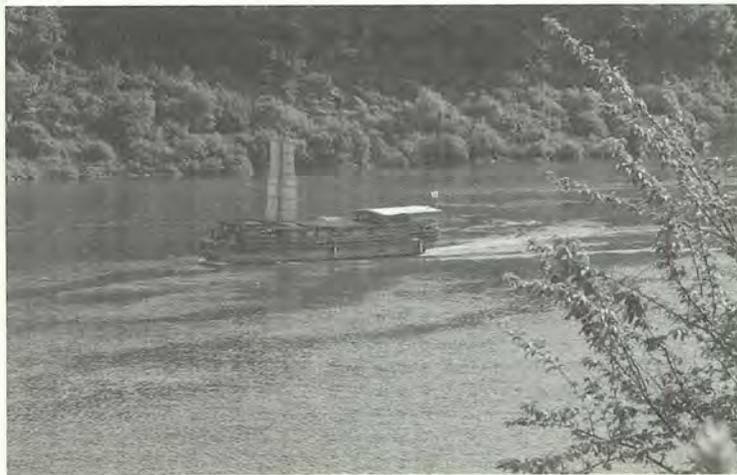
자장리 적벽에 핀 검붉은 이끼는
천만년을 견딘 세월의 얼룩매인가
검푸른 물이랑이
적벽 발목을 붙잡고 감도는 장관
어느 명화인(名畵人)의 안목에
화폭대상이 되었다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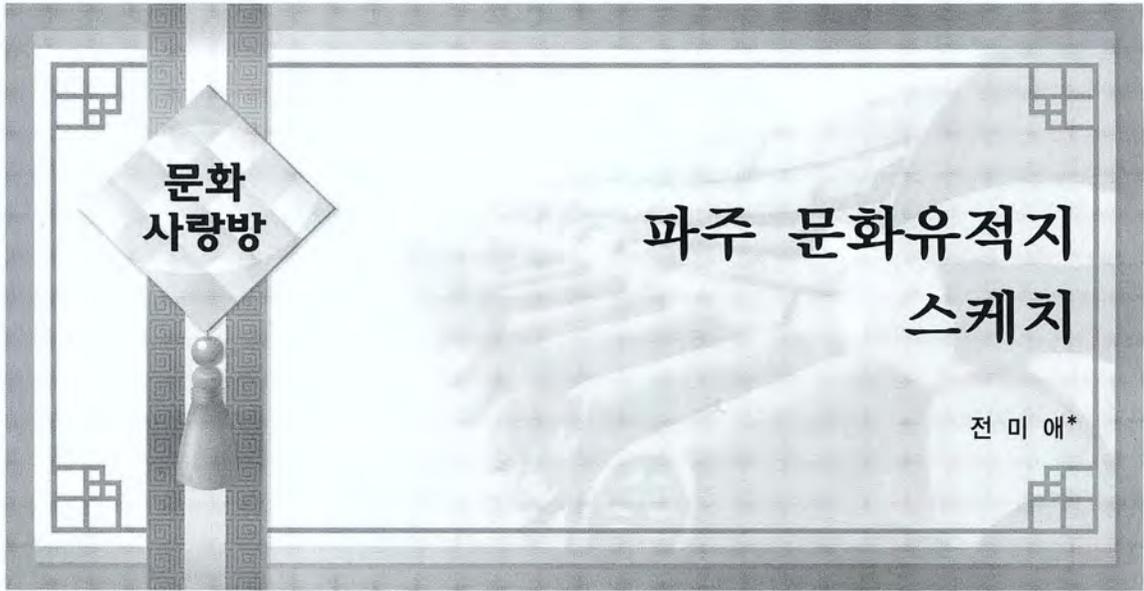
무심히 눈을 들어 사방을 살피니
멀리 너른 들판에 우뚝 솟은 재미산이
손 안에 잡힐 듯 다가온다
산속에 호로고루성이 있다는
사공이 전하는 말에

* 시인, 파주문화원 문예창작 강사

슬몹 흥심이 발동하네
낭창대는 물이랑 위에
날빛 받아 일으키는 금보라 눈 시려
내 속을 간질인다
문득 고개를 들어 청공을 살피니
철새떼가 북으로 흐른다
무심코 벨는 말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사나
이 풍류를 모르고 살다니」

한때 문전성시를 이루었던
고랑포구는 간곳없이 사라지고
여울목에 강물소리가
옛시절 호황을 귀엣말로 전한다
노을 지핀 서녘하늘에
바람 탄 황포돛배
푸른 창파에
두둥실 떠가고
유장한 세월 속에 문힌 몸
잠시 세상시름 잡고
강상 풍류나 즐기고져.





<민시조>

I. 반구정에 서서

하늘이 내려오고
푸른 숲이 솟아 오른다

청산 닮은 청림결백
빈터 지키는 황희정승

갈바람
구비 구비에
머리 조아린 갈매기떼.

II. 윤관 장군을 기리며

장군의 호령
깃전을 울려대고

* 시인, 파주문화원 이사

여진족 벌벌 떨던
문무(文武)공신 대원수(大元帥)
그날의
승전고 소리
산허리를 감는다.

Ⅲ. 용미리석불입상 앞에 선 불심(佛心)

하늘을 이고 선
돌갓 쓴 부처님은
미소 띄운 그 얼굴에
번뇌망상 감추시고
연꽃등 길을 밝히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Ⅳ. 역사의 뒤편길 공릉 순릉을 걸으며

사적 205호
무덤은 화려한데

미처 피기도 전
숨저간 어린 자매

영화는
구름 같은 것
슬피우는 배국 소리.

Ⅴ. 화석정에 오르며

오백년 역사문헌
느티나무 숨결 따라

누각에 올라서니
임진강 적막한 북녘

강물도 모로 누워
한숨쉬며 흐른다.

VI. 덕은리 지석묘에 핀 진달래

다져진 세월들이
돌베개로 터를 잡고

철없는 진달래
속살터지도록 웃고 있다.

묵묵히 잠든 영혼들
꽃이 지는 소리 들린다.



문화
사랑방

노랫말에 담은 고향 이야기

堂谷 이 은 섭*

◇ 끊겨진 뱃길

1. 임진강 뱃길따라 오고가던 황포돛대
그누가 끊어놨나 다시 한번 이어보세
삼도품* 굽이치며 서해바다 오갔는데
연평도 조깃배는 언제 다시 오시려나
한뼉한 원한일랑 강물따라 흘러시고
이제는 힘을합쳐 옛날뱃길 오고가세

2. 한강물 뱃길따라 오고가던 황포돛대
그누가 끊어놨나 다시 한번 이어보세
그옛날 삼도품*엔 물새들도 춤을췄고
흥겨운 뱃사공에 콧노래도 그림구나
어허야 어여디어 어여디어 어여디어
손모아 빌어본다 해신이여 살피소서

(2005.2.18)

*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 서해로 나아가는 합수지역. 작사자에 따르면 황해도 개풍지역에서는 세 물결이 모여 풍년을 들게 한다는 의미로 '풍년·풍'자를 써서 <삼도풍>이라고도 한다.

* 前 남장단군민회장

◇ 휴전선

후미진 골목길엔 삭풍이 불고
으악새 사잇길엔 옛새가 운다
포화성 멎은지 오래이거늘
무엇이 뒤틀려서 아우성인가

황노루 산토끼가 뛰어놀던 재
망루지기 눈망울만 휘몰아 친다

참외 오이 넘쿨따라 흐르던 인정
뒤엎킨 철조망이 활취어 버렸네

옹기종기 살던집터 오간데 없고
잡초만이 삭풍따라 속삭이누나
(1992.11.9)

◇ 사포의 하루*

汶山별 잠마졌다 아우성치고
交河별 더 달라고 달구질하네
할 일은 泰山 같이 쌓여 가는데
이 내 몸 열두개로 조각 내어서
가려운데 굶어주고 어루만져서
한맺힌 매듭들을 풀어 나가리

* 사포의 하루는 2000년대를 전후해 발생한 문산 수해와 교하 신도시 발표 당시 송달용시장을 기리며 파주의 기억을 노랫말로 옮긴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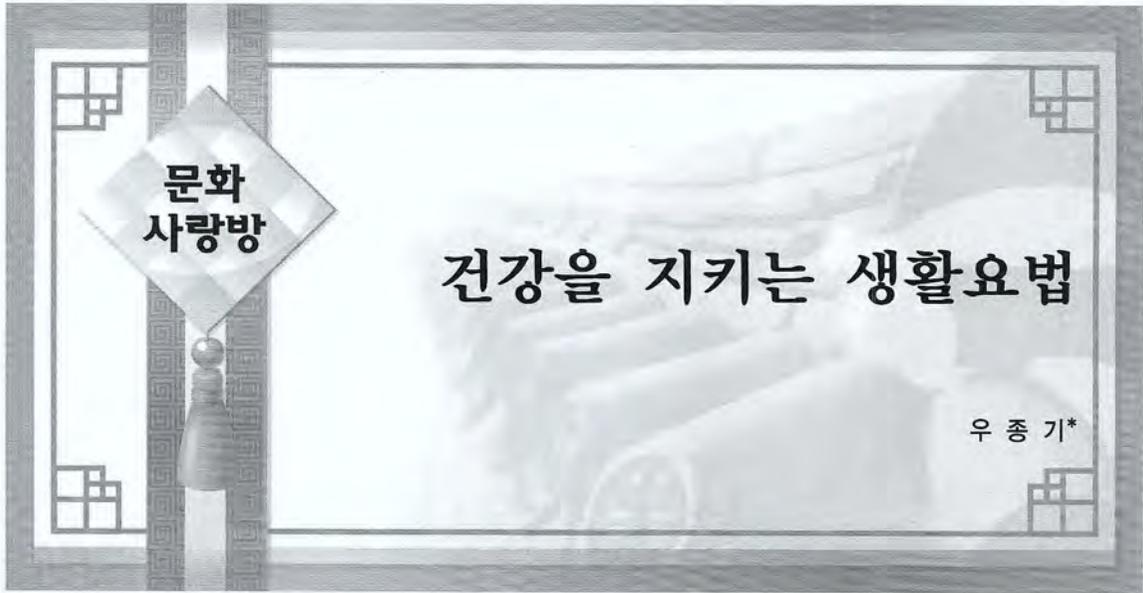
◇ 避難民 恨歌(靈歌)

三八線은 누가 긋고

휴전선은 누가 그었나
 이웃 동네 왜놈인가
 서쪽 동네 퇴놈인가
 무엇이 뒤틀려서
 못된 짓을 일삼는고
 한맺힌 백의민족
 그렇게도 부럽더냐
 왜놈들은 수탈하고
 퇴놈들은 조공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공녀마저 바쳤거늘
 네놈들이 가져가도
 영혼만은 안될치니
 반만년 공든 탑은
 길이길이 간직하마
 天神이요 地神이요
 海神인들 모를손가
 먼훗날 다시보자
 사랑으로 갚으련다
 백의민족 갈라놓고
 갈기갈기 찢긴 강토
 언제 다시 봉합하나
 기다리자 기다릴게
 억만년도 기다리마!

(2011. 02. 16.)

<편집자 주> 위의 노랫말들은 장단면 점원리에서 태어난 작자(作者)가 실향민으로서 겪은
 분단의 아픔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추억 등을 떠올리면서 지은 것들이다.



◇ **환경이 질병을 발생 시키고 환경이 질병을 치료한다.**

사람은 자연계 속에 살기 때문에 자연환경의 영향을 가장 크고 민감하게 받는다. 바람이 많으면 감기, 중풍, 위장질환, 신경과민, 근육통이 나타나고,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감기, 몸살, 냉증, 관절통, 신경통, 근육통, 신장, 위장장애, 고혈압, 심장병, 등이 나타난다.

날씨가 너무 더우면 더위 질환에 걸려 무기력하고, 습기가 너무 많으면 신체가 무겁고 관절과 근육이 무거워 움직이기 어렵고 동통이 생기고 심장과 대뇌에 혈액 순환이 잘 안된다. 또한 지나치게 건조하면 호흡기, 피부질환이나 기관지, 알레르기 질환이 많아지고, 화열이 많으면 발열, 무기력, 두통, 흉통 등이 나타난다.

◇ **매일의 기후, 환절기, 사계절의 기후가 질병을 발생시킨다.**

인간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오염되지 않은 물, 맑은 공기, 밝은 햇볕, 좋은 기후, 적당한 음식과 운동, 좋은 인간관계, 적당한 스트레스와 여가선용 등의 조건이 맞아야 건강을 유지 할 수 있다.

이중에서 특히 햇볕도 적당히 쬐어야 하고, 가급적 맑은 공기 속에서 살아야한다. 음료수는 오염되지 않은 좋은 물이어야 하고, 주거 환경도 잘 맞추어야 한다. 이 분야는 풍수지리의 양

* 수지침요법 및 금강자세교정사

택법을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좋아야 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정신적인 질환은 피할 길이 없다

좋은 환경을 인간이 고르거나 맞추되 그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과 음식, 체온 보호이다. 이것을 잘 조절 해 주어야 무병장수 할 수 있다.

◇ 건강, 장수하면서 아름다움을 관리해야 한다.

모든 이들이 좋아하는 노인이 있고 싫어하는 노인이 있다. 나이 먹어 늙은 것도 서러운데 일반 사람들이나 가족으로 부터 푸대접을 받으면 참으로 서운한 일이다. 과거의 노인들은 대접만 받는 노인, 대접을 받으려는 노인, 노인에게는 봉사만 해야 한다는 개념들이 있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대우를 받으려면 대접 받는 만큼 상대방에게도 무엇인가 베풀 줄 아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말 한마디라도 격려와 위로, 희망적인 말과 이상적인 말이나 육체적 노동으로 보답하거나 물질적으로 보답하여 베풀면 가족은 물론이고 그 외의 사람도 모두 좋아하게 된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갈수록 부지런한 것이 좋다. 게으르면 만사가 귀찮고 건강과 주변관리를 잘 할 수 없다.

나이가 들어 직업을 갖는다는 것도 중요하고 노동하는 것도 좋으나 주변의 모든 일을 스스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잠자리 정리, 옷정리, 청소, 목욕, 두발, 손발의 청결과 미용에도 관심을 갖고 행해야 하고, 웃도 단정하게 입고, 행동도 활발하게 할수록 좋다.

그리고 나날이 무엇을 할 것인가 목표와 목적을 세우고, 일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고 남에게 의지하려는 것보다는 독립적인 의지력이 중요하다.

노인이 되면 자신의 할 일을 정하고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이 좋다. 취미생활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글씨 쓰기, 그림그리기, 바둑, 장기, 노래부르기, 시조율기, 가벼운 등산, 여행 등이 있다.

노인이 될수록 고집과 욕심과 말을 줄이는 것이 좋다. 이상하게도 나이를 먹을수록 고집이 세다고 한다. 자기주장을 강조하면 되지만 주위 사정이 그렇지 못하면 양보, 양해하려는 것도 미덕이고 욕심은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다.

이제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즐겁고 건강하게 사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고 현실에 만족 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말이 많아진다. 모든 말은 간단명료하게 한두 마디만 하면 젊은이들은 바로 알아듣는다.

노인들이 말을 할 때 스스로 나이 들고 늙었다고 노인이라고 표현할 때 듣기가 매우 좋지

않다.

90세 노인이 되어서 강연이나 말을 할 때에도 노인, 늙은이 티를 절대로 내지 말아야 한다.

◇ 부지런히 움직여야 건강해진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까지 편한 것, 움직이지 않는 것을 좋아했다. 가정에서도 부모를 편히 모신다며 가급적 운동이나 노동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직장에서도 상관들은 움직이지 않고 모든 일을 부하 직원들이 모두 처리하였다.

움직이지 않고 지내는 것을 최고의 삶으로 생각한 것은 왕조 시대의 부산물인 것이다. 사대부 양반들은 잔일도 하지 않고 모두 하인을 시켰다. 심지어는 음식까지 먹여주는 풍습도 있었고, 옷 입고 목욕하고 출입할 때 신발을 신는 것도 양반들은 손발을 최대한 움직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양반사회의 풍습을 본받아 지금도 윗사람에 대한 최고의 대접, 자신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 중의 하나가 가능한 움직이지 않고 사는 것에 목표를 둔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도 가능한 움직이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인생의 가치로 생각해서 한국 사람들은 매사에 잘 움직이지 않고 운동도 가급적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운동이 부족하면 많은 질병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운동 하려는 사람이 많아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편하게만 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편한 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질병이 더욱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수많은 신경 질환과 검사상에 나타나지 않는 질병들은 대부분 운동 부족에서 온 것이다.

이런 질병 환자들은 적당한 운동으로도 신경성 질환이나 검사상 나타나지 않는 질병들은 없어지고 건강을 유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운동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기능개선을 하고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 요법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 ① 신진 대사를 위하여 운동을 꼭 해야 한다.
- ② 모든 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위해서 운동을 꼭 해야 한다.
- ③ 체온의 발생과 체온의 보호유지를 위해서 운동을 꼭 해야 한다.
- ④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꼭 해야 한다.

◇ 음양오행론(陰陽五行論)

인체의 모든 기관과 세포는 합목적(合目的)인 작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내장이 각각 독립된 기능과 조직을 가지고 있으나 모든 작용은 생명체를 건강하게 유지 하는데 하나의 통일된

작용(作用)을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인체(人體) 내장(內臟)의 핵심 구성요소인 육장(六臟)과 육부(六腑)도 개체별로 독립(獨立)된 기능(機能)과 작용을 하고 있으나 모든 목적(目的)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다.

인체(人體)의 장부(臟腑)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기본요소이다. 각 장부나 기관은 합목적(合目的)인 작용(作用)이 아니면 균형이 깨짐과 동시에 통제기능이 상실되어 암세포와 같이 되어 일찍 사망하게 된다.

각각 장부가 독립된 것 같이 작용하면서도 질환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질환을 발생시키는 관계가 합목적(合目的)인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이지만 여기에는 어떤 일률적인 규칙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내장은 하나의 독립된 기구로서만 기능과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기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 고려수지 요법에서 음양오행을 도입하여 구체적으로 연구 발전시켜 이용하고 또한 실험에서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 고려수지요법의 병리학

① 정신안정론

동양철학의 무극 태극 음양이론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인체에 결부시켜서 파악하는 이론이다. 무극(無極)은 무아의 상태로서 아무생각도 없이 순수한 정신상태로 최상의 상태를 말한다.

태극(太極)은 정신 집중력이 최고 향상되어 일념의 상태를 유지하는 안정된 상태이다.

무욕무아의 상태이고 잡념이 일절 없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에서 무아(無我)는 정신안정의 표지라고 하며 태극은 어떤 사물에 대하여 생각은 하되 마음에 혼란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런 상태에서는 음양에 해당되는 심현(心賢)의 작용이 잘 조화되어 수승화강이 잘되고 자율신경계가 잘 조화되며 혈액순환이 조화를 이루어 장부와 모든 백회와 사지의 골절과 모든 기간이 정상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

만약 잡념이 많아져서 정신안정이 안되면 긴장, 흥분, 정신혼란이 되어 자율신경은 부조화로 긴장, 흥분, 수축, 억제로 조화를 잃게 되며 심(心)은 흥분하고 신수는 부족해서 허약해지면서 손발은 차지고 긴장된다.

따라서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어 장부와 기관과 사지백회가 불편해져서 질환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때는 자극은 정신안정을 회복시키는데 있다. 그러면 심신과 장부 기관은 조화를 찾아서 질환이 회복되나 장부사이에 큰 부조화가 된 경우에는 스스로의 정신조화로서 회복이 곤란하다.

이와같은 정신안정의 상태는 두부로 상행하는 총경동맥에서 파악하는데 추골동맥은 진단이 불가능하므로 요골동맥에서 파악한다.

◇ 정신력 증진과 아름다운 정신의 유지

건강한 신체에서 올바른 정신이 나온다는 말과 같이 신체는 정신을 보호 유지하여 주는 근간이다. 만약 신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정신도 질병 상태가 된다. 사람의 간장이 흥분하면 웃고 떠들게 되고 비장이 흥분하면 고민을 하고 간장(肝臟)이 흥분하면 슬퍼하고 신장이 흥분하면 두렵고 무서워한다. 그러나 오장이 편안하고 안정이 되면 정신력도 지극히 편안해진다.

그리고 자세가 삐뚤어져 있으면 척추자세도 삐뚤어지고 두뇌도 나빠지고 이어서 대뇌가 불안정하므로 현기증이나 빈혈, 편협한 생각과 두통, 신경과민증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내장의 기능을 먼저 조절시킨 다음에 정신력이 노쇠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신체적 자세가 불안정한 것은 발지압 판을 지속적으로 밟으면서 팔성혈 요법을 이용하고 장부 허실에 따라서 보사법을 쓰도록 한다.

그리고 성격이 까다롭고 정신의 상태가 수시로 자주 변하는 사람들은 역시 오장이 허약하고 불안정해서 발생한다 하여 수지침요법을 실시하면 성격이 유연해지고 여유가 있어 명랑해지고 고통도 한결 덜 느낀다.

고령이 될수록 허약하기 때문에 신경이 매우 과민해져서 노하기 잘하고 쉽게 슬퍼하고 우울해지고 많은 고민을 한다. 그리고 건망증도 자주 일어나고 작은 충격에도 두려워하고 쉽게 피로해진다. 그래서 고령자들은 복잡하게 신경을 쓰면 곧 어지럽고 두통이 발생하고 심하면 뇌질환을 일으켜 졸도까지 한다. 그리고 건망증까지도 발생하여 차의 문을 분명히 잠겼는데 되돌아서 잊어버리거나 볼펜을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잊어버리거나 약속시간을 깜박 잊어버리는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다보면 마음이 항상 불안정해지고 불면증에 시달린다. 더욱 심하면 치매증까지 나타난다. 치매증은 공연히 심술, 투정을 부리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아들보고 아저씨, 며느리 보고 이웃집 아주머니 등으로 보고, 간혹 졸도하는 것 등을 말한다.

중풍에 걸리면 거의 모두 치매증에 걸린다. 이 치매증은 회복하기는 어렵기는 하나 경증은 수지침요법으로 치료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모두 정신적 노화 현상이다. 이러한 정신적 노화현상들은 먼저 내적인 기능이 노화하면서 외부로 나타난 것으로 정신력이 약해지면서 내장기능과 외부에서도 노화현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외부의 노화현상을 방지하고 회복하는 것보다 먼저 정신적인 노화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이러한 정신적인 노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지침 요법을 이용한다.

운문 ... 초저부 장원

청석초등학교 2학년4반 김 은 지

“가을아! 고마워!”

흠흠...
무슨 향기지?
풀내음인가?
산에서 불어오는 향기인가?
가을이가 이사오면서
선물 꾸러미를 갖고 찾아왔네.

내가 제일 사랑하는
높고 파란 청명한 가을하늘.
눈이부셔 쳐다볼 수 없는
흰구름을 그려넣은 파란하늘
나무들 사이로 살짝살짝 비치는
가을햇살.

여름이가 이사 가고 가을이가 찾아온 뒤로 부는
향긋한 풀내음을 실은 시원한 바람. 나무에 입혀줄
색동옷까지...
고맙대! 가을아.

가을이가 겨울이에게
빨리 오라며 자꾸 손짓하네.

가을아!
이사갈 때 그냥 훌쩍 떠나지 말고
나에게만이라도 얘기해주고 가려무나.

시집가는 가을하늘

가을에는
하늘이 시집가나봐.
파랗게 화장도 하고
구름 무늬로
장식도 했잖아?

어어?
이것봐라?
고추잠자리로
연지, 곤지까지
찍었네?

어느새
바람 가마까지
불렀구내!

신랑은 누구니?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걸 보니
아주 높은 곳에 있는
분이겠지?

가을하늘아!
시집가도
자주자주
놀러오렴!

예 너 너 화 제 예 너 너 예 너

운문 ... 중등부 장원

파주중학교 2학년 오 태 경

형제 강

강은
어디서 시작 하는가
어디서 끝이 나는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북에서
남으로 남으로
계속해서 흐르는 강

마치 돈 벌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해
헤어진 동생에게 가기 위해 힘쓰는 형처럼

남에서
북으로 북으로
흐르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
북에 가까이 위치한 강

마치
돈벌러 간 형을 기다리는
동생처럼

이 두 형제강은
바다 근처에서
드디어 만나
서로 얼싸 안는다

이 형제강은
따스한 부모같은 바다란 곳에서
영원히 헤어지지 않음을 다짐한다.

오늘도
형제강은 서로를 만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인다.

쫄맨이의 가을

우리쫄맨이에게 가을이 왔어요.
노을진 가을하늘에 두 눈이 휘둥그레
오늘은 모하노 모하노 보니
빠알간 고추잠자리 맘에 들어
살금살금 다가가다 뒤뚱뒤뚱 걸어가다
파당, 결국엔 울음표

우리쫄맨이에게 가을이 왔어요
단풍이든 나무보니 두 눈이 휘둥그레
어제는 모라카노 모라카노 보니
분홍옹 코스모스 맘에 들어
살금살금 다가가다 뒤뚱뒤뚱 걸어가다
응? 결국엔 웃음표

윤문 ... 일반부 장원

오 은 희 (파주시 조리읍)

둘레길에 서있네

깊이 알까 두려운 맘
 모든 것 드러나 부끄러워 숨을까
 배려의 사랑
 알고싶어, 느끼고 싶어도
 감정놀러 인내하며
 둘레길에 서 있네

그것이 사랑인줄
 가까이 가지 않는 배려
 그것이 사랑인데
 가슴속 당신마음 알고 싶어도
 더 가까이 가지않고
 둘레길에 서 있네

알고나면 슬플까
 더 알면 힘들까
 하늘하늘 층층꽃
 애처로이 서 있는
 반음지의 둘레길
 그 곳에 서 있네.

그래도 행복해
 바라볼수 있어 감사한걸
 둘레길에 서서,
 오늘은 웃으며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씩 알것같아
 요동치는 가슴으로 둘레길에 서 있네.

산문 ... 초저부 장원

금릉초등학교 3학년2반 조 수 훈

가을에는 파주로

가을하면 떠오르는 것은 너무나 많다. 맑고 높은 하늘, 눈부신 햇살, 황금빛 들녘, 추석, 단풍구경, 낙엽 등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 내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울곡문화제이다. 1학년때부터 울곡문화제에 참가했던 나는 이곳에 와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돛자리 위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 온 가족이 꼭 특별한 전통놀이 소풍을 오는 기분으로 울곡문화제에 오면 저절로 들려오는 국악소리는 너무나 즐겁고 흥이 난다.

울곡 이이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교육을 하시던 자운서원도 나에게 아주 익숙한 곳이다. 법원리에 살고 있는 이모 덕분에 5살 때부터 다녀갔었다.

작년 가을에는 학교에서 파주유적지를 둘러보는 소풍을 갔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가 윤관장군묘와 화석정이다. 특히 화석정에 올라가 내려다 본 임진강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임진강이 굽이굽이 휘돌아 흘러가는 모습이 너무나 멋져 보였다. 화석정에서 울곡 이이 선생님께서 시와 학문을 공부하고 제자들을 교육시켰다는 안내문을 보고 나도 이곳에서 훌륭한 스승님과 공부를 하면 어렵고 복잡한 수학문제도 머리에 쏙쏙 들어올것 같았다. 화석정 정자에 앉아 바라본 임진강의 모습이 너무나 멋져 나는 핸드폰으로 사진도 찍어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7살 때는 황포돛배를 타고 임진강을 따라 내려가 본적이 있는데, 임진강에 그렇게 많은 이름모를 바위와 멋진 전경이 있는 줄 몰랐다. 다시한번 기회가 되면 임진강에 있는 황포돛배를 타고 서해바다까지 가보고 싶다. 그리고 보니 울곡 이이 선생님과 자운서원, 화석정과 임진강은 항상 같이 생각이 나는 듯하다.

가을에는 역시 오순도순 가족이 모여 울곡문화제에 참가하고 황포돛배 타고 임진강 여행을 떠나 보는게 최고이다. 가을에는 파주로 꼭 여행 오세요!

울곡문화제
옛날의 옛것

산문 ... 초고부 장원

파주외동초등학교 6학년 1반 김 나 윤

임진강은 평화를 심고

나는 남과 북으로 분단된 내 나라 대한민국 파주에 살고 있다. 임진강을 경계로 나뉘어진 남북한은 물줄기를 따라 60년의 세월을 흘러 보냈다. 옛부터 임진강은 경치가 아름다워 많은 문인들이 그 아름다움에 대해 노래하고 왕 또한 아름다운 경치에 반해 임시 도읍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아름다운 환경과 분단되어 만들어진 DMZ 덕분에 희귀한 생물들의 천국이 된 곳이기도 하다. 그 아름다운 임진강 너머로는 북한이 보인다. 누구에게는 그저 경치 좋은 강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아픔을 담고 있는 '눈물의 강'이기도 하다.

임진강의 자유롭고 찬란한 물줄기는 남과 북을 아울러서 흘러 내리는데, 사람들은 서로의 이기심 때문에 남과 북이 나뉘어져서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남과 북의 사람들은 서로 그리워하며 60여년을 보냈고, 생각과 말조차도 다른 이민족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

얼마전에도 천안함 침몰 사태로 남과 북은 대치했고, 각종 무기들과 협박들로 서로를 잡아먹기 위해 입싸름하고 위협하고 있다. 며칠전 있었던 남북 회담에서도 서로의 잘못 가리다가 회담은 별소득이 없이 끝나고 말았다.

왜 사람들은 임진강 물줄기처럼 서로 아우러져 자유롭게 흘러가지 못하는 것일까? 임진강처럼 가족들에게 사랑과 기쁜 소식의 메신저가 될 날은 언제나 올까? 조금이라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사랑해 주며 양보를 하면 남과 북이 어우러져 발전되고 평화로운 세상을 임진강에 실어 보낸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이 나뉘어져 살고 있다. 임진강과 DMZ에 사는 우아한 새와 경중경중 뛰어다니는 노루, 하물며 곤충들까지도 자유롭게 남과 북을 오가는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만이 자유롭게 남북을 넘어다닐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힘쓰고 있다. 임진강 줄기를 따라 나뉘어 생겨나고, 돛단배를 타고 남한과 북한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 웃고, 이야기하는 그날은 언제 다시 올까? 그 날이 빨리 오도록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해 힘써야겠다. 이 땅에 사는 새들 또한 우리의 이런 마음을 북한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으면 좋겠다.

단축키 3번

따르르릉~ 따르르르릉~

오랜만에 집 전화기가 울렸다. 할머니셨다. 강릉에 사시는 할머니가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집에 오신다는 소식이었다.

할머니가 오시면 먹을 이런저런 맛있는 음식과 받게 될 용돈을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졌다. 나는 할머니가 오시기 이틀 전부터 들떠서 매일 엄마에게 물어왔다.

“엄마, 엄매! 할머니 언제 오세요? 내일? 몇 시에?”

그리고 드디어 기다렸던 그 날이 왔다. 학교에 가지 않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할머니를 기다렸다. 이른 아침 할머니와의 통화를 다시 떠 올리면서,

“할머니 3시에 도착할 것 같다.”

그러나 3시가 지나고 4시가 되어도 5시가 되어도 할머니가 도착하지 않으셨다. 나를 포함한 우리 가족들은 모두 초조해졌다. ‘왜 연락이 없으시지?’ 하고 생각하면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그 순간이었다. 할머니께 휴대폰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들 가지고 있는 그런 휴대폰을. 이 사실을 알게 되니 매우 부끄러웠다. 할머니께 좋은 휴대폰을 사드리지는 못할망정 먹을 것과 용돈만 생각했던 내가, 좋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꾸고 싶다고 매일 칭얼던 내가 미워졌다. 그리고 할머니께 죄송했다.

얼마나 더 지났을까. 할머니께서 나와 동생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났다. 정말 너무나 반갑고 기쁜 마음에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뛰어나갔다.

“할머니!”

할머니는 짐을 옮기시면서 버스가 타이어 펑크가 났었다고 말씀하셨다. 다음 날이었다. 나는 엄마께 할머니께 휴대폰을 장만해 드리자는 말을 꺼냈다. 엄마께서도 안그래도 그런 생각하고 있으셨다며 내 의견에 찬성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뒤통을 뚫고 할머니를 모시고 휴대폰 가게로 갔다. 할머니를 위해 휴대폰을 고르면서 이런 생각을 늦게나마 해서 다행이다라는 기분이 들었다. 이제는 이번처럼 사고가 생기면 바로 연락이 될 수 있으니 걱정이 사라지는 듯했다. 휴대폰을 개통하고 나서 내가 처음으로 벨을 울려드렸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 휴대폰에 번호를 등록했다.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번호인 3번 단축키에 할머니 번호를 등록했다. 아쉽게도 할머니의 휴대폰에는 내 폰 번호가 6번으로 저장되었지만 아무래도 좋았다. 할머니께 휴대폰을 드리면서 약속했다. “할머니, 제가 앞으로 꼬박꼬박 전화 드릴게요, 약속!”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단축키 3번을 눌러본다. 오늘도, 내일도, 다음 달도.

산문 ... 고등부 장원

삼광고등학교 1학년 이정연

임진강의 눈물

산, 들, 강. 정말 한적하고 조용하다. 내가 이사 온 우리 동네의 첫인상이었다. 내가 살던 파주와 지금 이사 오게된 원당리를 이어주던 작은 임진강 다리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 아름다운 절벽을 끼고 내려오던 푸른 임진강 위를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아래로 떨어질까 무섭기도 했지만 옆에 계시던 할머니의 말씀이 더 무서웠고 신기했다.

“이 강을 타고 쪽 올라가다 보면 너희 할아버지가 계시는 북한이 나온단다.”

‘할아버지?’ 한번도 불러보지 못한 할아버지의 존재는 내 기억 속에 있지 않았기에 할머니의 말씀이 뭘 뜻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 동네 위에 북한이 있다는 말에 전쟁의 무서움이 머릿속을 스쳤다.

아직 남한과 북한은 전쟁을 쉬고 있는 단계이다. 만약 전쟁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 동네는 그림책에서만 볼 수 있었던 회색 빛 잿더미로 뒤덮인 참담한 마을이 되버릴 것이다. 이 아름다운 마을이 그렇게 된다는 모습을 생각을 하니 소름이 돋는다. 그렇기에 TV에서 북한과 관련된 소식이 나올 때, 온 식구의 시선이 TV로 향하는 모습은 당연스럽다.

몇일 전, 동네 은지 언니네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다. 할머니께서는 그 곳을 가기 위해서 아침부터 분주하셨다. 할머니께서는 막 일어난 비몽사몽인 나에게 장롱 두 번째 칸에 있는 할머니 한복을 가져오라고 하셨다. 나는 투덜거리며 눈을 비비고 장롱 문을 열었다. 장롱 구석에 접혀 있는 한복을 꺼내려는 순간 낯선 남자의 사진이 들어있는 한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는 한 여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바로 할머니의 젊은 시절모습이었다. ‘그럼... 이 남자가 우리 할아버지이신가...?’ 비몽사몽 이었던 나는 번뜩 눈이 떠졌고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 날 저녁, 저녁밥을 먹고 주무실 준비를 하고 계시던 할머니 이불 속에 누웠다. 할머니 품처럼 따뜻하고 푸근했다. 이어 할머니는 “이 년이 왜 할미 자리를 뺏어!” 하시며 내 옆에 누우셨다. 할머니의 온기와 향기. 내 몸속에 있던 모든 피곤함이 사라지는 듯 했다. 그리고 나는 하루종일 생각하던 할아버지에 대해서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랑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어?” 할머니는 웃으시면서 “이 년이 잠은 안자고 왜 갑자기 그게 궁금한 거여?” 그러시곤 내가 없었고 엄마, 아버지가 있지 않았던 옛날 옛적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여느 때의 옛날 이야기 처럼 재미 있기 보단 마음속이 몽클해져 오기 시작했다. 이미 자정을 넘긴 한밤중

이었지만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가 자꾸만 내 머릿속을 이리저리 흔들어 놓아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머릿 속에 1950년 대를 배경으로 한 마음 아픈 슬픈 한 영화가 그려졌고 나는 어느 새 잠이 들었는지 창문 사이로 비추는 따스한 햇볕에 눈을 떠보니 어머니는 주방에서 "또 지각 한다! 얼른 안 일어나. 이정연!" 하시며 나를 깨우고 계셨다.

매일 아침처럼 오늘 아침 또한 전쟁 한 바탕이 일어났고 나는 화장실로 얼른 뛰쳐가 씻고 교복을 대충 걸쳐 입고 빵 한 조각을 입에 물고 집을 나섰다. 어머니께 타, 교복 와이셔츠의 단추를 한 개씩 꺼 맞추며 아직 잠이 덜 깬 머릿속 한 구석에서는 어젯밤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그 슬픈 영화 같은 한 이야기가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머니의 차가 동네를 벗어나 임진강 다리 위를 건너고 있었다.

임진강은 여느 때처럼 푸르렀고 어부 아저씨는 그물을 올리고 계셨고, 절벽사이에서 자라나고 있던 꽃들은 이슬을 머금고 있었다. 매일같이 보던 임진강의 아름다움 뒤에 왠지 모르게 가슴 한쪽이 아려온다.

산문... 일반부 장원

조 순 덕 (파주시 법원읍)

『자운서원』에서 결혼을 꿈꾸다.

아들녀석의 백일장에 따라 나섰다. 잔디밭에 돛자리를 깔고 글쓸준비를 해주었다. '가을'이라는 글감으로 정했다. 공공거리는 모습이 제단에는 고심중인가보다.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펴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때로는 멀찍이 자리를 잡고 열심히 사색중이다. 오늘의 주제와 그림들을 구상중일게다. 저 진지한 모습들은... 내 어릴적 팔달산에서의 백일장이 떠오른 건 아들녀석의 나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꼭 그 나이였으니까. 일에 쫓겨 사시던 엄마는 함께할 생각도 하지 못하였다. 나혼자 곳곳이 참가하여 우수상인가를 탔다. 제목은 '운동장' 이었고 우리 큰오빠의 대머리를 빗대어 썼던 것 같다. 글짓기를 유독히 좋아하였다. 글쟁이들은 가난하게 산다며 엄마는 그런 나를 못마땅해 하셨다. 나를 쏙 빼닮은 아들녀석이 배를 깔고 엮드려 글짓기를 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뿌듯한데... 내 엄마는 이곳에 없다. 타인들에게는 유서깊은 이 서원이 나에게는 의미 있는 결혼의 시작됨을 알게해준 장소이다. 기억을 되돌려 십구년전 겨울의 정점 1월9일 아침이 떠오른다. 곱게 차려입은 신부와 신랑은 웨딩촬영을 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다. 무지하게 싸우고 할듯 말듯 위태롭게 걸어온길의 대미를 장식하고자 찾은 한겨울 자운서원의 풍경은 엄숙하고도 정갈했다. 우리 역사속에 등장한 위인중의 학자로는 최고봉의 이이선생을 모신 서원이니 오죽했으랴만 순간, 가슴이 먹먹했다. 옆에 단정히 서있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내가 아들과 함께 엮드려 글을 쓰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의 결혼은 시작되었다. 감회가 새롭다는 표현은 이럴때 쓰는거지 싶다. 이 땅의 위대한 학자는 또 그 옆에 더 훌륭한 어머니가 계셔 가능했던 것이 아니었나 싶다.

나에게도 사임당의 정기가 흘러 위대한 아들로 성장시킬 수 있기를 빌어본다. 축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사물놀이의 팽과리 소리가 귀를 울리고 있다. 아들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고 딸애는 연신 휴대폰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 그날 나에게 결혼을 꿈꾸게 해준 이곳에서 남편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아들이들이 저리도 많은지... 이이선생의 정기를 저 사람이 가져갔을까? 추향제를 마치신 아버님이 이리로 오고 계신다. 이제 집에 가야겠다. 오랜만에 결혼사진 좀 봐야겠다. 세월을 느끼면서...

제23회 율곡문화제 신시임당 미술제



금상 유예나 (초저부, 금화초)



금상 강수영 (초고부, 와동초)



금상 이혁인 (중등부, 자산중)



금상 경민우 (고등부, 세경고)



장원 윤선민 (초등부, 도마산초)



장원 김성희 (중등부, 금촌중)

제23회 율곡문화제 전국한시백일장

장원

金 敎 熙 (강원도 원주시)

謁紫雲書院更思十萬養兵論

先生諸事預知明

선생은 모든 일에 미리 아심이 밝아서

十萬軍兵奏養成

십만군병을 양성하기 아뢰었다.

內治完全深究策

내치를 완전히 하는데 깊이 연구한 계책이요

外侵防備切希情

외침을 방지하는데 간절히 바란 뜻이다.

惟聽反論妖氛亂

오직 반론을 들어서 요분이 어지러웠고

若納良謀吉運亨

만약 양모를 받아들였다면 길운이 형통했으리라.

今謁紫雲書院日

지금 자운서원 배알하는 날에

更思憂國素心傾

다시 생각한다. 나라 근심하여 평소에 마음 기울인 것을.

제23회 율곡문화제 전국율곡서예대전

대상

최기자

행시호리하리일월청심비회자나일월
호초인청신영천수이치일년삼비호심일
의제사다오회동지학사수사부인영의
수사수상인상행학행망화삼인행수의
명사수사다오지상동차다사수영회다
나그수사다오사수보판사수아수수영
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
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

최기자 작

파주문화원 문화가족 모집

- 향토문화 보존계승과 지역문화 창달을 선도하는 파주문화원에서는 파주지역 문화 발전과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고 계신 문화가족을 모집합니다.
파주문화원 문화가족이 되시면 각종 문화원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파주문화 관련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사 자료 수집

사라져 가는 우리의 전통과 향토문화의 자료를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해당 자료 : 고문서, 전적류, 문집류, 고지도, 문중보관문서, 교지류, 일반향토자료, 행정자료, 교육자료, 유적, 전설, 민담, 민요, 지방유래, 전통놀이 그 외 각종 사진류 및 영상자료 등

파주문화 원고모집

“좋은 책은 좋은 원고에서 나옵니다”

매년 발간되는 「파주문화」에 기고해 주실 참신한 원고를 모집합니다.

- 집필 장르 : 자유선택 (파주의 역사와 문화 관련 내용)
- 집필 분량 - 특별기고 : A4 5장 이상 - 향토의 맥 : A4 3장~4장
- 원고 마감 : 매년 10월 말일
- 보내실 곳 - E메일 접수 : pajuc@hanmail.net
 - 우편접수 : 파주시 아동동 산 31번지 파주문화원 우편번호 413-020
 - 내방접수 : 파주문화원 사무실
- 문의 전화 : 031-941-2425, 031-948-2688
- 원고 보내실 때 유의점
 가. 출판물로 발표되지 않은 신작이 더 좋습니다.
 나. 작품 말미에 반드시 소속과 성함 등을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급하게 연락드릴 연락처나 핸드폰 번호도 꼭 적어주세요.

2010년 제24호
파주문화

인쇄일 : 2010년 12월
발행일 : 2010년 12월
발행인 : 민태승
발행처 : 파주문화원
파주향토문화연구소
(031)941-2425
인쇄 : 승림 D&C
(02)2271-2581

이祥그이신다내아래미포미포고

www.trt-rt.co.kr Handmade Korean Traditional Industrial

瑞성 돌모수·보편·아래아

이호시니이럴씨·헤어호

來령 당다이낫

사사리니을우미

이이잇고내아래미포미포

이이잇고내아래미포미포

瑞성 돌모수·보편·아래아

이이잇고내아래미포미포

이이잇고내아래미포미포

